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 ▶ 책임연구원 : 이해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고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전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의 심화와 불안정한 사회 및 가족구조 등과 같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우리사회의 최근 사회변화 양상은 취약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한 가족 구조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발달과업의 정상적인 달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리 미래사회의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성장과정상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이 횡단적이거나 일회성 조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거나 그러한 변화와 정책이 지닌 인과관계 분석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종단적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관찰이나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종단 조사방법은 그간의 생활이나 의식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변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에 이어 2차로 실시된 2012년 조사의 종단 및 횡단 분석을 통해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였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3개 시설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종단조사의 결과가 이들의 성장·발달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정부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조사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과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일반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패널 대상 1차-2차 본조사 종단분석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의 주요 횡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 지난 1학기 동안 폭력경험은 10.2%로 나타났으며, 폭력경험횟수는 5.57회로 나타났다. 비행경험과는 비슷한 비율이었지만 폭력경험횟수에서는 비행경험횟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전년도에 비해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위인지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각각 77%, 85.9%인 반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50%,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25.7%,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은 9.4%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으며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보다 낮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보다는 높았다. 여섯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시설활동 만족도는 전년 평균대비 상승하였고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시설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점수는 작년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일곱째,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도를 비교한 결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이 나머지 4개 집단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 일곱째, 시설이용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 공부 영역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 선생님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분석결과와 국내외 관련 정책분석결과를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이용시설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종단조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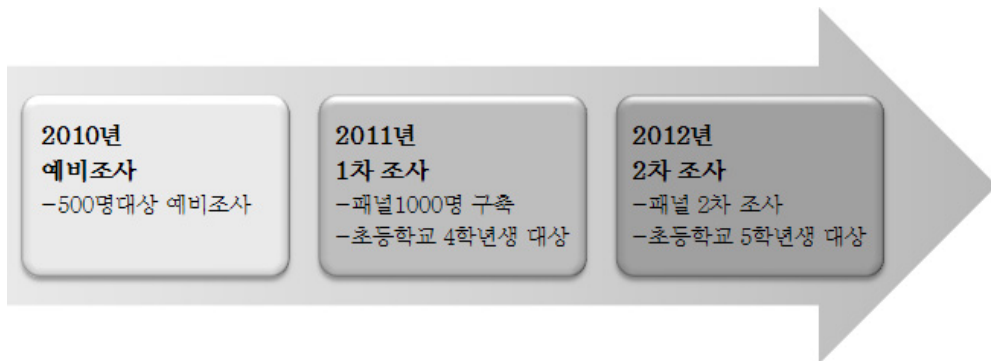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불안정한 사회 및 가족구조 등과 같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우리사회의 사회변화 양상은 취약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한 가족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발달과업의 정상적인 달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이는 미래 한국사회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2010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중단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 2011년 1차 조사를 거쳐 2012년 2차 조사가 실시됨.
- 2012년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11년 1차 본조사 결과와 중단으로 비교·분석하여 지난 1년 동안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 2011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결과와 횡단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일반 아동·청소년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며, 셋째, 2012년 조사에서 이탈된 즉 시설이용 중단 아동·청소년과 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해 가야 할 정책을 제언하는 것임.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구분	패널유지관리	본조사	부가조사(심층면접)	패널유지관리
일정	• 2012.01~06	• 2012.07~08	• 2012.07~08	• 2012.08~12
조사대상	• 1차 본조사에 응답한 패널 1,000명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초등학교 5학년 생 801명	• 시설이용 변화/시설지 속이용 아동·청소년 50명	• 본조사에 응답한 패널 801명 및 접촉 가능 패널 50여명
조사내용		• 일상생활, 신체적, 인 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 기관(시설)제공 서비스 만족도, 이용효과 등	• 시설이용 중단시기/ 사유/시설이용 중단이 후의 생활실태 • 시설 지속이용 경험의 의미	
비고	• 2차 본조사 수행을 위한 패널 유지 관리 활동 • 시설통한 변동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신학기 기념선물 증정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로 아동과 1:1면접조사 수행 • 조사대상응답자 패널 801명 구축	• 1:1심층면접조사	• 3차본조사 수행을 위한 패널 유지관리 활동 • 분기당 1회 전화로 변동상황 확인 • 시설통한 변동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방학 기념선물 증정



【그림 1】 2012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주요내용

- 2차 본조사 실시 : 2011년 조사에 참여했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801명을 대상으로 7월~8월에 CAPI 조사방법을 통해 2차 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분석, 2012년 2차 본조사 조사항목의 경우, 중단 및 횡단비교 분석을 위해 2011년

실시된 1차 본조사 항목에 2011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된 항목들을 추가하여 선정.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1) 일상생활 실태, 2) 신체적 발달, 3) 인지적 발달, 4) 사회·정서적 발달, 5) 기관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6) 인적사항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이용변화/시설지속이용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조사 : 첫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험의 의미”를 분석. 둘째, 2011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을 이용했다가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이용하는 시설이 변화된(시설이용 중단 포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이용변화(새로운 시설 이용, 시설 비이용, 가족 복귀 등)와 관련된 경험”을 분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의 2012년 현재 사업들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미국의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s)와 LA's BEST, 일본의 방과후서비스와 아동양호시설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영국의 방과후서비스 정책, 프랑스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설유형별 지원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모델로 활용하고자 함.
- 2차 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국내의 관련정책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설유형별 발전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양적조사, 질적조사, 정책협의회 및 콜로키움 개최 등이 있음.

3. 주요결과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결과분석

- **일상생활 실태**: 첫째, 컴퓨터 이용시간은 전체평균 대비, 지역아동센터, 남자, 기초생활 수급,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항목별로 보면, 게임/오락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부 및 학습사이트, 학습 외 정보검색, 댓글달기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둘째, 귀가 후 혼자 있는 경우는 61.8%로 나타났으며 ‘1-2일’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이라는 응답도 21.2%로 높게 나타남.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1-2시간’미만이라는 응답이 47.5%,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7.0%로 대부분이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짧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8.6%로 나타남. 아동들이 시설 또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근로시간이 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셋째, 취약아동 패널 중 지난 1학기 동안 비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2%로 나타났으며, 평균 비행횟수는 1.92회로 나타남. 비행경험의 빈도는 ‘2-3회’라는 응답이 44.9%, ‘1회’라는 응답이 35.7%로 나타나 비행경험자 대부분이 3회 미만이었으나 ‘6회 이상’ 비행을 했다는 패널도 7.1%로 나타나 비행을 하는 아동의 경우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경험한 비행의 유형으로는 비행경험 횟수를 기준으로 ‘구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의 무임승차’, ‘학용품비전용’, ‘왕따시키기’, ‘음란물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패널과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의 경험과 경험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시설유형별,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유형과 횟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함을 시사하고 있음. 넷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 지난 1학기 동안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0.2%로 나타났으며, 평균 폭력경험횟수는 5.57회로 나타나 비행경험과 비교해 볼 때 비행경험 응답(12.2%)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경험횟수에서는 비행경험횟수 1.92에 비하면 폭력경험횟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개발 시 아동·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보다는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 **신체적 발달:** 첫째, 수면시간은 전체 이용시설에서 전년도 대비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활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둘째, 주당 아침식사 취식빈도를 살펴보면, 단체생활을 하는 ‘양육시설’의 경우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방과후아카데미, 차상위계층과 사각지대계층, 한부모 가정 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셋째, 질병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치료를 받지 않은

패널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반면, 치료비, 병원, 건강보험,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10.7%나 있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자신의 건강평가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남자, 양친이 모두 있는 아동·청소년이 평균 평가점수 3.29보다 높았으며, 다른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 **인지적 발달:** 첫째, 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전체 과목평균과 과목별 평균 모두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의 성취도가 높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지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가 3.39점에서 3.30점으로 하락하였고 과목별로도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전년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둘째,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2/3 정도의 아동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업성적 만족도에 대한 전체결과는 전년대비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만족도가(2.82) 다른 시설아동에 비해 전년대비(2.90) 눈에 띄게 하락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셋째, 사교육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1/4 정도만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유형으로는 학원이 74.1%로 가장 많았고, 그룹과외(13.0%), 개인과외(10.4%), 인터넷학습(9.3%) 순으로 많았음. 이용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전체 사교육 이용자의 7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영어(64.8%), 국어(36.8%), 사회(32.6%), 과학(32.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시설아동들은 수학과 영어를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넷째, 상위인지력의 전체평균점수는 3.26점 이었고 이용시설별로는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양육시설(3.29), 지역아동센터(3.20) 순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상위인지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가 다른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줌. 전년도 상위인지력과 비교해 보면, 상위인지력 전체평균(3.27)은 전년도(3.48)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이 되고 교과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은 인지력이 요구되는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아동들 스스로도 자신의 인지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다섯째, 문제해결능력 전체 평균점수는 3.41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역시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이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양육시설(3.43), 지역아동센터(3.35) 순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 역시 다른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줌. 문제해결능력 전체평균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이용시설에서 문제해결능력이 하락한 가운데 상위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사회·정서적 발달:**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 전체 평균점수는 3.16점이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교우관계(3.31)와 학교규칙적응(3.29)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관계(3.09)와 학습생활(2.94)의 평균은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이용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한데 비해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생활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3.23)과 방과후아카데미(3.22)에 비해 지역아동센터(3.12)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타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2년 자아탄력성 평균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지난해에 비해 의미 있게 상승한 결과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이용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셋째, 스트레스 전체 평균점수는 2.25점이었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항목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숙제나 시험 때문에’(2.81)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모색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줌. 넷째, 자아 존중감 전체 평균점수는 3.12점이었으며 이용시설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이 3.12로 평균과 같았고, 지역아동센터가 3.08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또래애착의 경우와 같이 자아존중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첫째, 아동들의 시설활동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4.11점이었고 ‘놀이, 문화, 취미활동’(4.27), ‘식사’(4.27), ‘친구들을 사귀는 것’(4.25) 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주요과목 교습’(4.09), ‘숙제, 자습시간’(3.99) 등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와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또한 ‘상담 및 일상대화’(3.89)는 점수가 가장 낮아 상담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시설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시설에서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3.96점이었고 아동양육시설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아카데미가 4.09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는 3.8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동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종사자들의 시설별 근무여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지도자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다소 상승. 셋째, 시설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의 전체 평균점수는 3.8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고 모든 시설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임.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및 저소득층 비교

○ **가족 배경:**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패널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10명 가운데 5~6명 정도 만이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족구성에 있어 취약계층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은 73.4%,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은 68.2%,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75.1%인데 비해 아동청소년패널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은 3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분포도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남. 부모의 직업유무의 경우 아버지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아동·청소년 패널 일반가정에서 99.5%인데 비해 나머지 3개 집단에서는 90% 내외의 수준을 보여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정도가 직업이나 소득 수준은 물론 향후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부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패널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가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상생활 실태:**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각각 77.0%, 85.9%인 반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은 50.0%,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25.7%,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은 9.4%로 나타나, 두 패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취약계층 아동의 사교육 참여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이용에

따른 시간의 부족, 해당 시설에서 학업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시설 이용을 사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독서시간의 경우 5개 집단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독서시간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청소년들의 독서시간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독서시간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사교육 참여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독서시간에서도 일부 집단의 경우에 차이가 있었고,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가 없다는 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학업과 독서 등에서 일반 가정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컴퓨터나 게임기 등을 사용하여 노는 시간에 대한 비교결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나 게임기 등への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있지만, 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이용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을 감독할 수 있는 성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신체적 발달:**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양육시설 아동과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주중 수면시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따른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 **인지적 발달:**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이 되는 10개 과목 가운데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 있어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이 나머지 4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남.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근본 목적이 이용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학습 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정서적 발달:** 학교생활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활동, 학교교직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4개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학습활동의 경우 아동·청소

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동양육시설·청소년 아동들의 학습활동 평균점수는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평균점수는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규칙의 준수에서도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아동·청소년패널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음. 또한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취약계층패널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한 비교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청소년패널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시설이용 아동·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우선 부모의 방임정도에 있어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방임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학대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들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 연구 결과는 1)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 2) 시설에 대한 첫인상, 3) 시설에서의 생활, 4) 시설 이용의 결과(outcome), 5) 시설에 대한 평가, 6)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됨. 먼저, 아동·청소년들은 주로 엄마의 제안으로 시설에 다니게 되었으나 엄마가 시설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아동·청소년은 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수동적으로 시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해서 다니게 된 시설의 첫 인상은 긍정적·부정적 응답이 혼재되어

있었음.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첫 인상이 향후 시설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설을 처음 찾은 부모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노력, 그리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노력 등이 요구됨. 다음으로 시설이용(시설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친구들과, 같은 시설을 다니는 형·동생들과의 즐거운 “놀이”였음. 선생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혼자서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하였고 선생님을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렇다면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는가? 시설이용중단 아동·청소년의 중단 이유를 보면, ‘선생님이 무서워서’라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즉 아동·청소년은 선생님에 대해 “교육”과 “보육(보호)”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설에 다니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난 변화(결과, outcome)를 친구관계, 가족관계, 일상생활, 성격, 학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꿈”과 시설생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 본 결과, 아동·청소년은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친구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함. 가족관계에서는 시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대화 주제로 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꿈과 시설생활”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해주는 경우, 시설이용이 “꿈”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평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을 알아 본 결과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을 기준으로, 공부 영역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을 기준으로,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을 기준으로, 선생님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머니들의 평가를 보면, 공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시설에 대한 호불호로 이어졌지만, 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높은 만족을 보였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은 시설에 대해 “놀이터: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노는 곳”, “배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4. 정책제언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방향

-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둘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셋째, 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넷째, 시설서비스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여섯째, 보육 및 방과후 활동 통합지원시설의 설립·운영. 여섯째, 아동시설 서비스에 부모참여 유도. 일곱째,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체계의 전문화.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유형별 발전방안

- 지역아동센터 : 첫째, 거점형센터나 국공립센터 등 다양한 센터모형 개발. 둘째, 인력의 증원과 자격기준 강화. 셋째, 시설기준 강화. 넷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의 향상. 다섯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예산의 적정화. 여섯째, 방과후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첫째, 정책 비전과 목표의 확인 및 구체화. 둘째, 구체화된 정책의 방향이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조화. 셋째, 정책전달체계의 명확화. 넷째, 양질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질적 판단의 기준과 개선방안 제시. 다섯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지역 특성과 고유한 요구 확인과정 확립.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재정립.
- 아동양육시설 : 첫째, 보호대상자의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사례관리. 둘째, 가정보호에 집중하고 가정형 복지시설로 전환. 셋째, 대규모 생활시설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시설 지향. 넷째, 전문인력 임용과 사기진작. 다섯째, 보호기준 표준화와 보호내용 체계화. 여섯째, 가정위탁시설에 대한 양육비 측정 및 지원. 일곱째, 2012년 8월 시행 아동복지법 정신에 맞는 아동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3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대상 선정	15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달과업	16
1) 신체적 발달	16
2) 인지적 발달	17
3) 사회·정서적 발달	18
제3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현황분석	19
1. 지역아동센터	21
1) 지역아동센터 개요	21
2) 지역아동센터 현황	23
3) 지역아동센터 사업분석	27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요	35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39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분석	46
3. 아동양육시설	53
1) 아동양육시설 개요	53

2) 아동양육시설 현황	55
3) 아동양육시설 사업분석	62

제4장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67

1. 영국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69
1) 들어가며	69
2) 방과후서비스 연역 및 현황	71
3)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전달 모델	76
4) 방과후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정부지원	77
5)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지불에의 정부 지원	79
6) 방과후서비스 시행 근거법 및 주요정책	81
7) 전달체계	83
8) 방과후서비스의 질 통제(Quality Control)	87
9)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영국내 평가	87
10)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88
2. 미국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90
1)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s)	90
2) LA's BEST	98
3)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104
3. 프랑스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106
1) 들어가며	106
2) 중앙정부의 정책	110
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시설	128
4) 결론	154
5)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156

4. 일본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158
1) 방과후서비스	158
2) 아동양호시설	183
3)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198

제5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 203

1. 종단조사 개요	205
1) 조사 설계 및 절차	205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21
3) 실사 수행과정	225
2. 조사대상자의 특성	228
3. 일상생활 실태	230
1) 학교생활: 출석과 결석	230
2) 컴퓨터 이용	233
3) 휴대전화 이용	237
4) 종교활동	238
5) 귀가 후 혼자 있는 시간	241
6) 부모(보호자)와의 활동	243
7)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	244
4. 신체적 발달	250
1) 생활시간	250
2) 식사	254
3) 질병경험 및 치료여부	257
4) 자신의 건강평가	259
5. 인지적 발달	261
1) 과목별 성취도	261

2)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264
3) 사교육	266
4) 상위인지력	268
5) 문제해결능력	271
6. 사회·정서적 발달	274
1) 학교생활적응력	274
2) 자아탄력성	277
3) 스트레스 지수	280
4) 또래애착	282
5) 자아존중감	283
6)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285
7)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287
8) 일상생활 만족도	289
7. 시설 및 서비스 이용	290
1) 시설활동 만족도	290
2) 지도자 만족도	293
3) 시설환경 만족도	296
4)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299

제6장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비교 분석	303
1. 비교분석 개요	305
2. 가족배경 요인	307
1) 가족구성 분포	307
2) 부모 교육수준	308
3) 부모의 직업유무 분포	310
3. 일상생활 실태	311

1) 결석여부 및 결석일수	311
2) 학원(과외) 시간	314
3) 독서시간	318
4) 컴퓨터나 게임 등으로 노는 시간	321
5) 컴퓨터 사용 실태	326
4. 신체적 발달	336
1) 수면시간	336
5. 인지적 발달	337
1)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 비교	337
6. 사회·정서적 발달	341
1) 학교생활	341
2) 또래 관계	345
3) 자아존중감	349
4) 부모의 양육방식	351
5)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354
제7장 심층면접조사	357
1. 질적연구의 목적	359
2. 문헌검토	360
3. 연구방법	362
1) 연구참여자 선정	362
2) 자료수집 방법	364
3) 자료분석	364
4) 연구의 엄격성	365
4. 연구결과	365
1)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	365

2) 시설에 대한 첫 인상	367
3) 시설에서의 생활	369
4) 시설이용의 결과(outcome)	375
5) 시설에 대한 평가	387
6)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404
제8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409
1. 연구결과 요약	411
1)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411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실태분석	415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및 저소득층 비교 ..	423
4)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429
2. 정책제언	433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방향	433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유형별 발전방안	440
참고문헌	449
부 록	461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463
2. 지역아동센터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478
3.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481
4. 아동양육시설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496
5.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499

표 목 차

〈표 Ⅰ-1〉 2011년 1차 본조사 및 2012년 2차 본조사 개요	8
〈표 Ⅲ-1〉 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	23
〈표 Ⅲ-2〉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주체 현황	24
〈표 Ⅲ-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25
〈표 Ⅲ-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27
〈표 Ⅲ-5〉 방과후서비스 유형별 현황	29
〈표 Ⅲ-6〉 자격증 보유종류	30
〈표 Ⅲ-7〉 종사자 배치기준	31
〈표 Ⅲ-8〉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기준	32
〈표 Ⅲ-9〉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34
〈표 Ⅲ-10〉 아동복지교사 지원 예산 현황	34
〈표 Ⅲ-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 기준	37
〈표 Ⅲ-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 영역 및 내용	38
〈표 Ⅲ-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주요 내용	39
〈표 Ⅲ-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유형 현황	40
〈표 Ⅲ-15〉 운영 유형별 현황	41
〈표 Ⅲ-16〉 학년별 청소년 현황	41
〈표 Ⅲ-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성별 및 모집유형별 현황	42
〈표 Ⅲ-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가정 상태	43
〈표 Ⅲ-19〉 주요 방과후 관련 사업 비교	44
〈표 Ⅲ-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결과	47
〈표 Ⅲ-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자격요건	52
〈표 Ⅲ-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사인력 자격요건	53
〈표 Ⅲ-2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57
〈표 Ⅲ-24〉 아동복지시설 현황(2010년 12월 현재)	60

〈표 III-2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0년 12월 현재)	61
〈표 III-2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0년 12월 현재)	62
〈표 III-27〉 아동양육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66
〈표 IV-1〉 Henbury View First School에서 시행하는 방과후서비스 목록	70
〈표 IV-2〉 영국 방과후서비스 제공 학교 비율(잉글랜드 내 지방정부지역별)	73
〈표 IV-3〉 영국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78
〈표 IV-4〉 년도별 출생률과 결혼하지 않은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비율	108
〈표 IV-5〉 프랑스 전국 2008년 12월 15일	124
〈표 IV-6〉 특별예방지원 수혜자의 연령별 분포	128
〈표 IV-7〉 지역 아동지원거점의 설치 상황	160
〈표 IV-8〉 2011 지역자녀양육 지역거점사업 실시 개소수	160
〈표 IV-9〉 2011 지역자녀양육 지역거점사업 실시 개소수	161
〈표 IV-10〉 설치·운영주체별 클럽수의 현황	167
〈표 IV-11〉 실시장소의 상황	168
〈표 IV-12〉 실시규모의 상황	168
〈표 IV-13〉 ‘방과후아동플랜’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의 실시 상황	174
〈표 IV-14〉 ‘방과후아동플랜’의 사업실시의 과제	174
〈표 IV-15〉 ‘방과후아동클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175
〈표 IV-16〉 ‘방과후아동교실’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175
〈표 IV-17〉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과 관련된 지방재정조치에 따른 적산내용	176
〈표 IV-18〉 아동양호시설 재적자의 입소원인 (양호문제 발생이유)	183
〈표 IV-19〉 아동양호시설 최저기준 거실정원 변화	187
〈표 IV-20〉 아동양호시설 최저기준 거실면적 변화	188
〈표 IV-21〉 아동시설 침실·거실 면적의 분포	188
〈표 IV-22〉 양호시설의 숙소 형태	189

〈표 IV-23〉 아동양호시설의 정원별 시설수	189
〈표 IV-24〉 아동양호시설 조치비에 따른 인원배치	191
〈표 IV-25〉 아동양호시설 재정지원 기준	193
〈표 IV-26〉 교육비 지원내역	194
〈표 V-1〉 시설별, 지역별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2010년 12월 기준)	206
〈표 V-2〉 조사 모집단 분포 특성	207
〈표 V-3〉 최종 표본배분 현황	209
〈표 V-4〉 조사집락수(시설) 및 각 집락별 조사대상 표본수 : 지역아동센터	210
〈표 V-5〉 조사집락수(시설) 및 각 집락별 조사대상 표본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11
〈표 V-6〉 조사집락수(시설) 및 각 집락별 조사대상 표본수 : 양육시설	212
〈표 V-7〉 시설유형별 지역별 최종 구축 패널 현황표	213
〈표 V-8〉 지역별 최종패널 현황	214
〈표 V-9〉 시설별 최종패널 현황	215
〈표 V-10〉 이탈사유별 이탈아동 현황	215
〈표 V-11〉 조사기간 및 일정	217
〈표 V-12〉 2012년 2차 본조사 영역 및 항목	218
〈표 V-13〉 2차 본조사 개인 배경변인 조사영역 및 항목내용 (종사자를 통해 별도 조사)	221
〈표 V-14〉 응답자 특성표	228
〈표 V-15〉 지난 6개월 간 결석여부/지난 6개월 간 결석이유/ 평균결석일수	231
〈표 V-16〉 전년도비교: 지난 6개월간 결석 여부/이유/일수	232
〈표 V-17〉 컴퓨터 이용여부/컴퓨터 사용장소	234
〈표 V-18〉 항목별 컴퓨터 사용빈도	235
〈표 V-19〉 전년도비교: 컴퓨터 이용여부 및 주당 평균 사용시간	236
〈표 V-20〉 전년도비교: 항목별 평균 컴퓨터 사용빈도	237
〈표 V-21〉 휴대전화 이용여부	238

〈표 V-22〉 종교 유무/종교	240
〈표 V-23〉 종교 활동 빈도(년 활동횟수)	240
〈표 V-24〉 주당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경우 빈도	242
〈표 V-25〉 일일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평균 시간	243
〈표 V-26〉 부모와의 활동빈도	244
〈표 V-27〉 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여부/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빈도	246
〈표 V-28〉 지난 6개월 간 비행유형 별 경험여부 및 횟수	246
〈표 V-29〉 지난 6개월 간 폭력피해경험 여부/지난 6개월 간 폭력피해경험 빈도	248
〈표 V-30〉 지난 6개월 간 폭력피해 유형별 경험여부 및 횟수	248
〈표 V-31〉 전년도비교: 지난 6개월 간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자 비율	249
〈표 V-32〉 전년도비교: 지난 6개월 간 평균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횟수	249
〈표 V-33〉 하루일과시간(시설이용, 사교육이용, 독서, 놀이, 수면)	252
〈표 V-34〉 하루일과시간((평균 취침시간 및 기상시간)	253
〈표 V-35〉 전년도비교: 하루 일과시간	254
〈표 V-36〉 주당 아침식사 취식 빈도	256
〈표 V-37〉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256
〈표 V-38〉 최근 1년 내 질병경험여부	258
〈표 V-39〉 질병치료 여부 및 치료받지 않는 이유	259
〈표 V-40〉 자신의 건강평가	260
〈표 V-41〉 전년도비교: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261
〈표 V-42〉 과목별 성취도	262
〈표 V-43〉 과목별 성취도	263
〈표 V-44〉 전년도비교: 과목별 성취도	264
〈표 V-45〉 전년도비교: 학업 성적에 만족도	265
〈표 V-46〉 사교육 이용여부 및 유형	267

〈표 V-47〉 사교육 이용과목	267
〈표 V-48〉 상위인지력	269
〈표 V-49〉 전년도비교: 상위인지력	270
〈표 V-50〉 전년도비교: 상위인지력(항목별)	270
〈표 V-51〉 문제해결능력	272
〈표 V-52〉 전년도비교: 문제해결능력	273
〈표 V-53〉 전년도비교: 문제해결능력(항목별)	273
〈표 V-54〉 학교생활적응력	275
〈표 V-55〉 전년도비교: 학교생활적응력	276
〈표 V-56〉 전년도비교: 학교생활적응력(항목별)	276
〈표 V-57〉 자아탄력성	278
〈표 V-58〉 전년도비교: 자아탄력성	278
〈표 V-59〉 전년도비교: 자아탄력성(항목별)	279
〈표 V-60〉 전년도비교: 스트레스 지수	281
〈표 V-61〉 전년도비교: 스트레스 지수(항목별)	281
〈표 V-62〉 또래애착	283
〈표 V-63〉 자아존중감	285
〈표 V-64〉 전년도비교: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공통항목만)	286
〈표 V-65〉 전년도비교: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공통항목만)	287
〈표 V-66〉 전년도비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공통항목만)	288
〈표 V-67〉 전년도비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공통항목만)	289
〈표 V-68〉 시설활동의 만족도	292
〈표 V-69〉 전년도비교: 시설활동 만족도	292
〈표 V-70〉 전년도비교: 시설 및 서비스에 도움에 대한 인식	293
〈표 V-71〉 지도자 만족도	295
〈표 V-72〉 전년도비교: 지도자 만족도	295

〈표 V-73〉 전년도비교: 지도자 만족도	296
〈표 V-74〉 시설환경 만족도	297
〈표 V-75〉 전년도비교: 시설환경 만족도	298
〈표 V-76〉 전년도비교: 시설환경 만족도	298
〈표 V-77〉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300
〈표 V-78〉 전년도비교: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301
〈표 V-79〉 전년도비교: 서비스에 따른 생활변화 인식	301
〈표 VI-1〉 가족구성 분포 비교	307
〈표 VI-2〉 아버지 교육수준 비교	308
〈표 VI-3〉 어머니 교육수준 비교	309
〈표 VI-4〉 아버지 직업유무 비교	310
〈표 VI-5〉 어머니 직업유무 비교	310
〈표 VI-6〉 결석 여부 비교	311
〈표 VI-7〉 결석 사유별 결석 일수 평균 비교	312
〈표 VI-8〉 학원(과외) 수강 시간 분포 비교 - 주중 학원(과외) 수강시간	314
〈표 VI-9〉 학원(과외) 수강 시간 분포 비교 - 주말 학원(과외) 수강시간	315
〈표 VI-10〉 학원(과외) 수강 시간 분포 비교 - 총 학원(과외) 수강시간	316
〈표 VI-11〉 학원(과외) 평균 수강시간 비교	317
〈표 VI-12〉 독서 시간 분포 비교 - 주중 독서시간	318
〈표 VI-13〉 독서 시간 분포 비교 - 주말 독서시간	319
〈표 VI-14〉 독서 시간 분포 비교 - 총 독서시간	320
〈표 VI-15〉 평균 독서시간 비교	321
〈표 VI-16〉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 분포 비교(주중)	322
〈표 VI-17〉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 분포 비교(주말)	323
〈표 VI-18〉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 분포 비교(총 시간)	324

〈표 VI-19〉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평균 시간 비교	325
〈표 VI-20〉 컴퓨터 사용 여부	326
〈표 VI-21〉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주중)	327
〈표 VI-22〉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주말)	328
〈표 VI-23〉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총 시간)	328
〈표 VI-24〉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	329
〈표 VI-25〉 컴퓨터 사용장소 비교	330
〈표 VI-26〉 컴퓨터 사용 목적의 비교	332
〈표 VI-27〉 휴대전화 소지 여부 비교	334
〈표 VI-28〉 종교 여부 비교	335
〈표 VI-29〉 종교 참여 빈도 비교	335
〈표 VI-30〉 수면시간 비교	336
〈표 VI-31〉 주관적 건강 평가 비교	337
〈표 VI-32〉 과목별 학업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	338
〈표 VI-33〉 주관적 성적 만족도	340
〈표 VI-34〉 학교생활 - 학습활동	341
〈표 VI-35〉 학교생활 - 학교규칙 준수	342
〈표 VI-36〉 학교생활 - 교우관계	343
〈표 VI-37〉 학교생활 - 교사 관계	345
〈표 VI-38〉 친구 관계 - 의사소통	346
〈표 VI-39〉 친구 관계 - 신뢰	347
〈표 VI-40〉 친구 관계 - 소외	348
〈표 VI-41〉 자아존중감	349
〈표 VI-42〉 부모 양육방식 - 방임	352
〈표 VI-43〉 부모 양육방식 - 학대	353
〈표 VI-4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 평균 비교	355

〈표 Ⅶ-1〉 연구 참여 아동의 일반적 정보	362
〈표 Ⅶ-2〉 시설 이용 후 변화(시설 계속 이용 아동)와 시설 중단 후 변화 (시설 이용 중단 아동)	384
〈표 Ⅶ-3〉 시설 이용 후 변화와 가상 중단 상황에서 예상되는 변화	385
〈표 Ⅶ-4〉 친구 영역에 대한 평가	387
〈표 Ⅶ-5〉 공부 영역에 대한 평가	390
〈표 Ⅶ-6〉 일상생활(도움) 영역에 대한 평가	392
〈표 Ⅶ-7〉 선생님 영역에 대한 평가	393
〈표 Ⅶ-8〉 시설에 대한 아동의 평가	395
〈표 Ⅶ-9〉 어머니의 시설 평가(by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어머니)	398
〈표 Ⅶ-10〉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408
 〈표 Ⅷ-1〉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안)	441
〈표 Ⅷ-2〉 지역아동센터(위탁) 연간 운영비 기준(안)	442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5
【그림 I-2】 2012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주요내용	6
【그림 I-3】 2차 본조사 전 패널 컨택방안	7
【그림 III-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3
【그림 III-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26
【그림 III-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지역아동센터와의 비교	48
【그림 IV-1】 Council Management Structure	84
【그림 IV-2】 Buckinghamshire model	85
【그림 IV-3】 발달적 삼각구조(Developmental Triangle)	93
【그림 IV-4】 1945년부터 2005년 사이 프랑스 전국 0에서 17세까지의 아동 인구 변화	107
【그림 IV-5】 전국아동보육시설	112
【그림 IV-6】 지역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아동시설(foyer de l'enfance)	123
【그림 IV-7】 클레 로지 어린이집 (Maison d'Enfants Clair Logis)	132
【그림 IV-8】 클레 로지 어린이집 (Maison d'Enfants Clair Logis)	134
【그림 IV-9】 클레 로지 어린이집 시설	135
【그림 IV-10】 각 활동 자료	137
【그림 IV-11】 조직도	138
【그림 IV-12】 혼(Rhone)지방	140
【그림 IV-13】 아동보호시설(MECS)	143
【그림 IV-14】 몽드 리오네 (MONT DU LYONNAIS)	143
【그림 IV-15】 라 부뤼에르(La BRUYERE)	144

【그림 IV-16】 해바라기	144
【그림 IV-17】 4개의 바람 (LES 4 VENTS)	145
【그림 IV-18】 포레 존 (Forez Jeunes)	145
【그림 IV-19】 그리신(glycine)	146
【그림 IV-20】 목동의 별	148
【그림 IV-21】 청소년주거시설 (Foyers pour adolescents(es))	149
【그림 IV-22】 푸른 삼나무 CEDRES BLEUS	149
【그림 IV-23】 호텔경영직업고등학교: 라 비도드(la vidaude)	150
【그림 IV-24】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기관(SIAJE)	151
【그림 V-1】 CAPI System의 운영체계	216
【그림 V-2】 CAPI 프로그래밍 예시: 면접원별 로그인 화면	222
【그림 V-3】 CAPI 프로그래밍 예시: 응답누락 차단	222
【그림 V-4】 CAPI 프로그래밍 예시: 응답범위 제한	223
【그림 V-5】 CAPI 프로그래밍 예시: 실사진행관리화면	223
【그림 V-6】 실사 수행 절차	227
【그림 V-7】 지난 6개월간 결석 여부와 이유	230
【그림 V-8】 컴퓨터 이용여부와 사용장소	233
【그림 V-9】 일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	234
【그림 V-10】 종교 유무 및 현황	239
【그림 V-11】 종교 활동 빈도	239
【그림 V-12】 주당 귀가 후 부모님 없이 지내는 경우와 빈도	241
【그림 V-13】 주당 귀가 후 부모님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	242
【그림 V-14】 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여부 및 빈도	245
【그림 V-15】 지난 6개월간 비행경험	245
【그림 V-16】 지난 6개월 간 폭행피해 경험 여부 및 빈도	247

【그림 V-17】 지난 6개월 간 폭행피해 경험	247
【그림 V-18】 일과 시간 사용	251
【그림 V-19】 하루 일과 시간	251
【그림 V-20】 주당 아침식사 취식빈도	255
【그림 V-21】 아침식사 미 취식 이유	255
【그림 V-22】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여부 및 내용	257
【그림 V-23】 질병치료 여부 및 치료받지 못한 이유	258
【그림 V-24】 자신의 건강평가	260
【그림 V-25】 과목별 성취도	262
【그림 V-26】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265
【그림 V-27】 사교육 이용여부 및 유형	266
【그림 V-28】 상위인지력	268
【그림 V-29】 문제해결능력	271
【그림 V-30】 학교생활적응력	274
【그림 V-31】 자아탄력성	277
【그림 V-32】 스트레스 지수	280
【그림 V-33】 또래애착	282
【그림 V-34】 자아존중감	284
【그림 V-35】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286
【그림 V-36】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288
【그림 V-37】 일상적 삶에 대한 만족도	290
【그림 V-38】 시설활동 만족도	291
【그림 V-39】 지도자 만족도	294
【그림 V-40】 시설 및 환경 만족도	297
【그림 V-41】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29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불안정한 가족구조 등의 변화는 취약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한 가족 구조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발달과업의 정상적인 달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미래 우리사회의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종단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볼 때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발달과업의 달성 시점이 지연되거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횡단 조사(cross-sectional survey)에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 및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조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도 종단 연구(longitudinal survey)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종단조사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업의 성취도와 아동·청소년의 욕구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즉, 경제적으로나 가족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이나 발달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단 조사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1) 이혜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집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사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관련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빈곤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4년 법제화에 따라 2004년 800여 곳에서 2012년 6월 현재 4,002개소로 증가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2005년 46개소에서 2012년 200여개소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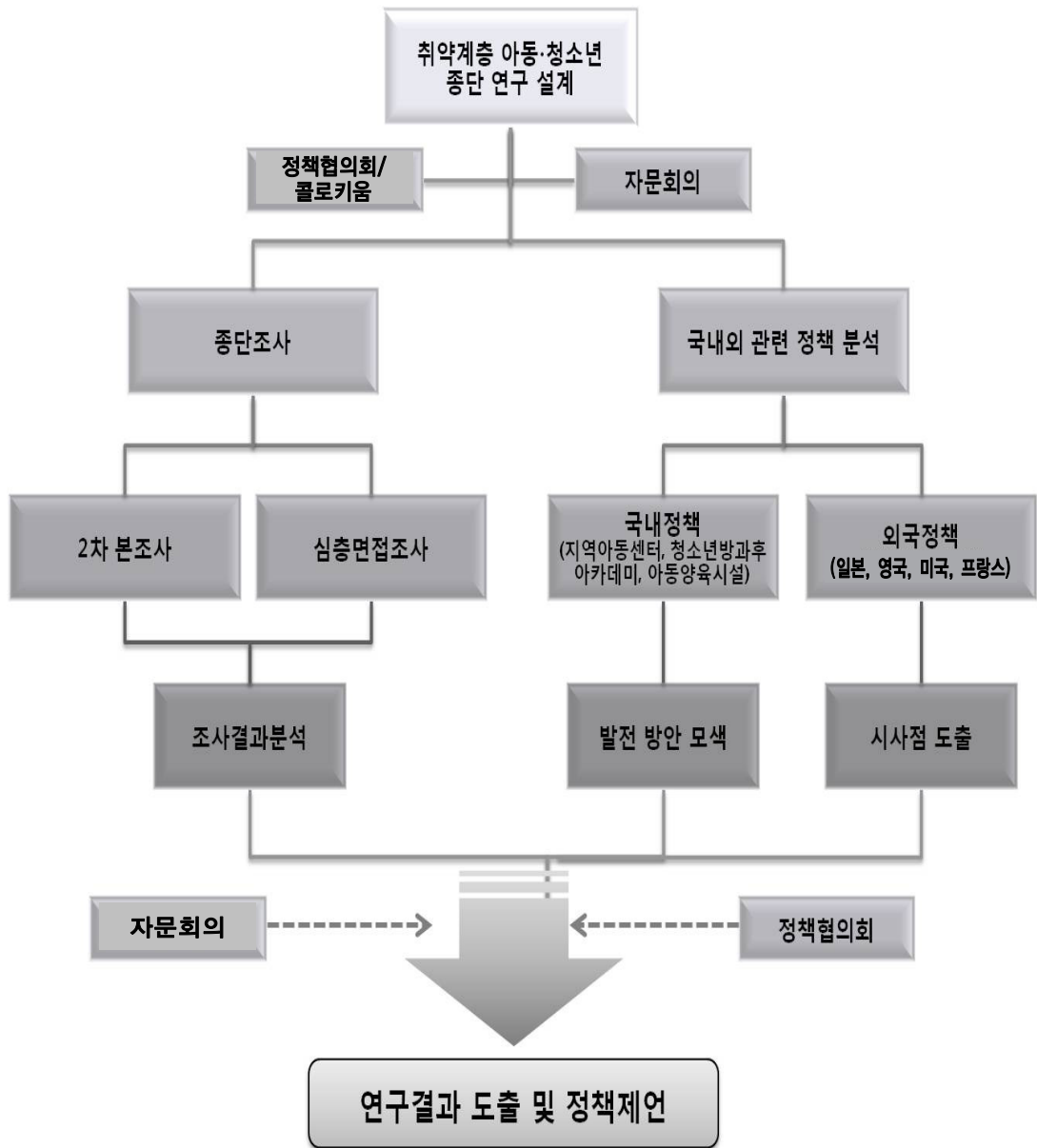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점차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효과나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조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즉,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렇지 못한 집단과의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중단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에서 중단조사 방법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인 대상을 파악하여 중단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성장발달과 생활변화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2011; 4)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중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중단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2010년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간 중단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모형을 설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예비조사결과 및 보고서 평가결과, 관련시설 의견 등을 토대로 조사 명칭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로 확정하고, 아동과 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시설별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012년 실시되는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본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차 본조사 결과와 중단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둘째, 2차 본조사 결과를 2011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결과와 횡단적으로 비교분석 하며 셋째, 조사에서 이탈된 즉 시설이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동시에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2차 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및 분석

구분	패널유지관리	본조사	부가조사(심층면접)	패널유지관리
일정	• 2012.01~06	• 2012.07~08	• 2012.07~08	• 2012.08~12
조사대상	• 1차 본조사에 응답한 패널 1,000명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초등학교 5학년 생 801명	• 시설이용 변화/시설지 속이용 아동·청소년 50명	• 본조사에 응답한 패널 801명 및 접촉 가능 패널 50여명
조사내용		• 일상생활, 신체적, 인 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 기관(시설)제공 서비스 만족도, 이용효과 등	• 시설이용 중단시기/ 사유/시설이용 중단이 후의 생활실태 • 시설 지속이용 경험의 의미	
비고	• 2차 본조사 수행을 위한 패널 유지 관리 활동 • 시설통한 변동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신학기 기념선물 증정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로 아동과 1:1면접조사 수행 • 조사대상응답자 패널 801명 구축	• 1:1심층면접조사	• 3차본조사 수행을 위한 패널 유지관리 활동 • 분기당 1회 전화로 변동상황 확인 • 시설통한 변동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방학 기념선물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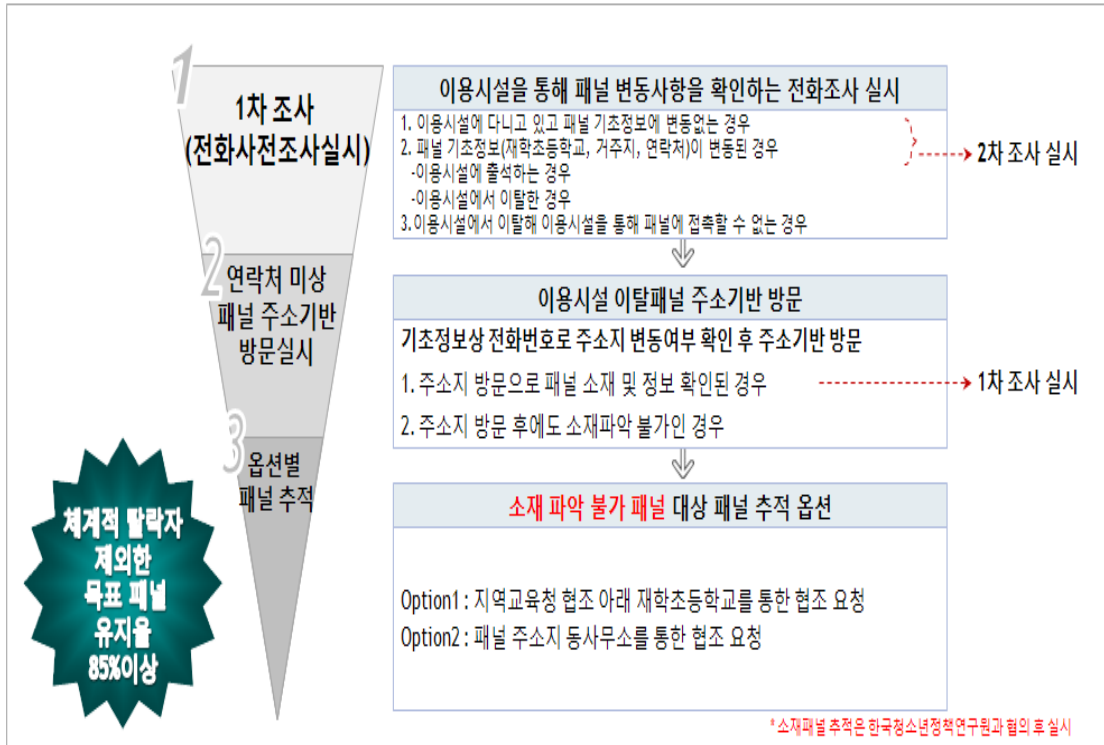


【그림 1-2】 2012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주요내용

(1) 종단조사 시스템 마련

2011년 1차 본조사에 이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2차 본조사를 위한 안정적 종단조사 시스템을 마련한다. 패널관리는 입소스 코리아(Ipsos Korea)의 패널관리프로그램을 본 조사에 맞춤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설과 패널의 기초정보를 DB화하여 변동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관리방법은 전문컨택원이 시설대상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문 컨택원은 컨택스크립트에 따라 시설 및 패널아동의 변동정보를 관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하고, 관리결과는 DB화하여 관리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 전 패널 컨택 방안



【그림 1-3】 2차 본조사 전 패널 컨택방안

(2) 2차 본조사 실시

2011년 실시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청소년 대상 1차 본조사 결과 및 조사절차와 설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2차 본조사의 방법과 조사지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6월~7월 중에 CAPI 조사방법을 통해 2차 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표 1-1 2011년 1차 본조사 및 2012년 2차 본조사 개요

구 분	2011년 1차 본조사	2012년 2차 본조사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과 청소년 • 조사모집단 - 지역아동센터 2011년 1월 - 방과후아카데미 2011년 3월 - 양육시설 2011년 1월 현재 이용 중인 초등4학년	• 조사모집단 - 지역아동센터 2011년 1월 - 방과후아카데미 2011년 3월 - 양육시설 2011년 1월 당시 이용 중인 초등4학년
표본 추출	• 지역아동센터 5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0, 아동양육시설 200표본을 임의할당 • 시설별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법 결정 •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 추출 후 차 상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초등학교 4학년 추출	• 2011년 패널로 구축된 청소년 1,000명 중 2012년 조사 시점 시설이용 아동과 청소년 (801명) • 기존 이용시설 이탈 및 지속 패널에 대한 추적 조사(50명)
조사 방법	•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 2011년 7-8월	• 2012년 7-8월

2012년 2차 본조사 조사항목의 경우, 중단 및 횡단비교 분석을 위해 2011년 실시된 1차 본조사 결과 및 1차 설문지 등에 대한 검토와 2011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된 항목들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1) 일상생활 실태, 2) 신체적 발달, 3) 인지적 발달, 4) 사회·정서적 발달, 5) 기관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6) 인적사항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시설이용변화/시설지속이용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시설이용변화/시설지속이용 아동·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분석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2011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을 이용했다가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이용하는 시설이 변화(시설이용중단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이용변화(새로운 시설 이용, 시설 비이용, 가족 복귀 등)와 관련된 경험”을 분석한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현황분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의 2012년 사업들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 외국 관련 정책연구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의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s)와 LA's BEST, 일본의 방과후서비스와 아동양호시설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영국의 방과후서비스 정책, 프랑스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설유형별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4) 정책 제언

2차 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국내외 관련정책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설유형별 발전방안을 제언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첫째, 2차 본조사 설문지 개발을 위해 아동·청소년 발달과업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문헌 및 조사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시설이탈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지 개발, 조사방법, 분석기법 등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해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회	2차 본조사 설문문항 선정	○ 학계 5명	5월
1회	시설이탈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조사지, 조사방법, 분석기법 자문	○ 현장전문가 6명	7월
1회	2차 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 관련공무원 3명	11월

3) 양적 연구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동 아동·청소년	
표집틀	정부공식통계(각종 실태조사 결과)	
표본수	801명 (지역아동센터 499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42명, 아동양육시설 160명, 시설이탈 아동·청소년 포함)	
표집방법	임의표집	
조사시기	2012년 7~8월	

4) 질적 연구(심층면접)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조사업체의 패널관리 대상에서 탈락된 조사대상자를 조사업체와 유관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접근함	
면담참여자 수	50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이사, 가출, 전학 등으로 조사패널에서 이탈한 상태로 별도의 기관협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대상자/시설지속이용 아동·청소년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공식화된 반구조화 면접지를 통한 개별면담 실시	
면담 시간 및 횟수	7~8월 중 1~2회 정도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담자료는 면접지를 통한 기록과 녹취록 분석을 위한 녹음자료 확보	
면담자	연구진 및 조사자	

5) 정책협의회/클로키움

○ 정책협의회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 고
1차	설문문항 구성에 대한 자문 및 조사 협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2월	
2차	관련정책 발굴을 위한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11월	

○ 콜로키움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고
2회	심층면접 조사문항 및 분석방법 관련 콜로키움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 연구진 등 10명 내외	4-5월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대상 선정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달과업

제 2 장 이론적 배경²⁾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대상 선정³⁾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의 자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조적인 의미에서의 취약가정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경제의 빈곤이 교육기회나 건강의 유지 등 건전한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즉,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체적 발달 저해(치아손상, 위장병, 영양실조)와 더불어 인지발달과 학습부진, 심리사회적 발달 저해에 그치지 않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을 1차적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후 2차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기초로 세부적인 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중식제공 등의 사유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취약계층 중 두 번째 조사대상으로는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기능을 전적으로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2) 이해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집필

3)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2011) pp17-19 요약.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청소년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과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을 1차적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저소득 계층의 경우 2011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청소년을, 시설 보호를 받는 계층 중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달과업⁴⁾

발달과업이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 인간은 전체 생애의 각 과정별 발달단계에 따라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을 갖고 있다. 만약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은 지장을 받게 된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취약가정 및 시설의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아동 중기(6세~10세)에서 청소년 초기(11세~13세)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1년도와 동일하게 2012년도 종단조사의 주요내용도 이와 일맥상통하게 구성하였다.

1) 신체적 발달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장기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아동기 중기가 되면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신체성장이 뒤지고 지능점수가 떨어지며, 운동근육조정이 나빠지고 주의도 잘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양결핍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건강문제는 비만이다. 비만아동의 80%이상이 과체중 성인이 되며(Oken & Lightdale, 2000),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연구에서 취약계층과 비만 사이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강한

4) 이 조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2011) pp19-32 요약.

식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싸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을 구매하는 경향, 과식을 부추길 수 있는 가족스트레스가 포함되며, 어렸을 때 영양을 잘 공급받지 못한 아동들이 나중에 비만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음식섭취의 양극화는 신체의 양극화로 진행되고, 이는 곧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성인이 됐을 때 소득활동에 제약이 생겨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 인지적 발달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발달에서부터 저지능, 학업부진, 학교 중퇴와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우울, 불안과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Kleanov, Liaw & Duncan, 1995; McCormick & Brooks-Gunn, 1989). 특히 학업성취도의 경우 인지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인지적 영역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뇌의 발달이나 지능의 발달이 초기 아동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족의 빈곤이나 부모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 박탈 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인지적 영역에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뿐 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이 누적적인 결손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조희숙 외, 1994).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시설보호 아동이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뒤떨어진다는 결과와 더불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언어적 이해 수준이 표준 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언어 이해력으로 인해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이 외, 2002). 아동기 초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이 증명되었다(이지연·곽금주, 20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상위인지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위인지력이란 인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인지적 요소와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분석하고,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전략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 · 정서적 발달

가족 내 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 내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아동의 심리사회 발달이 더욱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Furstenberg & Hughes, 1995). 또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가족 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신체 및 행동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nyan et al., 1998). 사회적 기술의 측면에서 시설보호 아동은 협동, 자기주장, 자아통제 수준이 낮았으며,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는 정서조망 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세운·이순형, 2002). 사회성 및 정서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보다 자아탄력성, 부모와의 관계,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비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다. Coopersimth(1967)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로서 자신이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떠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가치판단의 능력을 평가하는 차원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스더·홍정은, 2012 재인용).

제 3 장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관련사업 현황분석

1. 지역아동센터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 아동양육시설

제 3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현황분석

1. 지역아동센터⁵⁾

1) 지역아동센터 개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정익중, 이경림 외, 2011: 30).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소규모 시설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보호 및 지원, 교육, 문화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방적 아동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5년부터 도시의 빈곤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강명순 외, 2010). 특히 민간단체 중심의 주민조직화 및 교육운동에 기반하여 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 가정환경과 비슷하게 소규모로 조성하는 형태였다. 그 이후 IMF 위기가 닥치면서 결식아동 및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단순히 결식 및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빈곤뿐만 아니라 부모불화 및 가족해체로 위기가정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아동문제 역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되면서 공공성을 보장받게

5)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집필

되었다. 이렇게 발전해온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기준 전국 3,985개이며 이용 아동 수는 104,982명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2a)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는 보호 프로그램(빈곤·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학교생활준비, 숙제 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 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놀이와 오락(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가정방문, 상담·정서적 지지, 부모·가족 상담, 후원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네 가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관 특성과 지역특성, 이용자 요구에 따라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가족강화 프로그램, 야간 보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하고,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강명순 외, 2010).

요약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서 사회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어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이용에 따른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정익중, 박현선, 오승환, 임정기, 2009: 93). 접근용이성, 개별성, 지속성, 통합성 등에 기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빈곤아동의 건전한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물론 일반아동의 건강한 발달로 가능케 하여 아동의 지역사회보호 개념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현황

(1)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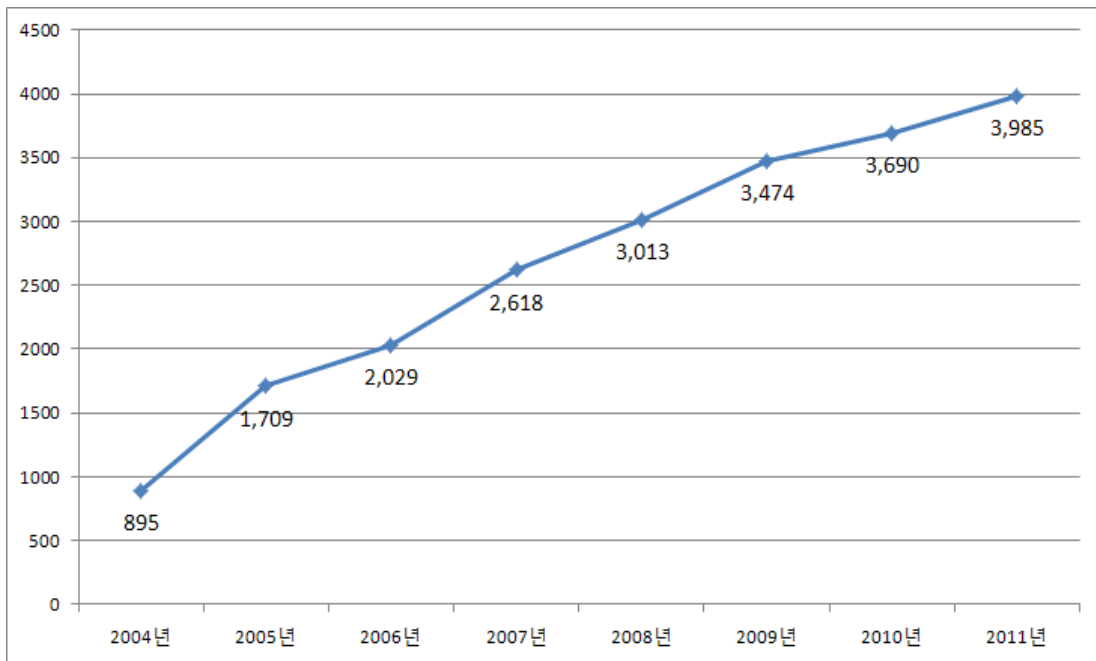
① 시설수

2011년 기준 조사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그림 Ⅲ-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 16개 시도의 3,98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표 Ⅲ-1 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개소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p. iii.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p. iii.

【그림 Ⅲ-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② 시설운영주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2〉), 2011년 기준 개인(일반)이 감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2,350개소(59.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단체가 568개소(14.3%), 사회복지법인이 340개소(8.5%)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시민단체, 법인이나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비율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주체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표 Ⅲ-2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주체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709 (100.0)	2,029 (100.0)	2,618 (100.0)	3,013 (100.0)	3,474 (100.0)	3,690 (100.0)	3,985 (100.0)
시민 단체	139 (8.1)	66 (3.3)	80 (3.1)	97 (3.2)	92 (2.6)	95 (2.6)	112 (2.8)
재단 법인	117 (6.8)	144 (7.1)	146 (5.6)	180 (6.0)	235 (6.8)	252 (6.8)	281 (7.1)
사단 법인	61 (3.6)	89 (4.4)	111 (4.2)	123 (4.1)	148 (4.3)	142 (3.8)	176 (4.4)
사회복 지법인	170 (9.9)	245 (12.1)	267 (10.2)	302 (10.0)	324 (9.3)	331 (9.0)	340 (8.5)
종교 단체	618 (36.2)	757 (37.3)	861 (32.9)	902 (29.9)	737 (21.2)	710 (19.2)	568 (14.3)
개 인	일반 559 (32.7)	660 (32.5)	1,085 (41.4)	1,322 (43.9)	1,873 (53.9)	2,079 (56.3)	2,455 (61.6)
	종교 인 -	-	-	-	-	-	105 (2.6)
지자체	4 (0.2)	5 (0.2)	4 (0.2)	6 (0.2)	4 (0.1)	4 (0.1)	4 (0.1)
기타	41 (2.4)	63 (3.1)	64 (2.4)	81 (2.7)	61 (1.8)	77 (2.1)	49 (1.2)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p.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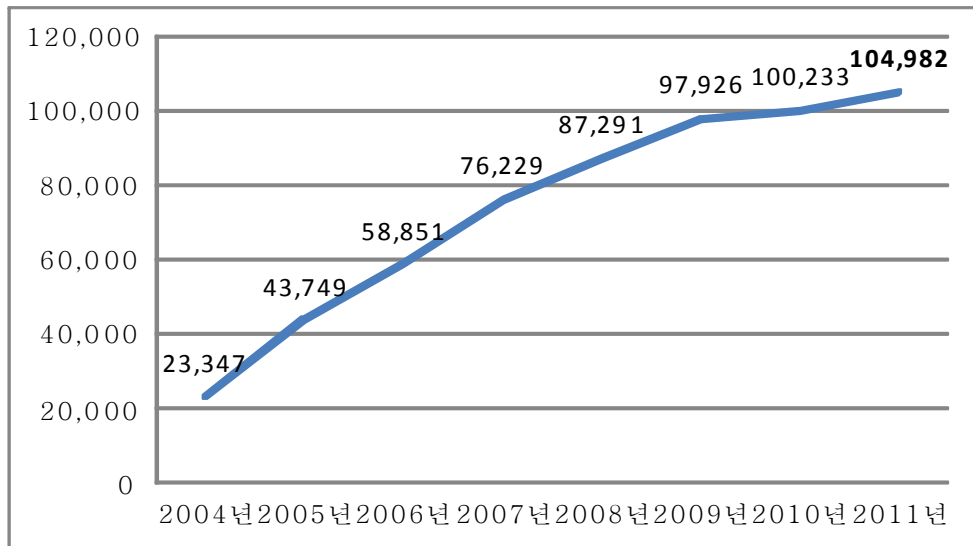
(2) 이용아동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3>과 【그림 Ⅲ-2】에 보고된 것처럼 2011년 기준 총 104,982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년 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초등저학년 35.6%, 초등고학년 4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의 영향으로 초등 저학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교를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중학생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Ⅲ-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3,347 (100.0)	43,749 (100.0)	58,851 (100.0)	76,229 (100.0)	87,291 (100.0)	97,926 (100.0)	100,233 (100.0)	104,982 (100.0)
미취학	1,564 (6.7)	3,023 (6.9)	4,133 (7.0)	4,127 (5.4)	4,585 (5.3)	4,838 (4.9)	4,376 (4.4)	4,578 (4.4)
초 등 학 생	저 학 년	18,348 (78.6)	34,617 (79.1)	25,149 (42.7)	32,867 (43.1)	35,972 (41.2)	39,053 (39.9)	37,865 (37.8)
	고 학 년			21,426 (36.4)	28,177 (37.0)	33,163 (38.0)	40,233 (40.1)	42,324 (40.3)
중학생	2,880 (12.3)	5,129 (11.7)	6,846 (11.6)	9,224 (12.1)	11,380 (13.0)	13,600 (13.9)	15,075 (15.0)	17,374 (16.5)
고등 학생	555 (2.4)	958 (2.2)	1,095 (1.9)	1,413 (1.9)	1,862 (2.1)	2,072 (2.1)	2,346 (2.3)	3,014 (2.9)
탈학교	-	-	103 (0.2)	104 (0.1)	133 (0.2)	331 (0.3)	338 (0.3)	285 (0.3)
기타	-	22 (0.1)	99 (0.2)	317 (0.4)	196 (0.2)	-	-	-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p. vii.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p. vii.

【그림 Ⅲ-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3) 시설종사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4〉), 2011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총 종사자 수는 8,631명이다. 이 중 시설장은 개소당 1명인 3,985명(46.2%)이고, 생활복지사는 4,646명이다. 시설장, 생활복지사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고 매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583	4,980	6,058	6,840	7,784	8,042	8,631
시설장	1,681	2,019	2,618	3,013 (100.0)	3,474 (100.0)	3,690 (100.0)	3,985 (100.0)
시설장(남)				1,433 (47.6)	1,411 (41.5)	1,253 (34.0)	1,237 (31.5)
시설장(여)				1,580 (52.4)	2,033 (58.5)	2,437 (66.0)	2,728 (68.5)
생활복지사	1,902	2,961	3,440 (100.0)	3,827 (100.0)	4,310 (100.0)	4,352 (100.0)	4,646 (100.0)
생활복지사 (남)			471 (13.7)	543 (14.2)	529 (12.3)	463 (10.6)	518 (11.1)
생활복지사 (여)			2,969 (86.3)	3,284 (85.8)	3,781 (87.7)	3,889 (89.4)	4,128 (88.9)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05-2011.

3) 지역아동센터 사업분석

(1) 전달체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로서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가 작동하지만, 민간기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중앙지원단과 시도의 위탁기관인 시·도지원단이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 센터가 운영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공공의 행정체계와 민간의 서비스집행체계로 혼합되어있는 전형적인 전달체계 구조의 장단점도 엄연히 존재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62).

먼저 장점으로 첫째,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재정동원 효과가 있다. 정부에 의해 서비스기관이 위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의 재정이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침이나 표준운영방식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일관성 있는 행정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서비스 제공 경험이 부족하여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관리를 수행할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에(이현주·정익중, 2012) 지역아동센터

의 민간부문 활용도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지역아동센터 전달체계의 단점으로는 첫째, 행정관리의 비전문성과 경직성이다. 현재 공공전달체계상의 행정관리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의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경직적인 적용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62).

둘째, 민간의 전문성 발휘 조건이 미비하다. 비록 공공부문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민간의 자발성이나 헌신성이 증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재정보로나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간의 운영조건이나 수준의 편차가 존재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63). 즉, 공공이 제공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아 실질적 경쟁이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이현주·정익중, 2012). 또한 민간인력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실무자들의 소진과 이직이 많은 점도 전문성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셋째,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관리 및 유도시스템이 부족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라는 사회적 수요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지원 확대로 비약적인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아직 체계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63). 최근 3차례 진행 중인 평가체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질적 내실화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라 판단된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한 다양한 방과후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는데서 오는 혼란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방과후서비스에 관한 각 부처별 사업은 <표 Ⅲ-5>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이카 데미 등 방과후서비스의 3원화 체제는 운영 방식이나 지원방식 및 근거법률에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아(이태수 외, 2010: 84)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연속성이 미흡하고, 서비스 기관간의 위화감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정익중 외, 2009).

표 III-5 방과후서비스 유형별 현황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근거법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담당교사	유·초·중등교사 보육교사	생활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대상아동	초,중,고 일반아동	18세미만의 아동 저소득층아동우선	저소득층아동우선 초4-중2
운영주체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장 위탁운영	개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수련시설 중심
개소(명)	11,149개 (4,276,476명) (2009.12 기준)	3,585개 (98,945명) (2010.6 기준)	161개 (일 7,169명) (2009.12 기준)
비고	확충	확충 2004년 국고지원시작	2005년 시범운영

* 출처: 이태수 외, 『방과후서비스 역할분담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p. 30.

(2) 인력

① 인력배치의 현황 및 문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지만 생활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상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용시설인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시설장 기준은 아동복지시설 기준을 따르지만 종사자의 경우 시행령에 별도의 종사자기준을 가지고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66). 한편 이러한 인력 배치기준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교육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200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게 보람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는 보호, 학습, 문화, 복지의 분야로 지원되고 있다(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2010). 하지만 이러한 아동복지교사가 매년

단기계약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인력의 질 문제나 실무자 교체가 심한 편이다.

② 자격증 현황 및 문제

2011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 중 자격증 보유종류에 따르면(〈표 Ⅲ-6〉), 시설장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849명(58.4%)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증 1,478명(22.4%), 정교사 자격증 474명(7.2%)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932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증 1,496명(21.9%), 정교사 자격증 730명(10.7%)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이유는 경력기준이 따로 없고 3급 이상이면 가능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면서 인력과 시설조건을 상당기간 유예했는데 이 때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2급 사회복지사가 양성되었다. 한편 현재 사회복지사 3급은 폐지되어 더 이상 배출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67).

표 Ⅲ-6 자격증 보유종류(단위: 명, %, 중복응답)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6,586	100.0	6,819	100.0
사회복지사	3,849	58.4	3,932	57.7
보육교사	1,478	22.4	1,496	21.9
정교사	474	7.2	730	10.7
영양사	37	0.6	22	0.3
기타	748	11.4	639	9.4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또한 아동복지교사의 자격기준은 대부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등 자격기준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자격증 소지 등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복지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정익중 외, 2009).

③ 시설장의 겸직 문제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의하면 시설장의 겸직은 지역아동센터의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겸직이 많이 존재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④ 종사자 배치기준의 문제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종사자 기준에 대한 법적규제가 취약하여 무분별한 진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 기준이 세분화되고 아동 수에 비례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래와 같은 취약한 종사자 기준만이 존재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표 III-7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아동30인 이상	1	1인 (아동50인 이상인 경우)	2인 (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아동30인 미만	1	-	1
아동10인 미만	1	-	-

* 주) 아동10인 미만인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 특성과 아동안전 등을 감안하여 10인 미만시설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가급적 설치지양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1. p.11.

⑤ 인력교육의 문제

2011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은 1년이상~3년미만의 실무자가 대부분이다. 시설장의 경우 37.9%, 생활복지사의 경우 42.9%가 1년이상~3년미만의 경력자여서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장의 39%와 생활복지사의 52.7%가 연간 10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자에 대한 연간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실무자 교육이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는 규정되지 않고, 보건복지부(2012b)의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시설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과 ‘실무교육’, ‘진입교육’, ‘자체교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그룹홈이나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보호와 돌봄 위주의 수용시설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교육과 복지의 기능이 결합된 이용시설이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에 적절한 교육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자원을 연결하는 최일선 일차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이 가장 필요하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3) 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관련한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8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기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은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용공간으로 확보할 것, 건축물 용도에 적합할 것, 50인 이상의 급식 시 급식소로 신고할 것 등을 신고 시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령과 지침의 시설관련 조항은 민간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7월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오던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법정시설로 전환되고, 민간의 센터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신고센터 수가 4,000개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시설에 관한 엄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보호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78).

현재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하여 중요한 현황과 문제점은 첫째, 시설의 운영 주체 중 개인(일반)운영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

서에 의하면 총 3,985개소 중 개인(일반)이 운영하는 경우가 2,350개소(59.0%)에 달하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은 797개소(20.0%)에 불과하다. 또한 종교단체는 568개소(14.3%)에 해당한다. 특히 공립시설인 지자체운영시설은 단 4개소만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일반)이나 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둘째,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한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12월 기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센터의 0.9%인 36개소가 지하에 있으며, 4층 이상에는 4.1%인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엄밀한 시설설치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조건과 내부 환경, 면적 등에서 취약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설비 및 시설환경은 갖추어져 있으나, 시설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결, 위생, 편의성 등에서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셋째, 정원대비 시설면적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령에는 시설면적에 있어 아동 20인 미만일 때는 60㎡, 그 이상일 때는 82.5㎡ 라고 규정되어있으나, 실제 아동 1인당 몇 ㎡를 갖추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은 없는 셈이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은 이와 같은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및 이전시설은 이용아동 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권장사항이므로 시설면적이 이용아동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예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예산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2012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76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12c), 이에 서울의 경우 70%를 지방정부가, 그 외의 지자체는 50%를 지방정부가 대응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게 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85).

표 III-9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 개소	500	800	902	1,800	2,788	2,788	2,946	3,260	3,500
지원 단가 (만원/월, 개소)	67	200	200	200	220	상: 220 하: 320	320	370	395
중앙정부 예산 (억원)	12	73	98	206	282	457	576	695	767

* 주)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출처: 1) 정익중 외,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연구』,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p.85

2)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2b, p.446.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 외에도 아동복지교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369억 원이 배정되었다.

표 III-10 아동복지교사 지원 예산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사 인건비	189억 원 ※ 교사 1인당 월 100만원 기준	325억 원 ※ 교사 1인당 월 100만원 기준	334억 원 ※ 교사 1인당 월 103만원 기준 ※ 사회보험인 상률적용	334억 원 ※ 교사 1인당 월 103만원 기준 ※ 2009년 예산 동결	334억 원 ※ 교사 1인당 월 103만원 기준 ※ 2010년 예산 동결
지원센터 운영비	35억 9백만 원	35억 원	31억 원	31억 원	35억 원

* 출처: 정익중 외,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연구』,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p.86.

(5)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정서·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연계, 아동권리 프로그램 등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보호(급식, 일상생활지도, 부적응 아동지도, 안전지도, 마침모임 등)·교육(숙제, 학습, 독서지도, 예체능교육, 권리교육, 대안교육, 홀로서기 등)·문화(공연관람, 스포츠 관람, 견학, 생태체험, 캠프, 문화제, 테마소풍 등)·복지(아동 상담과 부모상담, 가정방문, 학교와 소통하기, 부모교육, 부모소모임, 건강검진과 치료, 돌봄과 치유, 일반아동 사례관리와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 등)·지역사회연계(각 지역협의체 연계사업, 무의탁어르신초청행사, 복지단체 연계사업, 자원봉사활동, 인적·물적 자원연계 등)·아동참여 프로그램(아동자치회의, 1인 1억 활동, 반별모임,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별로 아동의 욕구와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a).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실종·유괴, 약물, 재난, 성폭력 등 수많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역시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5대 안전교육과 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a).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⁶⁾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당시 수립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기본구상에 의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를 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첫째, 중앙·지방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6) 전명기(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집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둘째, 맞벌이·한 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교육·문화적 격차 보완, 학습능력 향상 도모, 진취적 기상 함양 등)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 예방 등의 효과 유발을 기대하며, 셋째,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비전 및 목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정책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과 그 가족의 실생활상의 필요에 부응하기 정책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시작되었다. 첫째, 시범 운영 후, 결과 평가 및 모델유형 보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능과의 연계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셋째,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전략의 주요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책임을 학교와 가정에만 일임하던 것을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서 분담하도록 전환한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둘째,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가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교육과 방과후아카데미와의 상호연계를 꾀한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필수시설로서 재구조화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인 운영 지원 및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과정을 개설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우수한 활동 공간 확보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시설(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역아동센터와 다르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기준은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 기준

구 분	내 용
교 실	교실은 집과 같이 안락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1개 교실 당 청소년 20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형 아카데미에 있어서 2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교실 공간 조성 시 지하층은 배제하고, 환기가 원활한 교실이어야 하며, 밝기는 건축법 교실 기준조명을 따라야 하고, 바닥은 가급적 온돌마루로 시공하여야 함.
지도자실	지도자실은 지도자 사무 및 연구 공간, 회의 및 상담 공간,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북카페 및 휴게실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면서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전문체험 활동실	동적인 활동(스포츠, 댄스, 무술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활동실을 별도 마련하여야 함. 없을 시에는 기존공간을 활용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기타 공간	아카데미 인원수를 고려한 남녀구분 화장실과 급·배식 실시 공간 등이 조성되어야 함.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둘째,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다. 주중 편성 시간을 준수하여 과정별 프로그램 운영(주중 25~30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별 프로그램 운영시간 중 급식시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3시간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전문체험활동을 통해 배웠던 활동들을 추후 동아리활동으로 연계해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각 활동구분별 세부내용은 <표 Ⅲ-12>와 같다.

셋째,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생활지도 제공이다. 운영실무자는 청소년 전문 자격증(청소년지도사)을 소지하고 청소년 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선발 기준이 있으며, 운영실무자의 전문성함양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과정별 프로그램 강사 역시 해당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확보하여 강사료를 아카데미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 별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년관리로 문제행동이 보이는 청소년은 지역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질 높은 청소년 개별 관리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내에서의 활동내용과

자녀들과의 단절될 수 있는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 III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 영역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전문체험활동 등 과정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 8시간 (주말격주 4시간 추가 운영)
자율체험활동 등과정 (재량활동)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의 성격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운영(지역사회 연계하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는 등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주 2시간
학습지원활동 등과정 (기본공통과정)	보충학습지원과정(자기주도학습)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교과학습과정 (주요교과목지원)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	-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급식 주5시간 (주말격주 1시간 추가 운영)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넷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든든한 후원자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인적·물적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으며, 원활하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상 논의사항, 청소년 선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방과후 활동 후 안전한 귀가지도(사회문제 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게 귀가지도(차량 및 도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를 통해 귀가지도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동행하며, 보호자에게 청소년의 귀가를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주요 연혁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주요 내용

연 도	사업내용
2004년	○ 12월 : 청소년위원회 발족 전후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 방과후 활동 실태조사
2005년	○ 4월 : 청소년위원회로 통합 출범하게 됨에 따라 4대 핵심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선정 발표 ○ 7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행계획 확정(공모사업 형태로 진행) ○ 9월 : 시범실시 46개소 운영, 시범운영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 (모델개발)제시
2006년	○ 실시지역확대(46→100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도입 지역사업으로 전환 ○ 운영지역 확대에 따른 지역별 · 대상별 운영매뉴얼 보완 발전
2007년	○ 실시지역확대(100→150개소), 지자체매칭펀드방식 ○ 설치대상시설의 확대(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학교 등) ○ 2007년 학교연계 시범아카데미 2개소 운영(부산시교육청연계)
2008년	○ 실시지역 확대(150→186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 2008년 시범아카데미, 2007년 2개소의 연장운영(부산시교육청연계)
2009년	○ 실시지역 축소(186→178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2010년	○ 사업축소(178→161개소), 지자체 매칭펀드방식, 평가미흡 10개소 등 17개소 지원중단
2011년	○ 사업확대(161→200개소), 지자체 매칭펀드방식, 신규운영모형(장애인 등) 개발 및 시범운영
2012년	○ 사업추진(200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유형별 현황 등을 정리하면 <표 Ⅲ-14> ~ <표 Ⅲ-18>과 같다.

표 III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유형 현황

지 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단체	복지관	기 타 (시설)	총 계
총계	118	7	53	11	7	4	200
서울	18	—	1	—	1	—	20
부산	6	1	4	—	—	—	11
대구	5	1	1	1	1	—	9
인천	5	—	—	—	1	—	6
광주	4	1	—	—	—	—	5
대전	2	—	2	—	1	—	5
울산	1	—	3	1	—	—	5
경기	19	—	16	1	—	—	36
강원	9	—	—	—	—	1	10
충북	7	1	—	1	1	—	10
충남	8	1	3	—	1	—	13
전북	8	—	9	—	—	—	17
전남	8	—	3	5	1	—	17
경북	6	1	1	—	—	3	11
경남	9	1	6	1	—	—	17
제주	3	—	4	1	—	—	8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 청소년시설 : 청소년지원센터(상주, 김천), 상담실, 복지센터 등

— 기타 : 전남 강진교육발전협의회(시민단체), 전남 무안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상주, 김천) 등

표 III -15 운영 유형별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형	31	93	141	178	174	158	기 본	154	149
							농산어촌	40	44
							다문화가정	1	2
							장애청소년	2	3
일반형	5	3	5	5	2	1	1		1
혼합형	10	4	5	2	2	2	1		1
합 계	36	96	146	183	176	159	200		200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표 III -16 학년별 청소년 현황

지 역	초4	초5	초6	중1	중2	총 계
서울	138	303	211	44	28	724
부산	52	130	84	53	44	363
대구	77	149	104	-	-	330
인천	9	65	49	87	34	244
광주	74	89	61	33	6	263
대전	6	69	94	-	-	169
울산	-	35	40	37	42	154
경기	211	458	394	141	174	1,378
강원	71	150	115	71	32	439
충북	126	171	77	-	-	374
충남	84	153	68	60	36	401
전북	87	126	138	115	117	583
전남	98	159	110	129	104	600
경북	62	128	118	57	47	412
경남	115	226	192	69	70	672
제주	83	54	87	34	7	265
총 계	1,293	2,465	1,942	930	741	7,371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표 III-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성별 및 모집유형별 현황

■ 청소년 성별

지역	남자	여자	총계
서울	373	351	724
부산	192	171	363
대구	173	157	330
인천	121	123	244
광주	130	133	263
대전	80	89	169
울산	81	73	154
경기	694	684	1,378
강원	255	184	439
충북	165	209	374
충남	188	213	401
전북	302	281	583
전남	285	315	600
경북	223	189	412
경남	345	327	672
제주	138	127	265
총계	3,745	3,626	7,371

■ 청소년 모집유형

지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기 타	총계
서울	237	163	131	27	166	724
부산	107	59	57	17	123	363
대구	170	56	44	15	45	330
인천	126	41	21	4	52	244
광주	160	15	59	1	28	263
대전	108	15	31	1	14	169
울산	54	33	19	8	40	154
경기	447	253	321	38	319	1,378
강원	114	86	107	33	99	439
충북	79	57	122	32	84	374
충남	232	43	55	15	56	401
전북	305	71	157	7	43	583
전남	323	68	88	50	71	600
경북	225	48	87	6	46	412
경남	220	107	184	26	135	672
제주	171	22	34	10	28	265
총계	3,078	1,137	1,517	290	1,349	7,371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표 III -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가정 상태

지역	부모 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부모 가정	조부 가정	조모 가정	시설 보호	친척 양육	소년소녀 가장	기타	총계
서울	355	230	74	23	0	18	3	2	0	1	706
부산	212	119	59	11	1	8	0	1	0	2	413
대구	243	75	31	5	1	6	0	1	0	0	362
인천	111	69	31	9	0	2	0	0	0	0	222
광주	174	44	18	2	0	4	0	1	0	1	244
대전	122	42	13	7	1	3	0	0	0	1	189
울산	63	49	21	9	1	4	0	0	0	0	147
경기	812	391	143	32	3	26	8	11	2	4	1,432
강원	304	86	40	15	4	8	0	5	1	0	463
충북	252	45	28	12	0	9	0	1	0	0	347
충남	292	87	40	16	1	14	0	5	0	3	458
전북	439	104	50	13	4	16	2	5	0	1	634
전남	411	104	61	28	1	13	3	3	4	0	628
경북	258	127	46	24	1	26	4	3	2	0	491
경남	358	146	87	22	3	27	1	6	0	0	650
제주	195	67	37	18	0	7	0	2	2	0	328
계	4,601	1,785	779	246	21	191	21	46	11	13	7,714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유사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주요 방과후 관련 사업 비교

구 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운영 개소 수	200개소	2,946개소	전국 초중고교 99.9% (11,160개교) * 교과 12만4천개, 특기적 성 16만1천개 방과후 교 육프로그램 운영
참여 아동·청 소년 수	7.3천명	97천명	439만명 ※ 전체 학생 중 59.5% 참여
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발달 도모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복지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의 푸른성장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 빈곤·한부모 가족 아동 우선 보호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학교 교육기능 보완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구현 ◦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완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
예산 (국비)	118억	767억	-
운영 개요	대상 ◦ 맞벌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 초4~중2 ※ 99% 이상 저소득 청소년 대상	◦ 빈곤·해체가정 청소년 18세 미만 ※ 70% 이상 저소득 청소년 대상	◦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무참여 또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참여) ◦ 학업중단청소년, 지역주민 ※ 학교장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운영 모 형 ◦ 지원형 : 기초생활 수급 대상,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 대상 (농산어촌형, 특별형-장애 청소년)	-	-

구 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 일반형 :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모형(전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 혼합형 : 지원형 대상 청소년과 일반형 대상 청소년이 혼합되는 형태		
참가비	◦ 지원형 전액 지원 ◦ 일반형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월 15만원 ~ 20만원)	◦ 참가자 전액 지원	◦ 수강자 부담(1인 월 평균) · 초등 : 32,805원, 1.6개 · 중등 : 23,417원, 2.6개 · 고등 : 28,672원, 4.9개 ◦ 자유수강권 지원
운영기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단체, NGO 등	◦ 민간·법인·종교 시설 ◦ 지자체운영 및 위탁	◦ 초·중고 학교 ◦ 위탁 비영리기관 및 단체
운영시간	◦ 평일·방학 중 운영 ◦ 일일 8시간 이상 운영 - 참여 청소년 1일 5시간 - 정규프로그램 참여 - 주 25~30시간	◦ 평일·방학 중 운영 ◦ 일일 8시간 운영 - 주5일 이상 운영, 토·일은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 평일·방학 중 운영 ◦ 운영시간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주 2~3시간)
운영인력	◦ 운영실무자 - 기관장, PM(프로젝트매니저), SM(스케줄매니저), 강사(교과·체험활동), 자원봉사	◦ 운영실무자 -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 학교장, 담당 부장 및 교사, 현직교사, 외부강사
프로그램내용	◦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세계시민, 인성 및 기타 등 다양한 활동지원, 자기주도학습 및 주요교과목 지원, 캠프, 부모교육 등 ◦ 생활지원(상담 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생활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 방과후 보육 ◦ 특기적성 ◦ 수준별 보충학습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상 문제점	◦ 행정업무 과중 ◦ 잦은 인력교체	◦ 강사모집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협소 및 기자재 부족	◦ 강사모집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미흡
특이사항	◦ 매년 2회의 평가 운영 (2005년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운영) ◦ 효과·만족도 조사 실시	◦ 2009년도 평가 도입	◦ 학교장 재량 운영

* 출처: 한국청소년진흥센터·한국행정연구원(2008). 방과후사업 성과분석 .p.8을 수정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유사사업의 차별성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지속적인 평가운영으로 안정적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체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시범운영부터 매년 2회씩 평가 실시 → 사업수준 향상(2008년부터 평가결과 적정수준 운영 결과도출)을 시도하였고, 매년 평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평가운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가능한 청소년활동시설 등 복합활동공간(청소년시설-공공기관)을 활용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후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 공간 및 기자재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욕구에 맞는 활동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즉, 청소년지도 전문 인력의 방과후 지도력,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별 전문 강사 확보용이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원활한 연계·협력(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갖고 있다.

넷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현장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현장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즉,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트라넷(실무자, 강사용)이 구축되어, 각종 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실무자, 운영관리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시 유선 컨설팅, 신규실무자 교육 등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하고 있다.

요컨대, 효율적인 방과후서비스 지원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청소년들을 사회적 문제에서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의 뒷받침하고 있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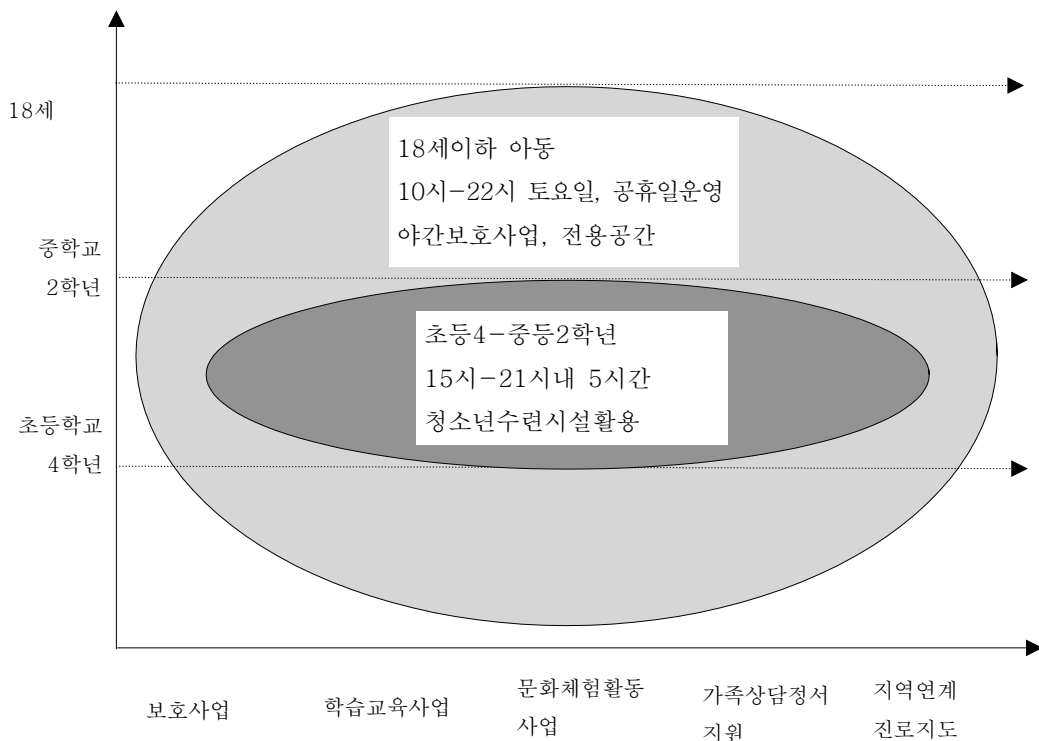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매년 사업의 효과성과 참가 청소년 및 부모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표 Ⅲ-20>과 같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만족도 점수	· 청소년 : 82.4점 · 학부모 : 82.2점	· 청소년 : 81.4점 · 학부모 : 84.2점	· 청소년 : 81.8점 · 학부모 : 82.7점 · 지도자 : 70.5점	· 청소년 : 82.6점 · 학부모 : 82.7점	· 청소년 : 83.4점 · 학부모 : 83.0점
효과 만족도 결과	·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의 기초 제공 · 과도한 사교육비 감소, 사교육 차이로 인한 학력의 대물림 현상 완화 ·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 방과후 공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위기와 절망의 시간을 희망의 기회로 전환	· 인성발달, 교우관계, 효율적 시간관리 능력 향상 ·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기초적 토대 마련 · 청소년과 학부모는 지도자(PM, SM)와 강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생활지원 영역 만족도 · 청소년의 학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향상	·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 도모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 사교육비 양극화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제고, 학부모 양육스트레스 감소 · 지도자 만족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과 생활하고 변화모습에는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처우문제와 안전성 측면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도모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 사교육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 졸업생 대상 프로그램 필요 ·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함 ·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자료를 축적해나가는 자세가 필요	·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 도모 ·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 사교육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 출처: 2006~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내용 요약임.

〈표 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80점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의 발달 지지 및 축진은 물론 부모 등 가족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그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회적 지원체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 우선 사업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방과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가장 큰 유사점이라 할 수 있다.



* 출처: 강명순 외(2009); 이혜연 외(2010). p. 84에서 재인용.

【그림 Ⅲ-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지역아동센터와의 비교

하지만 차별성도 존재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법적 연령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방과후활동 참여가능 학년을 고려한 대상한정이라 여겨진다. 또한 시설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의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에서부터, 학습교육지원, 문화체험, 가족상담, 지역연계에 이르는 보다 포괄적인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교육사업, 문화체험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특성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활동운영에 적합한 시설환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활동시설 중심형과 지역사회연계형이 그것이다. 수련시설 중심형은 수련시설 내에서 대부분의 과정이 운영되는 형태로, 시설환경이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다. 지역사회연계형은 수련시설을 50% 이내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활용은 인근의 공공시설 또는 연계협력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경우 군민·읍민회관, 군문화예술회관,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1).

이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양한 활동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영세하고 소규모의 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이다. 물리적 시설의 우수성이라는 장점은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문강사를 통한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전문체험과정을 활용하여 이용대상 아동·청소년의 흥미와 소질개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계자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에 적합한 시설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점은 기존 시설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항목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한도희·김청송, 2007). 이 연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은 일차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필요한 교실내 기자재 구입과 책걸상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습교육지원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수행하는 주요한 사업내용임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기자재 구입과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는 책걸상의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체계화된 운영과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일 최소 4시간, 최대 6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과정운영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방과후 시간부터 시설의 운영종료시간까지 이용가능한 지역아동센터와는 대비되는 특성이다. 평일의 경우 15시부터 21시 내에서 운영하고, 학교등교 토요일은 12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 내에서 5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토요일 미운영주간은 25시간을 운영하며, 기본공통과목 10시간, 전문체험과정 5시간, 재량활동 5시간, 급식 5시간으로 구성된다. 토요일 운영주간은 기본공통과정 10시간(주요교과목 5시간, 자기주도 5시간), 전문체험과정 5시간, 재량활동 5시간, 급식 6시간, 주말체험 4시간 등

3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이러한 시간활용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내용 편성의 기준은 앞에서 살펴 본 <표 Ⅲ-12>와 같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과정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방과후활동이 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되게 하며, 전국적·지역적으로 균일한 활동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표준화된 운영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공되는 활동의 수준과 내용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양계민 외, 2006: 48-62).

(3) 취약계층 지원의 선별성과 일반가정대상의 보편적 지원 혼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일반형과 지원형으로 운영가능하다. 일반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모형으로 참여청소년 전원이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보살핌, 비행노출 예방 등의 기능을 강화한 모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이러한 운영형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라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맞벌이 가정자녀에 대한 보편적인 방과후 활동지원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이라는 표적집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표적대상이 다소 불분명해지는 요소가 된다. 아울러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맞벌이 가정자녀가 중점대상이긴 하지만 계층의 소득수준이 중요한 참여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형 사업이 확대될 경우 정책적 규제가 없는 조건에서는 일반형 사업을 선호하게 되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대상자 특성이 현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일반 맞벌이가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우선적인 지원대상집단이 저소득취약계층임을 보다 강조하고, 일차적으로 이들 표적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4) 발달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및 보호와 학업성취를 위한 학습지원의 이중적 목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공교육의 미비를 보완하고 사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완화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실무자들 간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목표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고 있다(양계민 외, 2006: 48-6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나치게 학업성적 향상에 초점을 둔 학습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보호를 통해 심리사회적 문제의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도 달성하면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학업성취를 중요시하고 있는 점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목표 달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5) 대상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운영 필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참여시키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소수이다. 이러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구별되는 장점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급별 구분은 가능하지만 학년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학년의 학습수준을 고려한 차별적인 학습지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운영예산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인원이 많아 효율적인 맞춤형지도가 어려운 면도 나타난다.

(6) 적극적인 아웃리치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대상자의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이 존재하고, 학부모들로부터의 신뢰도 부족한 편이다(양계민 외, 2006). 이와 관련해 홍보와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대상자모집 보다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후 활동이라는 성격상 학교와의 연계는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관련 정보를 학교교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의 주요한 행동적, 정서적 특성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아동센터와도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상자를 의뢰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하다.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또 다른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협력기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있는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7) 전문성을 갖춘 지도인력 확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상근 지도인력은 PM과 SM이다.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 인력이 참여하지만,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와 돌봄, 그리고 전체 사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지도인력은 바로 이들 상근 지도인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실무자 자격요건을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표 Ⅲ-21>과 같다.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상근 지도인력의 확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PM과 SM에 대한 처우 수준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적지 않은 업무량 등의 문제가 겹쳐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06: 58-60).

표 Ⅲ-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운영책임자 (PM)	○ '12년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채용 - 기존 기관(시설) 종사자 배치시 중복(겸임)업무 금지, 운영책임자의 교체시 변경사유서 제출(지자체관리),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지역 내 응시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시에는 재공개·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 청소년육성 분야 및 방과후지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확대 선발) * 선발 시 동등한 조건일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등
실무지도자 (SM)	○ '12년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채용 -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지역 내 응시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시에는 재공개·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 청소년육성 분야 및 방과후지도 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 확대 선발) * 선발 시 동등한 조건일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등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뉴얼.

표 Ⅲ-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사인력 자격요건

구 분	과 정	인력확보방안
체험전문가 (주 8시간)	전문체험활동 (일반, 토요 구분)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 사회적기업(전문체험강사 파견 등) 연계 및 협력 노력
교과전문가 (주 5시간)	학습지원활동 (기본공통과정)	- 해당 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으로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자원개발 및 연계필요 * 사회적기업(전문체험강사 파견 등) 연계 및 협력 노력

* 학습지원활동 중 보충학습지도(숙제, 독서 등)는 실무지도자(SM) 담당

* 출처: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뉴얼.

3. 아동양육시설⁷⁾

1) 아동양육시설 개요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이 시설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시설’로 규정되었고, 1981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영아시설’과 ‘영아시설’로 구분되었고, 이후 ‘아동양육시설’로 통합되었다.

2012년 8월 4일 이전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었는데,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2012년 8월 4일 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11개 종류이었지만, 새 아동복지법에서는 기존 아동직업훈련시설이 아동양육시설로 통합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이 삭제되어 8개 종류만 남았다.

7)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집필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현황’ 등 공식적인 통계를 산출할 때, 2004년부터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통계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아동복지시설의 통계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2010년 12월말 현재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고, 그중 아동양육시설이 238개소로 전체의 85.0%를 차지한다(하지만, 2011년 말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300여개소가 넘고, 지역아동센터가 3,985개소가 넘기에 아동복지법상 전체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은 10%에도 미치지 않기에 통계 적절성이 떨어지지만 정부가 이 통계치만을 제시하기에 부득이 이를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상 ‘아동양육시설’과 별개로 ‘개인양육시설’의 수치를 별도로 제시하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양육시설도 아동양육시설에 포함시키면 아동양육시설은 263개소(238+25)가 되고, 아동양육시설은 전통적인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의 93.9%를 차지한다.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 고루 배치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에 많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식 통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의 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17,119명이다. 그중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15,787명으로 전체의 92.2%이고, 여기에 개인양육시설의 아동 340명(전체 2.0%)을 포함하면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16,127명으로 전체의 94.2%이다.

아동복지시설 280개소에 일하는 종사자(시설장, 직원)는 5,323명이다. 이는 한 시설당 평균 19.0명이 근무하고, 한 종사자당 평균 3.22명의 아동을 돌보는 셈이다.

2) 아동양육시설 현황

(1)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의 위상

2012년 8월 4일 이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6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그 중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 이외에도,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와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의 사업에는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이다.

그런데, 2011년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법률 제11002호) 개정 아동복지법에 맞추어서 아동양육시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제52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는 기존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비교할 때,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의 제공”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기존 법에 있었던 ‘아동직업훈련시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개정 법에서 ‘아동양육시설’로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아동양육시설의 법적 정의의 변화는 단순히 아동직업훈련시설의 폐지라기보다는 아동양육시설의 핵심 기능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취업훈련과 자립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

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 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표 III-2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현행법	개정법률	비고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직업훈련시설	삭제	아동양육시설로 통합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정서/행동장애 아동 보호치료 기능 추가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단기보호시설	삭제	운영시설 없음
아동전용시설	아동전용시설	2010년말 3개 운영
아동복지관	삭제	2010년말 2개 건립중

* 출처: 오승환 외(201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발전방향, 한국아동복지학회, p. 6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변화는 크게 두 차례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을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할 때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① 본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 이 법에는 이후 영유아보육시설이 된 ‘탁아시설’, 모자복지시설이 된 ‘모자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된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아동양육시설은 ‘보육시설’로 규정되었고, 그 기능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보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고, 5세 미만을 위한 영아시설과 5세 이상 18세 미만을 위한 육아시설로 구분되었다.

제 2 조(아동복지시설의 의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 복지시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상담소 아동의 복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가. 아동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
 - 나.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행하는 것
2. 보육시설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영아시설 (5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한다)
 - 나. 육아시설 (4세이상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한다)

[생략]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82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신체허약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었다. 그 중 영아시설과 육아시설은 이후 현재 아동양육시설로 통합되었다. 이 법에서 보호대상의 연령은 5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낮추어서 3세 미만은 영아시설에서 “보호/양육”하고 3세 이상 18세 미만은 육아시설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적의 용어도 “보육”에서 “보호/양육”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1. 아동상담소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영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육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생략]

그 두 번째는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2004년 1월 29일에 개정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서 대폭 개정되었다. 이 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기존 시설이외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 중심의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가정과 같은 주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제시했고,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를 “지역사회 아동”로 변화시켜서 아동복지의 지평을 넓혔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은 그 명칭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고, 다시 수차례 바뀌면서 아동양육시설의 위상은 아동복지시설의 중추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양육, 직업훈련, 자립지원 기관으로 전문화되었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10%에도 미달되고, 그곳에서 사는 아동의 수도 점차 감소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역아동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공동생활가정도 증가된 것과 비교된다.

(2) 아동양육시설의 시설

2012년 8월 4일 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11개 종류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현황’ 등 공식적인 통계를 산출할 때,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제외시키고 있다. 법률상 그 명칭은 있지만 운영되는 시설이 없는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을 제외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공식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두 시설은 2004년부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새롭게 규정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날수록 아동양육시설은 감소될 수 있기에 통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도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공식 통계에서 별도로 취급되기에 비교 가능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글도 부득이 정부가 제공한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12월말 현재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전국 (전통적인)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고, 그중 아동양육시설이 238개소로 전체의 85.0%를 차지한다(2011년 말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300여개소가 넘고, 지역아동센터가 3,985개소가 넘기에 아동복지법상 전체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은 10%에 미달한다).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 고루 배치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에 많다. 인구 대비 울산에 1개소밖에 없는 것은 과거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된 광역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대비 전남, 경남, 광주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동양육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6.25때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동양육시설 이외의 다른 아동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 14개소, 보호치료시설 12개소, 자립지원 시설 12개소, 아동상담소 7개소, 종합시설 3개소, 전용시설 3개소, 직업훈련시설 2개소, 개인양육시설 25개소이다. 일시보호시설 등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은 대개 한 시/도에 1개 내외가 있거나 없는 곳도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개인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인데, 정부가 주로 사회복지법인인 운영하하는 ‘아동양육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차별하기 위해서 별도로 범주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양육시설도 아동양육시설에 포함시키면 아동양육시설은 263개소(238+25)가 되고,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93.9%이다.

표 Ⅲ-24 아동복지시설 현황(2010년 12월 현재)

구분	계	아동양육 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시설	아동 상담소	전용시설	개인양육 시설
계	280	238	2	12	12	14	3	7	3	25
서울	45	32	2	1	3	5	2	0	0	5
부산	22	19	0	1	1	1	0	1	0	2
대구	22	18	0	1	2	1	0	0	0	0
인천	11	9	0	0	0	2	0	3	1	0
광주	11	9	0	0	1	1	0	1	1	0
대전	13	11	0	1	1	0	0	0	0	1
울산	1	1	0	0	0	0	0	1	0	0
경기	32	27	0	3	0	2	0	1	0	0
강원	10	9	0	0	0	0	1	0	0	5
충북	12	10	0	1	1	0	0	0	0	1
충남	15	14	0	0	1	0	0	0	0	0
전북	16	14	0	1	1	0	0	0	0	1
전남	24	21	0	1	1	1	0	0	0	3
경북	16	15	0	0	0	1	0	0	0	5
경남	25	24	0	1	0	0	0	0	1	1
제주	5	5	0	0	0	0	0	0	0	1

* 출처: 보건복지부(2011), 아동복지시설현황.

(3)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식 통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의 통계에는 포함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없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의 아동’을 제외한 보호아동의 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17,119명이다. 그중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15,787명으로 전체의 92.2%이고, 여기에 개인양육시설의 아동 340명(전체 2.0%)을 포함하면 전체 양육시설의 아동은 16,127명으로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94.2%이다.

표 III-2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0년 12월 현재)

구분	계	아동양육 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시설	개인양육 시설
계	17,119	15,787	69	495	235	402	131	340
서울	3,153	2,633	69	79	74	188	110	46
부산	1,963	1,893	0	36	28	6	0	36
대구	924	840	0	35	30	19	0	0
인천	707	678	0	0	0	29	0	0
광주	747	663	0	0	24	60	0	0
대전	653	500	0	140	13	0	0	13
울산	122	122	0	0	0	0	0	0
경기	2,030	1,852	0	80	0	98	0	0
강원	525	504	0	0	0	0	21	75
충북	740	699	0	29	12	0	0	17
충남	794	772	0	0	22	0	0	0
전북	909	829	0	61	19	0	0	29
전남	1,364	1,328	0	22	13	1	0	36
경북	946	945	0	0	0	1	0	64
경남	1,217	1,204	0	13	0	0	0	6
제주	325	325	0	0	0	0	0	18

* 출처: 보건복지부(2011), 아동복지시설현황.

(4) 아동양육시설의 직원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280개소에 일하는 종사자(시설장, 직원)는 5,323명이다. 이는 한 시설당 평균 19.0명이 근무하고, 한 종사자당 평균 3.22명의 아동을 돌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통계로는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93.9%가 아동양육시설인 상황에서 대체로 다음 표와 유사할 것이다.

표 III-2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0년 12월 현재)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아동정원	입소아동		
				계	남	녀
계	280	5,323	23,565	17,119	9,790	7,329
서울	45	1,057	4,343	3,153	1,711	1,382
부산	22	558	2,625	1,963	1,091	872
대구	22	307	1,584	924	537	387
인천	11	251	881	707	390	317
광주	11	219	1,000	747	437	310
대전	13	202	952	653	410	243
울산	1	38	150	122	67	55
경기	32	616	2,314	2,030	1,183	847
강원	10	161	707	525	268	257
충북	12	245	1,001	740	417	323
충남	15	234	1,090	794	462	332
전북	16	283	1,199	909	555	354
전남	24	440	2,182	1,364	790	574
경북	16	247	1,358	946	552	394
경남	25	366	1,804	1,217	663	554
제주	5	99	375	325	197	128

* 출처: 보건복지부(2011), 아동복지시설현황.

3) 아동양육시설 사업분석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의 핵심기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이었지만 “취업훈련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강조될 것이므로 새 틀에 맞추어서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변화

1962년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제1조 목적에서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의 핵심 서비스 대상을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강조점을 두었다. 법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아동복지시설의 핵심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보육시설’이었다.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복지대상은 많았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는 정부는 198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할 때까지 ‘요보호아동’의 복지에 집중시켰다. 1981년 4월 13일에 전부 개정되어 바로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요보호아동’의 복지에 한정시켰다.

3.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의 대상을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인 고아, 기아, 미아, 가출아에 한정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하였던 것은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되고, 2000년 7월 13일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새롭게 ‘아동학대’가 강조되면서 변화되었다. 아동복지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아동학대’가 포함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기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이는 아동복지의 핵심대상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고아, 기아, 미아, 가출아에서 “학대받는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생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이후 한국의 아동복지의 지평을 바꾸었다. 기존 아동복지는 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고아, 기아, 미아, 가출아 등에 집중하였다면, 이후 아동복지의 대상은 점차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인 학대받는 아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0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10년 한 해동안 9,960명이 신고되었고, 그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된 1,370명을 제외한 나머지 8,590명이 ‘요보호아동’이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은 기아 191명, 미혼모(부)(혼외자 포함) 2,804명, 미아 210명, 비행가출부랑 772명, 학대 1,097명, 부모 빈곤/실직 586명, 부모사망 772명, 부모질병 203명, 부모이혼 등 2,015명이었다. 이를 몇 가지로 범주화시키면 과거 요보호아동의 주류이었던 기아/미아는 크게 줄고, 미혼모(부)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한 아동이 2,804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증가되고,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부모의 빈곤/실직과 이혼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아동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요보호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4,431명(51.6%)이고 여자가 4,159명(48.4%)이고, 비장애인이 8,143명(94.8%)이고 장애인이 447명(5.2%)이다. 그중 시설보호가 4,842명(56.4%)이고 가정보호가 3,748명(43.6%)이다. 시설보호는 양육시설 입소 2,445명, 일시보호시설 1,751명, 장애아동시설 입소 23명, 공동생활가정 623명이다.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정이 231명, 입양이 1,393명, 가정위탁이 2,124명이다.

(2) 보호와 양육

보호아동의 성격이 변화되면 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고아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보호대상아동을 ‘고아’처럼 양육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아동양육시설에 사실상 ‘고아’는 거의 없는데, 기관의 운영은 고아원처럼 하기에 아동의 변화된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1년 오승환 외가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선방향’이란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복지시설(94% 가량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대안의 가정을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공하는데 집중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아동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받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를 병원 등 요양취급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아동이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은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 주는 생계급여(주식비, 부식비 등)를 받고, 직원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서비스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전국 266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에게 초기적응, 자립준비,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아동상담, 예체능, 문화활동, 학습, 캠프, 교류, 사회적응, 성교육 프로그램을 대체로 우수 혹은 양호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프로그램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동상담, 문화활동, 캠프, 사회적응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아동의 자립준비와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은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27 아동양육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평균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실시 적정	81.4	11.8	3.0	3.8	3.70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실시 적정	67.6	22.2	6.2	4.0	3.53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준비	62.7	24.4	9.3	3.6	3.46
아동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짐	88.4	6.2	4.4	0.9	3.82
예체능 프로그램 실시	85.1	11.1	1.7	2.1	3.79
문화활동 프로그램 실시	90.2	6.8	1.7	1.3	3.86
학습 프로그램 실시	84.7	11.1	3.0	1.3	3.79
캠프 프로그램 실시	88.1	8.5	1.3	2.1	3.83
교류 프로그램 실시	84.0	8.0	4.0	4.0	3.72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89.8	6.2	2.2	1.8	3.84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88.3	8.5	0.9	3.4	3.80

* 출처: 오승환 외(201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발전방향, 한국아동복지학회, pp. 33~40.

(3) 취업훈련과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아동의 자립준비와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는 집중하였지만, “취업훈련과 자립지원”에는 역점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이 핵심기능을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두고, 아동의 자립지원에 강조점을 못 둔 것도 있지만,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시키도록 자립지원담당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자립지원을 단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지도하지만, 집단생활에 익숙한 아동이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제 4 장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정책

1. 영국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2. 미국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3. 프랑스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4. 일본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제 4 장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1. 영국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⁸⁾

1) 들어가며

여기에서는 영국 방과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이 어떠한지 영국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과후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의 방과후서비스는 학교에 의해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와 활동들을 말한다. 이는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장점과 열망에 맞게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교육개혁적 차원의 전국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Every Child Matters(ECM) 아젠다와 아동계획(Children's Plan)을 실천하는 주요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최근 정부는 2010년까지 학교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방과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제언(core offer)을 하기에 이르렀다. 핵심제언의 내용에는 다양한 활동, 초등학교에서 연간 48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공하는 아동돌봄, 가족학습을 포함한 부모지원, 특정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에 신속하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 시설에 지역사회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래 표는 영국 잉글랜드의 런던 남서쪽 본머스(Bournemouth)의 인근에 위치한 Henbury View First School에서 시행하는 방과후서비스의 전체 목록들로서, 대표적인 방과후서비스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을 보면, 아침클럽(Breakfast Club)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학교 정규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인 8시 45분까지 운영한다. 양질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무 외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침식사와 함께 정규수업시간에의 왕성한 지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는 다양한 학습지원활동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환경클럽, 댄스동아리,

8) 김진우(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집필

쿵푸, 요리클럽, 테니스, 합창, 축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방과후에 배치되어 다양한 체육, 예술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자신들의 소질과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규수업에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 Henbury View First School에서 시행하는 방과후서비스 목록

Day/Time	Name of Club	Owner/Lead	Contact Details
Monday 8am-8:45am	Breakfast Club	Mrs Curtis	School Office
Monday 3:20pm	Eco Club	Mrs. Merton	School Office
Monday 3:45pm-9pm	LA Dance Academy	Louisa	07971 697957
Tuesday 8am-8:45am	Breakfast Club	Mrs Curtis	School Office
Tuesday 3:25pm-3:55pm	Kung-Fu Kids Yr1/Foundation	Lorraine	01202 640386
Tuesday	LA Dance Academy	Louisa	07971 697957
Tuesday 3:20pm-4:30pm	Cooking Club	Miss Hunt	School Office
Wednesday 8am-8:45am	Breakfast Club	Mrs Curtis	School Office
Wednesday 3:20pm-4:20pm	Premier Tennis	Steve Thomas	07870 496284
Wednesday	Choir	Mrs Quick & Mrs Clarke	School Office
Wednesday 6pm-8pm	LA Dance Academy	Louisa	07971 697957
Thursday 8am-8:45am	Breakfast Club	Mrs Curtis	School Office
Thursday 3:20pm-4:15pm	Art Club	Mrs Lucas	School Office
Thursday 3:30pm-4:30pm	Soccer Academy	Danny	07778 871428
Thursday 5pm-7pm	Pilates	Debbie Tennant	01202 690576
Thursday 7:30pm-8:30pm	Zumba Fitness	Jackie Carroll	07533 806933
Friday 8am-8:45am	Breakfast Club	Mrs Curtis	School Office
Friday 3:30pm-4:15pm	Kung-Fu Kids Yr1 - Yr 4	Lorraine	01202 640386

* 출처: <http://www.henburyview.dorset.sch.uk/our-school/clubs-2/> visited on 28th July 2012.

이러한 방과후서비스는 단지 학교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들로부터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청소

년공부방, 청소년활동지원관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학교 외에 슈어스타트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 Centre) 등에서도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지역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러한 방과후서비스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방과후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러한 서비스가 영국사회에 어떤 함의를 주고 있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방과후서비스 연역 및 현황

(1) 방과후서비스의 시초

영국에서의 방과후서비스는 학교에 의해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와 활동들을 말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Website, 2012). 이러한 서비스는 정규교과과정 시간 외에 이루어지며 아동돌봄(childcare), 스포츠활동 그리고 학습지원을 포괄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서비스가 주요한 교육정책의 갈래로 자리잡게 되기까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십여년전 영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다양한 불이익과 사회적 배제와 연관된 문제들을 학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넓어졌다. 이러한 점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성과 접근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는데 그 일환으로 다양한 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데 방식에 초점이 모여졌다. 다기관접근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전문가에게 학교 내에 서비스 실천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특히 강력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는 언어 및 수리 학습 때 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다양한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학교: 성공적인 역할수행 Schools: Achieving Success」이라는 백서(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1)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학생,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직면하게 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와

9) 이 백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당시 학교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교육표준화, 중등교육의 다양성 향상, 개별학생의 재능과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 등과 이를 추진하기

같은 유형을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방과후’학교시범프로젝트는 잉글랜드 3개 지역에서 착수되었고 25개 방과후학교 개척자 프로젝트(Extended School Pathfinder Projects)가 2002년에 재정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2002년 교육법(The Education Act,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해당)은 정부로 하여금 학교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이후 영국 정부가 방과후 학교의 컨셉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방과후서비스 제공 현황

영국 교육부에서는 201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에 대한 보고서(Department for Education, 2010a: 3-6)를 발표한 바 있다. 백분율은 각 지역별 전체 학교수 대비 핵심제언에의 5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제공하는 학교수를 나타낸다. 이 통계에 따르면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수는 전체 21,273개교이며, 제공 비율은 98%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은 최저 89%(South East 지역의 Workingham이 이에 해당)에서 최고 100%까지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위해 필요한 교육체계의 탈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고 있었다(71-75).

표 IV-2 영국 방과후서비스 제공 학교 비율(잉글랜드 내 지방정부지역별)

지역	2010년 6월 10일 기준		
	총 개교 수	핵심제언 구성요소 제공 학교	
		개교수	백분율
England(잉글랜드 전체)	21,678	21,273	98
North East ¹⁰⁾	1,180	1,165	99
- Darlington	39	39	100
- Durham	286	286	100
- Gateshead	87	87	100
- Hartlepool	37	37	100
- Middlesbrough	54	54	100
- Newcastle upon Tyne	97	91	94
- North Tyneside	77	77	100
- Northumberland	185	183	99
- Redcar and Cleveland	59	57	97
- South Tyneside	68	68	100
- Stockton-on-Tees	76	71	93
- Sunderland	115	115	100
North West	3,171	3,127	99
Yorkshire and Humber	2,254	2,24	99
East Midlands	2,056	2,036	99
West Midlands	2,382	2,339	98
East of England	2,567	2,507	98
London	2,428	2,372	98
South East	3,326	3,235	97
South West	2,314	2,268	98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2010a: 3-6)의 내용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Metropolitan과 Shire)만 제시한 것임

10) 「North West」는 각 지방정부들의 묶음을 나타내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 흔히 위의 표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통계치를 보여준다. 실제 각 지방정부들은 「North West」 아래에 있는 명칭들이며 원자료에서는 각 지역별로 해당 지방정부의 통계치가 모두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자료구성의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North West」에서의 지방정부만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3) 제공되는 방과후서비스의 종류

제공되는 방과후서비스의 종류는 △ 학습지원 또는 숙제클럽(homework clubs) 등 학교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학습기회 제공, △ 부모지원서비스 또는 건강, 사회돌봄 또는 특수교육서비스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스포츠와 예술활동, △ 학교수업시간 전후(前後) 아동돌봄서비스, △어른과 가족학습용과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학교 시설이용, 스포츠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이용 등이 있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2008a: 2-3).

① 학습지원 또는 숙제클럽(homework clubs) 등 학교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학습기회 제공
숙제클럽, 학습지원, 운동, 음악, 댄스, 드라마, 미술, 공예, 외국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규학습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숙제클럽은 정규수업시간 외에 충분히 지도·감독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서론에서 살펴본 〈표 IV-2〉에서의 Henbury View First School에서 다양한 학습지원 또는 학습활동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부모지원서비스

부모 또한 아이를 양육하면서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수행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양육자이면서 교육자의 역할을 부모가 스스로 터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전문가의 다양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조언과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입학, 전학, 진학 등 자녀에게 중요한 시기에 조치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방과후서비스는 이러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나 자녀의 특별한 욕구, 그리고 연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③ 양질의 아동돌봄서비스(Quality Childcare)

학교는 양질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가 일과 아동돌봄 양자를 균형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당초 방과후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2008년까지 최소한 1/2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고 2010년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12년 현 시점에서 보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98% 이상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여러 학교가 Cluster를 조직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또 학교가 아니라 Sure Start를 실시하는 아동센터(Children's Centre)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학교 또는 학교 외 서비스 공급자가 아침클럽(Breakfast Club)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 출근 때문에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출근에 따른 돌봄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이 클럽이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3교대 근무 등에 따른 야간근무가 잦을 경우 아침을 차려주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아침클럽에서는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아동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측면 외에도 아동들의 식습관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식사시간을 통해 아동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좋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 등 오후 3시~3시 30분 이후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방과후클럽(After School Club)을 운영하거나 학교 인근에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성인평생학습과 가족학습을 들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내에 Community Room을 통해 예술, 공예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스포츠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이용도 포함된다.

(4) 방과후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

학교에서는 아침클럽(breakfast clubs), 학교클럽 이외의 클럽(숙제클럽 등)과 아동돌봄과 같이 방과후서비스 활동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직원 또는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교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한다. 총 이용요금은 그 활동들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아서 안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지불을 요청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방과후서비스가 학교정규수업시간 외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정규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
- 학교가 학생들에게 치르게 하는 공적시험(public examination)을 위한 교과목 지침서
-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본 교과과정

3)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전달 모델

방과후서비스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강의 내용은 정부에서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만큼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학교의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식 또한 별도의 재정을 구분해서 시달하기 보다는 일반교육재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의 재량권 행사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학교에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진 만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과후서비스가 제공되고 전달되는 모델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National Remodelling Team, 2006: 11-15).

첫째, 학교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델이다.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반되는 각종 행정사항을 모두 학교에서 감당하는 경우이다. 이 때 학교는 2002년 교육법 제27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방정부, 직원, 부모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학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방과후서비스가 학교 또는 학교연합에 의해 세워진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에 의해 제공되고 관리되는 경우이다. 회사가 결국 책임의 주체가 된다. 학교가 얼마나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인가는 회사에 대한 통제수준에 달려있다. 회사의 책임자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근무조건 등 다양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셋째, 학교가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는 경우이다. 일부 또는 전부의 방과후서비스가 학교와 계약을 맺은 또 다른 조직에 의해 제공되고 관리되는 경우이다.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회사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조직 또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자일 수 있다. Childminder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조기교육팀 또는 전국보육협회(National Childminder Association: NCMA)가 이러한 모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부 공급자가 방과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통제권을 가지고 사업수행에서의 위험도 감수한다. 그럼으로써 학교의 교장은 학교가 가져야 할 본래의 핵심적인 목적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 학교는 그러한 공급자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넷째, 방과후서비스가 자발적인 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방과후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좀 더 많은 비중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사례이다. 이는 개별 학교에서 방과후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학교가 연합해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위원회를 통해 방과후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Leicestershire와 Cambridgeshire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위원회(voluntary committee)와 지역사회협의회(communitiy association)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강력한 대표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가 지게 된다. 하지만 방과후서비스가 발전하는데 지역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공급모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와 학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지배구조,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포 및 성향,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방과후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정부지원

방과후서비스는 2007년 12월에 발간된 아동계획(The Children's Plan)의 내용(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 3-4)과 2008년 6월에 발표된 백서(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8b: 5-10)인 「21세기 학교(The 21st Century Schools)」에서는 미래의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허브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학교가 어떻게 아동학습의 장벽을 허물고 학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very Child Matters가 구현되는 것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학교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과후서비스의 핵심제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정규수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방과후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은 서비스 이용자의 몫이지만 방과후서비스를 둘러싼 시장이 형성되고 또 이용료 지불이 부담스러운 계층의 아동들이 방과후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가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데 영국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과후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억 파운드 이상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초기 단계인 2003년부터 제도적 틀을 잡기 위해 8억 4,000만 파운드를 투자한 바 있다. 이러한 10억 파운드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원금은 학교로 하여금 재미있고, 높은 수준의 방과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나 특별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이러한 방과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의 2억 6,500만 파운드가 배정되어 있었다.

표 IV-3 영국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단위: 백만파운드)

Extended Schools Total Funding 2008-2011	2008-2009	2009-2010	2010-2011	전체기간
Start Up (through Area Based Grant)	165.0	172	71	408.0
Sustainability (through Standards Fund)	40.0	100	155	295.0
Extended School Subsidy (through Standards Fund)	8.5	40	217	265.5
Academic-Focused Study Support (through National Challenge and Standards Fund)	0.0	84	83	167.0
Total Extended Schools Revenue	213.5	396	526	1,135.5
Extended Schools Capital	84.0	89	46	219.0
Total Extended Schools Revenue and Capital	297.5	485	572	1,354.5

* 출처: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c; 정익중 등, 2008: 117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2012년 현재는 어떠한가? 종래 표준기금(Standard Fund)을 통해 제공되어졌던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1년 4월부터 전반적인 학교 재정수입 기초선(overall schools revenue baseline)의 일부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포함되더라도 방과후서비스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교에게 자유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는 학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과후서비스 예산을 보다 많이 책정하려는 의사가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개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배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2010년 방과후서비스 재정지출검토서에 담겨져 있었다. 동 검토서에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간에 더 가난한 학생들에게 표적화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 대해 2011-2012년 회계연도에서부터 2014-2015년도까지 학생부가지원(Pupil Premium funding)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지원액은 더 가난한 가정의 아동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교육불평등을 줄이는데 그 기능의 무게중심이 두어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0b: 1). 결국 정리하자면 향후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전체 예산 중 취약계층아동들에 대한 방과후서비스 제공 폭은 보다 넓혀나가는 방향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지불에의 정부 지원

방과후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지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방과후서비스가 일부 아동돌봄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소득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에서 아동돌봄 요소를 통해 방과후서비스로 아동돌봄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만약 가족구성원이 일하고 있으며 학교클럽 외의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받게 되는 세금공제액은 그 아동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실제 자격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클럽이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www.ofsted.org.uk)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아울러 5-7세 아동에 대한 강제등록기관이거나 8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임의등록기관이어야 한다. 한편,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클럽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1) 자격요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첫째, 만약 한부모일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양부모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쪽 모두 주당 16시간 일하고 있어야 한다. 한쪽만 16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이 장애인 (incapacitated라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장애관련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옥고중에 있거나 돌봄수당(Carer's Allowance)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한편,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 경우에 한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아동돌봄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출산 또는 입양 휴가 중에 있는 경우이다. 둘째, 28주 또는 그 이내의 상병휴가 중에 있는 경우이다.

(2) 정부지원 정도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불한 비용의 70%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한 자녀일 경우에는 한 주에 최대 175파운드, 두 자녀 이상이어서 한 주에 최대 300파운드를 비용으로 지불한 경우 각각 122.50파운드 및 210파운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3) 소득수준 적용 정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한 자녀를 둔 양부모가정일 경우 한 주에 아동돌봄으로 175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41,000파운드까지 일정 정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일반적인 가이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대가족일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세금공제 금액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6) 방과후서비스 시행 근거법 및 주요정책¹¹⁾

(1) 2002년 교육법(Education Act of 2002)

영국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2002년 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다. 동 법 제27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근로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 유익을 제공하고자 자선적 목적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동 법은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반드시 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부모나 지방정부의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서비스 연합단체로부터 자문은 학교의 방과후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리소스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 또한 지역사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은 강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정보서비스(Children's Information Service)와 사업지원공무원(Business Support Officer) 등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조정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2)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of 2004)

방과후서비스 정책과 실천은 정부의 아동 프로그램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방과후서비스의 초기 계획 및 발전기간 동안 정부는 2004년 아동법을 통해 아동서비스 개혁에 대한 법률적인 틀을 구축해왔다. 아동법 제2부에서는 영국 아동위원회의 설립 및 보육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함께 영국의 아동서비스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10항은 Every Child Matters의 5가지 성과로 정의된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역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협력주체로는 지방정부, 경찰, 보호관찰기관, 청소년범죄팀, 의료기관 및 일차의료재단, 학습 및 기술 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아동 안전협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현재의 법률적 계획과 실행사항 대신에 통합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1) 여기에서는 내용은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2008)이 연구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개발연구」 pp109-110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부에 대해서만 보완·수정하였다.

2004년 아동법의 제18항과 제19항은 지역정부는 교육 및 아동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아동서비스 총책임자와 실무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제20항 및 제24항에서는 통합감사구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학교, 평생학습, 사회적 돌봄, 의료, 경찰, 보호감찰기관 및 교도소를 포함한 관련 관계자들에게 모든 아동 서비스 감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 조항은 각 지방정부에서 아동서비스가 어떻게 실시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연합지역검토단(Joint Area Reviews: JAR)이 정기적으로 지역을 검사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Every Child Matters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새로운 정책 기초를 제시한 Every Child Matters는 0-19세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교육대상자와 가족, 특히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말한다. 이 정책은 1999년말 Victoria Climbié라는 당시 9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살인사건¹²⁾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을 담아낸 것이다. 즉, 이 아이가 순간적인 사고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학대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또 12번이나 빅토리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죽고 말았다는 사실에 영국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정책적 결단의 소산이 Every Child Matters인 것이다.

결국 Victoria사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아동서비스 책임의 단독적이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무자세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very Child Matters가 생겨났으며 2001년에는 라밍백작보고서, 2003년에 Every Child Matters Blue Paper, 2005년에 Extended Schools 및 동년에 이어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 등을 통해 아동복지 시스템을 빠르게 혁신시켜나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Every Child Matters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즐겁고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경제적 안녕상태를 성취하려는 등 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2) 1999년 봄 Victoria Climbié는 어머니의 여동생에게 입양되어 영국땅에 발을 디디게 되지만 입양한 엄마(당초 이모)는 빅토리아를 철저히 자기 삶을 위해 이용하면서 ‘시립보조주택 입주’, ‘기초수급자 가족연금’, ‘아동보호연금’ 등을 수급받는데 앞장세웠고 동거남과 함께 10개월에 걸친 학대 끝에 빅토리아는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7)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영국에서의 방과후서비스는 종래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2010)에서 담당하다가 중앙정부 개편에 따라 2011년부터 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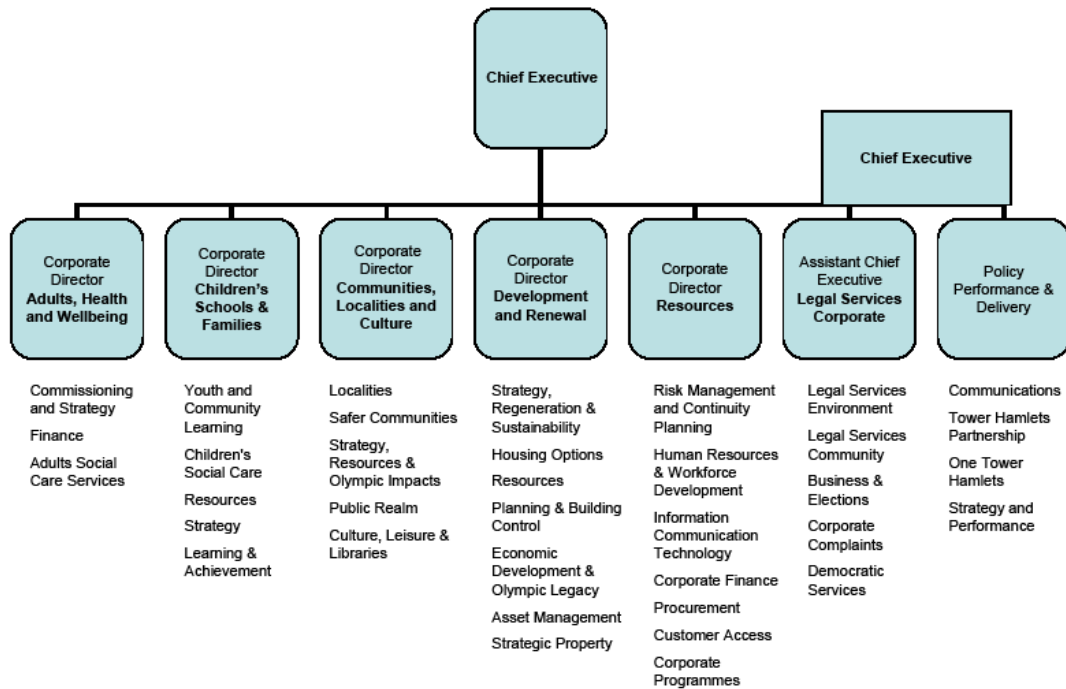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아래에는 훈련개발청(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급 교사들의 교육과 경력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National Remodelling Team(NRT) 또한 이 훈련개발청에 소속되어 있다. National Remodelling Team(NRT)은 방과후서비스가 처음 실시될 때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경험들이 전국의 학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여름에 조직되었다. 이 팀의 조직은 전직 교사나 교장인 교육전문가와 사업변화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팀은 리모델링에 대한 견고한 과정을 학교에게 제안해주며 활용 가능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학교가 문화적 변화를 수행하고 변화하는 활동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를 위해 이 팀에서는 학교가 자료와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영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직이지만 상당부분 자체적인 권한과 업무를 가지고서 폭넓은 사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소득보장과 고용과 관련해서는 연금고용부(Department of Pension and Work)가 자기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지원센터(Job Centre Plus)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연계협력을 하지만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견주어 보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자신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보건부 소관인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에서 수립한 정책은 지방정부를 통해 학교에 전달된다. 아래 표는 영국 Towerhamlets지방정부의 조직도표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한 국(局)에서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ouncil Management Structure (as at 30th Septemb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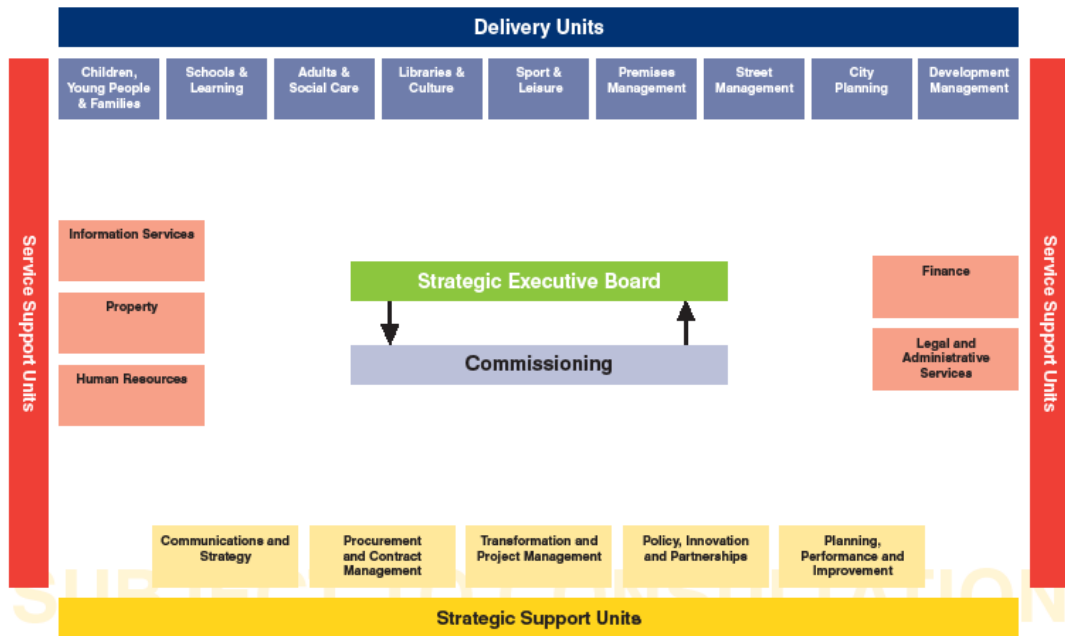


* 출처: http://www.towerhamlets.gov.uk/lgsi/800001-800100/800035_-_council_structure.aspx

【그림 N-1】 Council Management Structure

또 다른 지방정부인 Buckinghamshire 지방정부의 조직도표가 아래에 나와 있다. 이 조직에서는 학교서비스와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를 분리시켜 놓았지만 양쪽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을 둘로 나눌만큼 정책적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서비스 및 학습을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학습, 아동의 사회통합, 특수교육, 조기교육 및 방과후서비스, 미래전략 등을 업무별로 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Our new model



Children and young people – schools and learning

The primary purposes of the Schools and Learning delivery unit are to provide a comprehensive range of services and provision for under-5s, play provision for children 5-14, to raise standards of attainment and achievement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schools and post-16 institutions and to provide targete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 출처: City of Westminster(2009). Our New Council Organisation.

【그림 IV-2】 Buckinghamshire model

이러한 지방정부에는 모두 Extended Schools Remodelling Advisers(ESRAs)가 임명되어 있다. 이들은 NRT(National Remodelling Team)와의 협력 아래 리모델링 도구와 과정을 활용하여 해당 지방정부 전체에 학교에서의 방과후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한다.

(3) 민간단체

① 4Children

4Children은 아동과 가족에 관한 전국자선민간단체(National Charity)이다. 여기에서는 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 다양한 파트너기관들과 연계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이 기관에서는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를 운영하고 있다.

4Children의 최근 보고서(2012: 5)에 따르면 201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슈어스타트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인 5세 이하 아동이 350만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2010년 4월부터 281개가 삭감되어 현재로서는 전국에 약 3,350개 정도의 슈어스타트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회계연도 2012-2013년도에 약 23억 6,500만 파운드가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조기개입보조금(Early Intervention Grant)의 형식으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슈어스타트아동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갈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박탈지역과 비박탈지역간의 학교학습 준비 및 성취의 차이가 지난 3년전에 비해 3%가 줄어든 12%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아동센터에서는 매 1파운드 투자에 대해 4.6파운드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10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슈어스타트센터는 조기 개입과 예방의 핵심에 서야 한다는 것, 이를 반영하는 정부는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 슈어스타트가 전국적으로 사업수행에의 우선적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동센터에 대한 사회투자모델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② Contin You

Contin You는 영국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민간단체 중의 하나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아동이 가진 환경적 요소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 방과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Contin You는 2003년에 방과후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http://www.continyou.org.uk/about_us/history). 여기에서 제공하는 방과후서비스로는 부모연계서비스, 아침클럽(Breakfast Clubs) 등이 있다(http://www.continyou.org.uk/what_we_do/our_projects).

8) 방과후서비스의 질 통제(Quality Control)

OFsted는 감독절차(inspection procedure)의 일환으로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방과후서비스를 측정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효과적인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학교당국에 대해 부과되어 있는 두 가지 의무사항 -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학생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OFsted가 54개의 지방정부에 산재해 있는 30개의 아동센터와 32개의 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연구 “How Well Are They Doing? The Impact of Children's Centres and Extended Schools”(Ofsted, 2008)에서 인용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Ofsted, 2008: 6).

“방문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사례연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방과후서비스가 보다 나은 출석률과 수업태도를 보이게 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생애가 바뀌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향상시키는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학교개선계획 내에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발전을 통합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9)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영국내 평가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2010년에 1,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2,253명의 부모와 1,307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진행하였다. 한편, 363개 학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자원들에 대한 정보수집차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Carpenter, H., Peter, H., Oseman, D. TNS-BMRB, 2010: 2).

첫째, 학교의 2/3는 핵심제안의 5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적어도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등학교는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비해 더 많이 핵심제안의 구성요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특히

휴일활동과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간에는 뚜렷한 격차가 있었다.

셋째, 학교의 2/3는 학교들간의 클러스터 또는 그룹으로 제공하는 일부로서의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클러스터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노력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지역사회조직들과 연계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10개 학교 중에 7개 정도는 방과후서비스와 관련하여 학생이나 그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흔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가족이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의 욕구가 있는 학생일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가 달라지는데 이는 활동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학생의 2/3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 중에서는 학교 방과후 직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은 지난 학기에 어떤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방과후서비스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10)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영국 방과후서비스는 소득수준별 계층간에 교육기회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학교 정규수업시간 만으로서는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정책이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Extended School)였으나 이후 학교 외 서비스공급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과후서비스(Extended Services)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방과후서비스가 갖는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연계점에 방과후서비스가 위치한다는 점이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무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숙제를 해결하고 부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가지면서 안전하게 부모가 퇴근 후에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돌봄기능을 교육기능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빨리 출근해야 하는 경우, 아침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빨리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매번 다른 친구네 집에 잠깐 머물다가 학교로 가는데 학생들은 자신 때문에 친구 집에 신세를 진다는 생각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가책임이고 사회안전망의 기초라고 본다.

둘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기관 연계협력 모형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일단 주체는 학교가 되고 정규수업시간이 끝나면 방과후서비스 담당자가 학교 담임과 인수인계 학생들의 수와 정규수업시간에 벌어진 사건들(예를 들어 넘어져서 머리를 벽에 가볍게 부딪혔다거나, 친구와의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내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가급적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학교의 인프라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에 개방함으로써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이 상호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담임과의 유기적 연대가 상대적으로 깊지 않다는 점에서 방과후서비스의 총괄적 측면에서 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파트너십 구축 수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여 일선현장에 시달하고 점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영국에서 학교의 2/3 정도가 방과후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연계를 꾀하고 중복을 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사업,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자신들의 정책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서비스 이용자 수준에서는 서비스의 차별성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방과후서비스를 지역단위별로 연계시키고 파트너십을 구동시킬 수 있는 기구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서비스에 대한 질 통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아울러 휴먼서비스의 대표적 사례임을 감안할 때 제공되는 방과후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 통제를 하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평가과정을 통한 피드백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서비스 이용에의 권리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 그만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시적으로는 영국의 OFsted와 같은 기구의 설치가 사회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담보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전달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방과후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 더 나아가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방과후서비스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방과후서비스가 아동의 지역사회통합과 교육기회 균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방향아래 서비스의 내용도 결정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과후서비스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세부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춰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미국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

1)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s)

(1) 지역사회학교 개요

‘지역사회학교’는 아동이 머무는 학교라는 물리적 장소이자 동시에 아동을 위하여 형성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들 간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지역사회학교의 일차적인 관심이 학생인 아동에 있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지역사회학교가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학생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까지도 포괄한다. 지역사회학교는 학생과 그 가족,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며,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교와 가족,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특징을 갖는다(CAS, 2011).

지역사회학교는 19세기 말 당시 도시 이주민을 위해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담당했던 최초의 인보관운동에 그 뿌리를 둔다. 이후 1900년대 초 당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 개혁가인 존 듀이(John Dewey)를 포함한 교육자와 사회개혁가들은 사회 자원을 미국 학교에 가져옴으로써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2년 존 듀이는 「사회기관으로서의 학교(Schools as Social Centres)」라는 제목의 저술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 세대를 거쳐 이후 아동원조협회(CAS: The Children's Aid Society)의 미국 뉴욕 지역사회학교 건립은 지역사회학교 활성화의 근간이 되었다(CAS, 2011).

(2) 지역사회학교 필수 요소

지역사회학교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학생의 욕구에 따라 구성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모든 지역사회학교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CAS, 2011).

① 교육에의 초점(Focus on Education)

학교의 다양한 서비스와 가족, 지역사회 등의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하여 교육에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출석 양호, 사회·정서적 문제 감소의 결과로서 교사는 학급에 집중하는 데 방해받지 않고 교육과정에 더욱 초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핵심적인 교육과정은 확장된 학습기회와 함께 철저하고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특징을 갖게 되어 아동에게 많은 교육시간과 학습의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된다.

② 학교,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School,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지역사회학교 파트너로서의 교직원, 기관 직원, 부모와 그 밖의 지역사회 구성원 일원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의 최적화를 통한 학습 극대화, 가족과 이웃의 역량강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한다. 부모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고 지지하는 법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학교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 일원에게도 그들 자신의 학습에 있어 성인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가 법안을 계획하는 역할의 일부를 감당하고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가지며 자원이 필요한 곳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③ 시간의 연장과 학습기회의 확장(Extended Hours and Expanded Learning Opportunities)

학교수업 시작 전의 방과후 학교, 주말학교, 하계 또는 휴일 등 과외의 프로그램 내용이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의 고려와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육 경험의 제공과 학습기회의 확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학생들은 과내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의 탐구,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 이러한 시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외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매우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체험활동, 예술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파트너십(Partnerships)

지역사회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협동하는 멤버들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계획되고 이행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학교 관계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부모,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과 관계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각 모델마다 다른 인프라와 조직, 그리고 경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⑤ 현장 조정(Site Coord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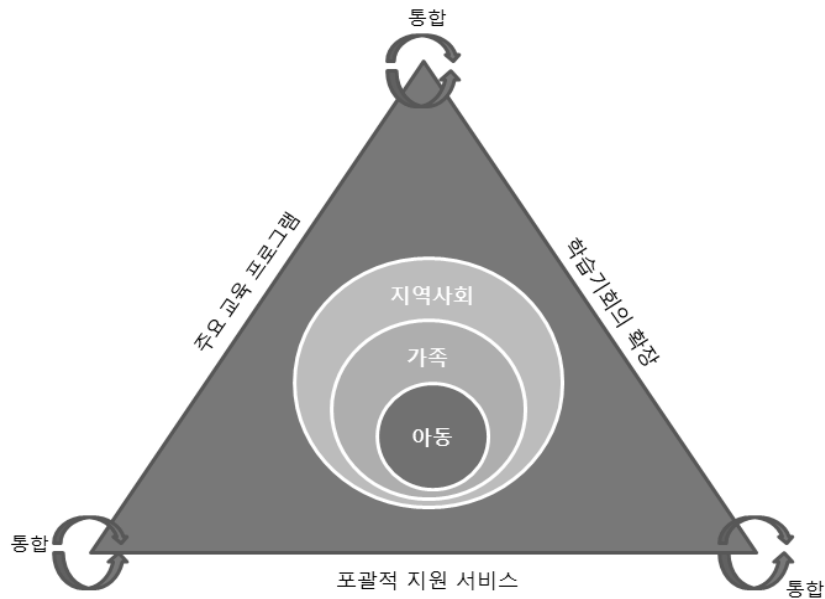
대부분의 지역사회학교는 교직원과의 연계, 직원 모집, 경영 및 관리, 파트너의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조정자(site coordinator)를 채용한다. 지역사회 자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주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들과 그 가족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장 조정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 지원(Continuous Support Along the Pathway to Productive Adulthood)

지역사회학교를 통한 개인에 대한 지원은 성장과정 전체를 포괄한다.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기를 더 거슬러 임신 가족을 위한 지원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역사회학교 전문가들은 일만인 인생의 출발을 지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를 통한 전 시기에 대한 지원을 중시한다. 수많은 지역사회고등학교는 학생의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대학과정을 잘 마치기 위한 지원 또한 실시하고 있다.

⑦ 안녕(Wellness)

지역사회학교는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건강 요구에 대해 다차원적이며 통합적으로 반응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과 가족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한다. 안녕의 강조는 학생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한다.



* 출처: CAS(2011), Building Community Schools: A Guide for Action, p. 2.

【그림 IV-3】 발달적 삼각구도(Developmental Triangle)

⑧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란 모금(fundraising)활동 그 이상인 일상에서의 실천과 기관 차원에서의 영구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을 참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굴·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지역사회학교는 재정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이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해 주는 유용하고 필수적인 도구가 됨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⑨ 학교 전체의 변화(Whole School Transformation)

안녕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학교, 학교의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관심은 지역사회학교가 기존의 학교와의 차별성을 갖게 한다. 지역사회학교는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렇기에 지역사회학교의 큰 특징은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 모든 요소의 변화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학교 현황 및 성과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학교는 현재에는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 중에 있다. 실제로 미국 북동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지에 지역사회학교 전략을 적용한 27,000여개의 기관들이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적용과 노력은 이주민의 증가, 빈곤, 국가·지역적 전쟁과 갈등 후의 상황, 공산주의를 탈피하는 국가의 민주주의화의 노력 등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사회학교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초기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 이후 2009년 지역사회학교국제센터(ICECS: International Centre of Excellence for Community Schools)가 설립되었고 영국의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적 지원 공급체인 「ContinYou」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다. 또한 ICECS는 국제적인 교류와 상호비교를 위한 국제품질기준(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AS, 2011).

지역사회학교 조직 산하의 아동원조협회(CAS)는 지역적 적용과 NCCS(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Schools)를 통해 지역사회학교 효과성이라는 개념의 세계적 보급과 지역사회학교 국제적 체계의 역량 계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다수 국가의 실천가, 정부 대표자들의 아동원조협회 방문·관찰은 국가의 전체 교육 시스템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의 23,000개 학교가 현재 확대된 일과, 서비스, 그리고 관계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학교는 부모와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아동 양육 및 건강 서비스 그리고 과내, 과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가족교육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지역사회학교 전략을 채택한 수백 개의 기관에 정부 차원의 가이드와 재정 지원이 주어지고 있으며 관련 책자와 매뉴얼들이 출간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학교가 CAS 모델의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 그 외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호주, 콜롬비아,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의 출발점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NCCS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CAS, 2011).

(4) 지역사회학교 실행구조

① 미국지역사회학교센터(NCCS: 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Schools)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센터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 협동성(collaboration), 일관성(coherence), 헌신(commitment)이라는 핵심 영역을 가지고 지역 역량을 강화시킨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현장 자문, 지역사회학교의 다각적 측면에 대한 발표, 전문성 개발 활동, 출판, 도구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역사회학교와 관련된 모든 클라이언트-개별 학교, 지역 행정가, 자금 제공자, 지역사회기관, 부모 연합회, 정책 입안자, 대학, 연구센터 등—에게 제공한다. 지금까지 150개 이상의 실행기관과 국내·외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일해 왔다. 미국지역사회학교센터는 뉴욕의 센터 주관의 학교 외에는 직접 지역사회학교를 운영하지는 않고 대신에 지역 역량과 기초 지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도구, 자료, 유용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CAS, 2011).

② 아동원조협회(CAS: The Children's Aid Society)

아동원조협회는 미국 자선단체 감시 및 평가업체인 「Charity Navigator」로부터 사상 최초로 12회 연속 별 네 개의 평점을 받은 상위에 랭크된 미국 뉴욕의 자선단체이며 뉴욕 45개 이상 지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원조협회는 1992년 이래로 교육부와 연계하여 뉴욕의 21개 지역사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인정을 받아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동원조협회는 미국지역사회학교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학교 아동원조협회 모델을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지역사회학교 실행주체 및 역할

사회서비스와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의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형태를 띠는 LP(Lead Partner; Lead Agency)는 학교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지역사회학교전략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주체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LP는 다양한 자원·정보에 대한 연계 기획과 시의적절한 접근을 통하여 중요한 가치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일상에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LP의 예로서 하나 혹은 다수의 지역사회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intermediaries), 대학교, 건강센터, 공원, 레크리에이션센터, 청소년서비스기관과 같은 공공시설물 등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개인 및 조정자(Broker and Coordinator)

지역사회학교는 학생과 가족의 욕구에 반응하여 개별 학교나 하나 이상의 파트너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중개하고 파트너십을 조정하며 협동 체제를 조성해나감으로써 질 높은 통합적·포괄적 서비스 유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주성·동질감 고취와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② 제공자(Provider)

LP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CAS 모델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 프로그램 조정·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LP는 지역사회학교의 대표와 함께 기획을 하거나,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③ 지역사회학교 코디네이터의 고용인과 슈퍼바이저(Employer and Supervisor of the CS Coordinator)

LP는 모든 개별 지역사회학교에 상주하는 지역사회학교전문가(CS Coordinator 또는 CS Director)에 대한 채용, 훈련, 슈퍼비전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전문가는 학교 대표와 밀접하게 함께 일하고 그 외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학생과 가족, 지역주민, 스태프, 서비스 제공자 등—와 협력하는 일을 수행하는 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쉽지만은 않은 지역사회학교전문가의 역할이 잘 수행될 때 지역사회학교에 진정한 변화, 창의성, 시너지효과를 전달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역사회학교전문가에게 이와 같은 복잡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슈퍼바이저로서 LP는 정기적인 현장 슈퍼비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④ 자원 개발자 및 재무 대리인(Resource Developer and Fiscal Agent)

LP는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그랜트 작성자(grant-writer: 프로포절 등을 작성하여 외부 재정을 끌어오는 역할) 등을 통하여 외부의 공적·사적 재정을 끌어올 수 있고 지역사회학교의 파트너들이 그러한 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원조한다. LP는 또한 특정 양여금을 위한 재무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조정과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주선·협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⑤ 지역사회학교 옹호자(Community Schools Advocate)

LP는 학교의 개방(open houses), 축제, 오리엔테이션, 행사, 그리고 출판물 등을 통해 가족, 스태프, 지역 주민, 지역 공무원,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사회학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LP는 지역사회학교의 보다 큰 시스템(연합)의 대표자로서 국가 부처와의 소통, 기획위원회 참여, 영향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공유 등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LP는 인력, 문화적 역량, 가족과의 전문적 경험, 프로그램 조직·경영의 전문성, 정치적 관여 등의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지역사회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6) 지역사회학교 서비스 내용과 효과

지역사회학교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필요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지금까지의 아동,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내용(CAS, 2011)

- 가. 학업과 문화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 나. 가족 지원
- 다. 유아기 프로그램
- 라. 통합적 의료서비스
- 마. 사회서비스
- 바. 지역사회 개발
- 사. 성인 교육

② 결과(CAS, 2011)

- 가. 학업의 성취
- 나. 출석률 제고
- 다. 교사의 참여 촉진
- 라. 학교 분위기의 정화
- 마. 부모와 가족의 참여
- 바. 아동 및 지역사회의 정신·신체 건강
- 사.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2) LA's BEST

(1) LA's BEST 개요

LA's BEST(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는 아동의 방과후 시간에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적 노력으로 1988년 탐 브래들리(Tom Bradley) 당시 LA 시장에 의해 설립되었다(LA's BEST, 2011). 탐 브래들리 시장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도덕적 의무를 시에 부여하고 5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장교육협의회(Mayor's Education Council)'를 편성하는 것을 노력의 출발로 삼았다.

LA's BEST는 지역사회나 산업, 교육,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로써 LA's BEST의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LA's BEST는 로스앤젤레스의 폭력, 약물, 범죄 등에 취약하고 저조한 학업성적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186개 학교 내 28,000명의 아동들을 원조한다. LA's BEST는 안전하고 잘 구비된 방과후 교육, 풍부한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을 로스앤젤레스의 5~12세 연령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삼는다. 모든 아동에게 방과후에 적절한 돌봄과 책임 있는 성인,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갖춰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LA's BEST는 운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에는 시, 학교 현장, 재정 기부자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하여 재정의 원활한 흐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 LA's BEST 대상 및 프로그램

LA's BEST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주요한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숙제에 대한 도움과 읽기, 산수 등과 같은 주요 학업기능 증진을 위한 학습 활동, 둘째, 참신하고 흥미로운 활동, 셋째, 영양가 있는 간식이다.

① 대상

LA's BEST는 로스앤젤레스의 폭력, 약물, 범죄 등에 취약한 28개 학교 구역의 취학 연령 어린이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학교 구역은 주로 로스앤젤레스 동남부와 샌 페르난도 지역(San Fernando Valley)에 위치해 있다. 해당 학교들은 시험 점수를 통해 알 수 있는 학업성적, 교육 순위, 평균 소득 수준 등의 정보로 설정되기도 한다. 또한 LA's BEST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학생들에게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비스를 받는 가족은 부모가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가족과 일 사이의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LA's BEST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녔다는 사실인데 지역별로 다른 인종적 특성은 언어와 문화적 요소를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들은 28개 구역이 함께 하는 범 도시적(city-wide) 현장 체험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의 아동들을 만남으로써 타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LA's BEST는 또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내었다. 특수 교육을 받은 역량 있고 잘 훈련된 직원이 함께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LA's BEST, 2011).

② 프로그램 내용

- 가. 평화조성을 위한 모험(Adventure In Peacemaking): 인내와 갈등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과정으로, 독서 활동과 그룹 토론을 통한 협력, 감정 표현, 의사소통, 다양성과 갈등 해결에 대한 강조와 교육이 그 특징이다.
- 나. 방과후 예술 프로그램(ASAP: After School Arts Program): 직접 아동과 함께 하는 예술 전문가가 미술, 음악, 무용, 드라마와 시 교실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배운 다양한 것을 지역사회 주민과 부모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아동의 재능과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가 10주마다 열린다.
- 다. 베스트 핏(BEST Fit): 건강을 중시하고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과 영양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건강한 식습관 개발을 위한 재미있고 참신한 기회들을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고 신체적 활동을 그들 삶의 일부로서 정착시키며 건강한 미래에 대한 노력과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 라. Connecting for Success: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 또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원조하는 성공을 연결하면 그들의 동료,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로컬 및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동을 효과적으로 원조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마. Junior Achievement: 아동에게 비즈니스와 경제의 기본개념, 취업의 준비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6개의 순차적인 테마로 이루어져있다.

바. 키드테크(KidTech): 컴퓨터 기초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교육하는 8주 구성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타이핑, 문서 작성, 그래프, 프레젠테이션, 사진 편집, 인터넷 검색 등을 배운다.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아동에게 가정용 데스크톱 컴퓨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아동과 그 부모가 이 컴퓨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사. 키드타입(KidType): 흥미를 자극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소프트웨어 강의와 게임을 통하여 아동이 정확하고 빠른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5주 구성의 프로그램이다. LA's BEST는 프로그램 내용과 연관되는 대회를 연 2회 개최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선보이고 실력을 겨루는 기회 또한 마련한다.

아. 키즈릿과 키즈매스(KidzLit and KidzMath): LA's BEST 아동이 읽기와 수학에 대한 친근감과 즐거움을 키울 수 있도록 발달 연구 센터(Developmental Studies Center)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자. 키즈사이언스(KidzScience): 질문 중심의, 실제 활동을 강조하는 과학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중요한 과학 개념들을 발견하고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차. LA's BEST Celebrate Science Program: 어린이들이 NASA와 제트추진 연구소의 팀 연구 모델 내에 상호작용 중심의 흥미로운 과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마무리는 도시 과학 박람회와 함께 이루어져 박람회에서 우승한 팀은 과학중심의 교육 현장 견학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현장 학습은 일일 해양학자로서 해양연구소의 연구 선박, 헌츠빌과 알라바마의 미국 우주캠프 여행, 그리고 다우니의 콜롬비아 기념 우주센터 견학 기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 LA84 재단 스포츠 프로그램(LA84 Foundation Sports Program):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집단 활동 개념과 스포츠 참여를 통한 신체적, 사회적 능력 개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다. 3-6학년의 학생들은 풋볼, 농구, 소프트볼 및 축구 대회로 구성되는 연중 스포츠에 참여한다. 이때 코치는 약 5주 간 종목마다 240개 이상의 팀을 훈련시켜 주말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토록 한다.

타. 과학 탐색기(Science Explorer): 과학 발견 활동에 참여하는 6학년 학생들에게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관련 설계 활동 키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파. 어린이 작가(Young Authors): A. F. Ada와 I. F. Campoy의 변형적 교육에 대한 작업을 기초로 한 [Target]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6학년 학생에게 작가의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 제고, 다양성의 경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환경의 조성 노력 등의 기회를 갖게 해 준다.

하. Zula 패트roller: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으로서 질문과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널 작성 경험을 통해 학생의 글로 쓰는 표현능력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과학 어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③ 도시 이벤트(Citywide Events)

LA's BEST 활동의 즐거움을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이벤트들이 매년 열린다.

가. Autumn Kidfest: 가을 시즌을 맞이하여 아동들을 위한 흥미로운 활동과 카니발 게임,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나. Community Jam Against Violence: LA's BEST의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아동들이 재능을 뽐내는 공연이다. 매년 이 공연은 노래, 춤, 웅변, 연극 등을 매개로 일상의 폭력에 대한 아동, 가족, 지역사회 모두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Dance & Drill Team Showcase: 2000여명의 학생들이 댄스 및 드릴 팀 쇼케이스의 놀라운 공연을 펼치는 이벤트이다. 매년 개최되는 이 쇼케이스는 자랑스럽게 리더십, 팀워크, 자신감과 수많은 시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갖게 된 예술 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한다.

라. Family Days at Raging Waters: 연중 가장 인기 있는 견학 중 하나로서 LA's BEST 학생과 그 가족은 이를 통해 남부 캘리포니아의 가장 인기 있는 수상 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즐길 수 있다.

마. 가족 건강 축제(Family Health Festival): LA's BEST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BEST Fit의

연례행사인 가족 건강 축제에서는 학생과 그 가족이 하루 동안 신체운동과 흥미로운 활동들을 함께 한다. 로스앤젤레스 각지에서 모인 수천명의 참가자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건강한 간식, 게임, 체험활동 등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것이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다.

(3) LA's BEST의 운영구조

오늘날에 학교 공간에서 아이들이 갖는 혜택은 LA's BEST를 이끌어온 장기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 의회는 예산을 이용한 LA's BEST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LA's BEST 연간 재정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이다. 커뮤니티 재개발 기구(CRA: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된 1998년, 시 의회가 지역사회개발부(CDD: Community Development Agency) 연방 기금에서 자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 현재와 같은 지원의 출발이 되었다(LA's BEST, 2011).

교육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군(LAUSD)은 LA's BEST 구조 내에서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지구 행정 건물은 LA's BEST의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모든 프로그램 스태프들은 아동과 함께 하기 위한 학교 지구로부터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적 영역은 LA's BEST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또 다른 영역이다. 기업들은 민간 보조금과 기부금을 통한 예산 보충과 기술지원 및 다양한 현물 기부를 통한 지원을 해왔다.

LA's BEST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자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의해 명시된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LA's BEST와 관련한 정책 설정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라는 두 개의 통치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실제적인 운영진에는 대표 이사 카알라 샌저(Carla Sanger)와 그 외 사무실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회계 연도 예산 책정 및 관리, 정부와의 관계 유지, 자금 확보, 이사회에의 업무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8개 지구 각각에는 여행 프로그램 책임자, 활동 컨설턴트, 컴퓨터 프로그램 컨설턴트 등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4) LA's BEST 성과

LA's BEST는 이루어낸 결과를 발표하고 학업 성적, 학생의 행동 개선, 학교 내 범죄율 등의 수치화할 수 있는 영향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많은 다양한 활동은 아동의 시간을 단순히 채워준 것 이상의 영향을 끼쳐 아동의 시야를 넓혀주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평을 받는다.

UCLA 평가연구센터가 1995년 발표한 10년의 LA's BEST 운영 기간 동안 최소 2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에 관한 연구는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을 통제집단으로 하였고 아동, 부모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LA's BEST의 실증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학업

LA's BEST의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연구 초기에는 통제집단보다 낮은 GPA 점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향상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2년이 지난 후에는 통제집단의 GPA 점수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② 태도

LA's BEST에 참여한 아동은 자신 스스로와 학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들은 방과후에 보다 더 안정감을 느꼈고, 그들의 문제를 도울 어른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TV 시청과 같은 다소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더 많이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LA's BEST에 참여하는 아동의 약 77%가 현재의 학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학 진학을 포함시킨다고 연구는 보고하였다.

③ 환경과 안전에 대한 태도

LA's BEST에 참여하는 아동집단과 그렇지 않은 아동집단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이웃 문제를 호소한다. 아동의 85%는 동네에서 총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고, 15%는 실제로 집 근처에 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가 LA's BEST 아동이 사는 곳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LA's BEST에 참여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④ 성인과의 관계

LA's BEST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성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도 아동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성인들에게 구함으로써 다방면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⑤ 학교 및 학교활동에 대한 태도

LA's BEST에 참여한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태도에 큰 향상을 나타냈다. 거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통제 집단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LA's BEST 참여 아동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에서의 성적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학군 관할의 경찰에 따르면, LA's BEST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 학교범죄관련 보고 또한 64% 감소하였다고 한다.

LA's BEST의 효과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는 이전에 LA's BEST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여 살아가는 모습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았던 LA's BEST에 봉사자 혹은 직원으로서 참여하여 그들이 받은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LA's BEST가 얼마나 한 개인에게 있어 아동기에서부터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LA's BEST는 청소년개발 카네기위원회, 미국학교행정협회, 미국학교이사회, 미국시의회 등 다수 국가기관에 의해 청소년을 위한 모범 프로그램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에 의해 LA's BEST의 새로운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3)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현재 미국에서 실행중인 지역사회학교와 LA's BEST 정책은 두 가지 모두 다 아동보육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을 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정책의 융합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별로 산재하고 있는 아동보육과 방과후아카데미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모델과 LA's BEST 모델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책 및 법률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급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관련 법률의 정비

우선 뉴욕 주 사회서비스법의 경우를 보면 아동보육에 대한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법률로 정해 놓음으로써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제로 법률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살충제의 사용 및 사용금지 등과 같이 어느 상급기관에 문의하지 않고서도 법률 규정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편리성이 있다. 그리고 뉴욕의 아동가족서비스부와 같이 공공기관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당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 소관인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청소년수련관 등)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아동보육 사업제공자(지역아동센터)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부부처의 지원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역사회학교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지역사회학교(communitry school)와 같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가 지식 위주의 학과 수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 위주 교육은 아동의 다양한 능력(competence), 창의성(creativity), 그리고 인성 개발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행 학교교육정책으로는 어린 시절 아동의 폭넓은 능력과 창의성, 인성, 그리고 신체발달 등과 같이 중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학교와 같은 학교교육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LA's BEST

이 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립학교 아동보육 및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데 장벽이 된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소관부처 통일을 통해 우선 실시가 가능하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는 소관부처 통합을 통한 정책추진체계의 일원화일 것이다. 즉 학교에서 아동보육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보육과 방과후 활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아동보육과 방과후 활동 정책을 하나의 중앙정부 부처 속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용이성과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아동과 청소년개발을 위해 LA's BEST와 같은 기관을 우리나라의 16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방과후 활동 수행기관인 청소년수련관 등에 보급하여 실시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3. 프랑스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¹³⁾

1) 들어가며

한 국가의 아동·청소년정책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많은 선진국과 복지국가들은 아동·청소년보육과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정책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가 고출산정책의 일환과 경제활동여성들의 양육역할을 국가가 분담하는 의미에서 무상보육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보호지원문제는 보육은 물론 교육, 건강 등 전인격체를 형성해 가는 시기에 필수적인 것들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일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지원들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 해결해 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가정역할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행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심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정책이다. 18세기 영국의 산업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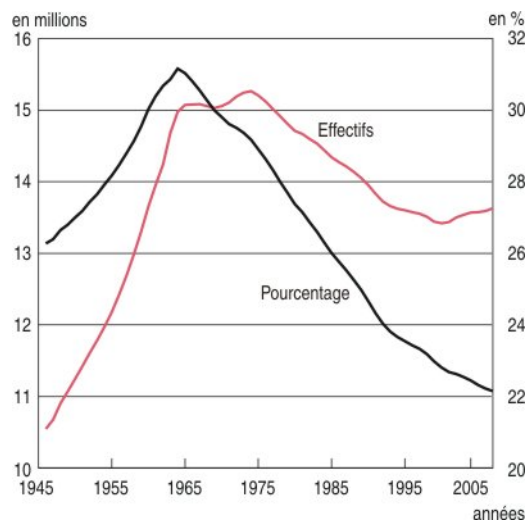
13) 이은주(파리 9대학 사회학 박사) 집필

은 사회발전을 이끌었지만 반면 빈곤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했고 지금도 저개발국가들의 아동·청소년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날 아동·청소년문제는 단지 빈곤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노출 가능성도 많아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중점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는 보호정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인구학적 특성

60년대 중반에 프랑스 전체인구의 31%였던 18세 미만의 인구는 1967년 이후 감소를 계속해 오다 90년대 중반이후 이 감소 추세가 멈추고 안정적인 인구변화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18세 미만의 인구는 총 1350만으로 전체인구(약 6000여만 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비율은 남아가 690만 명, 여아가 660만 명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적어 100명 여아 출산에 남아 출산은 105명 수준이다. 18세 미만 인구의 96%가 프랑스 영토에 거주 하고 있으며 이중 240만 명(18%)의 아동·청소년이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과 같은 가정의 자녀들이다.



* 출처: 프랑스 통계청 (Insee: <http://www.insee.fr>, La situation démographique en 2005.)
1995년부터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4】 1945년부터 2005년 사이 프랑스 전국 0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인구 변화

2010년 현재, 전체 아동·청소년의 54%의 부모가 결혼한 부부이고 36%가 결혼을 안 한 부부, 8%가 한부모, 2%가 기타 상황이다. 15-17세 사이 아동·청소년들의 9%가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지난 40년간 한부모 가정의 수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68년에 전년도 대비 6%였던 것이 2007년에는 전년도 대비 16%로 증가 하였다.

1995년부터 2011년 15년간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이 17.2%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전체 아동의 50%를 넘었다.

표 IV-4 년도별 출생률과 결혼하지 않은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비율

년도	출생수	출생률	결혼하지 않은 부부사이의 자녀 (%)
1985	796,138	14.1	
1990	793,071	13.6	
1995	759,058	12.8	38.6
2000	807,405	13.3	43.6
2002	792,745	12.9	45.2
2004	799,361	12.8	47.4
2006	829,352	13.1	50.5
2008	828,404	12.9	52.5
2010	832,799	12.8	54.9
2011 (p)	827,000	12.7	55.8

* 출처: 프랑스 통계청 (Insee) 2010 : (p) 2010년 통계실시 2011년은 통계예측치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거주형태는 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약 10만 명 정도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거환경인 이동캠핑차, 이동 선박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프랑스 미성년자들의 인구특성을 보면, 가족형태가 전통사회의 가정과는 많이 다르게 변화되고 있었다. 핵가족형태는 물론 결혼이 아닌 동거부부형태의 자녀들이 많아 가족지망이 전통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어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200만명을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문화교육 등이 아동정책에 포함되고 있다(사회활동, 건강부의

아동 사회지원(aide sociale a l'enfance: ASE)정책자료 2010년, <http://www.action-sociale.org>.) 프랑스는 외국인미성년자에게도 합법적으로 입국이 된 경우에는 자국미성년자와 동등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주거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정책적인 고려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2) 문제제기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문제와 상황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족해체와 가족위기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고 학교생활에서의 친구관계, 학습능력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지역의 문제 아동·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오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동·청소년마다 다르게 작용하지만 이들의 보호지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위기상황이나 장소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이다. 격리보호방법은 가정보호, 대부모지원, 재가보호, 입양 그리고 장, 단기 시설보호 등 형태가 다양하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 시설보호는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생활, 획일적인 프로그램, 재정지원의 제한, 주민들의 편견, 시설운영자들의 비리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시설보호를 축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설정책이 사실은 위기 아동·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제기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실제로 그러한지, 아니면 일정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시설이 지닌 순기능적인 목적과 역할이 아동·청소년 보호에 가족역할의 대안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격리보호가 필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장영옥, 2001)과 편견 등 차별적인 사회환경¹⁴⁾으로 과연 시설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보호방법의 하나로 발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의 보편적인 아동·청소년보호정책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설보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이제 더 이상 가정역할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의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4) 이안영·김진이(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06 vol.17 No.2 p.160 재인용

2) 중앙정부의 정책

프랑스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사회연대노동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et de la solidarité)에서 주로 가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을 주관하고 있고,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é)에서는 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없어 얼마 전,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조사를 실시 발표하였다¹⁵⁾.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79%가 아동·청소년부를 창설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28%가 아동·청소년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부서의 규모나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 정책의 법적근거: 아동정책의 법적근거를 보면, 2007년 3월 5일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내용에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art. L,112-4; <http://www.justice.gouv.fr/> 2012.). 주요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예방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가보호를 포함한 아동복지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될 아동보호 지방자치단체 관찰소 개설에 관한 것이다.
- ▶ 정책방향: 아동·청소년 정책은 예방과 치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문제나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미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방지하는 예방정책을 더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개혁에서는 예방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개혁된 주요 정책은 다음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였다.¹⁶⁾

하나, 가족환경을 고려한 개입방법의 다양화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의 방법을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사회, 가정환경과 가정경제를 고려gks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안점으로 하여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15) <http://www.unicef.fr>,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의 설문조사 “Manifeste 2012 pour l'enfance Sondage : les Français favorables à un ministère de l'enfance” 2012년 3월 16일 발표

16) La loi du 5 mars 2007 아동보호법개정 (réformant la protection de l'enfance)

들, 예방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방정책은 다음의 3가지 범주를 강화하고 있다.

- 출산전 보호정책: 임신전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임신휴가, 태아검사 등 출산이전의 태아의 건강에 대한 정책으로 아동정책이 출산후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아 때부터의 국가의 보호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자녀교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을 위한 예방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자녀보호가 어려운 위기 가정의 아동들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여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생활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들의 의료사회차원에서의 예방 정책으로 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약물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정책이다.

셋,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비밀공유이다. 아동보호관련 기관간의 아동에 관한 정보 교환에 대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들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강화된 예방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비밀이고 권리보호차원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l'article L. 226-2-2).

(1)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정책

① 보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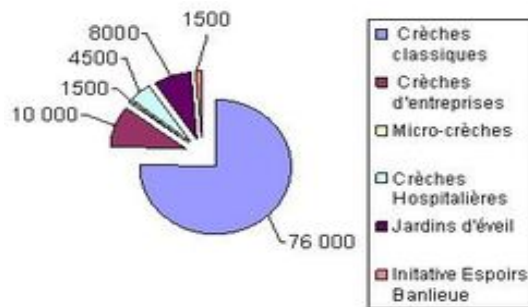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편적 아동정책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동보육정책으로 프랑스의 아동보육시설은 부모들의 개별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의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가. 일반적인 보육시설 (crèches classiques)

지방자치단체의 각 지역마다 마련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보육시설이다. 역사도 가장 오래 되었고 시설 수나 수용능력도 가장 많은 시설이다.

나. 유아보육시설(jardin d'éveil)

정부가 유아보육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시설로 전국에 8,000개의 수용가능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상은 2-3세의 아동으로 지역유아들의 휴식과 놀이, 그리고 건강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추고 기존의 아동시설 내에 따로 마련하거나 새롭게 설치되어 있다.



76000: 일반적인 보육시설

10000: 직장내 보육시설

8000: 유아보육시설(jardin d'éveil)

1500: 도심외곽 취약지역의 보육시설

4500: 병원내 보육시설

1500: 소규모 보육시설(Les micro-crèches)

* 숫자는 수용아동수

* 자료출처: 사회활동, 건강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diversifications l'accueil des enfants developpons le soutien aux familles 2010년도

【그림 IV-5】 전국아동보육시설

다. 소규모의 보육시설 (Les micro-crèches)

가정형태의 소규모의 보육시설로 수용아동자리가 1,500개 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 형태의 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이 9명이며 이용자격이나 이용조건이 다른 시설이용에 비해 유연하다. 보육담당선생은 최소 5년의 보육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자격을 두고 있어 소규모이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부모들의 보육환경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되는 시설로 규모가 큰 일반 보육시설보다는 부모들의 조건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다.

라. 기업 내 보육시설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마련한 기업 내의 보육시설로 현재 전국에 모두 10,000개 수용자리가 있다.

마. 병원내 보육시설

이 보육시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야간근무나 교대근무시간의 특성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전국에 적어도 4,500개의 수용자리가 있다.

바. 도심외곽 취약지역의 보육시설 (Espoir banlieues)

외곽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비정규직 형태의 일이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보육시간과 보육조건을 유연하게 만든 시설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은 아동들의 보호시간에 따라 종일제 보육에서부터 단기로 필요할 경우만 하는 시간제보육, 그리고 야간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2012년 27억 유로가 공동보육시설에 재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8억 6,000만유로가 증가한 것이다.

2012년 정부는 유아보육을 위한 재정으로 매해 10%씩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② 아동, 가족수당

가. 가족수당

1946년 제정된 가족수당은 역사가 60년 이상이 된 정책으로 20세 미만의 2명 이상의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며 가족 수입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2명의 아동을 둔 가정은 123.92유로, 3명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282.70유로이며 이후 1명이 아동이 증가될 때마다 158.78유로가 추가 지급된다(2010년).

또한 아동연령이 14세 이후에는 가족수당이 34유로 정도 인상이 되어 지급 된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수혜아동의 수는 1130만 명이며 이들 아동수혜자의 70.2%의 부모연령이 30세에서 44세로 평균연령은 39세이다. 수혜를 받는 가정 중 2명의 아동을 가진 가정은 66.4%, 3명 아동 가정은 23.5%, 그리고 4명 이상의 가정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5월 이후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경우 가족수당은 두 부모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이 되고 있다.

2010년 지급된 가족수당 총액은 118억 유로(약 17조원)¹⁷⁾이며 수급대상 아동은 총 1,100만 명이었다. 이 수당은 가족수당기금(café:caisse d'allocation familiale)에서 지급한다.

나. 보충 가족수당(Le complément familial: Cf)

1978년에 제정된 수당으로 이전에 근로자들이 받던 근로수당에 포함된 내용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수혜대상은 3세에서 21세 아동으로 한 가정에 최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원칙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이 소득상한선이 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액이

17) 2010년 프랑스의 아동복지정책의 총예산은 720억 유로(108조원)이다.

차감된다. 기본수당지급은 161.29유로이고 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 할 경우 차감되어 지급된다. 2010년 823,000가구가 수혜대상이었고 264만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가족기금 수당에서 15억 유로(약 2조 2,500억 원)를 지급했다.

다. 학기초 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학기 초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1974년에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6-16세 아동이 대상자였으나, 1990년 이후 18세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이후 아동연령별로 3등급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지급된 일인 평균 수당은 6-10세까지는 280.76유로, 11-14세는 296.22유로, 15-18세는 306.51유로가 지급되었다. 소득 상한선을 넘는 가정은 약간의 차액이 발생되기도 한다. 2010년 수혜대상가구는 2,899,407가구이며 총 수혜 아동 수는 6세에서 18세 취학아동 4,859,848명이며 이중의 45.6%가 10세 미만 아동, 32.7%가 10세에서 14세, 21.7 %가 15세에서 18세 아동이다. 이중 42%가 편부모 가정이었고 편부모가정의 아동 중 21.4%가 2,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며, 34.1%가 최저임금 이하의 가정이었다.

라.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이 수당은 아동을 교육시키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거나 부모 중 한명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편을 알지 못하는 편부모 가정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아동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확한 실제상황조사와 정책실행이 간단하지 않은 수당이지만 아동들을 빈곤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조사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채무관계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사가 까다롭다. 평균지급액은 한 가정에 87.14유로이며 부모가 없어서 위임된 제3자에게 지급될 경우 월지급액은 116.18유로이다.

이 수당의 수혜자는 73만여 가구, 110만여 명의 아동으로 98.6%가 편부모 가정이다. 가족의 수입은 최저임금의 1.5배미만의 가정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이 수당은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 부모의 일일 가족휴가 수당(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아동이 심한 질병이나 사고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부모가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대상아동의 나이는 20세 미만으로 이 수당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회 신청 최대 기간은 6개월이며 재청구가 가능하고 최대 수혜기간은 3년이다.

월평균 48.92유로이며 (편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의 경우는 41.17유로가 지급이 된다. 2010년 4,581 가정이 수혜를 받았고 총 지원재정은 502억 유로(75조원)였다.

바. 다자녀가구 카드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가정에게 주는 카드로 다자녀가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상거래나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기발급 3년 유효하고 갱신이 가능하다. 90개의 협력업체들이 이 카드와 제휴를 하고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 기차 이용 시 철도공사의 혜택

- 6명 이상 자녀 가정일 경우 각 미성년자녀들의 기차가격 75% 할인
- 5명의 자녀 가정일 경우 50% 할인
- 4명의 자녀가정은 40% 할인
- 3명의 자녀가정은 30%할인
- 5명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30% 할인

③ 기타

2007년 아동복지정책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문제예방에 관한 것이다. 문제예방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뿐 아니라 아동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산 전 임신 기간 동안의 임신모와 태아건강 검진도 강화되었다.

가. 5세 미만아동의 건강 검진

출생이후 4세까지 아동을 위한 건강검진이 단지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과적 검진, 감각 그리고 사회학습에 관한 능력검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검진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즉, 임신 4개월에 첫 검사를 시작으로 3-4세, 6세, 9세, 12세, 15세까지 이루어지고 이상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나. 부모를 지원하는 연결망

가정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아동들을 위해 여러 가지 가정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을 지원함으로써 가정환경에 민감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부모와 자녀들이 다른 가정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익히고 서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결망에는 학교교사도 참석하고 놀이나 담화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즉시 발견할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고립되고 소외되는 가정이나 아동들에게 사회연대감을 갖게 해 주어 학교와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임을 통해 부모역할을 더 잘 인식하고 배워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2)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 수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아동전체인구의 69%가 위기에 처할 유해환경에 놓여 있고 36.6%가 학대와 같은 위기상황에 있다(ONED¹⁸⁾ 2011년 통계자료). 문제는 아동을 대하고 있는 학교교사와 친구, 거주지역주민, 친지들에 의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아동위기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발표된 통계수보다 더 많을 확률이 크다. 2008년 ONED에서 발표한 위기아동은 18세 미만 전체아동의 1.9%인 266,000명이며, 18-21세 사이의 청소년의 0.9%, 21,4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도 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이나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대표, 아동전문가, 아동관련협회 종사자들로 구성된 취약계층아동국가기관(Etats généraux de l'enfance fragilisée: EGE)을 마련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정보들은 제공하고 있다. 관련정보는 아동의 건강, 안전, 정신적인 안정에 관한 것들이며 대상아동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 ONED(l'observatoire national de l'enfance en danger) 위기아동국가관찰소. 이 기구는 위기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관련통계, 정책제안을 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다

이 기관의 업무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 위기환경에 처해 있거나 이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이들의 사회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한 후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준다.
-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이나 지원정책 등에 대해 여러 방면의 관계자,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 가족과 의논을 하고 보호지원정책 실행에 들어간다.
- 위기아동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 (119) 긴급시 이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① 프로그램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예방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후 치료보다는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접근방법과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주위의 신고와 도움요청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해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재가와 시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보호는 이들을 가족들과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이고 재가보호는 필요한 지원을 담당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주로예방에 관한 것이다.

가. 특별예방프로그램¹⁹⁾

이 프로그램은 주로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정책의 역사는 프랑스북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 12월에 취약계층이나 소외되고 학대받는 모든 계층, 즉, 노인학대,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 정책의 목적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녀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보호를 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다. 다양한 보호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위한 특별기구인 학대보호 관찰기구(l'Observatoire Départemental des Maltraitances)를 두고 정보교환은 물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2000-2004년 동안 위기아동협력 기구(l'Observatoire Inter partenarial de l'Enfance en Danger)가 기초가 되어 발전하였다. 이 기구는 이후 대상을

19)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예방법은 2002년 1월 2일 개정된 청소년관련법(article L 312-11 du CASF)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만 제한하지 않고 노인, 장애인, 가정학대피해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법적근거로는 1983년 7월 22일 제정된 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사회지원과에서 아동보호정책으로 채택하여 실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89년 7월 10일에 제정된 법은 미성년자 학대예방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미성년자들의 위기예방에 관한 정보수집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7년 3월 5일 아동·청소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아동관찰 기구 설립에 관한 것들이 공표되었다. 이 개정법에는 취약계층을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 예방에 관한 것도 명시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아동·청소년법은 위기치료보다는 위기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예방 프로그램의 목적은 법적, 교육적, 건강, 문화스포츠 등 청소년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이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예방정책의 주요 개념은 사회연대가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지도 책임자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투입이 되어 청소년의 문제를 직접 들어주고 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주도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최전선에서 인지하거나 들을 수 있게 때문에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 중 하나는 문제나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데 있으며 서로의 신뢰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비밀을 보장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에 따르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은 이 활동을 통해 성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나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방법도 습득하고 시민정신도 배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길거리활동으로 주로 길에서 청소년들과의 대화나 가벼운 활동, 스포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행사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 전시나 간혹 전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의 신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단체활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여 사회연대감이나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 자신들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역수준의 활동: 이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기업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의 활동 인프라를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 개별적인 교육: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특히 부모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가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해 사회생활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나. 후견인제도(Le parrainage d'enfants)

후견인제도는 단지 외국아동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휴머니즘활동 지원만이 아니다. 이 제도는 주로 프랑스 국내의 아동들을 위한 대부모역할로 아동이 필요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입양이나 위탁가정과는 다른 것으로 후견지원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위기에 처해있거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서로의 만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원방법을 찾아주고 이들의 사회관계나 인간관계형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이 바탕이 되는 감정적인 접근방법과 교육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후견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협회들은 처음 만남에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 기관들은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맺어주고 후견인들에게 아동들의 동반방법, 매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형성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지원대상은 나이나 가정환경, 현재 상황에 제한 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동들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더라도 개별적 환경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에 기본이 되고 있는 후견인 조약(La charte du parrainage)²⁰⁾은 국가 후견인 위원회(le comité national du parrainage)에 의해 작성되었다.

20) 이 조약은 2005년 8월 11일에 만들어져 8월 30일에 공포되었다.

② 특별환경에 대한 지원(미혼모, 약물중독, 불법 외국청소년문제)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위기 아동·청소년 정책 외에 다음에 소개되는 정책은 소수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가.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지원

앞서 언급했던 임신중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과는 별개로 가족의 지원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미성년자가 임신 했을 경우,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임신한 여성들은 물론 3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혼자살고 있는 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을 방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도 없을 뿐 아니라 산후건강과 영아를 돌보아야 하지만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미혼모들이 대부분으로 첫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미성년자 모자보호센터는 21세까지 입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모든 연령대의 피해여성들을 위한 모자센터에 수용된 여성들 중에서도 42%가 25세 미만의 여성들이다. 아동양육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연령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2008년도 프랑스 전국의 모자보호센터가 수용한 수는 6,240자리였으며 이는 최대 가능한 수용능력의 86%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여성들의 44%가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로²¹⁾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모가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나 그들의 어린자녀들을 위해서나 지원요구가 매우 크다. 이러한 모자보호센터는 주로 아동시설 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들을 위한 일인 일일 지원금액은 91유로이며 재정은 ASE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 외국인청소년 보호기관

프랑스는 이민사회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설립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뿐 아니라, 동유럽국가들로부터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 중에는 가족이 함께 오기도 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들은 거주지나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특히 이들의 경우 생활을 위해 범죄에 빠져 들기가 쉽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이들만을 특별히 보호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어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관리기관은 《가족이 없는 외국 미성년자 관리처(cellule d'accueil des mineurs étrangers isolés : CAMIE)》로 2003년 아동 사회지원부(aide sociale à l'enfance: ASE) 산하에 설립 되어 벌써 10여년 지원활동을

21) 통계출처: 2010, «Les établissements accueillant des adultes et des familles en difficulté sociale», Etudes et Résultats, DREES, n° 738, septembre.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원활동 대상자가 매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이들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보호를 받기위해 보호지원을 하게 되면 신분이 노출 되어 강제 출국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이들의 법적거주 근거를 판정하는 사법당국과의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프랑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성년자는 합법적인 입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국민미성년자와 동등하게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이 이 관리처의 보호를 받게 되면 우선, 이들이 거주할 청소년 시설을 지원하고 동시에 건강 검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 이들이 교육받을 학교를 연결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추후관리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하게 된다.

③ 재가와 시설보호

가. 재가보호

아동·청소년들의 재가보호는 예방적 차원과 치료차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주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은 시설보호를 하고 있다. 초기 지원요청이 부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이웃의 신고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문제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결정하게 된다. 재가보호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지원과 아동들의 교육활동지원이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활동이 추가된다. 이 지원의 특성은 아동들의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성형성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부모 역할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가정복지사 《Le technicien de l'intervention sociale et familiale》라는 명칭을 한 일종의 가정전문 사회복지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 복지사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대상 아동이나 가정을 주시 관찰하면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다른 서비스 기관과의 연결을 해주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에 대해서 부모는 사용 권한이 없으며 사회복지사의 관리 하에 아동을 위해 쓰인다. 또한 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지원의 하나로 사회복지사가 임대인과의 집세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 위탁가정(Assistant familial)

이 프로그램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집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작은 그룹홈 치료제도의 하나이다. 시설보호와 다른 점은 규모가 가족수준이고 획일적인 시설보다는 아동·청소년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고, 위탁된 가정의 가정보호사가 이들의 문제점, 의견, 장래계획 등을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어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과의 연결도 해 주게 된다. 위탁가정을 신청한 가정의 가정보호사는 18세에서 21세의 청소년들을 자기 거주지에 보호하면서 지원을 하게 된다.

나. 아동시설보호

㉠ 아동시설(foyer de l'enf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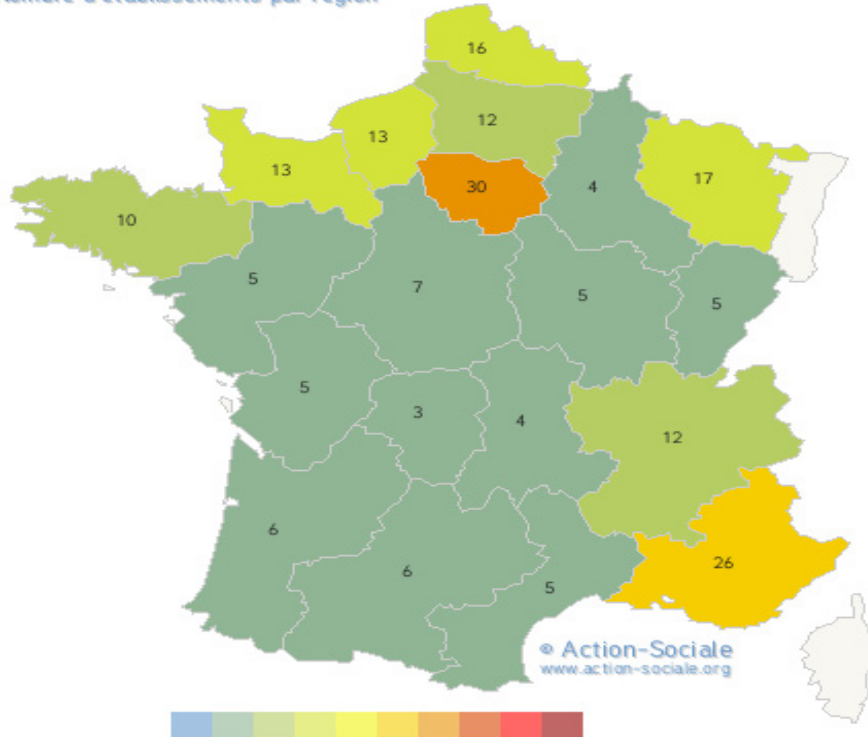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시설(foyer de l'enfance)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가족의 요청이나 법적판정에 의해 보호하는 생활주거시설이다. 이 시설의 목적은 아동들의 안정보장과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문화적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목표에는 아동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보호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설 내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나 보호자의 협력을 요청하여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부모와의 관계개선은 퇴소 후 아동 생활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시설입소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만 종종 긴급으로 보호요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보호는 사회활동법 L. 221-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정책의 하나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관련복지 단체나 시설에 위임하여 보호를 받게 한다. 그러므로 전국 각지방 자치단체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도록 아동보호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의 재정은 국가의 일반 위원회(le Conseil Général)가 지원한다.

아동보호시설은 전국에 204개가 있으며 가장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파리시로 30개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Foyer de l'enfance
Nombre d'établissements par région



* 수 단위: 개

* 색이 빨강쪽이 많은 시설을 의미한다²²⁾

【그림 IV-6】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운영 아동시설(foyer de l'enfance)

㉠ 주거보호시설(établissement hébergeant)

2010년 11월에 사회활동, 건강부에서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 아동·청소년 모든 형태의 주거보호시설은 총 1,800개로 수용능력은 54,000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보호시설로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시설이 매해 넓은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설의 대부분은 공립, 비영리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형태는 사회적 성격의 아동시설로 아동보호시설, foyers de l'enfance, 영유아 보호시설, 아동마을, 생활시설 등 다양하지만 대상나이나 자격조건, 프로그램 등이 비슷하다.

22) 지역별 시설수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아동·청소년 인구대비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입수 되지 못했다.

자료출처: 사회활동(action social.org)협회 “2010년도 프랑스 전국아동시설현황 ”

표 IV-5 프랑스 전국 2008년 12월 15일

	총 시설수(개)	총수용인원수(명)	각 시설의 평균 수용인원수(명)	아동점유률(%)
어린이집	1,115	39,685	36	93
아동시설 (foyer de l'enfance)	211	10,309	49	89
영유아시설	31	783	25	88
어린이마을	21	1,129	54	98
생활시설 (lieux de vie)	385	2,243	6	92
합계	1,763	54,149	31	92

* 출처: 연구평가통계부 (DREES: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enquête ES 2008.

㉔ 생활시설(lieux de vie)

생활시설은 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의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단위 소규모 시설로 강도가 높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 청소년 범죄경력자가 33%, 위기 청소년이 43%가 있으며 1% 정도가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이들의 인구구성비율은 1,300만명의 전체 아동·청소년수에 비하면 1%가 안되는 수이지만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다. 성인이 된 18세 이상의 청소년 지원

프랑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용가능한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8세가 되면 취업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취업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청소년이 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청소년들이 바로 퇴소를 하게 되면 거주지나 경제소득원이 없어 범죄나 다른 유해환경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정부가 다시 2년의 준비기간을 마련하였다. 물론 연장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이 2년 동안 정부가 주택지원과 직업교육지원 수당,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라. 부모역할 지원

미성년자 모자보호지원과는 별개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거주자로 성년이 된 18세 이상으로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린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취약계층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가정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지원으로 대부분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들의 불충분한 경제력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가족수당은 예방차원이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 수당이 지급되는 특별 수당이 마련되어 있어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으로 경제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모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가정경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동정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또다른 지원은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문제, 즉 부부간의 문제나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불안한 환경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사회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아동에게 학습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단기, 장기로 시설로 격리 보호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③ 정보수집과 정책평가기관(la cellule departementale de recueil de traitement et d' evaluation)

2007년 3월에 추진된 아동복지 개편에 따라 새로운 법조항인 사회활동과 가족활동을 위한 법이 226-3에 기초하여 설립된 이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었다. 기관의 주 임무는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특히 위기 아동·청소년이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정책을 정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아동정책정보수집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모든 미성년자들의 문제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기관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아동·청소년 전문가, 국가 교육행정부, 의료기관, 관련협회 종사가등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간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지원전화인 119와의 협력도 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마련한 지침은 미성년활동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활동지침으로 활용된다.

주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들의 치료와 예방과정에 관한 정보수집
- 개인 환경과 의학적 법적 보호를 전제로 개인비밀 보장하의 정보교환
- 관련기관의 주요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의 중재 개선

이 기관의 정보수집과 정보교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아직 문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아동관련 기관인 학교, 병원, 보육원등에서 발견이 되면 각 지방에 있는 이 정보수집 평가기관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치료나 보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 평가에 따라 행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보호판결을 요청한다. 혹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조치 없이 문제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경우 이 기관의 정보수집이나 평가 없이 즉시 법원으로 보내져 보호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지원이 정해진다. 이 두 가지 경로로 지원정책을 결정한 내용은 초기에 문제 아동을 인지하거나 발견한 기관과 정보수집 평가기관 으로 전달이 되어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적 과정들이 향후 문제해결의 방법론으로 참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문제발견과 보호조치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각 관련 기관들의 정보교환이다. 문제아동이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관련기관이 공유한다는 것은 정확한 문제 진단과 개별상황에 적합한 치료제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분석자들의 분석과 심사위원회들의 견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려진 행정조치와 법의 판결등이 기관이나 관련자들간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경험적 결정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중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④ 재정

아동보육지원을 포함한 프랑스의 가족복지재정은 GDP의 4.7%인 880억유로(132조원)이다. 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한 재정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7.5%까지 증가할 계획으로 사회활동국가 기금에서 2009년에 37억유로, 2012년에 50억유로를 아동복지정책의 증가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지원으로 고출산정책이 성공하여 오늘날 프랑스 가임여성 한 명당 자녀수는 2.018명이고 25-49세 연령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82%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9년 3세미만 아동의 31.5%가 개인부담이 되고 있는 유상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아직도 보육시설이나 재정이 충분치 않아

정부는 아동보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어 개인부담을 줄여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⑤ 소결론

프랑스의 아동복지정책은 보편적인 동시에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개별화 정책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이중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교육정책 못지않게 미래의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보호정책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보호에 집중,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나 가정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위기 시 부모역할을 대신해 주는 보호정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동정책의 일부이지만 이시기의 특성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설보호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위기 아동·청소년 정책을 정리하면,

첫째,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은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문제의 단초는 가정위기이며 이를 다시 사회전체의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위기 가정이나 가정해체에 대한 가정역할의 비판하기 보다는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정책과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처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해체가 왔을 때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의 신속성과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둘째,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주로 재정적 지원이며 여기에는 주택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취미여가 활동의 제약을 받을 경우 다른 아동들과의 차별이 되기 때문에 국가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의미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시설에 관한 것으로 지역적 차별과 계층간의 차별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마련하여 개별환경에 적합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에서도 특히 아동보육시설의 확대는 프랑스의 출산률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보호시설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호기능만이 아닌 교육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멀티기능으로 교육적 효과를 함께 얻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재정관리 등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이 문제가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없지만 재정관리의 효율성이나 명확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시설²³⁾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아동·청소년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파리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정책을 알아본다. 파리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타 지역보다 인구학적, 경제적, 지역적 환경이 우세한 조건으로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알아봄으로써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정책을 알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파리시의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특별 예방정책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파리시의 아동정책은 타 지방에 비해 규모와 재정이 클 뿐 아니라 보호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다양성은 아동의 개별적 환경에 맞춘 개별적 복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동의 출생 전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청소년의 자립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이다.

① 대상자 특성

2009년도 특별예방 서비스 지원을 받은 파리시 거주 아동·청소년은 총 26,000명으로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000명중 10.8명이며, 이는 전국평균 7.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중 4,845명의 청소년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이중 65.3%가 법적 판결에 의해 보호된 경우이고 34.7%가 행정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연령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15세에서 17세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미성년자도 16%나 되었다.

표 IV-6 특별예방지원 수혜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10세 이하	11-14세	15-17세	18-21세	외국인미성년
분포	12%	20%	29%	23%	16%

* 출처: 2009년도 Insee(프랑스 통계청) 발표

23) 파리시 정책의 통계와 자료는 파리시 아동의 사회활동과 건강부서(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é (DASES) de Paris) 의 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4,190명이 재가보호를 받았으며 15,750명의 청소년이 특별예방팀의 지원을 받았다. 305명의 모와 330의 아동들이 10개의 모자보호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12,000 가정이 사회활동센터를 이용했다.

특히 오늘날 유럽경제위기로 인해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전체 빈곤가정의 12%의 아동과 전체편부모가정의 27%의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지원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 인구는 2006년에서 2009년 3년 사이에 152%가 증가하였다. 이는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들의 취업이 어렵고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여도 이민사회정착이 어려워 가정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유해 환경으로 빠져드는 이들의 사회환경에서 기인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지원정책

지원정책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담당종사자는 총 5,000여명으로 2,546명의 사회복지사가 최일선에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중 950명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사로 이들은 사회교육가정복지사 (Techniciens de l' intervention sociale et familiale (TISF)라는 명칭으로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사회활동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지원을 가정방문을 통해 하고 있다. 또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는 300명의 거리교육자가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의 민간단체인 관련협회가 200여개, 2,000명의 종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종사자도 다양하다.

파리시의 특별예방 지원을 위한 재정은 3억 1000만유로 (4,650억원)로 2001년 이후 44%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아동·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파리시의 복지정책 변화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2010-2015 년의 계획: 이러한 재정지원의 증가와 함께 2010년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히 위기청소년 아동 보호정책개발, 사회교육예방강화, 외국인 미성년자 보호강화, 위기 청소년의 직업과 사회참여방법개발, 입양가정과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를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③ 지원정책의 종류

가. 교육지원 서비스 (Services d' accueil de jour éducatifs: SAJE)

5-13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이나 단체별로 교육을 위한 활동으로, 주중뿐 아니라 주말과 방학기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동과 함께 부모가 참석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나. 청소년 프로그램

파리청소년 서비스(Paris Ados Services)라는 명칭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리 취약지구에 주로 있으며 위기청소년이 주 대상자이다.

다. 청소년 긴급구조기관으로는 파리 14구에 있는 성 빈센트 긴급구조센터(Le centre d' accueil d' urgence de Saint Vincent de Paul)에는 75개의 수용능력이 있으며, 파리 15구에는 라 크로와니 베(la Croix Nivert) 보호기관에서 일 년 내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있다.

라. 성인이 된 청소년들을 위한 계약정책은 18-21세의 청소년으로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1/3이 외국인 청소년들이다.

마. 길거리 예방교육은 64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실행하고 있다(programme "Ville Vie Vacances").

※ 길거리 교육자 : 64개 팀 소속 300명의 교육자들이 21개의 협회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위해환경에 빠지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자들은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어 노출을 꺼리는 청소년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바. 16-25세 청소년들이 직업입문 지원프로그램 :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은 물론 졸업 후 사회로의 진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보호시설

가. 미혼모나 모자가정보호: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3세미만의 영유아를 모아 함께 보호하는 시설로 미혼모는 물론 성년이 된 여성들로 취약한 환경에서 어린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양육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나. 아동양육시설: 더 이상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양육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시설이 거의 모두 마련되어 있다.

다. 위탁가정: 5000명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40%가 위탁가정에 보호를 받고 있다.

라. 28개의 사회센터: 주로 주간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다.

마. 젊은 부부들이 부모역할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부모센터마련

파리시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예방지원정책은 보편적인 아동정책과 함께 선별적으로 개인 환경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를 심사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대상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수혜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주로 보호와 교육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성장환경을 최적화 하는 프로그램과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와 함께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의 중요함과 가정의 역할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 더불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아동정책도 연령에 따라 더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이민정책보다는 인권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프랑스 영토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한 평등정책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연대감 형성을 실천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으며 가정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한계가 있지만,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을 함께 연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사회투자의 하나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2) 양육시설 사례

① 클레 로지 어린이집 (Maison d'Enfants Clair Logis)²⁴⁾



【그림 IV-7】 클레 로지 어린이집 (Maison d'Enfants Clair Logis)

가. 시설운영의 법적근거

이 기관은 프랑스정부가 마련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민법 375: 사법적인 것으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정신적이나 교육조건에 대한 보호와 부모들의 권한에 관한 법률
- 가족법과 사회보장법 IV-II: 가정 외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 1984년 6월 6일에 공표된 가족의 권리에 의한 아동보호지원 서비스와 고아들에 대한 새로운 지위에 관한 법률
- 1986년 1월 6일에 공표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사회건강을 위한 의무 사항에 관한 기록
- 1989년 7월 10일 가정법과 사회보장법에 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보호법률
- 1989년 11월 20일 국제아동권리 협약(프랑스는 1990년)
- 1993년 1월 8일 개정된 민법내에 포함된 가정과 아동권리법
- 2002년 개정된 사회활동, 의료사회법에 근거한 시설관련법

24) 주소: 5, square Lamarck 75018 Paris Tel : 01 53 41 82 50 Fax : 01 42 54 82 04

자료는 기관홈페이지와 기관에서 발표한 정책결과보고서, 연간 보고서등을 참고로 하였음.

나. 시설의 목표와 주 임무

㉠ 목표

이 시설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목표는 가정의 문제나 주변환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어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적판결이 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여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시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임무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기관이 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시설로 주거환경내의 활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인 보호를 한다.
-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교육이나 생활교육을 책임 있게 지도한다.
- 최종목표인 본래의 가족으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위한 준비를 지도한다.
- 시설거주 아동,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 ※ 시설거주 아동·청소년들의 70%가 법정의 보호판결에 의해 입주하였으며 30%는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입주하였다. 개별적인 환경에 다르기 때문에 공통지원과 함께 개별적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부모의 문제로 아동이 격리 보호되는 상태라도 부모는 아동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부모 면담 등을 마련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다.
 - ※ 이 지원은 부모책임에 근거한 부모의 권리를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사회변화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문제도 변화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즉, 교육의 질적향상, 시설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해 가기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개선해 가고 있다.

주요한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보호환경을 최적화 하고 환경에 적합한 아동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운영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총 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분석과 아동정책변화에 대한 세계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범위내에서 변화를 꾀한다.

- 활동이나 지원평가방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 시설의 장비나 인력사용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한 방법을 개선한다.
- 가족단위와 아동의 개별화에 맞춘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한다.
- 부모 자녀간의 동반 프로그램 개발: 이는 특히 가족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다.
- 지역관련단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다. 역사



【그림 IV-8】 클레 로지 어린이집 (Maison d'Enfants Clair Logis)

이 기관은 파리지역에 한 본당신부였던 드뢰즈신부가 19세기말에 설립한 것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다. 당시 이 신부는 파리북부지역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이들을 위해 이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초창기 기관설립은 종교이념이 많이 반영되었던 곳이다. 1897년 고아원으로 출발한 이곳의 운영은 수녀들이 담당하였다. 그 후 1919년 공식적으로 수녀원이 창설되고 재정은 지역의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마련 · 운영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정교 분리원칙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반에 수녀원이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지금의 운영체제로 바뀌면서 이 기관의 명칭도 지금의 ‘클레로지 어린이의 집’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관의 운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73년 사회복지기관으로 허가를 받고 종교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로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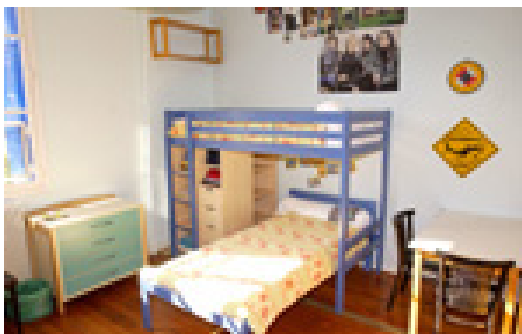
라. 아동의 특성과 수용인원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은 위기상황이나 위기환경에 놓여 있는 4세에서 18세까지의 남녀아동들로 이들의 대부분은 이웃의 신고나 사회복지사가 발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보호조치명령이 내려져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정원은 54명이며 전체 아동·청소년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그룹에는 교육자, 관리자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정이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아동들로 한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이곳에 거주하게 된 아동들도 있는데 이들은 행동이나 태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 치료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특별치료와 특별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마. 시설

아파트 형식인 4채의 거주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부엌, 욕실, 거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방에는 2, 3명이 사용하도록 침상이 인원수대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기관의 부속으로 있는 아파트 한 채는 시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 8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 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곳 역시 1실에 2, 3개의 침대, 부엌, 거실, 욕실이 있다. 모든 아파트에는 안주인격인 생활교육자가 관리를 하면서 책임을 맡고 있다.



침실



거실

【그림 IV-9】 클레 로지 어린이집 시설

바. 프로그램

㉠ 기본개념

-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을 함께 한다.
- 국가의 아동보호정책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시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아동들을 보호한다.
- 개별화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회복을 중시한다.
- 가정으로의 복귀와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준비한다.

㉡ 아동들의 특성으로 이 기관의 프로그램은 주로 특별보호아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개발보다는 합법적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3가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이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보호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는 이 기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들의 변화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이전의 생활과는 다른 독립적이면서 사회성을 포함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것으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준비를 위한 활동이다.

셋째, 특별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활동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치료목적으로 이 기관에 입소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활동이다.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이 기관은 아동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사회의 생활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지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협조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 지역의 기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아동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아동들의 사회통합이나 사회적응에 힘쓴다.

둘째, 지역사회의 아동관련 지역사회 인프라인 학교, 병원, 여가활동기관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 교육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

이 활동은 최적화된 생활공간, 표현공간, 보호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가능성

을 존중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과 함께 사회참여방법을 알게 하고 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중시하고 있다.

-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 아동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들의 요구에 중시한다.
- 문제를 종합하여 교육을 통한 해결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 학교교육의 회복을 도모한다.

치료적인 목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중시한다.

- 치료는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치료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한다.

㉡ 외부 프로그램 활동

-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아동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기관이 있는 구역의 학교를 다니게 한다.
-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기관과 근접해 있는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고 보조치료는 이 시설에 고용된 심리상담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상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다.
- 스포츠나 문화활동은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학교 방학기간에는 프랑스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한다.

㉢ 프로그램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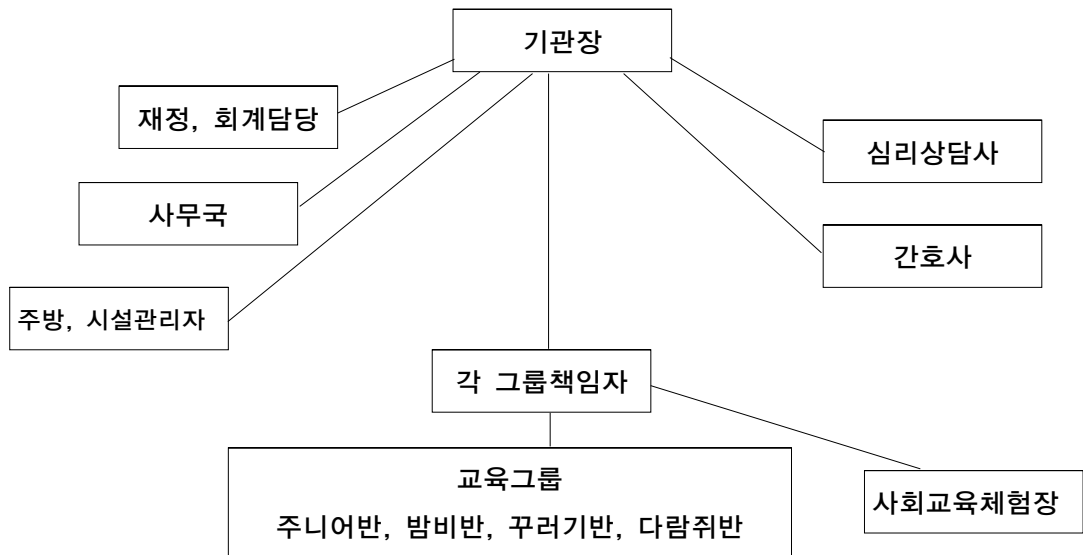
예술체험장, 연극, 원예나 목공, IT정보기술, 공작, 그래픽디자인 등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육자들의 전문성, 참석과 흥미 유발 등 교육자체의 목적은 물론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사회연대감 조성을 위한 목적도 있다.



* 출처: 이 기관 홈페이지

【그림 IV-10】 각 활동 자료

사. 종사자



【그림 IV-11】 조직도

종사자들은 기관장이 주관하는 계급체제보다는 각 종사자들이 서로 아동·청소년들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프로그램운영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원활동을 추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 기관에서 종사자들이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회의를 정리한 것이다.

㉠ 종합회의

아동의 개별적인 치료와 보호목적을 위한 것으로, 매주 이루어지고 일 년에 2회씩 한명의 아동에 대한 종합보호치료 평가가 이루어진다. 첫 평가는 아동이 기관에 입소한 3개월 후에 이루어지며 평가는 처음에 계획된 치료와 보호 계획을 평가하게 된다. 즉, 전체적으로 시설생활에 대한 평가와 생활적응, 계획진행정도 등을 보게 된다. 참석자는 기관장과 교육지도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그리고 평가 대상 아동·청소년의 가족으로 거의 모든 관계자가 참석하게 된다.

㉡ 주간회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로 아동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어려움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룹의 교육자들이 참석하고 각 프로그램의 책임자도 참석한다.

2주에 한번은 심리치료사, 심리분석자들이 참석하여 아동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으며 이회의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와 예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㉔ 기관회의

두 개의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육자와 심리치료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아동치료와 교육에 관한 질의와 치료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로 기관장이 이들을 소집한다.

둘째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회의로 일반적인 회의로 보면 되고 이 회의는 의무적으로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주제별회의(한 달에 한번) 외부 치료사도 참석하고 아동들의 문제유형별이나 보호방법유형별에 따라 회의를 한다.
- 교육자들의 회의가 인턴과정에 있는 실습생들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와 연결이 되어 진행된다.

아. 재원

이 시설의 재원은 파리지의 복지재정금과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내 수익사업은 없다. 항목별로 지출되는 경비로는 (2011년 기준)

- 지원되는 시설거주 아동 일인당 하루경비는 140,95유로(21만원 정도)이며 2011년 50여명의 시설보호아동들을 위한 경비는 총 2,729,176.86유로 (약 40억 원)였다.
- 시설유지비와 행정에 필요한 경비 지출은 89,700.00유로(약 1억 3천만원)로 2011년 책정된 재정수입이 86,453.80유로인 것과 비교하면 행정경비가 3,246.20유로(약 5백만원) 적자였다.
- 종사자급여²⁵⁾로 기관종사자들의 총 급여는 997,257.97유로(약 15억원)이다.

자. 종합결론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이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우선 입소대상이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로 가족으로부터 격리 보호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동보호의 가장 중요한 담당자가 부모와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모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25) 종사자 개인별 급여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음

프로그램 운영하여 관계회복을 중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역사가 오래되어 경험에 의한 경영 노하우와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틀로 하여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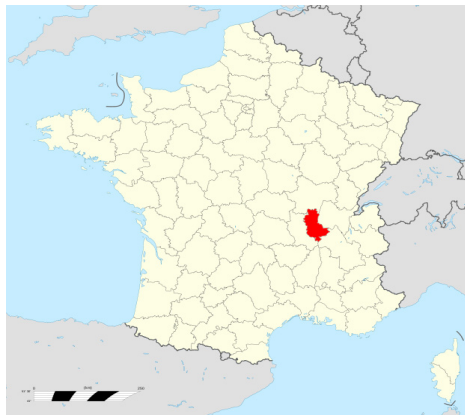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는 눈에 띄이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시설의 위치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다는 점과 파리지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지역의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의 일반적인 문제인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어려움이나 지역주민들의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점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는데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편견이나 지역사회로의 진입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조사가 더 필요하다.

네 번째는 기관종사자의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점도 이 기관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관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활동과 재정에 대한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② 혼(Rhone)지방의 아동·청소년 보호 지방자치단체 협회²⁶⁾



【그림 IV-12】 혼(Rhone)지방

26) (A.D.A.E.A.R.: L'Association Départementale d'Aide a l'Enfance et a l'Adolescence du Rhone)

이 협회는 혼(Rhone)지방의 (위 그림의 위치) 여러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다.

가. 기관의 목표와 주 임무

이 기관은 혼(Rhone)지방의 여러 개의 아동보호시설을 총괄적으로 감독 운영하는 기관으로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예방, 보호,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아동·청소년들 보호하고 있다.

이 기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의 개념은 사회관계형성이며 (Le lien) 주 임무역시 이 관계 형성을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위기를 맞게 되거나 위기환경이 놓이게 되는 것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관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관계회복이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비단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공동체 관계, 사회 가치, 신뢰 등을 포함한 사회와의 관계로 성인이 된 후의 사회생활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기관은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관계형성을 위해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이나 측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이며 이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강조하고 있다.

- 그룹 내의 성인들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신뢰형성, 그리고 이기심이 아닌 자신에 대한 신뢰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 기관에서의 임무로만은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과 관계된 부모와 학교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치료와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발전목표를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 ㉠ 거주 아동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고 거주환경과 교육환경을 최적화한다.
- ㉡ 사회연대감과 운영의 가치 효율성, 유연성 있는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 종사자들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 직업청년들의 지원을 개발한다.
- ㉤ 지역사회교육센터와의 관계를 개발한다.
- ㉥ 연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㉔ 자원봉사자의 인력을 개발한다.

나. 역사

이 협회는 지역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의 연합기관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1978년 3월 30일 개원하였다.

다. 아동의 특성과 수용인원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10여개의 시설의 공통된 특성은 모두 학교생활,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위기환경에 처해진 아동들을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연령은 3세부터 18세까지이며, 몇몇 시설에서는 18세가 지나 성인이 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명 이내의 소수이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시설인 경우에는 3, 4명정도로 가능한 한 아동·청소년들의 개별환경을 중시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라. 시설

프랑스 남부 혼지방에 특히 리옹시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형태는 아동보호시설(MECS), 청소년주거시설(Foyers pour adolescents(es), 호텔경영직업고등학교(Lyceé professionnel hôtelier), 청소년주거교육기관(SIAJE) 이다.

아동보호시설(MECS) 형태에는 8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며 그 중 3개는 청소년주거시설이다. 또한 청소년주거시설(Foyers pour adolescents(es))로는 4개의 주거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호텔경영직업고등학교인 라 비도드《la Vidaude》에서는 직업고등학교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 특별한 서비스 지원으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1개의 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닌 주간보호형태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은 청소년들을 주간에 보호하고 있다. 현재 이 시설들의 총 수용 인원은 310명으로 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부처로부터 의뢰된 아동·청소년들과 법으로 보호조치가 내려진 아동·청소년들이다.

㉠ 아동보호시설(MECS)



【그림 IV-13】 아동보호시설(MECS)

a. 몽드 리오네 (MONT DU LYONNAIS)²⁷⁾



【그림 IV-14】 몽드 리오네 (MONT DU LYONNAIS)

5세에서 18세까지의 사회복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이다. 24명의 수용능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 아동의 가족상황이 편모일 경우 모가 아동과 함께 잠시 거주할 수 있다. 각 그룹은 4명의 교육자와 1명의 총책임자가 책임을 맡고 있다. 각 아동들은 2명의 교육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프로 그램과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27) 15, route de Rontalon 69850 SAINT MARTIN EN HAUT Tél : 04.78.48.63.10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b. 라 부뤼에르(La BRUYERE)



【그림 IV-15】 라 부뤼에르(La BRUYERE)

이 시설은 6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들로 경우에 따라 21세까지도 입소 자격이 있다. 38명의 수용능력이 있고 이 중 3자리는 위급한 상황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보호에 대비하고 있다.

c. 해바라기



【그림 IV-16】 해바라기

대상은 5세에서 15세의 남아동과 5세에서 18세까지 여아동이다. 종사자는 2개의 그룹으로 3명의 교육지도자가 있고 시설 총 책임자가 있으며 교육자는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18명의 아동이 거주하여 있고 퇴소일시가 가까워지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속건물에는 7, 8명이 자립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립준비기간의 생활은 지원기간 마지막 무렵에 소수가 같이 거주하면서 독립심도 키우고 자립적인 생활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어 연령에

따라 개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교육자 외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사와 심리분석가가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d. 4개의 바람 (LES 4 VENTS)²⁸⁾



【그림 IV-17】 4개의 바람 (LES 4 VENTS)

이곳은 법의 판결이 아닌 아동복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5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모든 거주 아동들은 시설 근처의 학교에 다니고 방과후에 시설에서 학과보충 수업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 나뉜 3개의 그룹이 있다(5-9세/ 10-13세/ 14-18세).

각 아동들은 두 명의 교육자들이 책임을 맡고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필요한 지원 등을 체크하고 지원하게 된다.

e. 포레 존 (Forez Jeunes)



【그림 IV-18】 포레 존 (Forez Jeunes)

28) 1, rue de la Combe 69650 SAINT GERMAIN AU MONT D'OR Tél : 04.78.91.28.41

3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보호정책에 의해 보호조치가 취해진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다.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그룹은 연령, 상황,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되었다. 각 그룹은 4명의 교육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자 외에 시설 총 책임자가 함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아동들의 개별환경을 중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활동도 함께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개의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가족들이 방문할 시 사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 다른 오피스텔은 지원이 마무리되는 청소년들이 일정기간 자립적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의 보호정책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부모들과의 관계형성²⁹⁾으로 부모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1개의 수용자리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한 개 그룹에 10-11명이 있게 된다. 연령별 그룹은

- Groupe A : 3-10 세
- Groupe B : 6-12 세
- Groupe C : 10-15 세
- Groupe D : 14-18 세

그룹 D는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f. 그리신(glycine)³⁰⁾



【그림 IV-19】 그리신(glycine)

법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거나 사회복지 보호법에 의해 보호조치가 취해진 아동들이 입소대상이다. 큰 정원에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세에서 17세의 8명의 아동·청소년들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29) 2002년도 개정된 아동보호법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 명시된 바에 근거하고 있다.

30) 11 rue du Champvert 69005 Lyon Tél : 04 78 25 00 18

2개의 오피스텔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청소년들 2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거주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간에만 시설을 이용하는 주간보호 교육지원이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어져 있다.

이 시설은 다음과 같은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가족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개별적 교육을 실시한다.
- 개별화계획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행된다.
- 가정으로의 복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10일이나 5일간의 단기거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사회활동, 여가활동, 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기관은 다른 장소에 또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³¹⁾ 운영방침이나 프로그램은 동일하며 단지 시설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g. 라 메종

법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거나 사회복지 보호법에 의해 보호조치가 취해진 6세에서 18세의 아동들이 입소대상이다. 입소과정은 4-6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평가를 통해 거주할 수 있어 다소 엄격한 편이다. 이 평가는 시설에 입소를 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설 역시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중시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 역시 자녀들과 동거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가, 취미활동 그리고 건강용품 등은 시설에 마련되어 있거나 지역의 관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거주 아동·청소년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신의 문제라던가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고 종사자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문제를 들을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설거주 심리치료사나 외부의 심리치료사가 아동·청소년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의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방학기간에는 정규프로그램 외에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31) SAEG 38 rue de Merval 69005 Lyon Tél : 04 78 36 89 27

시설은 2개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은 1인 1실이나 2인 1실로 하고 연령이 낮은 아동들은 2, 3인이 1실을 이용하게끔 마련되어 있다.

h. 목동의 별³²⁾



【그림 N-20】 목동의 별

법원의 보호조치가 내린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이 입소할 수 있다. 3세에서 16세의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로 학대 유기된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수용능력은 30명이며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립생활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종사자는 교육자, 심리치료상담사가 있으며 기관장은 각 계획들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과 지도를 하고 있다. 몇 개로 나뉜 그룹은 4명의 교육자와 시설의 총책임자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각 아동들은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하여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에는 2명의 교육자가 부모들과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아동들에 대한 평가와 교육진행과정 등을 설명한다.

생활교육으로 교육과 여가 취미활동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아동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 복장, 언어 그리고 학교생활의 규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의 여가활동시설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마련되어 있다.

32) 69350 LA MULATIERE Tél : 04.72.39.00.78

㉠ 청소년주거시설 (Foyers pour adolescents(es))



【그림 N-21】 청소년주거시설 (Foyers pour adolescents(es))

a. 푸른 삼나무(CEDRES BLEUS)³³⁾



【그림 N-22】 푸른 삼나무 CEDRES BLEUS

이 시설의 입소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며 11개의 수용능력이 있다. 소수의 아동·청소년들을 6명의 교육자와 시설장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진 2개의 청소년그룹을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위생, 복장, 언어 등 일상생활을 통한 교육도 함께 하고 있으며 여가 취미활동은 물론 부모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33) 166 rue du Cdt Charcot 69005 Lyon Tel : 04 78 59 10 68

이 시설의 부속시설인 ‘미성년자의 자립을 위한 체험주거시설’(Le SAMVA³⁴⁾ :service d'apprentissage pour mineurs vers l'autonomie)은 16-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4명의 교육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시설을 떠날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교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교환이나 방법등에 대해 함께 논의 한다.

b. 보리수(LES TILLEULS)³⁵⁾

이 시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거주청소년과 주간에만 이용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13-18세의 청소년 15명으로 대부분 심리적 불안으로 가정과 사회, 학교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격리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14명의 청소년이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청소년들 중 2명은 따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

주간보호청소년은 13-18세의 청소년 16명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행동장애가 심한 아동이 대상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며 시설 이용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학교생활 가정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로 알코올 마약 폭력 청소년범죄에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호지원이 절실하고 심리치료 역시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㉔ 호텔경영직업고등학교: 라 비도드(la vidaude)



【그림 IV-23】 호텔경영직업고등학교: 라 비도드(la vidaude)

34) 42 rue A. Blanqui 69600 Oullins Tél : 04.72.39.91.80

35) 41, rue Carnot 69200 Vénissieux Tél : 04.72.50.44.17

교육부 산하 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입학자격은 13세 이상의 아동복지지원대상 청소년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규학교교육의 실패로 학교를 중단하고 직업사회로 입문하기 위해 이 학교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한다. 입학정원 36명으로 개별평가 후 입학이 결정이 되는데 평가는 면접, 2, 3일 동안의 실습, 최종 면접을 통해 결정된다.

직업교육은 2-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지도와 함께 식당이나 기업에 실습을 하게 된다.

㉔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기관(SIAJE: Service d'Insertion et d'Accompagnement des Jeunes par l'Educatif)³⁶⁾



【그림 IV-24】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서비스기관(SIAJE)

이 시설은 주거시설이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좀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입소대상자는 16세에서 21세까지 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로 30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설의 목적이 자립지원이기 때문에 입소조건이 다소 엄격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장래의 계획에 대한 자발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사회성이 없는 청소년, 행동과 인격에 큰 장애가 있는 청소년, 비합법적인 프랑스 체류자 그리고 이곳의 교육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할 청소년은 입소가 불가능하다.

이 시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통합과 직업생활계획을 위한 준비
- 청소년문제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지원
- 잠재력을 개발과 자신감 형성 지원
- 자립적인 거주환경 제공
- 치료와 치료에 적합한 활동개발

36) 14 cours Lafayette 69003 Lyon

- 장래의 직업에 대한 구상과 준비 지원
- 경제관념 교육

마. 프로그램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10여개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의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1명에 대한 교육자의 수가 충분하여 교육자가 이들의 가정환경과 교육능력수준을 잘 파악하여 각 아동·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문제나 위기의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와의 소통이 되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이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모임뿐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는 물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아동·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곳과 더불어 심리치료전문가의 치료가 병행되고 있는 점이다. 심리상담사와 치료사가 시설에 상주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지역의 심리상담사와 치료사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점점 더 치료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로, 일정기간 시설에 거주한 후 퇴소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다. 퇴소후 사회로 나가거나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자립을 위해 독립적인 생활과 직업계획에 대한 구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를 위한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을 시설보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마련해 주고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행하고 있다.

바. 종사자

이 협회(I'A,D.A.E.A.R.)에서 관리하는 종사자는 250명이며 이중 1/3이 남성이고 2/3가 여성으로 여성종사자가 훨씬 많다. 구성은 교육자, 심리치료사가 있으며,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관련종사자는 없으며 치료시 필요한 의료진은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마다 책임자가 있으며,

야간경비를 맡는 경비원과 일반 시설관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리상태가 불안한 아동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아동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부족한 상태라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배치가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사. 재원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재원은 복지시설의 전형적인 형태로 다음과 같은 재원이 있다.

- 참가위원들의 분담금
-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 협회소유의 재산 이자소득
- 여러 형태의 기금

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조사 되지 않았다. 자세한 재정액수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수집이 불가능했지만 파리지의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지원액을 참고로 한다면 리옹시 역시 파리지에 못지않는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 짐작 할 수 있다.

아. 종합결론

협회산하 10여개의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정책에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앞서 프로그램의 특성에서도 언급한 것과 중복이 되는 면도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통해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정책과 이들이 중시하는 정책운영 방안 등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공동시설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수용인원의 규모이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고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질적인 보호에 대한 우려와 더 나아가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정원은 소수정원으로 양적보호보다는 질적보호를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 개의 시설에 10명에서 30명까지의 정원으로 개별지원이 가능하게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수 대비 교육자들의 수의 비율이 높아 한 명의 교육자가 한, 두 명이나 두, 세 명의 아동들을 케어하는 정책으로 시설보다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와 아동·청소년들의 각각의 가정환경과 교육능력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는,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상황에 근접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가족과의 격리 보호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사람은

부모와 가정이다. 그러나 이곳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문제와 가족환경이 이들을 가정 밖으로 내보내고, 거리에서 방황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정상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이 시설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설의 주된 목적이 아동·청소년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시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인 만큼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지속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의 교육자원이거나 사회활동 인프라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시설에 거주하면서 시설에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만을 이용한다면 자칫 이곳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와 고립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러나 이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여 사회로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격리보호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은 지장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근접한 학교에 다니고 시설내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활동은 지역의 청소년 센터나 지역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가 시설에 상주해 있지만 부족할 경우 지역의 의료진에게 의뢰하는 등 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는, 성년에 가까워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시설에서 사회로 이전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이들을 위해 시설과는 다른 형태로 아파트를 거주공간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체험을 하여 사회에 나가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지원서비스는 매우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사회로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이들을 더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의 체험을 통해 사회로의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으로 호텔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러한 자립을 위한 목적과 함께 학교교육에 실패한 청소년들에게 정규교육과는 다른 형태로 이들이 즐겨 할 수 있는 실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은 물론, 자신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위기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양립정책을 실행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에 걸쳐 일관성 있게 포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는가?
- 사각지대와 문제점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시설과 재가보호의 양립정책으로는, 프랑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을 재가보호를 지향하거나 시설보호를 지향하는 것은 없다. 이는 아동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재가보호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족이나 가정환경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시설로 격리 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적인 문제요인에 따라 보호장소나 방법이 정해지게 된다. 특히 가정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을 위한 이웃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호정책이 시작 되고 있어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가나 보호에 상관없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시설의 보호정책에서 가장 중시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문제나 위기의 아동·청소년들을 정상화 시켜 가정으로 복귀 시키는 것이다. 가정이나 부모의 문제로 피해를 받는 아동들을 발견하여 우선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것이 지원행동의 첫단계이지만 마지막 단계는 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정상복귀 시켜주는 것에 두고 있다. 탈가정에서 가정복귀의 기간, 즉 부모와 가정을 떠난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 시기의 보호의 주 책임자가 부모에서 국가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러한 보호정책은 단지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이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어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전 지역에 일관성 있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의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정보수집평가기관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두고 아동·청소년 지원정보와 평가를 전국규모로 실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었는가 라는 점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적인 인구구성의 특성과 지역환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이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소개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은 특성보다는 공통점이 많았다. 즉, 소수규모의 시설지원, 교육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거의 일관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단지 지역의 사회활동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뚜렷하게 나타난 차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에 따라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거나 시설이 증가되는 차이는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시설운영에서 돌출된 사각지대와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방안여부에 관한 것으로는 우선 아동들의 심리상태가 점점 불안해져 심리상담사나 심리치료사들의 인력확보문제가 제시되었다. 시설에 따라 지역에 있는 의료진이나 전문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인력배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운영은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협회가 정부와 시설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공동시설의 특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시설운영의 비리, 서비스 질 저하, 개별프로그램의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는 시설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정기적인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발견되는 즉시 시설로 격리 보호되는 것에는 부모들과의 합의가 되어 있어 최소한 이점을 보더라도 시설운영과 시설보호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프랑스 정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하나는, 부모의 갈등으로 아동의 성장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유기되어 있는 아동들의 보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는 자칫 가정문제에 제3자가 개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아동보호를 우선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을 이웃의 신고나 사회복지사들이 발견하여 직접 시설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법에 보호판결을 의뢰하여 일단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조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회문화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본다면 다소의 강제성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부모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보호지원이 느려져 치료나 예방에 적합한 시기를 놓치고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성인의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에 대한 시각과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들을 동반한 보호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은, 이렇게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지만 지원의 최종목적은 부모와의 관계회복과 가정으로의 복귀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모교육을 함께 병행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치료와 정상화에 대한 노력은 부모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상당부분 치유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한다 해도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에서 마련한 부모와의 관계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는 시설에 자녀를 맡겼어도 적극적인 활동참가와 지속적인 방문 등 아동·청소년 치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셋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연대감을 형성하도록 지도하여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면서 이를 위한 활동과 상담이 진행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은 사회로 발전해서 더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연대감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연대감형성을 위해 국가는 정책을 세워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의 문제를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국가의 역할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개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하거나 여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책이 주로 되어 있어 재정문제나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시정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 되고 있다. 즉, 장기적인 정책의 목표의 결여와 다른 사회집단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설거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주재원은 중앙정부의 보조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아동·청소년 복지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보호정책은 미래의 사회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복지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보호시설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운영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보호에 대한 편견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해 본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은 우려한 단점들보다는 오히려 아동·청소년들의 보호기관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을 위한 개별적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적인 이들의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정책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운영시스템, 시설 검열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역할, 재정지원, 개별화된 시설의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들이다. 이러한 점을 잘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일본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³⁷⁾

1) 방과후서비스

(1)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

① 지역아동양육지원사업의 발달과정

현대사회는 가족으로만 아동을 양육하게 된 최초의 시대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아동을 가족만이 아니라 친족과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육되어 왔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가족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

아동양육에 대해 친밀하게 상담과 도움을 구할 상대가 적어지게 됨에 따라 고독감과 피로감을 느낀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 TV, 잡지, 인터넷으로부터 범람하는 정보에 의하여 매뉴얼적인 육아나 부적절한 양육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녀와만 하루 종일 보내는 전업주부는 과도한 밀착관계로부터 육아에 피폐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육아노이로제와 학대에 이르는 사건도 빈발하며 사회전체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아동양육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원 속에서 주민들의 협력형태로 시작된 지역의 ‘부모자녀의 놀이 모임’ 및 ‘장난감 도서관’, ‘아동관에서의 부모자녀교실’, ‘엄마들이 스스로 만든 자녀양육서클’

37) 정일교(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집필

등의 활동으로 1980년대경부터 실시되어왔다. 이후 1989년 1.57충격³⁸⁾으로 시작된 저출산대책의 하나로써 보육시설이 지역아동양육지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보육시설의 ‘자녀양육의 전문성’을 지역에 활용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육아불안문제를 지원하여 왔다(牧理每治・山野則子, 2009: 34-47 참조).

2002년에는 ‘모임광장’이 시정촌(市町村)설치 보조사업으로서 시작되어 시정촌(市町村)이외 사회 복지협의회, NPO법인에 운영이 위탁되어 지역의 부모자녀가 모이는 거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각각의 경위로 실시되어온 이러한 활동은 2007년부터는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 ‘센터형’, ‘광장형’, ‘아동관형’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아동자녀양육응원프랜(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에서는 지역에서 중학교 구내에 1개소 정도로 지역의 아동양육가족을 지원하는 장을 정비하여 가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동양육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가운데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이 규정되어 있다(牧理每治・山野則子, 2009: 34).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자녀양육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보육시설에서 육아불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과 자녀양육부모와 자녀가 가볍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광장사업에 의해 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더 나아가 2007년부터 아동관의 활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으로서 재편한 사업을 말한다. 이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은 자녀양육가정이 걸어서 친숙한 장소에서 부모자녀가 상담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중학교내에 설치(전국 10,0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³⁹⁾

② 지역아동양육지원 거점사업의 현황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의 설치현황을 보면 2008년 4,851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5,173개소, 2010년에는 5,521개소, 2011년에는 5,722개소로 증가하였다. 5,722개소 중 센터형이 가장 많아 3,219개소이며, 다음은 광장형으로 2,132개소이며, 아동관형이 가장 적어 371개소이다(<표 IV-7>참조).

38) 1.57충격은 합계특수출산율이 1.57로 떨어진 것을 말함.

39)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kosodate/index.html

표 IV-7 지역 아동지원거점의 설치 상황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실적	2010년도실적	2011년도실적 (교부결정기준)
지역아동지원거점	4,851개소	5,173개소	5,521개소	5,722개소

자료 : 후생노동성자료(내각부, 2011: 94 재인용),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html> 참조, 재구성

표 IV-8 2011 지역자녀양육 지역거점사업 실시 개소수⁴⁰⁾

광장형	2,132개소	합계 5,722개소
센터형	3,219개소	
아동관형	371개소	

No	자치단체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3-4월	중정비 확충형	5월	중정비 확충형	6-7월	중정비 확충형	출장 광장	계	소규모형 지정시설	계		
	홋가이도	18	3	11	3	4	0	1	34	154	28	182	0
	오사카부	56	9	30	5	4	2	3	93	102	1	103	0
	아이치현	23	4	7	1	12	4	1	43	99	7	106	9
	교토부	23	1	6	0	3	0	0	32	32	4	36	0
	사이다마현	51	9	39	3	13	2	5	108	156	7	163	6
	도쿄도	25	10	65	12	76	30	2	168	75	5	81	4
													
	도도부현소계	644	82	603	111	297	85	50	1,594	2,367	246	2,613	63
	사이타마시	23	0	9	0	11	0	0	43	10	1	11	0
	요코하마시	8	2	25	14	2	1	0	35	42	5	47	0
	나고야시	10	0	6	0	3	0	0	19	45	0	45	0
	고베시	0	0	6	0	0	0	0	6	10	0	10	115
	오사카시	0	0	60	0	8	0	0	68	32	0	32	0
	후쿠오카시	0	0	14	0	0	0	0	14	0	0	0	0
													
	政令市 소계	63	2	186	16	70	4	0	319	311	15	327	284
	하코다테시	0	0	2	0	0	0	0	2	9	0	9	0
	마에바시시	0	0	0	0	1	0	0	1	14	0	14	0
	가나자와시	0	0	2	0	4	1	0	6	7	0	7	0
	나라시	0	0	11	0	0	0	0	11	6	0	6	0
	후쿠야마시	15	0	0	0	0	0	0	15	11	0	11	0
	구마모토시	1	0	0	0	1	0	0	2	20	0	20	0
													
	中核市 소계	54	1	114	9	50	5	1	219	259	20	279	24
	합계	761	85	903	136	417	94	51	2,132	2,937	282	3,219	371

자료 :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html> 참조, 재구성

40)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교부금 교부결정기준

지역자녀양육거점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IV-9>와 같다.

표 IV-9 2011 지역자녀양육 지역거점사업 실시 개소수⁴¹⁾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기능	상설모임광장을 열어 지역아동양육지원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아동양육지원정보의 수집·제공을 통해 아동양육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거점으로써 기능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지원활동을 실시	민영의 아동관내에서 일정시간, 모임의 장을 열고 아동양육지원활동종사자가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실시주체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도 가능)		
기본사업	① 아동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의 장 제공과 교류촉진 ② 아동양육등에 관한 상담·원조의 실시 ③ 지역의 아동양육에 관련정보의 제공 ④ 아동양육 및 아동양육지원에 관한 강습 등의 실시		
실시형태	①~④의 사업을 아동양육부모와 자녀가 손쉽게 모여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이야기하며 서로의 교류를 촉진하는 상설의 장 제공을 통해 실시	①~④사업의 실시에 추가하여 지역의 관계기관 및 아동양육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등과 연계하여 지역	①~④의 사업을 아동관의 학령아동이 오기전의 시간을 활용하여 아동양육중의 당사자나 경험자를 직원으로 활용하며 실시
	· 기능확충형(개별단가) 일시보호사업과 방과후아동클럽등 다양한 아동양육지원활동과 광장과 함께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네트워크화를 활용하여 보다 세밀한 지원을 실시 · 출장광장의 실시(加算) 상설의 광장형을 개설하고 있는 주체가 주 1~2회, 1일 5시간이상 출장광장을 실시 · 지역의 아동양육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加算) ①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일상적인 접수와 양성 ② 세대간과 타연령아동과의 교류의 지	· 지역지원활동 실시 ① 공민관과 공원등 지역에 직원이 출장가서 부모자녀교류와 아동양육서클 등에 대한 원조 등 지역지원활동실시 ② 지역지원활동 중 보다 중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한 대응	· 지역아동양육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산) 광장에서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일상적 접수·양성

41)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교부금 교부결정기준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속적인 프로그램 실시 ③ 아버지서클 양성 등 아버지그룹만들기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 ④ 공민관, 거리공원, 놀이동산 등 아동양육부모가 모이는 장소에 정기적으로 나아가 필요한 지원과 보호 등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종사자	아동양육지원에 관하여 의욕이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2명 이상)	보육사등(2명이상)	아동양육지원에 관하여 의욕이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1명 이상)와 아동관의 직원이 협력하며 실시
실시장소	공공시설 빈공간, 상점가 빈점포, 민가, 맨션·아파트 등의 방하나를 활용	보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실시	아동관
개설일수 등	주3~4일, 주5일, 주6~7일 1일 5시간 이상	주5일 이상 1일 5시간이상	주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연액보조단가(2007년도)	주3~4일형 3,556천엔, 주5일형 4,355천엔, 주6~7일 5,154천엔, 출장광장 1,343천엔 ※ 지역아동양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가산.	주5일형 7,485천엔, 주6~7일 7,996천엔 ※ 경과조치분(소규모형 지정시설) 2,576천엔, 보건상담등가산분 1,352천엔	기본분 1,687천엔 ※ 지역아동양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가산.

* 출처: 후생노동성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 사업실시요강」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kosodate/index.html(2012.9.15.검색)

연액보조단가(2007년도)는 牧理每治・山野則子(2009), p.35 참조.

(2) 방과후아동플랜

‘방과후아동플랜’은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의 자녀양육기능·교육력의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방과후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방과후대책으로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실시요강’을 정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게 된 사업이다(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長・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長, 18文科生第587号雇兒發0330039 2007年 3月 30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ついて, 이하

‘방과후아동플랜’ 통지라 칭함).

‘방과후아동플랜’은 시정촌이 책정하는 ‘사업계획’과 동계획에 기초하여 ‘방과후대책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 방과후대책사업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방과후아동클럽’ 및 ‘방과후아동교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방과후아동클럽’ 및 ‘방과후아동교실’의 양 사업을 ‘방과후아동플랜 추진사업’(가칭)으로서 보조금교부요강 등에 따라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도시(이하 도도부현 등이라고 칭함)에 교부한다.

각시정촌 권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아동플랜’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예: OO시 방과후아동플랜)을 책정하며 사업계획에는 시정촌은 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의 구체적인 연계방법, 방과후대책사업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초등학교는 방과후대책사업의 이용자수의 예측, 방과후대책사업의 실시계획, 현재 아동관과 공민관 등 초등학교 밖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초등학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연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방과후아동클럽

‘방과후아동클럽’은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은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 164호 이하 ‘법’이라고 함) 제6조의 2조 2항의 규정에 기본하여 보호자가 취업으로 주간동안에서 가정에 돌볼 수 없는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약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수업의 종료후에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 아동관, 보육시설, 단지내의 집회실 등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그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실시주체는 법제 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이하 동일),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자이다. 대상아동은 법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노동 등에 의해 주간가정에 없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이며, 기타 건전육성상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동(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교부의 아동 및 초등학교 4학년이상의 아동)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의 내용은 ① 방과후 아동의 건강관리, 정서의 안정 확보, ② 출결확인을 비롯하여 방과후아동의 안전확인, 활동 중 및 등원·귀가시 안전의 확보, ③ 방과후아동의 활동상황의 파악, ④ 놀이의 활동에 대한 의욕과 태도의 형성, ⑤ 놀이를 통하여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을 배양, ⑥ 연락수첩등을 통하여 가정과의 일상적 연락, 정보교환의 실시, ⑦ 가정과 지역에서 놀이의 환경만들기에 대한 지원, ⑧ 기타 방과후아동의 건전육성상 필요한 활동이다.

가. 방과후아동클럽의 개요

‘방과후아동클럽’은 보호자가 취업으로 주간동안에서 가정에 돌볼 수 없는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놀이와 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그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여성의 취업 증가와 소자녀가 진행되는 중 일과 아동양육의 양립지원, 아동의 건전육성대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4월 종합적인 방과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방과후아동클럽’을 ‘생활의 장’으로 하고 있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관점에서 방과후아동클럽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과후아동클럽가이드’(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長, 雇児發第1019001号, 2007年 10月 19日, 「放課後クラブ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가 책정되었다.

본 통지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제67호) 제245조의 4제1항에 규정에 따른 것이다.

㉠ 대상아동

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취업으로 주간동안에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이며, 기타 건전육성상지도를 요하는 아동(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교부의 아동 및 초등학교 4년 이상의 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규모

방과후아동클럽의 집단규모는 약 40명정도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과후아동클럽의 규모는 최대 70명까지이다.

㉢ 개소일 · 개소시간

개소일, 개소시간은 아동의 방과후시간대, 지역의 실정과 보호자의 취업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또한 토요일, 장기휴업기간, 학교휴업일등에는 보호자의 취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8시간이상 개소한다. 1학년 신입생은 보육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 시설 · 설비

- 아동을 위한 전용방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전용공간을 만들어 생활의 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약 1.65㎡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동의 몸상태가 좋지 않을 때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시설 · 설비는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며 사업에 필요한 설비 · 비품을 준비한다.

㉔ 직원체제

방과후아동지도원을 배치하며, 방과후아동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1948년 12월 29일 후생성령제63호)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놀이지도에 대한 자격을 가진 자가 바람직하다.

㉕ 방과후아동지도원의 역할

방과후아동지도원은 아동의 인권존중과 아동의 개인차에 대한 배려, 체벌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금지, 보호자와의 대응·신뢰관계의 구축, 개인정보의 신중한 취급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과후아동지도원으로서의 자질의 향상, 사업의 공공성 유지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a. 아동의 건강관리, 출석확인을 비롯하여 안전의 확보, 정서의 안정을 기한다.
- b. 놀이를 통하여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을 배양한다.
- c. 아동이 숙제·자습 등의 학습활동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원조를 한다.
- d.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하여 원조하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며, 그 힘을 체득하게 한다.
- e. 활동상황에 대하여 가정과의 일상적 연락, 정보교환을 하며, 가정과 지역에서 놀이환경만들기를 지원한다.
- f.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 등에 의해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촌 등이 설치하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등을 활용하면서 아동상담소와 보건소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 g. 기타 방과후에 아동의 건전육성상 필요한 활동을 한다.

㉖ 보호자에 대한 지원·연계

보호자회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연계하고, 방과후아동클럽의 운영을 보호자와 연계하며, 보호자 자신이 서로 협력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㉗ 학교와의 연계

- a. 학교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며 학교와의 정보교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다.
- b. 아동의 생활과 놀이의 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정·체육관과 남는 교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연계를 하며 방과후아동교실과의 연계를 촉진한다.

㉘ 관계기관·지역과의 연계

- a. 보육시설·유치원등과 연계하며 정보의 공유와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한다.

- b. 아동의 질병과 사고, 다툼 등에 대비하여 지역의 의료·보건·복지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며 자원봉사자의 모집·접수를 적극적으로 한다.

㉔ 안전대책

a. 사고와 부상 방지와 대응

사전에 사고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발생시의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고와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한다.

b. 위생관리

사전에 감염증 등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책을 작성한다.

c. 방재·방법 대응

방재·방법에 관한 계획과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피난훈련 등을 실시한다.

d. 등원·귀가 시 안전확보

사전에 등원·귀가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지역의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신변보호활동 등의 실시에 노력한다.

㉕ 특히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

- a. 장애가 있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아동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용할 때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 b. 장애가 있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연수 등에 노력한다.

㉖ 실시장소

실시장소는 아동관, 학교의 남는 교실, 학교부지내 전용시설 등이다.

㉗ 실시주체

실시주체는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부모회, 운영위원회, 기타이다.

㉘ 방과후아동클럽지원사업

‘방과후아동클럽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과후아동클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아동클럽지원사업’은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위한 시설(방과후아동클럽)에 자원봉사자를 파견 또는 방과후아동지도원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방과후아동클럽의 원활한 사업실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방과후아동플랜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① 자원봉사자 파견사업, ② 방과후아동플랜실시지원등사업, ③ 방과후아동의 위생·안전대책사업이 있다.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으로는 계승놀이등사업, 자연등체험사업, 순회파견사업, 장기휴가파견사업에 자원봉사자를 방과후아동클럽에 파견하고 있다. ‘방과후아동플랜실시지

원등사업’으로는 인재확보를 위한 연수, 지구별운영위원회의 설치·개최,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방과후아동의 위생·안전대책사업’으로는 감염증질환 등에 대한 민영방과후아동클럽에 종사하는 방과후아동지도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長・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長, 18文科生第587号雇兒發0330039 2007年 3月 30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ついて)別紙).

② 방과후아동클럽의 현황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클럽)’의 실시현황(2011년 5월 1일 현재)에 따르면 아동클럽 수는 전년에 비해 615개가 증가하여 20, 561개소로 등록아동수는 전년에 18,600명 증가하여 833,038 명이다(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有環境課調べ, 2011). 아동클럽실시 시구정촌(市区町村) 수는 1,574시구정촌으로 전시구정촌의 실시비율은 90.7%이다(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니가테현(苦手県)과 후구시마현(福島縣)의 12시정촌을 제외하고 집계한 현황).

표 IV-10 설치·운영주체별 클럽수의 현황

(개소)

구분	2011	2010	증감
공립공영	8,390(40.8%)	8,286(41.5%)	104
공립민영	8,718(42.4%)	8,350(41.9%)	368
민립민영	3,453(16.8%)	3,310(16.6%)	143
계	20,561(100%)	19,946(100%)	615

* 출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클럽)’의 실시현황(2011년 5월 1일 현재)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1s7i1.html>

학교의 남는 교실과 학교부지내 전용시설을 합한 ‘학교내실시’가 전체의 51%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며, 전증가수(615개소)에 차지하는 ‘학교내실시’ 증가수(365개소)는 약 60%이다.

표 IV-11 실시장소의 상황

(개소)

실시장소	2011	2010	증감
학교의 남는 교실	5,827(28.3%)	5,752(28.8%)	75
학교부지내 전용시설	4,686(22.8%)	4,396(22.0%)	290
아동관·아동센터	2,724(13.2%)	2,690(13.5%)	34
공적시설등	3,115(15.2%)	3,014(15.1%)	101
기타	4,209(20.5%)	4,094(20.6%)	115
계	20,561(100%)	19,946(100%)	615

* 출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클럽)의 실시현황(2011년 5월 1일 현재)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1s7il.html>

아동수가 20~45명인 아동클럽이 전체의 51.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수 46~55명, 71명 이상의 아동클럽은 감소하였다.

표 IV-12 실시규모의 상황

(개소)

실시규모	2011	2010	증감
9명이하	687(3.4%)	642(3.2%)	45
10~19명	2,187(10.6%)	2,167(10.9%)	20
20~35명	5,868(28.6%)	5,520(27.7%)	348
36~45명	4,633(22.5%)	4,359(21.9%)	274
46~55명	3,048(14.8%)	3,147(15.8%)	-99
56~70명	2,039(14.3%)	2,890(14.4%)	49
71명이상	1,199(5.8%)	1,221(6.1%)	-22
계	20,561(100%)	19,946(100%)	615

* 출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클럽)의 실시현황(2011년 5월 1일 현재)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1s7il.html>

〈방과후아동클럽의 예〉

㉠ 후쿠오카현키타큐슈시(福岡縣北九州市)의 방과후아동클럽시책의 사례

후쿠오카현키타큐슈시(福岡縣北九州市)의 방과후아동클럽시책의 사례

〈특징〉

키타큐슈시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아동(1학년~6학년)이 등록할 수 있는 ‘방과후아동클럽의 확충’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시내 131개 전 초등학교 구내에 정비하기 위하여 방과후아동클럽의 분할·신설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개요〉

키타큐슈 방과후아동클럽의 현황(2009년 1월 1일 현재)

보육시설에서 실시	9	유치원에서 실시	6	초등학교 전용시설	46	초등학교 여유교실	13
초등학교 합숙시설	2	전용시설	5	민간임대	2	공민관·집회소	2
시민센터	4	아동관	32	기타	7	합계	128

〈방과후아동대책의 확충〉

방과후아동대책을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쉼터만들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책으로 한 방과후아동클럽을 확충하고 있다. 방과후아동클럽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동일 교구내의 복수 설치를 하고 있다. 이 시책을 기본으로 2009년부터 3개년 내에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아동클럽의 개축·신설이 현재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담당하는 ‘키타큐슈시 아동가정국 아동가정부 아동지원과 아동지원계’에서는 7인 체제로 시내 131개의 초등학교의 모든 아동의 희망에 따라 그 필요수를 충족해야 될 아동클럽수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아동으로 하여 4학년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발달과제 등 차이가 있는 것과 그 지도법 등도 현재의 아동지도원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연수 중에 ‘고학년 아동에의 대응’이라는 내용도 포함하여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각 학년·지역에서 아동클럽의 운영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각 학교에 맞춘 설계를 학교장·자치회장·민생위원·PTA들과 자주 논의를 하며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신설의 아동클럽은 각 학교·지역에서 각각 설계도 세워지는 장소도 다르다.

* 참고: 본사업총예산 1,217,524천엔, 운영비(아동관내 클럽제외) 432,519천엔, 건설비 785,005천엔

* 출처: 放課後児童クラブ實薦事例集,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育成環境課(2009.3) p.8.

㉠ 아동관사업과 밀착하여 활동내용이 풍부한 미야기 센다이시(宮城仙臺市) ‘이와키리(岩切)아동클럽’

(이와키리(岩切)아동클럽사례)

〈특징〉

이와키리아동관에 있는 ‘이와키리아동클럽’은 방과후아동클럽의 행사는 물론 아동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활동량도 내용도 풍부하게 아동들의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고 있다.

- ◇ 설치주체 : 미야기 센다이시 아동미래국 아동양육지원부 아동시설과
- ◇ 운영주체 : NPO미야기·센다이·아동의 언덕
- ◇ 등록아동 : 제1·58명(1학년 24명, 2학년 18명, 3학년 16명)
제2·97명(1학년 41명, 2학년 31명, 3학년 25명)
- ◇ 장 소 : 초등학교 남서 인접·제1 (36㎡), 행정서비스센터 2층 제2 (23다다미:畳)
- ◇ 개설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후1 - 오후 6교시,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학교 장기휴업시 오전8시 - 오후 6시
- ◇ 휴 업 일 : 일요일, 축일, 기타
- ◇ 지 도 원 : 7명(아동관장을 포함)
- ◇ 부 담 금 : 간식비용으로 2,200엔/ 월 보험료 3600엔/ 연간

* 출처: 放課後児童クラブ實薦事例集,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育成環境課(2009.3) p.10.

㉡ 방과후교실과 연계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나하시(沖縄県那覇市) ‘와카사(若狹)아동클럽’

(오키나와현 나하시(沖縄県那覇市)사례)

〈특징〉

교내의 2개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어 양사업의 연계·조정을 긴밀히 하여 아동들에게 즐거운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 설치주체 :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동미래부 아동양육지원과
- ◇ 운영주체 : 와카사아동클럽운영위원회
- ◇ 등록아동 : 33명(유치원 1명, 1학년 21명, 2학년 4명, 3학년 6명, 5학년 1명)
- ◇ 장 소 : 초등학교 교사 C동 1층(60.75㎡)
- ◇ 개설시간 : 월요일-금요일 수업종료후 - 오후 7교시,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학교 장기휴업시 오전8시 - 오후 7시
- ◇ 휴 업 일 : 일요일, 축일, 기타
- ◇ 지 도 원 : 3명(정지도원 2명·시간제 1명)
- ◇ 부 담 금 : 보육료로서 월액 유치원생 15,500엔, 1학년 13,500엔, 2학년 11,500엔
3학년 8,500엔, 4학년 7,500엔, 5·6학년 6,500엔
입소료 5,000엔

* 출처: 放課後児童クラブ實薦事例集,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育成環境課(2009.3) p.12.

② 방과후아동교실

‘방과후아동교실’은 전국의 초등학교구내에서 방과후 및 주말 등에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안심·안전한 활동거점(쉼터)을 만들고 지역의 많은 참여 속에 아동들과 공부, 스포츠·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이 지역사회속에서 풍요하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생애학습정책국장·후생노동성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 18문과생제587호고아발0330039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에 대하여’(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長・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長, 18文科生第587号雇兒發0330039 2007年 3月 30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ついて)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시주체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이하 동일) 등과 사업의 일부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교육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대상아동의 범위

지역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유아, 중고교학생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대상은 초등학교생이다.

다. 사업의 내용

- ㉠ 방과후와 주말 등에 있어서 지역의 아동들의 안심·안전한 활동거점(쉼터)의 확보
- ㉡ 지역의 다양한 자질을 갖고 있는 많은 성인의 참여속에 아동들에게 여러 체험·교류·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
- ㉢ 다양한 체험·교류·학습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사회성, 자주성, 창조성 등의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
- ㉣ 지역의 아동들과 어른의 적극적인 참가·교류에 의한 지역사회의 충실
- ㉤ 기타 아동들이 지역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

라. 비용

국가는 시정촌(지정도시, 중핵시를 제외)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 또는 기타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도부현이 보조하는 사업, 지정도시, 중핵시 및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사업 및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보조한다.

본 사업의 사업비를 적산할 때는 이하의 기준에 기반하여 사업비를 계산한다.

㉠ 방과후아동교실운영비

- 안전관리원, 학습어드바이저의 배치인수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적산을 참고하여 각 지역의 방과후아동교실의 실정(개최일수 및 참가인수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로 한다.
- 안전관리원, 학습어드바이저의 사례금 단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적산을 참고하여 각 지방공공단체의 회계준비에 기초하여 단가를 설정하여도 된다.

단, 각각의 1인 1시간당 사례금단가는 안전관리원 720엔, 학습어드바이저 1,080엔까지를 상한으로서 적산하는 것으로 한다.

- 금전이외의 경비에 해당하는 통신운반비, 인쇄제본비, 교재비, 사업관계자의 보험료, 소비품비 등은 국가의 예산적산을 참고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른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산한다. 단 기저귀 등 음식물대와 아동들의 실비상응의 보험료·재료비값은 제외한다.

㉡ 코디네이터 경비

- 코디네이터의 배치인수는 국가의 예산적산을 참고로 각 지방공공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인수를 배치한다.
- 코디네이터의 사례금단가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적산을 참고로 각 지방공공단체의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단가를 설정하여도 된다.

단, 1인 1시간당 사례단가는 1,440엔까지를 상한으로서 적산한다.

마. 운영위원회의 배치

- ㉠ 시정촌은 (지정도시, 중핵시를 제외) 권내의 방과후아동교실추진사업 및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제164호)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배치한다.
- ㉡ 사업계획의 책정, 안전관리방책, 홍보활동방책, 자원봉사자 등의 지역의 협력자의 인재확보방책, 활동프로그램의 기획, 사업실시후의 검증·평가 등에 대해 검토한다.
- ㉢ 운영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행정관계자(교육위원회 및 복지부국), 학교관계자, 방과후아동클

럽관계자, 사회교육관계자, 아동복지관계자, PTA관계자 및 관내의 지역주민 등의 여러 사람을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책임자를 선정한다.

- ㉔ 운영위원회는 연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려 하는 것

바. 코디네이터의 배치

- ㉕ 시정촌은 각초등학교구내에 방과후대책사업의 종합적인 조정역을 담당하는 자(이하 ‘코디네이터’라 칭함)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책임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학교관계자, 방과후아동교실·방과후아동클럽관계자, 지역의 단체, 보호자 등과 양호적인 관계를 유지, 정기적으로 연락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정열을 가진 지역의 신뢰가능한자가 바람직하다.
- ㉖ 코디네이터는 본사업과 방과후아동클럽과 연계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 이외 보호자등에 대한 참가의 요청, 학교와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연락조정, 지역의 협력자의 확보·등록·배치·활동프로그램의 기획 등을 한다.

〈방과후아동교실의 예〉

(아다치(あだち)방과후아동교실사례)

- ◇ 대상자 : 해당 초등학교의 1~6학년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
- ◇ 참가 : 각학교별로 ‘참가등록신청서’를 제출. 등록서를 제출하면 희망하는 개최일에 자유롭게 참가
- ◇ 내용 : 자유로운 놀이와 학습
- ◇ 금액 : 무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 실시일 : 각학교에서 개최일을 결정
원칙으로 봄·여름·겨울방학 중에는 실시하지 않음

* 출처: http://www.kousya.jp/tokimeki/kids_classroom/index.html

③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 관련 조사 결과

후생노동성의 ‘방과후아동클럽’ 과 문부과학성의 ‘방과후아동교실’은 ‘방과후아동플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의 ‘방과후아동플랜실시상황조사’(2008년 6월 23일)⁴²⁾에

42) ‘방과후아동플랜’의 실시상황과 실시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합동으로 도도부현(47), 지정 도시·중핵시(52), 시구정촌(1,767)를 대상으로 조사(2007.12.1)

따르면 두 사업 중 하나만 실시하고 있는 곳은 16,547개소로 초등학교 구(75.6%)이며, 두 사업 모두 실시하는 곳은 4,153개소로 초등학교 구(19.0%)이다. 방과후아동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5,707개소로 초등학교 구(26.1%)이며, 방과후아동클럽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14,993개소로 초등학교 구(68.5%)이다.

표 IV-13 '방과후아동플랜'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의 실시 상황

		방과후아동교실			계
		초등학교에서 실시	초등학교 이외에서 실시	미실시	
방과후아동 클럽	초등학교에서 실시	1,796(8.2%)	430(2.0%)	5,540(25.3%)	7,766(35.5%)
	초등학교이외에서 실시	1,186(5.4%)	741(3.4%)	5,300(24.2%)	7,227(33.0%)
	미실시	1,174(5.4%)	380(1.7%)	5,327(24.4%)	6,881(31.5%)
계		4,156(19.0%)	1,551(7.1%)	16,167(73.9%)	21,874(100.0%)

※ 위의 표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및 중핵시로부터 해당이 있었던 21,874 초등학교 구를 모수로 하고 있다.

* 출처 : 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生涯學習推進課長, 19生生推第1の3号 2007年 5月 17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係る地方財政措置について.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의 양사업의 일체화에 대하여 현재대로 각각 따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가 35%로 가장 많으며, 양사업의 일체화가 필요하다는 27%이다.

표 IV-14 '방과후아동플랜'의 사업실시의 과제

현재 대로가 좋다	647(35%)	양사업의 보조요건의 완화가 필요	421(23%)
양사업의 일체화가 필요	499(27%)	기타	501(27%)

방과후아동클럽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구에 있어 미실시 이유에 있어서는 ‘욕구가 없다’가 37%, ‘실시장소의 확보 곤란’이 36%, ‘지도원 등 인재확보가 곤란’이 33%, ‘예산확보가 곤란’이 30%이다.

* 출처: <http://www.mhlw.go.jp/houdou/2008/06/h0623-1..html> 참조.

표 IV-15 '방과후아동클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욕구가 없다	468(37%)	보조금의 수급요건이 높음	190(15%)
실시장소의 확보 곤란	449(36%)	지역·가정에서 아동을 맡기는 시책이 따로 있음	168(13%)
지도원 등 인재확보가 곤란	413(33%)	양사업의 조정·이해에 시간이 필요	127(10%)
예산확보가 곤란	372(30%)	지역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음	48(4%)
다음연도 일에 실시 검토중	246(20%)	기타	230(18%)

* 출처 : 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生涯學習推進課長, 19生生推第1の3号 2007年 5月 17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係る地方財政措置について.

방과후아동교실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초등학교 구내에 있어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지도원등의 인재확보가 곤란'이 64%, '실시장소의 확보 곤란'이 47%, '예산확보 곤란'이 41%이다. 그 밖에 '문부성의 보조금이 지속되지 않을까 불안'이 38%, '다음연도에 실시 검토 중' 이 34%, '양사업의 조정·이해에 시간이 필요'가 33%의 순이다.

표 IV-16 '방과후아동교실'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지도원 등 인재확보가 곤란	1,019(64%)	욕구가 없음	335(21%)
실시장소의 확보가 곤란	745(47%)	지역·가정에서 아동을 맡기는 시책이 따로 있음	271(17%)
예산확보가 곤란	648(41%)	지역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음	168(11%)
문부성의 보조금이 지속되지 않을까 불안	596(38%)	보조금의 수급요건이 높음	113(7%)
다음연도에 실시 검토 중	537(34%)	보조금 수급요건에 대응할 시간이 없음	65(4%)
양사업의 조정·이해에 시간이 필요	523(33%)	기타	267(17%)

* 출처 : 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生涯學習推進課長, 19生生推第1の3号 2007年 5月 17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係る地方財政措置について.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과 관련된 지방재정조치에 따른 적산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IV-17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과 관련된 지방재정조치에 따른 적산내용

	종별	측정단위	적산내용	경비
도도현분	사회복지비 아동복지비 아동복지공통비	인구 170만명	부담금, 보조 및 교부금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비 보조(1/2) (방과후아동교실추진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537,019천엔
시정촌분	사회복지비 아동복지비 아동복지시설비	인구 10만명	보상비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 (1/3) (방과후아동교실추진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수요비등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 (1/3) (방과후아동교실추진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5,359천엔 48,496천엔

* 출처 : 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生涯學習推進課長, 19生生推第1の3号 2007年 5月 17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推進事業」に係る地方財政措置について.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교실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활동이며, 강력한 연계가 필요할지라도 그것을 일체화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현재 방과후아동교실과 방과후아동클럽을 하나의 체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물며, 현재의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클럽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체제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많다. 즉 방과후아동교실로써 방과후아동클럽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아동교실의 활동을 방과후 매일 오후6시까지 실시하고 또는 장기휴일 중에도 개설을 강행하는 것으로 방과후아동클럽을 포괄하려는 독자적으로 「전아동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클럽이 용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방과후아동클럽은 실제로 생활의 장이며, 매일 일정시간의 개설이 필요한 곳이며, 더구나 여름휴가 기간 중 개설도 필수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 특정의 지도원이 한명 한명의 아동들의 생활실정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기본적으로 비상근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대응하는 방과후아

동교실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사업의 특성을 배려한 연계가 필요하다(栢女靈峰, 2011: 113-114).

(3) 방과후아동플랜과 관련된 아동관의 역할

아동관은 놀이를 통하여 지역의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40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고, 또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수는 전국 4,689개소, 시설규모별의 내역으로는 소형아동관 2,799개소, 아동센터 1,750개소, 대형아동관 24개소, 기타 116개소이다(2008.10.1 후생노동성조사).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대상아동은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지만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3세 이상의 유아와 초등학생이다. 주요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놀이장소의 확보, 건강증진,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며, 주로 놀이를 통한 집단적·개별적 지도, 엄마클럽등의 지역조직활동의 육성·조장, 건강·체력의 증진, 방과후아동 육성, 지도, 연장아동의 육성·지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상담 등이다.⁴³⁾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보육시설 다음으로 많아 전국의 80%의 시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관은 지역의 아동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전육성활동의 거점시설로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최근 지역자녀양육거점사업과 방과후 대책과 관련하여 아동의 건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주요기관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아동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부터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중 아동관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1년 전체 5,722개소 중 아동관형 371개소이다(표 IV-7참조). 또한 <표 IV-11>에서 보는 것처럼 방과후아동클럽 중 아동관 및 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비율은 2011년 5월 현재 13.2%에 해당한다.

최근 아동의 건전육성과 방과후서비스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아동양육에 대한 보다 확대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鈴木一光(2008), 牧理每治·山野則子(2009)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지원에서 나아가 부모, 초등학생에서 나아가 중고등학생, 부모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아동에 대한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의 증진 등 최근에 그 기능을 특화하여 가는 아동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아동관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kan.html>

① 시설특성

아동관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사명으로서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주민 등과 연계, 협동하는 단체이며, 지역주민의 이해 및 협력을 얻어 아동건전육성활동을 지역에 전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동양육의 사회연대, 아동과 고령자 등의 다세대 교류, 장애가 있는 아동의 통합(Inclusion : 포괄적 육성)의 실천도 하고 있다. 이용자는 단순히 준비된 활동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동실행위원회’의 놀이프로그램과 엄마자신이 기획하는 이벤트처럼 활동의 담당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동과 엄마가 기획에 참가하는 것은 즉 아동관활동 가운데 이용자육구가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과의 연계에 의해 활동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온 아동관은 이전부터 자녀양육지원센터적 기능도 하여 온 곳이 많다. 원래 많은 주민이 출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육구가 난무하기 쉬운 인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에 상응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놀이 가운데 아동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기쉽고 일상속에서 부등교, 왕따, 학대나 비행 등의 복지과제의 조기발견도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또한 학교등과 연계하고 심각한 사례는 복지사무소나 아동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牧理每治・山野則子, 2009: 50).

② 아동관의 기능

가. 아동육성기능

아동관의 주요 업무는 지역의 아동들에 놀이를 통하여 개별적·집단적으로 그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는 다른 집단과 인간관계속에서 여러 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아동의 제 기능의 발달을 촉진한다. 또한 아동의 생활의 질이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안심·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쉼터와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소집단에서 놀이와 체험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많지만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적 복지원조를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보장을 전제로하여 ‘예방’과 ‘대처’의 양면으로부터 전인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동관에 있어서 아동육성기능이다.

나. 아동양육지원기능

부모의 자녀양육의 자세와 가치관을 언급하지 않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말할 수 없다. 즉 부모의 지원은 아동의 건전육성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영유아를 가진 엄마의 친구만들기와 자녀양육서클에의 간접적인 지원 등 아동관이 제공하는 아동양육지원의 데이스비스는 육아스트레스 완화와 아동학대의

미연방지와 연결되며, 나아가서는 아동자신의 복지향상에 공헌하는 것이 된다.

아동양육가운데 부모에의 상담대응과 정보제공, 집단·친구만들기를 위한 집단적 원조, 같은 연령층의 아동을 가진 부모끼리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아동양육자그룹의 지원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자녀양육서클 등의 조정도 아동관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또한 주간부모부재가정의 저학년아동을 방과후와 학교휴일에 일정기간 보호·지도하는 방과후아동클럽도 약 50%이상의 아동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양육지원의 하나이다.

다. 지역활동 촉진기능

아동의 건전육성활동과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는 지역사회조직의 관점이 필요하다. 부모끼리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과 지역자원과 연결이 잘되게 하는 것은 아동양육을 하기 쉬운 지역환경, 아동건전육성의 간접요소가 된다. 또한 아동관 그 자체가 유력한 사회자원으로서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이용촉진을 하는 것도 풍부한 환경만들기로 연결된다. 학교와 지역속에 접점이 없는 타연령의 아동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부모와 지역의 어른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정보교환과 상호교류를 잘하게 하는 것도 의의가 크다. 아동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발굴·양성하는 것, 지역조직과 활발하게 연계하는 것 등의 지역사회조직도 아동관의 기본기능이 되고 있다(牧理每治·山野則子, 2009: 51- 52).

③ 아동관의 유형별 네트워크 기능

가. 소형아동관·아동센터

소형아동관은 소지역을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를 통하여 아동들을 지도·원조하는 시설이다. 소지역의 정의는 어렵지만 시가지의 소형아동관이라면 초등학교저학년의 생활권과 행동범위가 되는 반경 500m 정도의 학교단위이다. 또한 엄마클럽, 아동회 등의 지역조직활동의 육성을 조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동센터는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추가하여 주로 운동놀이 등에 의해 체력증진을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아동에 대한 육성기능도 하고 있다.

여하튼 두 기관 모두 아동들의 흥미·관심과 발달과제에 따라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지역밀착도가 높은 시설이다. 또한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상담·원조, 엄마클럽과 아동회 등의 지역조직활동과 그 지도자의 지원도 하고 있다. 아동복지관계자와 지역조직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역의 다채로운 관계기관·단체에 이해 및 협력을 얻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의 놀이의 지도와 복지원조의 협력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전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만들기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牧理每治・山野則子, 2009: 52-53).

나. 대형아동관의 현황

대형 아동관은 소형아동관과 아동센터와는 약간 이용자층이 달라 먼지역(광역)으로부터 오는 부모자녀와, 학교·유치원·보육시설·아동회 등 단체이용도 많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개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놀이, 역사, 산업, 문화, 과학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아동들이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등이 있는 A형 아동관,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아동들이 자연관찰과 네이처게임(ネイチャーゲーム)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과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B형 아동관, 예술, 체육, 과학 등의 종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C형 아동관 등이 있다. 대형아동관(A·B)은 도부현(都府県)내의 아동관연락조정기능을 가지고 아동건전육성의 정보발신과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새로운 놀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버스(Play Bus)인 차량으로 현내 광역시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활동(outreach)을 하며, 건전육성에 관한 인재양성을 위한 아동후생원연수와 자원봉사자강좌 등도 하고 있다. 또한 아동관연락협의회와 지역활동(엄마클럽)연락협의회와 관계단체의 사무국을 두는 등 관계시설과 아동양육지원단체의 연계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센터의 기능도 하고 있다(牧理每治・山野則子, 2009: 53).

(4) 방과후생활보장과 아동관의 과제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여유있는 방과후생활의 보장은 아동건전육성의 주요한 주제이다. 방과후 생활보장에 관해서는 부모의 육아와 취업지원의 관점에서 방과후아동클럽에 주목되고 있으며 아동·아동양육신시스템에 있어서도 개혁의 주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방과후 아동클럽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 개수의 부족’, ‘대규모화’, ‘지역의 안심·안전이 잃어가고 있다는 현상에서 활동시간 및 내용의 과제로서 행동과 자유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실시장소 및 사업주체의 다양화, ‘시설설비의 부족’, ‘열악한 직원체제와 대우’, ‘이용아동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장애아동 및 가정양육의 기반이 취약한 아동의 증가’, ‘학교(교육)과 연계부족’, ‘보호자와 협력관계의 희박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栢女靈峰, 2011: 111-113).

이러한 과제 중 방과후생활보장과 관련된 아동관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아동에 대한 생활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의 취업으로 인하여 밤늦게 부모가 돌아오는 아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동관이 놀이의 기능에서 나아가 생활의 지원

기능으로서 아동관의 특화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관은 초등학교구역 등을 지역의 아동과 아동양육의 환경전체를 시야에 넣어 그 영역내의 아동의 성장과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자의 취업상황이 다양화가 진행되고 가정의 양육기반·기능이 약체화되어감에 따라 집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양육기반의 불안정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소셜워커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적·질적 정비가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클럽의 경우이다. 일본정부가 2010년 1월에 책정한 아동·아동양육비전에 있어서도 정비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 많이 불충분하다. 2008년 2월의 '신대기아동제로작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60%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의 약 2배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만큼 정비하여 가기위해서는 아동·아동양육신시스템 기본 제도안 요강에 있어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지정제도 등의 도입에 의한 다양한 주체의 참가에 의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중고생 등 고학년 연장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방과후아동클럽의 경향으로서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중심적 활동대상으로 중심으로 하였지만 영유아와 중고생에 그 대상을 쌍방으로 넓게 활동을 전개하는 아동클럽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편 대상과 활동을 특화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중고생을 향한 특화된 아동클럽으로서는 음악밴드의 이용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등 중고생의 활동지원을 전개하고 있는 시설(佐倉市영플라자등)도 나타나고 있다(齊藤進外, 2009 : 177). 이렇게 중고생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이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여 줄 수 있으며, 이 시기의 발달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상근과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전체를 포괄하는 아동육성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지역사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놀이장, 휴식처의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전체를 시야에 넣은 아동육성을 생각하는 지역사회조직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栢女靈峰, 2011: 130-132).

최근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관련된 아동관의 역할은 부모와 아동, 지역사회의 3자의 매개를 담당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부모와 아동, 아동과 아동, 부모와 아동과 지역사회, 각각을 연계하며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아동관 즉, 전문직(아동후생원)이 있는 휴식처로서 아동관이 필요하다. 아동후생원은 아동의 놀이의 지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가정과 지역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소셜워커, 커뮤니티워커로서의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아동후생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아동후생원은 아동들과의 관계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간의 관계에 있어 케어워크로서의 매개와 부모자녀와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조직화를 도모하는 소셜워크(커뮤니티워커)로서의 매개의 2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장애아동의 방과후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풍요하게 하여 가는 시점이 없어서는 안된다. 2010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장애인자립지원법·아동복지법개정에서는 장애아의 풍요한 방과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방과후등데이서비스가 법정화되었다. 따라서 방과후아동클럽에도 방과후 데이서비스의 충실이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방과후등데이서비스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루중 일시지원사업의 활용등도 포함하여, 장애아의 방과후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욕구에 응하는 폭넓은 시스템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栢女靈峰, 2011: 116).

여섯째, 학교교육과의 유기적 연계의 보장이 필요하다. 학교에는 여러 풍부한 설비가 있으며, 학교소셜워커와 스쿨카운셀러, 양호교사 등의 여러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어 보건실도 있다.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의 확보는 방과후아동클럽의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栢女靈峰, 2011: 116).

일곱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과의 폭넓은 인간관계보장이 필요하다. 지역에 있어 아동육성 활동은 아동후생시설 등의 공적시설·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 등의 공적 자원봉사, 지역아동회와 어머니클럽 등의 지역조직, 주민주체형 지역자주 활동, 기업, 자원봉사자, NPO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대감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의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접할 기회를 가지며 보다 건전한 인격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기긍정감 강화를 통한 아동의 생명력 육성이 필요하다. 문부과학성은 교육목표의 하나로 아동의 생명력육성을 들고 있다. 자기긍정감은 생명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며 아동들의 자기 긍정감을 높여가는 지원도 필요하다. 놀이장소, 놀이상대가 많은 아동이 자기 긍정감이 높은 것처럼 아동들이 풍부하게 놀 장소와 친구를 사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생명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생명력 육성은 ‘건전육성’ 개념을 넘어 아동육성 시책의 새로운 시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栢女靈峰, 2011: 130-131 참조).

2) 아동양호시설

(1) 아동양호시설의 정의와 입소원인

표 IV-18 아동양호시설 재적자의 입소원인 (양호문제 발생이유) (단위: %)

	1952	1961	1970	1977	1982	1987	1992	1998	2003	2008
부의 사망	23.0	21.5	13.1	10.9	9.6	7.5	4.7	3.5	3.0	2.4
부의 행방불명	7.1	18.0	27.5	28.7	28.4	26.3	18.5	14.9	10.9	6.9
부모의 이혼	4.0	17.4	14.8	19.6	21.0	20.1	13.0	8.5	6.5	4.1
기아	11.4	5.0	1.6	1.3	1.0	1.3	1.0	0.9	0.8	0.5
부모의 불화	*	*	*	1.8	2.0	1.5	1.6	1.1	0.9	0.8
부 또는 모의 장기구속	3.4	4.3	3.0	3.7	3.8	4.7	4.1	4.3	4.8	5.1
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5.3	16.2	15.7	12.9	12.8	11.5	11.3	9.1	7.0	5.8
부 또는 모의 치료	*	3.3	1.8	1.0	0.7	1.5	11.1	14.2	11.6	9.7
빈곤	27.9	*	*	*	*	*	*	*	*	*
파산등의 경제적 이유	*	*	*	*	*	*	3.5	4.8	8.1	7.6
부 또는 모의 정신질환	*	5.7	5.6	5.1	5.5	5.2	5.6	7.5	8.1	10.7
부 또는 모의 방임·태만	*		4.7	4.5	5.6	6.3	7.2	8.6	11.6	13.8
부 또는 모의 학대·혹사	*	0.4	2.5	2.4	2.4	2.9	3.5	5.7	11.1	14.4
양육거부	*	*	*	*	*	*	4.2	4.0	3.8	4.4
아동문제에 의한 감호곤란	*	*	*	*	*	*	6.2	5.4	3.7	3.3
기타	17.8	8.1	9.8	7.3	7.3	11.3	4.5	7.4	7.9	10.5
총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1952-1992년은 厚生省児童家庭局「養護施設等實態調査」各年

1998-2008년은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結果の概要」(各年)

「*」은 해당항목 없음

妻木進吾・長瀬正子・内田龍史(2011), p.11. 참조.

아동양호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1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기타 환경상 양호(養護)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 아동을 양호하고 아울러 퇴소한 자에 대한 상담 기타 자립을 위한 원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양호시설 경험자가 시설에 입소하게 된 원인은 〈표 IV-18〉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사망’을 입소원인으로 하는 비율은 1960년대까지는 20%를 넘었지만 그 후 크게 감소하여 90년대부터는 5%로 감소하였다. ‘부모의 행방불명’, ‘기아’의 비율은 70·80년대에는 30%에 가까웠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8년이 되면 10%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부모의 부재가 입소원인인 비율을 합하면 70년대까지는 40%를 넘었으나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8년에는 10%까지 감소하고 있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학대’,

‘방임’, ‘양육거부’ 등의 비율이며 70·80년대까지는 10% 정도이었으나 그 후 급증하여 98년도에는 약 20%, 2008년에는 30%를 넘고 있다(妻木進吾·長瀬正子·内田龍史, 2011 : 12).

(2) 사회적 양호의 기본이념과 원리

사회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12년 발표된 아동양호시설운영 지침(2012년 3월 29일 후생노동성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 통지)에 따르면 사회적 양호의 기본 이념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양호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1조에 ‘모든 아동은 균등하게 그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현장에서는 ‘아동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은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주로 고려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적 보호는 아동의 권리옹호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양호는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공적 책임으로 사회적인 보호·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양육이 곤란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육성은 아동복지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모든 국민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과 사회의 이해와 지원에 의해 이루어져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0조에서는 ‘가정환경을 잃은 아동 또는 아동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비추어 그 가정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아동은 국가가 부여하는 특별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사회적 보호는 ‘모든 아동을 사회 전체에서 양육한다’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사회적 양호의 원리

사회적 양호는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상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자세로 지원한다.

가. 가정적 양호와 개별화

모든 아동은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안심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양육자에 의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양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아동은 사랑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당연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양호를 지역에서부터 분리하여 행하거나, 아동 생활의 장을 대규모적인 시설양호가 아닌 가능한 가정 혹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가정적 양호’와 개개의 아동의 양육을 주의 깊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개별화’가 필요하다.

나. 발달보장과 자립지원

아동기는 그 연령에 맞는 발달 과제를 가지며, 그 후 성인기의 인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하다. 사회적 양호는 미래의 인생을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아동기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서는 애착관계와 기본적인 신뢰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아동은 애착관계와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립을 위한 힘의 획득과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도 이러한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동의 자립과 자기실현을 목표로 아동의 주체적인 활동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생활체험 등을 통하여 자립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

사회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그 아동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학대체험과 분리체험 등에 의한 악영향으로부터의 위안과 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케어와 심리적인 케어 등의 치료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근래 증가하고 있는 피학대아동과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학대체험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 친구, 이웃주민, 보육사와 교사 등 지역에서 알고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과의 분리 등도 경험하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와 심각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서와 행동, 자기인지·대인인지 등에서도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험을 쌓아 신뢰관계와 자기 긍정감(자존심)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가족과의 연계·협동

보호자의 부재, 양육곤란, 더욱이 부적절한 양육과 학대 등 ‘안심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이 있다. 또한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없어 고민하는 부모도 있다. 더욱이 배우자에 의한 폭력(DV)으로 ‘적절한 양육환경’을 가지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 부모자녀가 있다. 사회적 양육은 이러한 아동과 부모의 문제상황의 해결과 완화를 위하여,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부모를 지원해 가면서 혹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의 발달과 양육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방법이다.

마. 계속적 지원과 연계 접근

사회적 양호는 그 시작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계속적인 지원과 가능한 한 특정 양육자에 의해 일관성 있는 양육이 요망된다. 아동상담소 등의 행정기관, 각종 시설, 가정위탁부모 등의 다양한 사회적 양호 담당자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능숙하게 연계하면서 각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부모 자녀간의 지원을 목표로 사회적 양호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양호의 담당자는 동시에 다양한 연계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을 이끌어 내고, 혹은 원래의 지원주체가 장래에까지 관계를 갖는 등 각각의 기능을 유효하게 서로 보완하면서 중복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일관성·계속성·연속성이란 통합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생활주기를 통찰한 지원

사회적 양호 속에서 양육된 아동들이 사회로 나가 생활하는 것에 대해 통찰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입소와 위탁을 끝낸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귀속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양호에는 양육되어진 아동이 부모가 되고, 다음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 되는 즉 세대로 반복되어 가는 아동양육 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 양호의 기반 만들기

사회적 양호는 전에는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에게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시책이었다. 현재 학대를 받는 아동, 어떤 장애가 있는 아동, DV(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의 모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양호는 대규모적인 시설양호를 중심으로 한 형태에서부터 한 사람 한사람의 아동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부모 자녀 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자원으로써 하드·소프트 모두 변혁하여야 한다.

사회적 양호는 가정적 양호를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양육자의 가정에 아동을 받아들여 양육을 하는 가정위탁부모와 가족홈을 우선하여야 하고, 동시에 아동양호시설, 유아원 등의 시설양호도

가능한 한 소규모에서 가정적인 양육환경(소규모 그룹케어, 그룹홈)의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설은 사회적 양호의 지역 거점으로써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아동에의 지속적인 지도, 가정위탁부모지원, 사회적 양호 하에 양육된 아동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지역양육에서 가정에 의 지원 등 전문적인 지역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와 케어복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아동양호시설운영지침, 2012년 3월 29일 후생노동성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 통지).

(3) 아동양호시설의 현황⁴⁴⁾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은 2011년 3월 현재 585개소로 정원은 34,522명이며, 현재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29,114명이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14,892명이다.

① 설비기준

아동복지법 제41조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은 아동의 거실, 조리실, 욕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거실의 방 하나의 정원은 4명 이하로 하고 그 면적은 1인당 4.95㎡²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만의 거실은 6인 이하로 하고 면적은 1인당 3.3㎡²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2011년 6월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의 개정에 의하여 거실 정원이 1948년 15명 이하이었던 것이 2011년 4인 이하로 변화한 것이며, 면적은 1948년 2.47㎡², 1989년 3.3㎡² 이상이었던 것이 4.95㎡²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표 IV-19 아동양호시설 최저기준 거실정원 변화

	1948년	1961년	2011년 6월 ~
아동양호시설	15인 이하		4인 이하(영유아만의 거실은 6인 이하)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17.

44) 후생노동성의 아동복지시설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개요(「児童福祉施設最低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概要」) 2011년 6월 공포시행. 참조.

표 IV-20 아동양호시설 최저기준 거실면적 변화(1인당)

	1948년	1961년	1998년	2011년 6월 ~
아동양호시설	2.47㎡ 이상		3.3㎡ 이상	4.95㎡ 이상 (영유아만의 거실은 3.3㎡ 이상)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17.

입소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거실을 별도로 한다.

아동양호시설 1인당 침실·거실의 면적은 4.95~6.6㎡가 가장 많아 전체 시설 중 31%를 나타내고 있으며 4.95㎡ 이하인 시설은 29%이다.

표 IV-21 아동시설 침실·거실 면적의 분포(1인당)

	개정전 기준	개정후 기준	1인당 침실·거실면적의 분포				
			~4.95㎡	4.95~6.6㎡	6.6~8.25㎡	8.25~9.9㎡	9.9㎡~
아동양호시설	3.3㎡	4.95㎡	29%	31%	19%	11%	11%
0-6세	3.3㎡	3.3㎡					
0-6세와 7세이상 혼합	3.3㎡	4.95㎡					
7세 이상	3.3㎡	4.95㎡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18.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별도로 하나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치되었을 때는 제한이 없다. 아동 35인 이상을 입소시키는 아동양호시설에서는 의무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되며, 입소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적성 등에 따라 직업지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숙박형태와 정원규모별 시설수

2008년 3월 1일 현재 아동양호시설의 숙박 형태별로 보면 20명 이상의 대사시설(大舍)은 370개소 75.8%, 다음으로 12명 이하인 소사시설(小舍)은 114개소 23.4%, 중사시설(中舍)은 95개소 19.5%를 나타내고 있다. 대사시설의 평균 1숙사당 정원수는 45.65명, 입소하고 있는 아동수는 42.09명이며, 직원 1인당 아동수는 4.43명이다. 중사시설의 평균 1숙사당 정원수는 15.43명 입소하고 있는 아동수는 14.46명이며 직원 1인당 아동수는 3.91명이다. 소사시설의 평균 1숙사당 정원수는 8.82명, 입소하고 있는 아동수는 8.36명이며 직원 1인당 아동수는 3.39명이다.

표 IV-22 양호시설의 숙소 형태

		숙사의 형태		
		大舍(20명이상)	中舍(13-19명)	小舍(12명이하)
보유시설수	시설수	370	95	114
	%	75.8	19.5	23.4
숙사 수		476	220	444
1숙사당 정원(명)	평균	45.65	15.43	8.82
1숙사당 재적 아동(명)	평균	42.09	14.46	8.36
직원1인당 아동(명)	평균	4.43	3.91	3.39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8 재구성.

※ 사회적양호시설에 관한 실태조사(2008년3월 1일 현재), 조사회답시설수 489

※ '직원1인당 아동수'는 주 40시간 환산.

2011년 10월 1일 현재 아동양호시설 정원별 시설수의 분포를 보면 40-50명 이하의 시설이 124개소(2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60명 이하 97개소(16.6%), 30-40명 이하 92개소(15.7%), 60-70명 이하 71개소(1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 아동양호시설의 정원별 시설수

정원	20인 이하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50	151~	총수
시설수	4	61	92	124	97	71	47	35	24	13	5	7	5	585
비율	0.7	10.4	15.7	21.2	16.6	12.1	8.0	6.0	4.1	2.2	0.9	1.2	0.9	100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8.

가정복지과(2011년 10월 1일 현재)

③ 아동양호시설의 종사자

가. 직원

아동복지법 제42조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지도원, 촉탁의, 보육사, 개별대응직원, 가정지원 전문상담원, 영양사 및 조리원 및 유아가 입소하고 있는 시설에 있어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단, 아동 40인 이하를 입소시키는 시설에서 영양사에게 조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시설은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가정지원전문상담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아동양호시설에서 아동 지도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심리요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10인 이상에게 심리요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심리요법 상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심리요업상담직원은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학과 혹은 그에 상당하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로 개인 및 집단심리요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실습설비를 갖추고 직업지도를 행하는 경우는 직업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아동지도원 및 보육사의 총수는 만 3세 이하의 유아 약 2인에 1인 이상, 만 3세 이상 유아에서는 약 4인당 1인 이상, 소년은 약 6인당 1인으로 한다. 단, 아동 45인 이상을 입소시키는 시설은 1인 이상을 증원한다. 간호사의 수는 유아 약 1.7인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1인 이하는 할 수 없다.

특히 2011년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설 최저기준은 가정지원전문상담원, 개별대응직원, 심리요법(지도)담당직원의 배치를 의무화 하였는데 2012년 양호시설의 인력배치의 상향 조정된 내용은 다음의 <표 IV-24>와 같다.

아동양호시설의 조치비에 따른 인력배치는 시설장 1인, 의사(촉탁) 1인, 영양사 1인(정원 41인 이상), 조리원 등 4인(정원 90인 이상 30명당 1인을 가산), 사무원 1인, 관리숙식전문원(비상근) 1인이다.

아동지도원 보육사의 배치기준은 0·1세아는 1.6인당 1명이며, 초등학교 이상은 5.5인당 1인이다.

가산인원으로는 간호사 1인, 심리요법담당 1인, 가정지원전문상담원 1인, 피학대아개별대응직원 1인, 소규모시설 1인(정원45인 이하), 소규모그룹케어 1개소 1인이다.

표 IV-24 아동양호시설 조치비에 따른 인원배치

· 시설장 1인 · 의사 1인(촉탁) · 영양사 1인(정원 41인 이상) · 조리원 등 4인(정원 90인 이상 30명당 1인을 가산) · 사무원 1인 · 관리숙식전문원(비상근) 1인	+	· 아동지도원, 보육사 0세아 1.6:1 1세아 1.6:1 - 초등생이상 5.5:1	+	가산인원 · 간호사 1인 · 심리요법담당 1인 · 가정지원전문상담원 1인 · 피학대아개별대응직원 1인 · 소규모시설 1인(정원45인 이하) · 소규모그룹케어 1개소 1인
--	---	---	---	--

*출처 :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13.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하면 아동양호시설의 장은 아동지도원 및 보육사 중 적어도 1인을 아동과 함께 기거시켜야 한다.

나. 아동양호시설장의 자격

아동복지법 제42조에서 아동양호시설의 장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로 아동양호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연수를 받은 자로 인격은 높고 식견이 높아 아동양호시설을 적절히 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① 의사로 정신보건 또는 소아보건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아동양호시설의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④ 도도부현지사가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하는 자로 다음에 있는 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기간의 합계는 첫째 아동복지사인 자격을 가진 자로 아동복지사업(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내부조직에 있어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에 종사한 기간, 둘째 사회복지주사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기간,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첫째 또는 둘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을 포함한다.

또한 아동양호시설의 장은 2년에 1회 이상으로 그 자격 향상을 위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 아동지도원의 자격

아동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아동지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 ① 지방후생국장 등이 지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을 양성하는 학교와 그 외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
-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③ 정신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④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학부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과 및 이것에 상응하는 과정을 졸업한 자
- ⑤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학부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사회학에 관한 과목의 단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원에서 입학을 인정한 자
- ⑥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연구과 또는 이것에 상응하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
- ⑦ 외국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과 및 이것에 상응하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
- ⑧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동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 입학을 인정받은 자 또는 통상의 과정에 의한 12년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통상의 과정 이외의 과정에 의해 이것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를 포함) 또는 문부과학대신이 이것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아동복지사업에 종사한 자
- ⑨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교사가 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후생노동대신과 도도부현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⑩ 3년 이상 아동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도도부현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④ 아동양호시설의 재정 지원

아동양호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조치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용품비와 의료비, 식비와 직원의 급여까지 모두 조치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조치비는 입소 또는 위탁

후의 보호 또는 양육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매월 위탁비로 지불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치비 내에 아동 1인당 월액과 일액 등의 단가를 보호단가라고 부른다. 조치비는 주로 사무비와 사업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무비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을 말하고, 사업비는 직접 아동에게 사용되는 경비이다(長谷川真人 編著, 2007 : 203).

아동복지법 제56조의 2는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신설, 수리, 개조, 확장 또는 정비에 관한 비용의 3/4 이내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V-25 아동양호시설 재정 지원 기준(45인 정원 기준)

사무비	사업비	아동 1인	전체예산/년
· 일반보호단가 125,920 円 · 소규모시설 가산 9,050円 · 심리·간호·개별대응직원, 가정지원전문원, 기간제 직원 가산을 행하는 경우 35,550円 · 민간시설급여 등 개선비 3-18% 가산	· 일반생활비 47,430엔 · 기타(각종 교육비, 지원비, 의료비 등) 예산액 1인 평균 11,500円	· 아동 1인 월액 약 24만5천円	89,281백만円(2012) · 아동양호시설의 인원배치 상승(아동양호시설 6:1→ 5.5:1) · 아동양호시설 및 유아원의 가정위탁부지원전문상담원의 배치 · 소규모그룹케어의 관리숙식 가산을 전 그룹에 배치 ·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에의 임차비 산정(월액10만엔) · 취업지도비와 대학진학 등 자립생활지도비의 개선 (216,510円 → 268,510円)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13-14 재구성

아동양호시설의 재정지원 기준을 보면 45인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무비는 일반보호단가 125,920엔, 소규모시설 가산 9,050엔, 심리·간호·개별대응직원, 가정지원전문원, 기간제 직원 가산을 행하는 경우 35,550엔, 민간시설급여 등 개선비 3-18% 가산한다. 사업비는 일반생활비 47,430엔, 기타(각종 교육비, 지원비, 의료비 등) 예산액 1인 평균 11,500엔이 지급된다. 아동 1인에게는 월액으로 약 245,000엔이 지급된다.

2012년 양호시설에 대한 전체 예산은 89,281,000,000 엔으로 전년도 대비 주요하게 개선된 내용은 첫째, 아동양호시설의 인원배치가 상승(아동양호시설 6:1→ 5.5:1) 둘째, 아동양호시설

및 유아원의 가정위탁부모지원전문상담원의 배치 셋째, 소규모그룹케어의 관리숙식 가산을 전그룹 배치, 넷째,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에의 임차비 산정(월액10만엔) 다섯째, 취업지도비와 대학진학 등 자립생활지도비가 216,510엔에서 268,510엔으로 개선되었다.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역을 보면 지급내역은 유치원비, 입학·진학 지도비, 교육비(학용품비, 교재대, 통학비, 학원비, 부활동비), 특별육성비, 학교급식비, 견학여행비가 있다.

유치원비는 실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입·진학 지도비는 초등학교 1년생은 39,500(연액/1인)엔, 중학교 1년생은 46,100(연액/1인)엔이 지급된다. 학용품비는 초등학교 1년생에게 39,500(연액/1인)엔, 중학교 1년생에게 4,180(월액/1인)엔이 지급된다. 교재대, 통학비, 학원비(중학생 대상), 부활동비(중학생 대상)는 실비로 지급된다. 특별육성비는 공립고교: 22,270(월액/1인)엔, 사립고교 32,970(월액/1인)엔,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시 가산으로 58,960(연액/1인)엔이 지급된다.

표 IV-26 교육비 지원내역

지급내역		2012년 지급액
유치원비		실비
입·진학 지도비		초등학교 1년생 : 39,500円(연액/1인) 중학교 1년생 : 46,100円(연액/1인)
교육비	학용품비 등	초등학교 1년생 : 2,110円(월액/1인) 중학교 1년생 : 4,180円(월액/1인)
	교재대	실비
	통학비	실비
	학원비	실비(중학생 대상)
	부활동비	실비(중학생 대상)
특별육성비		공립고교 : 22,270円(월액/1인) 사립고교 : 32,970円(월액/1인)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시(가산) : 58,960円(연액/1인)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가산(고교3년생) : 55,000円(월액/1인)
학교급식비		실비
견학여행비		초등학교 6년생 : 20,600円(연액/1인) 중학교 3년생 : 55,900円(연액/1인) 고등학교 3년생 : 108,200円(연액/1인)
취직, 대학진학 등 지도비		취직지도비·대학진학 등 자립생활지도비 : 79,000円(1인 1회) 특별기준(부모의 경제적 원조가 없을 경우 가산) : 241,510円 합계 : 320,510円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p.11

⑤ 자립지원계획의 책정과 생활·학습·직업지도 및 가정환경의 정비

아동복지법 제45조 2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의 장은 제4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소중의 각각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과 그 가족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의 자립지원계획을 책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한 아동양호시설의 생활지도는 아동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근본적으로 생활습관 확립과 더불어 풍부한 인간성 및 사회성을 육성하고 장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양호시설의 학습지도는 아동의 적성, 능력 등에 따른 학습을 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 조언,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양호시설의 직업지도는 근로의 기초적인 능력 및 태도를 배우고 더불어 아동의 적성, 능력 등에 따라 직업선택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상담, 조언, 정보 제공 및 필요에 따라 실습, 강습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양호시설의 가정환경 조정은 아동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 친자관계의 재구축 등이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4) 아동양호시설의 발전방향

후생노동성의 「사회적 양호의 과제와 장래상(社會的養護の課題と將來象 2011.7.)」에 제시하고 있는 아동양호시설의 발전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의 소규모화와 시설기능의 지역분산화

2011년 7월에 사회보장심의회 아동부회 사회적 양호 전문위원회에 의해 정리된 ‘사회적양호의 과제와 장래상’에서는 모든 아동양호시설은 소규모그룹케어로 전환하고 동시에 아동양호시설의 정원을 줄여 지역의 그룹홈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양호를 우선하는 사회적 양호의 원칙하에 아동양호시설은 가정양호의 담당자인 가정위탁부모와 가정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화와 지역분산화의 구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원은 양호 방법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이 필요하며, 또한 직원을 고립화시키지 않는 조직운영력의 향상과 수퍼바이저 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 속에서 양육의 기능을 다하는 아동양호시설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설기능의 고도화와 지역지원

아동양호시설은 시설기능의 지역분산화를 도모해가면서 시설은 지역의 센터로서 그 기능을 고도화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동양호시설은 학대와 발달장애아동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로 아동양육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조기 가정복귀를 실현하기 위해 부모 자녀 관계의 재구축을 지원, 학대방지를 위한 부모의 지원, 지역의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지원, 단기보호 등에 의한 지역양육지원 등 지역의 자녀양육 기능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복지의 기능을 첨부한 사회복지 기능을 충실히 하고, 관계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가정환경의 조정

아동양호시설의 입소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있고,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되는 것이 아동에게는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의 양육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가능한 조기의 가정복귀를 통하여 가정에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도 되도록 가정의 상황에 따라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면회, 일시귀가 등의 축진을 통하여 가족과의 관계 유지, 가족관계의 재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의 양육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설입소 보다는 퇴소, 나아가 퇴소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가족조정을 담당하는 가정복지차원의 패밀리 쇼셜워커의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④ 심리 케어 증진

양육의 거부, 가정폭력에 의한 학대받는 아동, 방임아동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입소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케어의 충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의 취업의 불안정, 경제적 곤란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으면 중첩적으로 확대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입소아동들의 ‘마음의 케어’를 하기 위해 심리요법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일정 이상 입소하는 시설에 심리요법담당직원 및 심리지도담당직원의 배치의 의무화에서 나아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경향에 있다.

(5) 아동양호시설의 과제

최근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은 시설의 소규모와 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보장기능과 더불어 심리적 치료를 포함한 특화한 기능, 개개 가정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 기능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다. 즉 아동과 가족의 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아동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호시설 아동의 학력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아동양호시설 입소 이전의 아동들의 상황은 학력문제 보다는 학습환경 자체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학습의욕과 학습습관이 몸에 익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아동들이 부등교 상황에 있고 학교에 다녀도 학년에 상응한 학습이 불가능한 아동들이 많다. 학습하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환경의 개선과 시설내에서 학습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연장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양호시설에 있어서 최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등학교를 중도에 퇴학하는 아동들은 시설을 퇴원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취업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높는데 아동들이 18세를 넘어 아동복지법의 적용 연령을 넘어버리면 아동상담소도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러한 연장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양호시설에 기대되는 기능의 한 가지에 가족지원이 추가되어 있지만 가족, 부모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개선, 안정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으로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아동들에게는 조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조치된 아동의 케어가 불충분한 현실에서 또는 사회전체의 불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는 가족생활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시설에서 보호받게 하는 방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시설직원의 배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의 생활은 가정과는 다른 환경에서 아동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시설직원들에 의해 돌보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대를 받고 입소하는 아동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애착이라는 대인관계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애착관계의 재형성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원조가 필요하다. 시설에서도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일상생활 안에서 성인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이것을 매우기 위하여 초과업무를 한 직원이 피곤하여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설직원의 배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3)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방과후서비스정책을 위한 시사점

가족의 소규모화와 기능의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아동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모의 취업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늘날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아동양육거점사업과 방과후플랜 등 방과후아동에 대책이 지역아동의 건전육성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일본의 방과후아동대책을 주로 아동의 놀이와 생활의 보장의 관점으로부터 가정환경의 취약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쇼설위키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용대상아동은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커뮤니티위크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방과후아동대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와 ‘생활’의 종합적 보장이 필요하다.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성장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생활의 보장을 통하여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생활의 보장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용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밤늦게까지 혼자 보내야 하는 아동의 실태파악과 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최근 청소년 가출 증가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쉴 장소가 없는 중고생 등의 연장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과는 다른 제3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한 놀이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부모, 주민, 보건·복지·의료의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전체 아동의 건전육성의 장으로써 인식을 확대시켜야 한다. 일본에서는 아기부터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과 풍요로운 만남의 장으로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다(飯野貢, 2007: 74-77).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역조직활동의 활성화, 지역복지의 향상을 고려할 경우 보다 높은 커뮤니티워크의 스킬이 필요하며,

지역전체의 시점을 가지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

셋째, 아동문제와 가정문제가 복잡화하고 개개 환경에 따라 문제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적정배치와 전문성 강화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일본의 방과후아동대책의 이용아동의 확대에는 학대받는 아동과 왕따를 받는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포함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전육성의 장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이용을 가능하게하며, 시설의 설비와 배려를 통하여 모든 아동들이 함께 놀이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한다. 해당 아동의 상황 등을 학교 관계자와 사업관리자 간에 서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와 연계협력에 대하여 필요하다. 일본의 방과후아동플랜에서는 학교의 남는 교실의 활용과 서로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하여 학교와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활용하는 것도 지역아동센터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 밖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하교시간 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관계자와 사업관리자 등과의 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정보공유를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충분한 연계·협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일본의 방과후아동대책은 아동양육을 하는 부모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양육부모의 고립감과 스트레스완화를 통한 아동양육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양육거점센터와 방과후아동교실의 경우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아동클럽의 경우는 간식비로서 실비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용대상과 거리적 접근성, 비용의 접근성 면에서 그 접근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건전육성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2) 아동양육시설정책을 위한 시사점

최근 일본은 아동양호시설의 최저기준이 개정되고 사회적 양호에 바탕을 둔 이념과 원리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시설의 소규모화’, ‘시설 기능의 다양화’, ‘가정적 양호’ 등을 기본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의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양호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에 있어서도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와 케어단위의 소규모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족해체의 증가와 아동학대 현상이 증가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동들이 입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동들이 성인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친밀감있고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보장에서 나아가 치료적 생활의 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은 이용대상아동들이 다양화되면서 가정을 보완,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아동들이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에서 나아가 치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아동과 직원의 지속적·정서적 인간관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을 원조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심리치료사 등의 적극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에서 나아가 부모를 포함한 지원을 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정의 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한 가족복지적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아내도 학대가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그 아동만 가정에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원의 안전도 자세하게 살펴서 혹 모자가 함께 학대받는 경우에는 모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1990년부터 합계특수출산율 1.57층격을 계기로 소자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역사회가정의 아동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도 시설이 가진 아동양육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정에 대한 아동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활형입소시설은 “입소아동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소재지 주민의 아동양육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형입소시설이 지역사회가정의 자녀양육지원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의 보조사업인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ショートステイ사업), 야간보호사업(トワイライトステイ사업), 지역의 부등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외톨이·부등교아동복지대책 모델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양육시설이 가진 아동양육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허언, 도벽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상담, 은둔형 외톨이와 같이 비사교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주간보호,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과 같은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내 도서관, 컴퓨터실, 운동장 등을 지역사회 아동을 포함한 주민을 위한 학습과 놀이공간으로 제공하여 아동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아동양육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입소 아동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자립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복지·의료 등 다양한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 아동의 시설퇴소시와 퇴소후의 관계강화 속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제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 등 교육관계기관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정당한 권리하에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학교는 항상 연락을 주고받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교육(생활, 자립 등), 인권에 대한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협력관계가 보다 필요하다.

일곱째, 가정과 같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동의 생활장소로서 프라이버시의 보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실의 보장,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친구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환경, 사회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거지와 주거형태의 선택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 따라서 재가복지의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변화도 필요하며, 그룹홈과 같은 개인실을 갖춘 소수의 공동생활, 그에 맞는 직원배치가 필요하다.

제 5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

1. 종단조사 개요
2. 조사대상자의 특성
3. 일상생활 실태
4. 신체적 발달
5. 인지적 발달
6. 사회·정서적 발달
7.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 5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⁴⁵⁾

1. 종단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및 절차

(1) 조사대상 표본설계

① 조사 모집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조사 모집단(정보를 수집하는 기본단위의 모집단)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2011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생이다. 조사 모집단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초등학교 4학년의 분포(당시 초등3학년) 즉, 모집단 현황을 행정자료와 사전 전화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1차 조사 조사기준 시점(2011년 7월)의 모집단 분포는 아동의 시설이용 변화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다.

45) 이해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집필

표 V-1 시설별, 지역별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2010년 12월 기준)

지역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시설 수	초등4년생	시설 수	초등4년생	시설 수	초등4년생
합계	3,690	13,260	198	1,287	258	861
서울	367	1,141	18	94	38	203
부산	185	552	11	100	22	78
대구	147	483	9	96	20	39
인천	174	596	6	-	13	33
광주	218	942	5	48	10	28
대전	144	547	5	15	13	32
울산	52	169	4	-	1	7
경기	679	2,621	38	234	30	127
강원	159	545	11	71	10	18
충북	185	671	9	131	10	39
충남	200	692	12	105	14	50
전북	267	1,027	16	76	15	45
전남	368	1,463	17	109	22	56
경북	232	784	11	43	13	38
경남	244	717	18	97	23	54
제주	69	310	8	68	4	14

② 모집단의 층화

- 층화지표 : 시설유형별, 지역별 분류 사용
- 층화구조 : 48개 층으로 2단계 층화

(가) 시설유형별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3개 유형으로 분류

(나) 지역별 : 전국 16개 광역시도로 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 배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유형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의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학생 수와 시설 수 기준 모두 전체에서 80%이상의 구성비를 보였다.

표 V-2 조사 모집단 분포 특성

구 분		학 생 수		시 설 수	
업 종	규모	명수	구성비	개수	구성비
총 계		15,408	100	4,146	100
지역 아동센터	합계	13,260	86.1	3,690	89.0
	서울	1,141	7.4	367	8.9
	부산	552	3.6	185	4.5
	대구	483	3.1	147	3.5
	인천	596	3.9	174	4.2
	광주	942	6.1	218	5.3
	대전	547	3.6	144	3.5
	울산	169	1.1	52	1.3
	경기	2,621	17.0	679	16.4
	강원	545	3.5	159	3.8
	충북	671	4.4	185	4.5
	충남	692	4.5	200	4.8
	전북	1,027	6.7	267	6.4
	전남	1,463	9.5	368	8.9
	경북	784	5.1	232	5.6
	경남	717	4.7	244	5.9
	제주	310	2.0	69	1.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합계	1,287	8.4	198	4.8
	서울	94	0.6	18	0.4
	부산	100	0.6	11	0.3
	대구	96	0.6	9	0.2
	인천	0	0.0	6	0.1
	광주	48	0.3	5	0.1
	대전	15	0.1	5	0.1
	울산	0	0.0	4	0.1
	경기	234	1.5	38	0.9
	강원	71	0.5	11	0.3
	충북	131	0.9	9	0.2
	충남	105	0.7	12	0.3
	전북	76	0.5	16	0.4
	전남	109	0.7	17	0.4
	경북	43	0.3	11	0.3
	경남	97	0.6	18	0.4
	제주	68	0.4	8	0.2

구 분		학생 수		시설 수	
업 종	규모	명수	구성비	개수	구성비
아동양육시설	합계	861	5.6	258	6.2
	서울	203	1.3	38	0.9
	부산	78	0.5	22	0.5
	대구	39	0.3	20	0.5
	인천	33	0.2	13	0.3
	광주	28	0.2	10	0.2
	대전	32	0.2	13	0.3
	울산	7	0.0	1	0.0
	경기	127	0.8	30	0.7
	강원	18	0.1	10	0.2
	충북	39	0.3	10	0.2
	충남	50	0.3	14	0.3
	전북	45	0.3	15	0.4
	전남	56	0.4	22	0.5
	경북	38	0.2	13	0.3
	경남	54	0.4	23	0.6
	제주	14	0.1	4	0.1

③ 표본배분방법

- 표본배분 방식의 결정 : 층별 아동 수 규모에 따른 제곱근 비례 배분법

표본 배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 층별 모집단 분포의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모집단 분포의 편차로 인한 과대/과소 표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형별 초등학교 4학년 아동 규모(수)를 기초로 단순비례배분(Simple Proportionate Allocation) 방식대신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Square Root Proportionate Allocation)을 활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먼저, 시설유형별 4학년 아동 수에 따라 표본 수를 배분한 후, 배분된 각 시설유형별 표본 수를 기반으로 해당 시설유형 내 지역별 초등 4학년 아동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 배분하여 48개 층(시설유형별/지역별)의 최종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표 V-3

최종 표본배분 현황

유형/ 지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아동 수	아동 수	아동 수	아동 수
합계	638	199	163	1,000
서울	55	15	39	109
부산	27	15	15	57
대구	23	15	7	45
인천	29	0	6	35
광주	45	7	5	57
대전	26	2	6	34
울산	8	0	1	9
경기	126	36	24	186
강원	26	11	3	40
충북	32	20	7	59
충남	33	16	10	59
전북	50	12	9	71
전남	70	17	11	98
경북	38	7	7	52
경남	35	15	10	60
제주	15	11	3	29

④ 시설수 할당

시설유형과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할 집락 즉, 시설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우선 각 시설유형/지역별로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 수 n 을 해당 시설 수 N 으로 나누어 1시설 당 조사대상 평균 아동 수 M 을 계산하였다. 각 지역별/시설유형별 표본 수 H 를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 M 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추출 시설 수 K 를 산출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나눈 지역별 조사대상의 모집단 현황과 조사대상 시설 수와 표본 수는 아래와 같다.

※ 1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 지역/시설유형별 한 층에 대하여 해당 층내 모집단의 시설 수가 N 개이고 4학년 생 아동 수가 n 명이라면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 M 은 ($M = n/N$)을 계산한 값임.

※ 층별 추출 시설 수: 각 층별 할당 표본 수가 H 이고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 M 이라면

지역/시설유형별 층별 추출시설 수 K는 ($K=H/M$)임.

표 V-4 조사집락수(시설) 및 각 집락별 조사대상 표본수 : 지역아동센터

지역구분	지역아동센터				
	모집단 현황		표본배분 결과		
	시설 수	초등4년생 모집단	조사 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락)
합계	3,690	13,260	638		179
서울	367	1,141	55	3	18
부산	185	552	27	3	9
대구	147	483	23	3	7
인천	174	596	29	3	8
광주	218	942	45	4	10
대전	144	547	26	4	7
울산	52	169	8	3	3
경기	679	2,621	126	4	33
강원	159	545	26	3	8
충북	185	671	32	4	9
충남	200	692	33	3	10
전북	267	1,027	49	4	13
전남	368	1,463	70	4	18
경북	232	784	38	3	11
경남	244	717	34	3	12
제주	69	310	15	4	3

표 V-5

조사집락수(시설) 및 각 집락별 조사대상 표본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구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모집단 현황		표본배분 결과		
	시설 수	초등4년생 모집단	조사 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락)
합계	198	1,287	199		30
서울	18	94	15	5	3
부산	11	100	15	9	2
대구	9	96	15	11	1
인천	6	0	0	0	0
광주	5	48	7	10	1
대전	5	15	2	3	1
울산	4	0	0	0	0
경기	38	234	36	6	6
강원	11	71	11	6	2
충북	9	131	20	15	1
충남	12	105	16	9	2
전북	16	76	12	5	2
전남	17	109	17	6	3
경북	11	43	7	4	2
경남	18	97	15	5	3
제주	8	68	11	9	1

표 V-6

조사집락수(시설) 및 각 집락별 조사대상 표본수 : 양육시설

지역구분	아동양육시설				
	모집단 현황		표본배분 결과		
	시설 수	초등4년생 모집단	조사 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락)
합계	258	861	163		48
서울	38	203	39	5	7
부산	22	78	15	4	4
대구	20	39	7	2	4
인천	13	33	6	3	2
광주	10	28	5	3	2
대전	13	32	6	2	2
울산	1	7	1	7	0
경기	30	127	24	4	6
강원	10	18	3	2	2
충북	10	39	7	4	2
충남	14	50	10	4	3
전북	15	45	9	3	3
전남	22	56	11	3	4
경북	13	38	7	3	2
경남	23	54	10	2	4
제주	4	14	3	4	1

⑤ 표본추출

- 표본추출방법 : 계통추출
- 시설유형별-지역별로 2단 층화한 후, 각 층별로 난수를 생성하여 하여 리스트를 재정렬한 후, 등간적으로 계통추출. 거절 시설을 고려하여 본 표본과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 층별 표본추출은 h 번째 유형시설에서 k 번째 지역의 층에 대하여 층의 크기가 N_{hk} 개이고 표본수가 n_{hk} 개이라면 추출간격의 크기($I_{hk} = N_{hk} / n_{hk}$)를 계산한 다음, 범위 $(0, I_{hk})$ 내에서 한 개의 일양 난수를 발생하여 첫 번째 표본을 추출하고 이 값에 추출간격 I_{hk} 를 더해가며 n_{hk} 개의 표본을 계통추출하는 방식이다.

⑥ 최종 구축 패널

표본설계 원칙에 따라 구축된 1차년도 패널구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설계 시점과 조사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패널 구축 시 1) 추출된 시설 내 조사 가능 응답자 수 오차 발생(이용아동 이탈, 잘못된 행정자료 등), 2) 시설폐쇄, 응답거절 등 추출된 시설에서 조사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종 추출된 시설 수는 설계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표 V-7 시설유형별 지역별 최종 구축 패널 현황표

유형/ 지역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합계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합계	178	638	30	199	48	163	256	1,000
서울	18	55	3	15	8	39	29	109
부산	9	27	2	15	4	15	15	57
대구	7	23	1	15	4	7	12	45
인천	9	29	—*	2	6	11	35	57
광주	11	45	1	7	2	5	14	57
대전	7	26	1	2	2	6	10	34
울산	3	8	—*	1	1	4	9	186
경기	31	126	6	36	6	24	43	186
강원	8	26	2	11	2	3	12	40
충북	8	32	1	20	2	7	11	59
충남	11	33	2	16	3	10	16	59
전북	12	50	2	12	3	9	17	71
전남	17	70	3	17	4	11	24	98
경북	12	38	2	7	2	7	16	52
경남	11	35	3	15	4	10	18	60
제주	4	15	1	11	1	3	6	29

* 인천과 울산의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시설은 있으나 조사대상 아동이 없어 할당되지 않음

(2) 2012년 2차 본조사 조사대상

2차 본조사 대상은 801명이다. 2차년도 조사의 최종 패널 유지율은 80.1%이며 이탈자는 199명으로 나타났다. 이탈사유는 본인의사 또는 부모의사 이탈이 42.2%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 이전이 35.2%, 이어서 시설내부문제로 이탈, 타 시설(교내시설, 교회시설 등) 또는 사교육 기관(학원, 영재교육기관 등)으로 이동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부문제 이탈의 세부사유로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설폐쇄 또는 서비스 대상 축소로 나타났다.

표 V-8 지역별 최종패널 현황

유형 지역	합계			
	원패널	유지	이탈	유지율
합계	1,000	801	199	80.1
서울	109	93	16	85.3
부산	57	43	14	75.4
대구	45	33	12	73.3
인천	35	31	4	88.6
광주	57	40	17	70.2
대전	34	28	6	82.4
울산	9	6	3	66.7
경기	186	158	28	84.9
강원	40	30	10	75.0
충북	59	48	11	81.4
충남	59	51	8	86.4
전북	71	54	17	76.1
전남	98	80	18	81.6
경북	52	39	13	75.0
경남	60	45	15	75.0
제주	29	22	7	75.9

표 V-9 시설별 최종패널 현황

유형 지역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원패널	유지	이탈	유지율	원패널	유지	이탈	유지율	원패널	유지	이탈	유지율
합계	638	499	139	78.2	199	142	57	71.4	163	160	3	98.2
서울	55	41	14	74.5	15	13	2	86.7	39	39	0	100.0
부산	27	17	10	63.0	15	11	4	73.3	15	15	0	100.0
대구	23	16	7	69.6	15	10	5	66.7	7	7	0	100.0
인천	29	25	4	86.2	-				6	6	0	100.0
광주	45	31	14	68.9	7	4	3	57.1	5	5	0	100.0
대전	26	21	5	80.8	2	2	0	100.0	6	5	1	83.3
울산	8	5	3	62.5	-				1	1	0	100.0
경기	126	108	18	85.7	36	26	10	72.2	24	24	0	100.0
강원	26	19	7	73.1	11	8	3	72.7	3	3	0	100.0
충북	32	26	6	81.3	20	15	5	75.0	7	7	0	100.0
충남	33	27	6	81.8	16	14	2	87.5	10	10	0	100.0
전북	50	35	15	70.0	12	10	2	83.3	9	9	0	100.0
전남	70	63	7	90.0	17	6	11	35.3	11	11	0	100.0
경북	38	30	8	78.9	7	4	3	57.1	7	5	2	71.4
경남	35	23	12	65.7	15	12	3	80.0	10	10	0	100.0
제주	15	12	3	80.0	11	7	4	63.6	3	3	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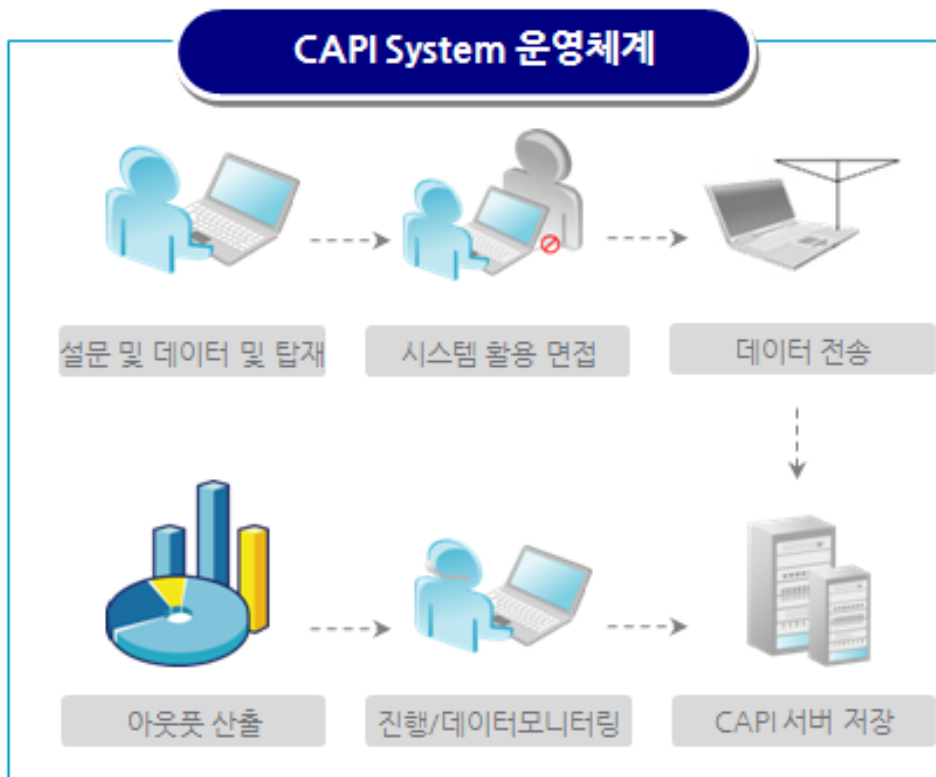
표 V-10 이탈사유별 이탈아동 현황

구분	사례수	%
이탈패널 전체	199	100.0
이사 (단순 거주지 이전)	51	25.7
이사 (보호자가 바뀜)	7	3.5
이사 (형편이 나빠짐)	6	3.0
이사 (형편이 좋아짐)	6	3.0
이탈 (본인 의사)	30	15.1
이탈 (부모의사)	54	27.1
이탈 (시설 내부 문제)	21	10.6
타시설로 이동	5	2.5
학원 등 사교육으로 이동	12	6.0
형편이 좋아져 대상아님	4	2.0
기타	7	3.5

(3) 조사방법

①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는 기존 종이설문지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휴대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조사로 노트북 컴퓨터에 내장된 CAP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조사이다.



【그림 V-1】 CAPI System의 운영체제

② CAPI 시스템의 운영체제

- 1단계: 설문 및 데이터를 맞춤 프로그램화한 CAPI 시스템을 노트북에 탑재
- 2단계: C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면접 수행
- 3단계: 네트워크환경(3G 단말기 제공)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 4단계: 전송된 데이터는 서버에 실시간 저장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가능
- 5단계: 데이터 산출

(4) 조사기간 및 일정

표 V-11 조사기간 및 일정

단 계		내 용	기 간
패널관리	패널현황파악	시설 대상 전화조사 사전 전화조사	12/15 - 12/30(2011) 04/01 - 04/15
	데이터 보완	부모님 동의서/무응답 데이터 현황 파악 부모님 동의서 추가 수령	01/30 - 02/15 본조사 중
	기타 패널관리	신학기 선물, 연하장, 뉴스레터 등 발송	상시
조사기획	설문 확정	자문진 및 연구원 최종 검토를 거쳐 설문확정	-05/05
정량조사 실사	조사원모집/교육	수도권 조사원 및 지방실사 조사원 모집 - 1순위 : 패널조사 경험자 - 2순위 : CAPI 경험자 - 3순위 : 아동·청소년 관련조사 경험자	-06/28 (수도권 OT)
	조사도구 준비	설문 등재/ CAPI시스템 개발완료 조사원지침서/조사안내자료/공문 응답자 기념품 준비 등	-06/28
	현장 실사	반드시 조사 직후 실사보고서용 양식 작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보고	07/02-08/31 (약 2개월)
	현장 감독	조사 30% 진행 시점에 연구원 및 입소스코리아 담당자의 합동 현장감독 진행	-07/15
정성조사	응답자 모집	해당 응답자 모집 실시	-07/20
	가이드라인 설계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설계, 예비조사 후 확정	-07/27/
	면접원 교육	심층면접 면접원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실시	-07/31
	심층면접 실시	면접원 별 1건 시험조사(Pre-test) 진행 후 ID실시	-09/07
	녹취록 작성	전체 녹취록(Full-Script)작성	-09/22
자료처리/ 보고	실사보고서 작성	조사원의 양식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09/20
	검증/에디팅	취합 설문지의 30% 전화검증, 100% 에디팅	-08/24
	코딩	연구원의 지침에 따른 코딩	-09/03
	기초테이블	기초테이블 산출 후 오류점검 및 추가분석	-09/17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원 검수	-09/28
사후 관리	패널관리작업	패널 관리작업 진행 (사후 전화조사, 연하장 발송)	-12/31

(5) 조사내용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과 관련하여 건강 및 체격을 파악하기 위해 키와 몸무게, 아침을 거르는 일자와 이유, 질병경험, 치료여부와 치료받지 못한 이유,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건강에 대한 상대적인 자기평가 항목의 경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에서 수정하여 인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상위인지는 김영채(1990)가 사용한 것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영역의 경우 향후 패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상위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2년 2차 본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1) 일상생활실태 영역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달성 정도를 알아보는 2) 신체적 발달, 3) 인지적 발달, 4) 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영역, 그리고 시설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를 알아보는 5) 기관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영역 등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조사영역은 <표 V-12>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도 1차 본조사 결과와 종단비교가 가능한 항목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 II와 횡단비교가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2 2012년 2차 본조사 영역 및 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종단 비교	횡단 비교	출처
1. 일상생활 실태	1) 결석일수와 이유	6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2)-1 시설 거주 시간 *46)	2	○		연구진이 작성
	2)-2 학원 수강 시간	2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2)-3 독서 시간	1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2)-4 노는 시간	1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3) 컴퓨터 이용여부, 시간, 장소, 목적	14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4) 휴대전화 이용여부	1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중단 비교	횡단 비교	출처
	5) 종교활동 여부 **47)	2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6)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	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7)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 시간/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8) 비행경험	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9) 폭력피해 경험과 빈도	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소계		47			
2. 신체적 발달	1) 취침시간/기상시간	2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2) 아침 결식 일자와 이유	2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3) 질병 경험, 치료여부, 이유	3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4)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1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소계		8			
3. 인지적 발달	1) 과목별 성취정도 (10개 과목)	10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2) 성적에 대한 만족도	1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3) 방과후 교육	15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3) 상위인지도	8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4) 문제해결 능력	10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소계		39			
4. 사회·정서 적 발달	1) 학교생활적응(학습생활,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8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2) 자아탄력성	10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3) 스트레스	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종단 비교	횡단 비교	출처
	4) 또래 애착 (의사소통, 신뢰, 소외)**	6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5) 자아존중감 **	6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6) 부모양육방식(방임, 학대) *	8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7)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5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9) 일상생활 만족도	1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소계		49			
5. 기관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1) 각종 활동 경험에 대한 만족도	7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2)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3) 시설환경 만족도	4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4)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12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소계		28			
총문항수		171			

46) * 표시된 문항들은 아동양육시설 설문지에서 제외됨.

47) ** 표시된 문항들은 2012년에 추가(일반청소년과의 횡단비교를 위해). ** 표시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2011년 본 조사에서 조사된 문항임.

표 V-13 2차 본조사 개인 배경변인 조사영역 및 항목내용 (종사자를 통해 별도 조사)

조사 영역	조사항목	문항 수	종단 비교	횡단 비교	출처
1. 기본	1) 생년월일	1			연구진 작성
	2) 성별	1			연구진 작성
	3) 키와 몸무게	2	○		연구진 작성
	4)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1			연구진 작성
2. 가족 관련 공동 배경	5) 가정의 경제수준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6) 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7) 부모의 학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8) 부모의 직업 유무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9) 부모와의 만남 횟수 ***48)	1			연구진 작성
소계		11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CAPI 시스템구축

- ① 본 조사에 적합하도록 CAPI 조사용 프로그램과 실사 및 패널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 ② CAPI 조사의 진행 및 관리절차는 설문등재 → 설문프로그램 구동 → 조사진행 → 조사자료 서버 전송 → 데이터 확보, 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③ CAPI프로그램은 확정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1차 프로그래밍을 완료한 후,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팀, 조사업체 연구팀 및 실사팀에서 3차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④ 면접원별로 ID와 PASSWORD를 부여하여 본인의 ID로 접속하면 담당할 시설/패널의 리스트

48) *** 표시된 문항은 아동양육시설 설문지만 해당됨.

확인과 조사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⑤ CAPI프로그램은 응답경로, 문항 간 로직, 응답범위 등 기본 에디팅 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응답자 및 면접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LOGIN



인터뷰어 ID

PASSWORD

LOGIN

【그림 V-2】 CAPI 프로그래밍 예시: 면접원별 로그인 화면



아동 재발 조사

15%

Q6.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 에 1-2회	일주일 에 3-4회	일주일 에 5-6회	매일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	☐	☐	☐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	☐	☐	☐	☐
응답이 누락되었습니다.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	☒	☐	☐	☐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	☒	☐	☐	☐	☐
함께 하는 여가활동(운동, 취미활동 등)	☒	☐	☐	☐	☐
함께 저녁식사	☒	☐	☐	☐	☐

이전 다음

【그림 V-3】 CAPI 프로그래밍 예시: 응답누락 차단

아동 과잉 조사

18%

Q8.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에 경험 여부를 응답해주시고 경험이 있다면,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다른 사람들(부모형제자 아님) 심하게 때리기	☐	☒	182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	☒	4
학교의 학용품비, 준비물비를 다른 데 사용하기	☒	☐	0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	☒	5
여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	☒	5

응답 "182"이(가) "0 ~ 100"의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전 다음

【그림 V-4】 CAPI 프로그래밍 예시: 응답범위 제한

- ⑥ CAPI프로그램과 연동된 실사관리 프로그램은 지역별/시설유형별/면접원별 실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문 TEST, 게시판 기능 등을 통해 면접원 및 지방 실사실과 원활한 실사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었다.

진행현황

실문모의

실문 테스트

진행 현황

지역 지역-전체 시설 유형 지역아동센터 인터뷰어 전체

지역	시설수	패널수	완료 패널수	지역	시설유형	시설수	패널수	완료 패널수
서울	18	45	41	서울	지역아동센터	18	45	41
인천	9	27	27	부산	지역아동센터	9	19	17
경기	33	109	109	대구	지역아동센터	7	16	16
강원	10	24	20	인천	지역아동센터	9	27	27
제주	4	12	12	광주	지역아동센터	10	31	31
부산	9	19	17	대전	지역아동센터	6	21	21
울산	4	5	5	울산	지역아동센터	4	5	5
경남	9	23	23	경기	지역아동센터	33	109	109
대구	7	16	16	강원	지역아동센터	10	24	20
경북	12	31	30	충북	지역아동센터	8	26	26
대전	6	21	21	충남	지역아동센터	9	27	27
충북	8	26	26	전북	지역아동센터	13	35	34
충남	9	27	27	전남	지역아동센터	18	63	63
광주	10	31	31	경북	지역아동센터	12	31	30
전북	13	35	34	경남	지역아동센터	9	23	23
전남	18	63	63	제주	지역아동센터	4	12	12
합계	179	514	502	합계		179	514	502

Copyright ©2012 Ipsos Korea Corp. All rights reserved.

【그림 V-5】 CAPI 프로그래밍 예시: 실시간진행관리화면

(2) 자료 처리

본 조사는 CAPI로 실시되어 별도의 편청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CAPI프로그램 내 설문로직을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1차적인 에디팅이 조사와 동시에 완료된다. CAPI를 통해 조사된 데이터 자료는 전문검증원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프로그램 설계 시 누락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2차 에디팅을 실시한 후, 정해진 코딩지침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여 최종데이터로 확정되었다. 또한 1차년도 조사 데이터와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을 분리하여 데이터 통합작업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차 본조사 결과를 세 시설 유형별로,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2차 본조사에서 나타나는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와 발달특성을 1차 본조사 결과와 종단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차 본조사 결과와 일반아동·청소년 2011년 결과(아동·청소년패널 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차 본조사 결과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아동·청소년 2011년 결과(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발달과정 상에서의 두 집단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그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지원기관의 기능과 서비스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들의 성장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되었으며, 기초통계분석, 교차분석 외에 평균비교를 위해 독립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3) 실사 수행과정

(1) 패넬관리

2011년 조사(1st wave)에서 구축된 모든 패넬을 대상으로 패넬관리를 실시하였다.

패넬관리의 목적은 패넬정보의 변동사항 파악, 조사관심도 유지, 적정한 보상을 통한 지속적 관계유지 등이다.

① 1차: 뉴스레터 및 시설별 패넬현황 발송

- 우편발송: 2011년 12월 28일 전체 시설 대상 일괄 발송
- 시설별 Call Back: 1월 3일 - 1월 5일 전체 시설 대상 일괄 실시
- 이메일 재발송: 1월 5일 미수령 시설 대상 실시

② 2차: 패넬 신학기 선물 발송 및 본조사 전 패넬 최종 컨택

- 시설별 패넬 신학기 선물 발송: 3월 중순 발송 완료
- 패넬 신학기 선물 수령확인: 3월 말 확인완료
- 본조사 전 최종 패넬 상황 컨택: 6월 4일 - 6월 8일 전체 시설 대상 일괄 실시
- 이탈패넬 대상 컨택: 6월 13일 - 현재

(2) 면접원 교육

① 교육 내용

면접원의 조사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면접원 지침서를 바탕으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1) 조사개요 및 목적, 2) 조사수행 절차, 3) CAPI시스템 운용방법, 4)조사 시 주의사항 및 대응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투입 면접원

총 32명이 투입되었으며 1인당 몇 기관 방문 몇 개씩 방문하였다. 지역별 투입 면접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서울/경기/인천: 7명
- 대전/충청: 7명
- 부산/경남: 6명
- 대구/경북: 4명
- 광주/전남/전북: 5명
- 강원: 2명
- 제주: 1명

③ 교육 일시

모든 투입 면접원은 본 조사 책임연구원과 입소스코리아 담당 연구원이 진행한 집체 교육(3시간)을 이수했으며 담당 슈퍼바이저(실사 담당자)의 조사관련 수시교육을 통해 <표준 면접원 가이드>의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였다.

- 집체교육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7월 3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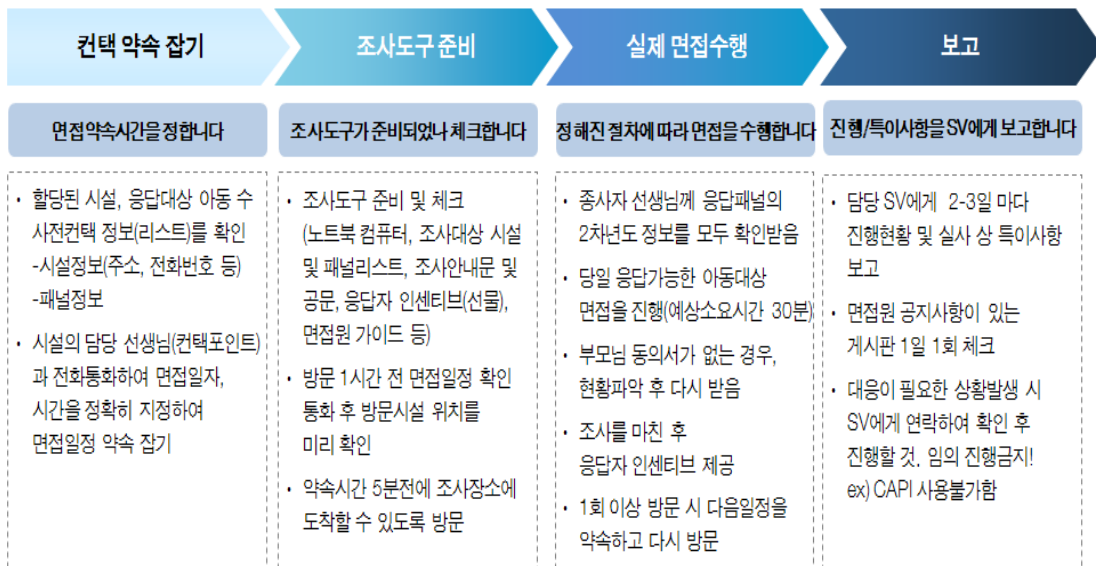
- 집체교육 참여자 : 강원 제주를 포함한 16개시도 전체 투입 면접원,

각 지역 슈퍼바이저(실사담당자), 입소스코리아 책임연구원, 담당연구원

- 집체교육 내용: 조사 목적 및 배경, 조사방법, CAPI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면접원의 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면접과정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실사수행 절차

전문면접원이 응답자 접촉부터 보고까지 표준화된 실사수행 절차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림 V-6】 실사 수행 절차

① 사전 컨택

실사 진행방법은 사전 컨택원과 방문조사원을 이원화 진행하였고, 사전 컨택원은 방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기 전 264개의 패널리용시설에 표준 컨택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조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부모님(보호자)동의서 확보 사안을 포함한 조사 참여의사와 방문 선호기간을 확인하였다.

② 조사홍보

각 지역 실사담당자(SV)는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협조대상 시설에 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공문, 안내문, 설문지를 제공하여 사전 협조도를 높였다. 조사실시 전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본조사 실시를 홍보하여 협조를 구했으며, 이 외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본 조사 자문위원 등을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본 조사에 대한 홍보 및 협조요청을 실시하였다.

③ 방문면접 진행

방문조사원은 각 시설별 선호 기간을 참고하여 사전에 컨택된 시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약속한 후,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시설 담당선생님의 통솔 및 협조 하에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향후 동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패널조사로 면접원과 패널 및 시설종사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1시설 당 1명의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패널인 초등학교 5학년의 조사집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종사자의 통제 아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응답대상 아동패널은 면접 전에 부모님(보호자)을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 수령한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응답대상 아동과 응답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응답아동: 1인당 휴대용 텀블러, 캐릭터 양말, 과일부채, 담당 선생님과 시설장님: 문화 상품권 각 1만원권과 2만원권).

2.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V-14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이용시설(%)		
		N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TOTAL		801	100.0	17.7	20.0	62.3
성별	남자	373	46.6	46.9	36.6	54.4
	여자	428	53.4	53.1	63.4	45.6
지역	서울	93	11.6	14.0	41.9	44.1
	부산	43	5.4	25.6	34.9	39.5
	대구	33	4.1	30.3	21.2	48.5
	인천	31	3.9	0.0	19.4	80.6
	광주	40	5.0	10.0	12.5	77.5
	대전	28	3.5	7.1	17.9	75.0
	울산	6	0.7	0.0	16.7	83.3
	경기	158	19.7	16.5	15.2	68.4
	강원	31	3.9	25.8	9.7	64.5
	충북	48	6.0	31.3	14.6	54.2
	충남	51	6.4	27.5	19.6	52.9
	전북	53	6.6	18.9	17.0	64.2
	전남	80	10.0	7.5	13.8	78.8
	경북	39	4.9	10.3	12.8	76.9
	경남	45	5.6	26.7	22.2	51.1
	제주	22	2.7	31.8	13.6	54.5

		사례수		이용시설(%)		
		N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시설 이용기간	2년 미만	289	36.1	26.9	97.2	10.6
	2~3년	236	29.5	44.5	1.4	7.5
	4~5년	125	15.6	20.8	0.0	13.1
	5~8년	85	10.6	7.0	0.0	31.3
	8년 이상	66	8.2	0.8	1.4	37.5
가정 경제수준	기초생활수급	192	30.0	30.1	29.6	—
	차상위	224	34.9	37.1	27.5	—
	사각지대	70	10.9	9.4	16.2	—
	사각지대 이상	155	24.2	23.4	26.8	—
부모와의 동거여부	양친있음	385	60.1	60.3	59.2	—
	한부모	224	34.9	34.7	35.9	—
	조손가정	26	4.1	4.4	2.8	—
	기타	6	0.9	0.6	2.1	—
부모님 직업(아버지)	있음	483	60.3	69.3	68.3	25.0
	없음	115	14.4	9.8	5.6	36.3
	사망 또는 이혼	203	25.3	20.8	26.1	38.8
부모님 직업(어머니)	있음	394	49.2	57.1	60.6	14.4
	없음	236	29.5	27.1	25.4	40.6
	사망 또는 이혼	171	21.3	15.8	14.1	45.0

본 조사에서 패널로 구축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성은 다음 표 <Ⅴ-14>와 같이 나타났으며, 성별구성은 남자 373명(46.6%), 여자 428명(53.4%)이었다. 시설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 이용한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5년 이하로 이용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년 미만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이용한 경우가 과반 수 이상으로 장기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 경제수준 현황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 전체의 34.9%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 계층이 30.0%, 수급권과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0.9%였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태의 경우, 전체의 60.1%는 양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고,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는 34.9%,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는 4.1%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60.3%는 아버지가 직업이 있으며, 49.2%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상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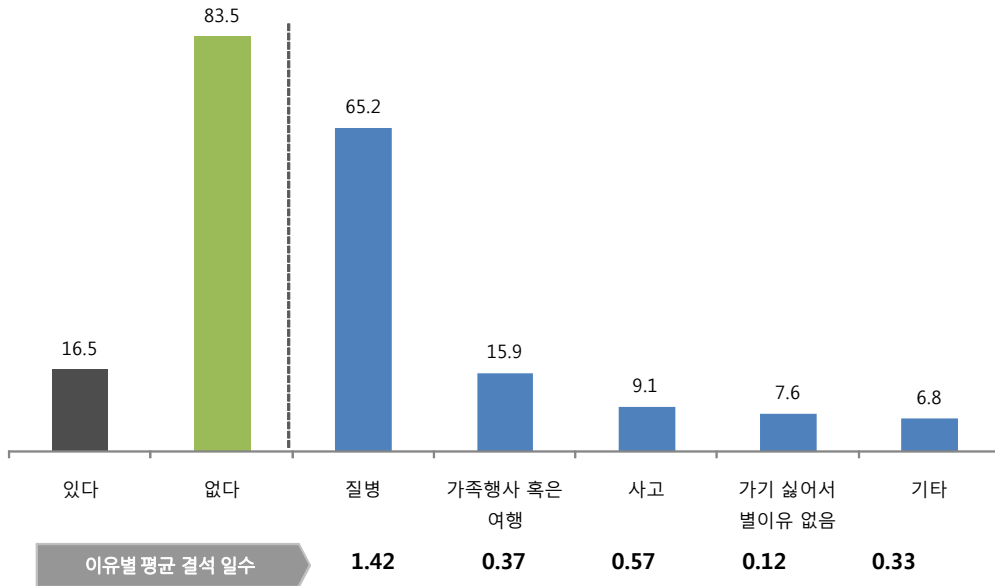
1) 학교생활: 출석과 결석

지난 6개월간 결석 여부

(Base : 전체, N=801, 단위 : %)

결석 이유

(Base : 결석한 학생 한정, N=132, 단위 : %)



【그림 V-7】 지난 6개월간 결석 여부와 이유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아동 중 1학기 동안 결석경험이 있는 학생은 16.5%로 나타났다. 결석이유는 ‘질병’이 전체 응답자의 65.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족행사 혹은 여행’(15.9%), ‘사고’(9.1%) 순으로 많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가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결석경험이 있는 학생의 1학기 동안 평균 결석일수는 2.81일이었으며, 이 중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평균결석일수는 1.42일이었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정 경제수준 사각지대 아동에서 결석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결석일수의 경우 평균결석일수 2.8일 대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남자, 한부모가정 패널의 결석일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5

지난 6개월 간 결석여부/지난 6개월 간 결석이유/ 평균결석일수

(%)

구분		지난 6개월 간 결석여부		지난 6개월 전체 평균 결석일수 (일)	T/F값	지난 6개월 간 결석이유				
		있다	없다			사고로 몸을 다쳐서	질병 으로 몸이 아파서	가족 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가 기 싫 어 서 또 는 별 이 유 없 이	기타
전체		16.5	83.5	2.8	—	9.1	65.2	15.9	7.6	6.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7.4	82.6	2.4	1.372	9.2	65.5	16.1	6.9	5.7
	방과 후아카데미	16.9	83.1	3.9		8.3	66.7	16.7	8.3	8.3
	아동양육시설	13.1	86.9	3.0		9.5	61.9	14.3	9.5	9.5
성별	남자	16.1	83.9	2.9	0.322	13.3	55.0	18.3	6.7	10.0
	여자	16.8	83.2	2.7		5.6	73.6	13.9	8.3	4.2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18.8	81.3	2.9	0.888	8.3	77.8	11.1	8.3	—
	차상위	16.5	83.5	2.9		10.8	51.4	24.3	8.1	8.1
	사각지대	20.0	80.0	1.2		7.1	64.3	14.3	—	14.3
	사각지대 이상	15.5	84.5	3.2		8.3	70.8	12.5	8.3	8.3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17.4	82.6	2.1	2.210 [†]	7.5	68.7	13.4	7.5	9.0
	한부모	17.9	82.1	3.9		12.5	60.0	22.5	5.0	2.5
	조손가정	11.5	88.5	1.7		—	66.7	—	33.3	—
	기타	16.7	83.3	7.0		—	100.0	—	—	—

· † p<0.1 *p<0.05 **p<0.01 ***p<0.001

표 V-16

전년도비교: 지난 6개월간 결석 여부/이유/일수

(%)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F 값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6.5	83.5	22.3	77.7	35.870*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7.4	82.6	23.0	77.0	2.743*
	방과후아카데미	16.9	83.1	25.4	74.6	
	아동양육시설	13.1	86.9	17.5	82.5	

· † p<0.1 *p<0.05 **p<0.01 ***p<0.001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사고로 몸을 다쳐서	질병으 로 몸이 아파서	가족 행사 여행	가기 싫어서	기타	사고로 몸을 다쳐서	질병으 로 몸이 아파서	가족 행사 여행	가기 싫어서	기타
전체		9.1	65.2	15.9	7.6	6.8	12.8	54.2	35.8	5.6	6.1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9.2	65.5	16.1	6.9	5.7	10.4	56.5	33.9	7.0	4.3
	방과후아카데미	8.3	66.7	16.7	8.3	8.3	25.0	52.8	36.1	5.6	11.1
	아동양육시설	9.5	61.9	14.3	9.5	9.5	7.1	46.4	42.9	.0	7.1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F값
		1일	2-5일	6-10 일	10일 이상	[평균 (일)]	1일	2-5일	6-10 일	10일 이상	[평균 (일)]	
전체		50.0	37.9	8.3	3.8	2.81	44.7	35.2	12.3	7.8	4.06	8.027**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9.4	46.0	1.1	3.4	2.45	44.3	38.3	9.6	7.8	3.67	2.385*
	방과후아카데미	45.8	25.0	20.8	8.3	3.92	38.9	22.2	27.8	11.1	5.92	
	아동양육시설	57.1	19.0	23.8	.0	3.05	53.6	39.3	3.6	3.6	3.29	

(2) 1-2차년도 비교결과

전년과 비교해 보면 1차년도에 비해 결석경험과 결석경험자의 평균결석일수가 줄어들었다. 1차년도 평균결석일수가 4.06일로 나타난 반면, 2차년도 평균 결석일수는 2.81일로 평균 1.25일 감소하였다. 결석사유를 살펴보면, 패널이 고학년이 되면서 전년대비 ‘가족행사와 여행’으로 인한 결석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소폭 증가하였다. 여기서 가족행사와 여행으로

인한 결석비율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조사에서 가족행사와 여행이 결석처리 되지 않은 경우까지 결석으로 응답하여 생긴 수치이므로 조사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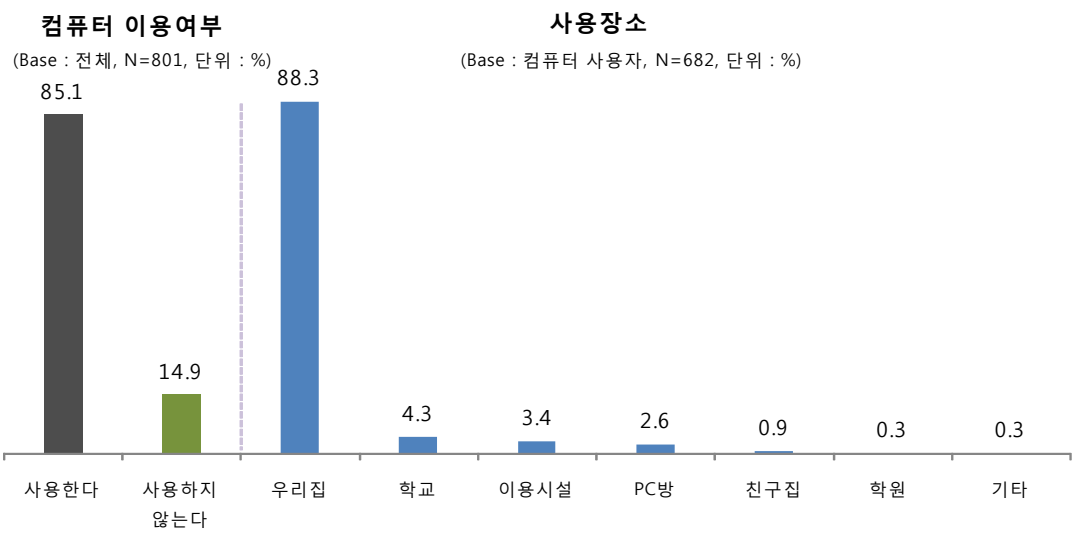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유의해야 할 결과로, 결석이유 중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였고,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설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은 24시간 아동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어서 타 시설에 비해 낮은 결석률을 보이고 있다.

2) 컴퓨터 이용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아동 패널의 컴퓨터 이용여부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85.1%로 나타나, 패널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컴퓨터 사용 장소는 ‘우리집’(양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해당시설을 포함)이 88.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학교(4.3%), 이용시설(3.4%)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은 68.75분, 주말은 93.97분으로 나타나 주말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1-2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림 V-8】 컴퓨터 이용여부와 사용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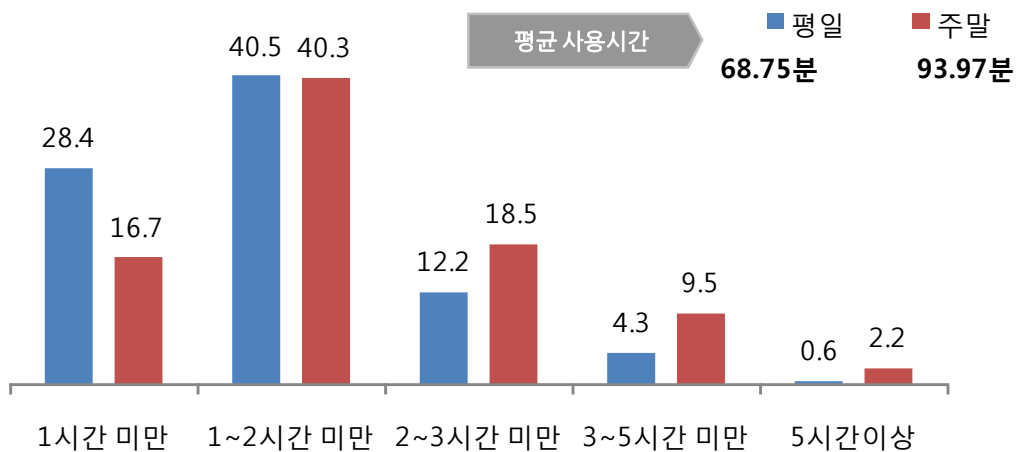
표 V-17

컴퓨터 이용여부/컴퓨터 사용장소

(%)

구분		컴퓨터 이용여부		F 값	컴퓨터 사용장소							주당 평균 사용 시간 (분)	F 값
		사용 한다	사용 하지 않는다		우리 집	친구 집	학교	학원	PC 방	이용 시설	기타		
전체		85.1	14.9	—	88.3	0.9	4.3	0.3	2.6	3.4	0.3	68.75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85.4	14.6	2.979 [†]	88.7	0.7	2.8	0.2	3.1	4.2	0.2	75.52	12.989 ^{***}
	방과후아카데미	89.4	10.6		90.6	0.8	3.9	—	1.6	3.1	—	64.72	
	아동양육시설	80.6	19.4		84.5	1.6	9.3	0.8	2.3	0.8	0.8	48.35	
성별	남자	87.7	12.3	13.783 ^{***}	85.6	0.9	3.7	0.6	5.2	3.7	0.3	77.47	18.166 ^{***}
	여자	82.9	17.1		90.7	0.8	4.8	—	0.3	3.1	0.3	60.50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88.5	11.5	1.962	90.0	—	3.5	—	2.4	4.1	—	74.94	0.275
	차상위	86.2	13.8		88.6	1.0	3.1	0.5	3.1	3.6	—	74.29	
	사각지대	77.1	22.9		87.0	1.9	1.9	—	1.9	5.6	1.9	69.02	
	사각지대 이상	87.7	12.3		89.7	0.7	2.9	—	2.9	3.7	—	70.71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88.1	11.9	2.401 [†]	90.3	0.9	2.7	—	2.7	3.5	—	71.63	0.855
	한부모	85.3	14.7		88.0	0.5	3.7	0.5	3.1	3.7	0.5	77.35	
	조손가정	73.1	26.9		84.2	—	—	—	—	15.8	—	59.41	
	기타	66.7	33.3		75.0	—	25.0	—	—	—	—	70.00	

(Base : 컴퓨터 사용자만, N=682, 단위 : %)



【그림 V-9】 일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남자, 양친이 모두 있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전체 평균 68.75분 대비, 지역아동센터, 남자, 기초생활 수급, 한부모가정 패널의 컴퓨터 이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아래 표의 항목별 컴퓨터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게임/오락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 및 학습사이트, 학습 외 정보검색, 댓글달기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표 V-18

항목별 컴퓨터 사용빈도

(4점 평균, %)

구분		사용			비사용		[평균]	F 값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항목별 컴퓨터 사용빈도	공부 및 학습사이트	24.9	50.9	75.8	16.9	7.3	24.2	2.93
	음악, 영화 등 학습외 정보검색	21.1	46.3	67.4	18.6	13.9	32.6	2.75
	게임, 오락	36.2	34.8	71.0	17.4	11.6	29.0	2.96
	채팅, 메신저	6.6	12.8	19.4	19.6	61.0	80.6	1.65
	전자우편	1.3	7.6	8.9	17.0	74.0	91.1	1.36
	동호회 등 커뮤니티활동	3.8	12.3	16.1	12.6	71.3	83.9	1.49
	개인홈페이지 활동	4.8	13.9	18.8	14.2	67.0	81.2	1.57
	온라인구매 및 판매	2.5	6.7	9.2	10.9	79.9	90.8	1.32
	댓글달기	7.2	21.1	28.3	13.8	57.9	71.7	1.78
	성인사이트이용	—	0.4	0.4	3.8	95.7	99.6	1.05

(2) 1-2차년도 비교 결과

전년과 비교해 보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1차년도 89.0%, 2차년도 85.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목별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게임, 오락’, ‘공부 및 학습사이트’, ‘학습외 정보검색’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학습외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 이용빈도만이 소폭 증가하였

고 ‘게임, 오락’, ‘온라인구매 및 판매’, ‘성인사이트 이용’등은 이용빈도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컴퓨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19 전년도비교: 컴퓨터 이용여부(단위 : %) 및 주당 평균 사용시간(단위 : 분)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F 값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85.1	14.9	89.0	11.0	21.600***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85.4	14.6	88.4	11.6	3.050**
	방과후아카데미	89.4	10.6	85.9	14.1	
	양육시설	80.6	19.4	93.8	6.3	

구분		2차년도 사용시간		1차년도 사용시간		F 값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68.75	93.97	68.15	97.99	2.851 † (평일) 1.463 (주말)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75.52	102.72	77.22	112.06	.524 (평일) 1.182 (주말)
	방과후아카데미	64.72	91.93	59.04	83.87	
	아동양육시설	48.35	64.08	46.98	64.03	

† p<0.1 *p<0.05 **p<0.01 ***p<0.001

구분		평균 사용빈도		F 값
		2차년도	1차년도	
항목별 컴퓨터 사용빈도	게임, 오락	2.96	3.06	6.816**
	공부 및 학습사이트	2.93	2.86	0.103
	음악, 영화 등 학습 외 정보검색	2.75	2.62	9.749**
	댓글달기	1.78	1.77	0.252
	채팅, 메신저	1.65	1.60	0.116
	개인홈페이지 활동	1.57	1.58	1.492
	동호회 등 커뮤니티활동	1.49	1.46	0.248
	전자우편	1.36	1.32	2.238
	온라인구매 및 판매	1.32	1.53	77.368***
	성인사이트이용	1.05	1.09	23.912***

3) 휴대전화 이용

취약계층아동의 61.2%만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51.6%에 비해 9.6%나 증가한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자, 한부모가정 패널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은 14.4%만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V-21

휴대전화 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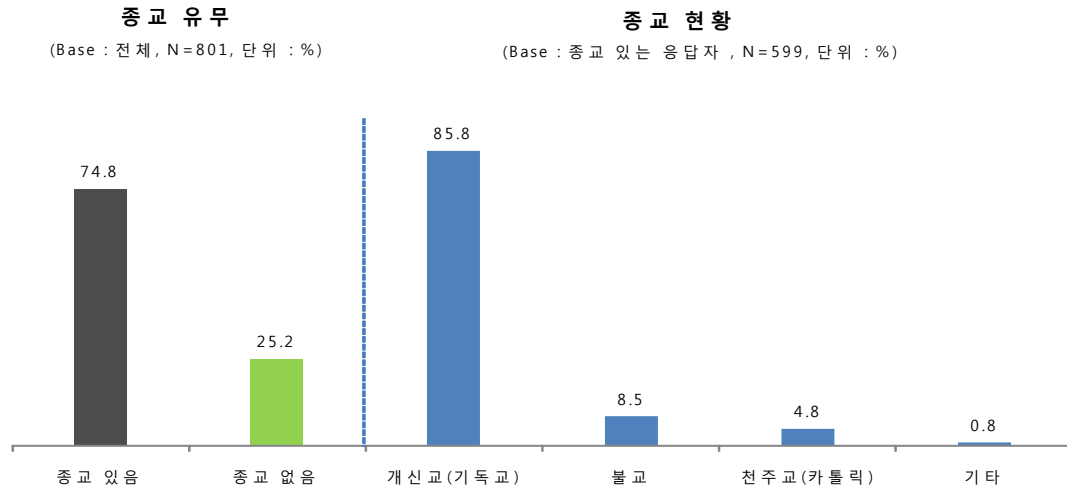
(%)

구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F 값
전체		61.2	38.8	34.66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70.9	29.1	126.689***
	방과후아카데미	79.6	20.4	
	아동양육시설	14.4	85.6	
성별	남자	54.4	45.6	39.432***
	여자	67.1	32.9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65.6	34.4	3.637*
	차상위	79.9	20.1	
	사각지대	70.0	30.0	
	사각지대 이상	72.9	27.1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69.9	30.1	1.709
	한부모	77.2	22.8	
	조손가정	76.9	23.1	
	기타	83.3	16.7	

† p<0.1 *p<0.05 **p<0.01 ***p<0.001

4) 종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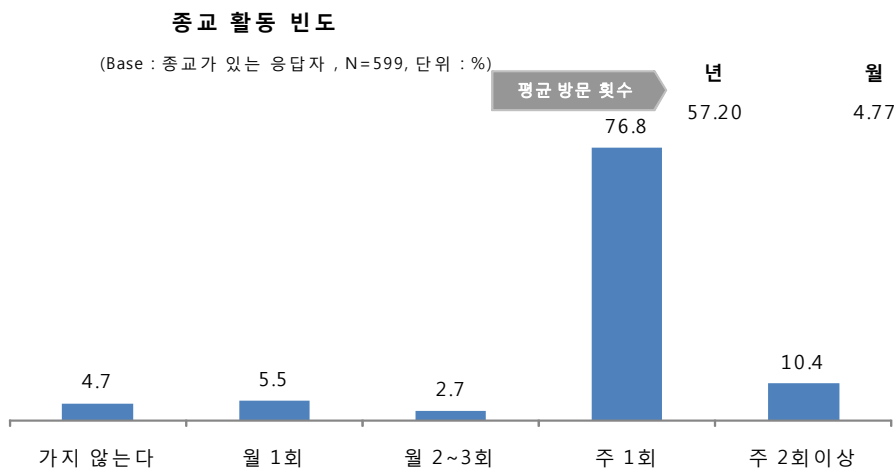
취약계층아동의 종교활동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다’는 응답이 74.8%로 전체패널의 약 3/4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신교’인이 85.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불교(8.5%), 천주교(4.8%)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신교의 배경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10】 종교 유무 및 현황

종교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주1회 이상 간다’는 응답이 전체의 76.8%, ‘주2회이상’이 10.4%로 나타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방문횟수는 57.2회, 월 평균 방문횟수는 4.77회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이용 패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개신교를 믿는다는 응답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이용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활동 빈도는 아동양육시설 이용 패널과 양친이 있는 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V-11】 종교 활동 빈도

표 V-22

종교 유무/종교

(%)

구분		종교 유무		F 값	종교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카톨릭)	기타
전체		74.8	25.2	3.004 [†]	8.5	85.8	4.8	0.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70.9	29.1	19.489 ^{***}	8.2	86.7	3.7	1.4
	방과후아카데미	68.3	31.7		18.6	74.2	7.2	-
	아동양육시설	92.5	7.5		2.7	91.2	6.1	-
성별	남자	76.7	23.3	5.689 [*]	9.4	87.4	2.8	0.3
	여자	73.1	26.9		7.7	84.3	6.7	1.3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71.4	28.6	0.252	9.5	83.2	3.6	3.6
	차상위	68.8	31.3		6.5	90.3	3.2	-
	사각지대	72.9	27.1		7.8	86.3	5.9	-
	사각지대 이상	70.3	29.7		18.3	75.2	6.4	-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66.0	34.0	3.505 [*]	11.8	80.7	5.9	1.6
	한부모	76.8	23.2		8.1	89.0	2.3	0.6
	조손가정	73.1	26.9		10.5	84.2	5.3	-
	기타	100.0	-		16.7	83.3	-	-

표 V-23

종교 활동 빈도(년 활동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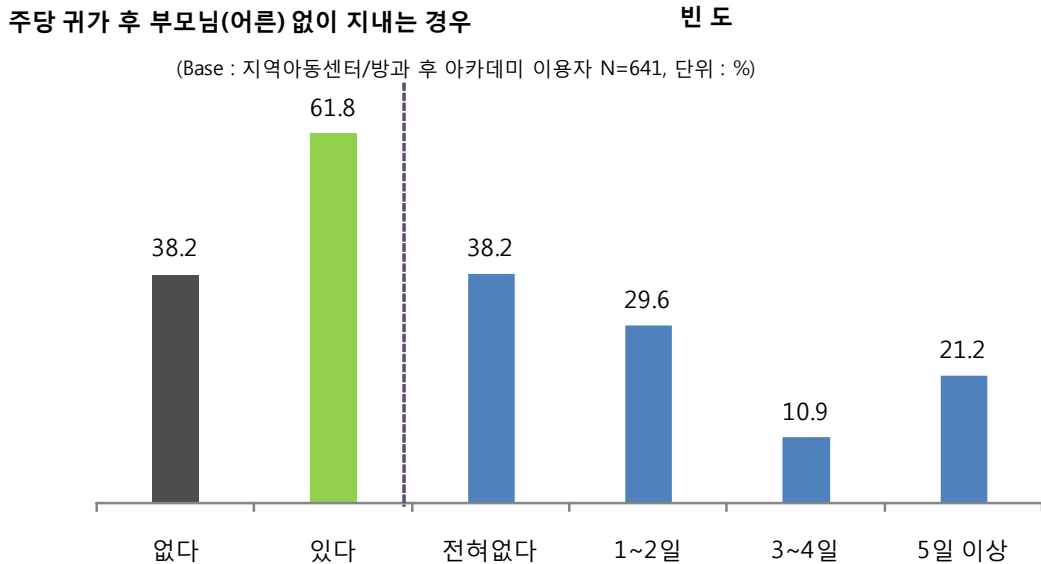
(%)

구분		가지 않는다	월 1회 정도	월2~3회 정도	주1회 정도	주2회 이상 방문	[평균 회/월]	[평균 회/년]	F 값
전체		4.7	5.5	2.7	76.8	10.4	4.77	57.20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5.4	5.1	3.7	76.3	9.6	4.77	57.28	1.773
	방과후아카데미	9.3	14.4	2.1	67.0	7.2	4.31	51.68	
	아동양육시설	-	0.7	0.7	84.5	14.2	5.02	60.30	
성별	남자	5.9	5.6	1.0	76.9	10.5	4.91	58.93	3.052 [†]
	여자	3.5	5.4	4.2	76.7	10.2	4.64	55.65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5.8	7.3	2.9	76.6	7.3	4.60	55.16	0.771
	차상위	4.5	5.2	3.9	76.6	9.7	4.96	59.47	
	사각지대	5.9	5.9	-	84.3	3.9	4.26	51.08	
	사각지대 이상	9.2	10.1	4.6	63.3	12.8	4.57	54.82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5.5	8.3	3.5	71.7	11.0	4.73	56.74	0.169
	한부모	8.1	5.8	1.7	77.9	6.4	4.66	55.94	
	조손가정	-	-	15.8	78.9	5.3	4.25	50.95	
	기타	-	16.7	-	66.7	16.7	4.35	5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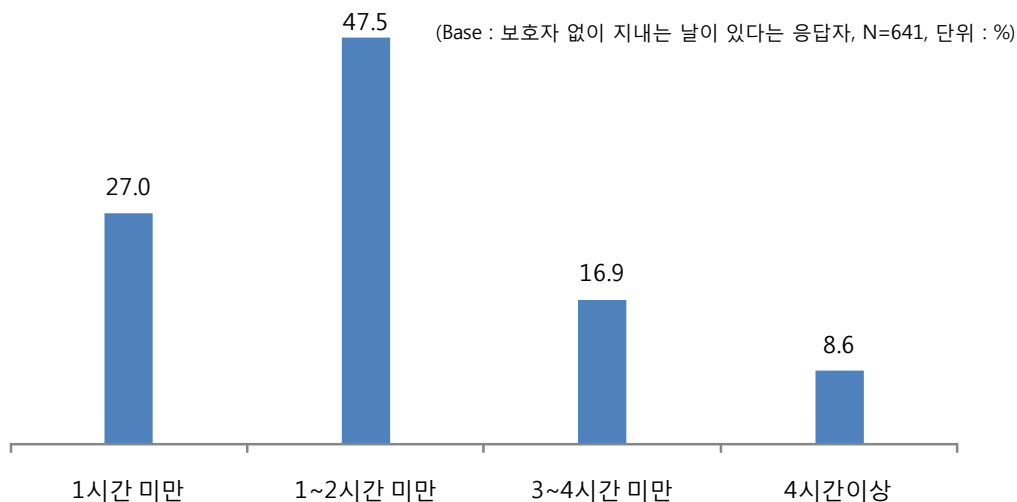
5) 귀가 후 혼자 있는 시간

취약계층아동들은 귀가 후 부모님(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61.8%로 나타났다. 빈도를 살펴보면, ‘1~2일’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이라는 응답도 21.2%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1~2시간’미만이라는 응답이 47.5%,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7.0%로 대부분이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짧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8.6%로 나타났다. 패널들이 시설 또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근로시간이 긴 취약계층아동들의 방과후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2】 주당 귀가 후 부모님 없이 지내는 경우와 빈도



【그림 V-13】 주당 귀가 후 부모님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

표 V-24 주당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경우 빈도 (%)

구분		전혀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5일 이상
전체		38.2	29.6	10.9	21.2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8.7	28.7	9.8	22.8
	방과후아카데미	36.6	33.1	14.8	15.5
성별	남자	39.2	29.0	9.4	22.4
	여자	37.5	30.1	12.1	20.3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40.1	30.7	9.9	19.3
	차상위	35.7	29.0	12.1	23.2
	사각지대	40.0	31.4	11.4	17.1
	사각지대 이상	38.7	28.4	10.3	22.6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9.2	29.4	10.1	21.3
	한부모	35.3	30.8	12.5	21.4
	조손가정	46.2	23.1	11.5	19.2
	기타	50.0	33.3	-	16.7

표 V-25 일일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평균 시간 (%)

구분		일 1시간 미만	일 1-2시간 정도	일 3-4시간 정도	일 4시간 이상
전체		27.0	47.5	16.9	8.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8.4	44.4	18.3	8.8
	방과후아카데미	22.2	57.8	12.2	7.8
성별	남자	28.7	47.1	16.1	8.0
	여자	25.7	47.7	17.6	9.0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23.5	48.7	17.4	10.4
	차상위	31.3	50.7	11.8	6.3
	사각지대	23.8	57.1	14.3	4.8
	사각지대 이상	26.3	36.8	25.3	11.6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0.3	47.0	16.7	6.0
	한부모	22.8	47.6	17.2	12.4
	조손가정	21.4	57.1	14.3	7.1
	기타	-	33.3	33.3	33.3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조손가정과 사각지대 아동의 경우 귀가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6) 부모(보호자)와의 활동

부모와의 생활활동을 살펴보면,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 이상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1주일에 한번 이상 자신의 고민이나 학교생활, 취미활동에 대한 대화를 하고 함께 저녁식사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는 73.5%의 아동이 ‘거의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부모와의 활동빈도

(%)

구분		거의하지 않음	주1-2회	주3-4회	주5-6회	매일
부모님과 생활 활동빈도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33.9	42.6	12.5	4.7	6.4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19.3	41.7	21.4	7.5	10.1
	책, TV, 영화에 관한 대화	45.6	34.3	12.3	4.5	3.3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73.5	17.3	6.1	2.0	1.1
	함께 여가 활동	36.3	36.5	16.2	5.8	5.1
	함께 저녁식사	11.5	29.8	15.9	17.9	24.8

7)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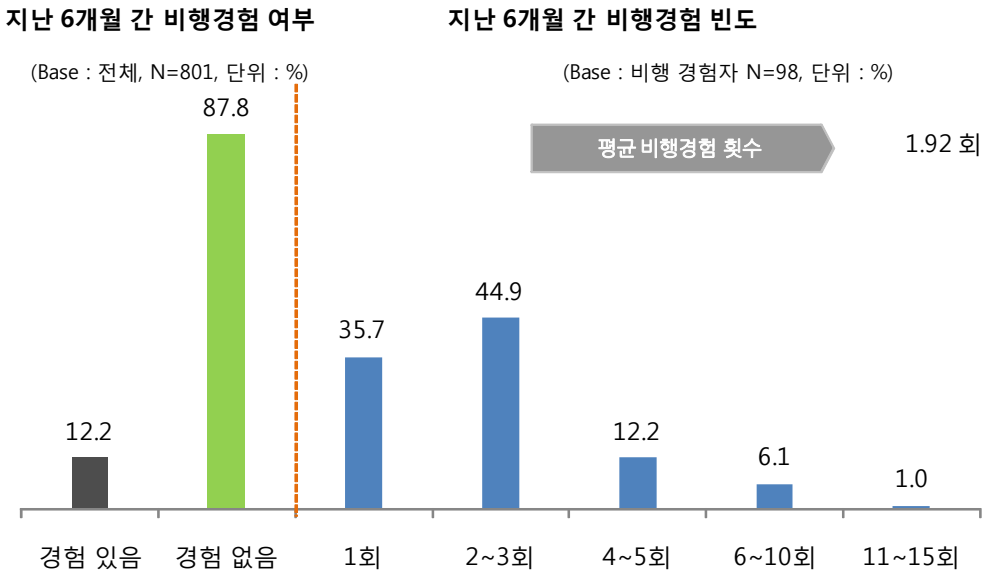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아동 중 지난 1학기 동안 비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2%로 나타났으며, 평균 비행횟수는 1.92회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의 빈도는 ‘2-3회’라는 응답이 44.9%, ‘1회’라는 응답이 35.7%로 나타나 비행경험자 대부분이 3회 미만이었으나 ‘6회 이상’ 비행을 했다는 패널도 7.1%로 나타나 비행을 하는 아동의 경우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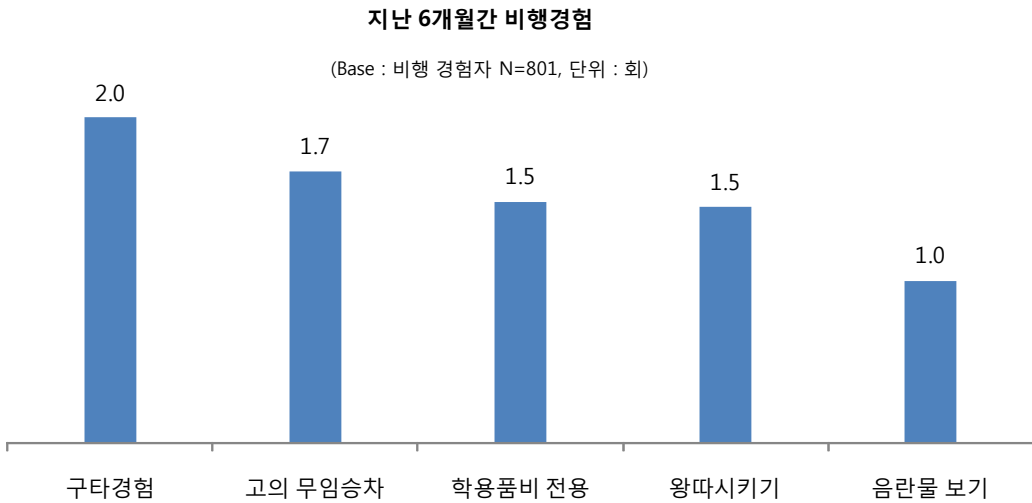
경험한 비행의 유형으로는 비행경험 횟수를 기준으로 ‘구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의 무임승차’, ‘학용품비전용’, ‘왕따시키기’, ‘음란물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패널과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의 경험여부와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행유형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구타의 경우, 아동양육시설(11.6%)의 아동이 가장 많이 경험했고, 남자(10.2%)가 여자(4.2%)보다 2배 이상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비전용의 경우, 지역아동센터(3.5%) 아동이 가장 많이 경험했고, 역시 남자(3.4%)가 여자(1.9%) 보다 2배 가까이 많이 경험했다. 왕따시키기 역시 지역아동센터(4.6%)의 아동이 가장 많이 경험했지만 성별차이에서는 여자(4.7%)가 남자(2.9%)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시설유형별,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유형과 횟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V-14】 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여부 및 빈도



【그림 V-15】 지난 6개월간 비행경험

표 V-27

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여부/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빈도

(%)

구분		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여부		F 값	지난 6개월 간 비행경험 빈도						F 값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회	2~3회	4~5회	6~10회	11~15회	[평균(회)]	
전체		12.2	87.8	4.803*	35.7	44.9	12.2	6.1	1.0	1.92	0.064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3.2	86.8	2.138	33.3	51.5	9.1	4.5	1.5	1.89	4.328*
	방과후아카데미	7.0	93.0		70.0	30.0	—	—	—	1.30	
	아동양육시설	13.8	86.3		27.3	31.8	27.3	13.6	—	2.27	
성별	남자	16.1	83.9	33.989***	33.3	45.0	16.7	5.0	—	1.93	0.426
	여자	8.9	91.1		39.5	44.7	5.3	7.9	2.6	1.89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12.0	88.0	0.256	34.8	56.5	4.3	4.3	—	1.78	1.370
	차상위	12.5	87.5		32.1	46.4	10.7	7.1	3.6	2.04	
	사각지대	12.9	87.1		55.6	44.4	—	—	—	1.44	
	사각지대 이상	10.3	89.7		43.8	43.8	12.5	—	—	1.69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13.0	87.0	1.530	36.0	50.0	10.0	4.0	—	1.82	0.004
	한부모	11.6	88.4		42.3	46.2	3.8	3.8	3.8	1.81	
	조손가정	—	100.0		—	—	—	—	—	—	
	기타	—	100.0		—	—	—	—	—	—	

표 V-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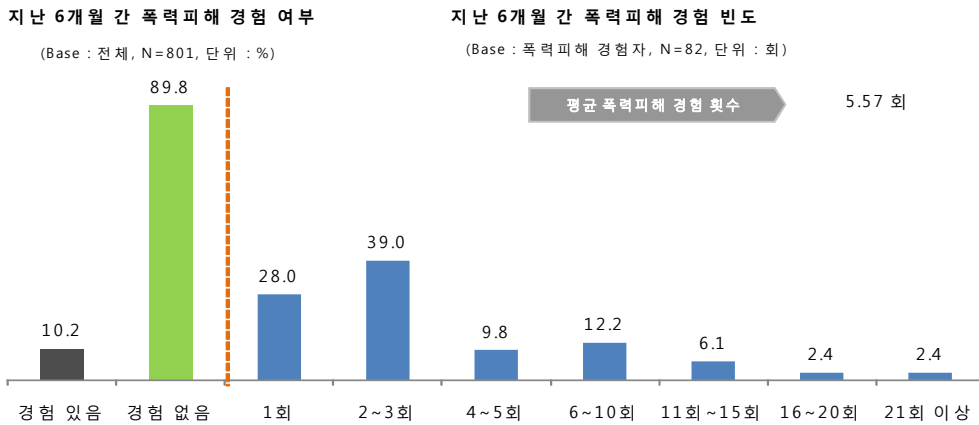
지난 6개월 간 비행유형 별 경험여부 및 횟수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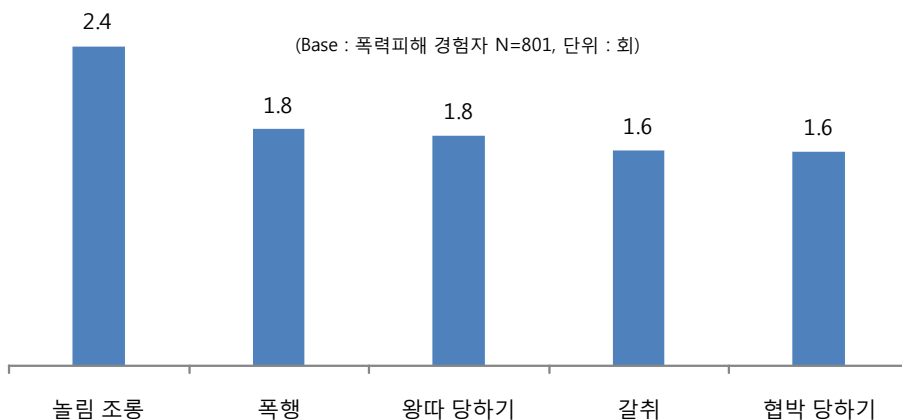
구분		구타		고의 무임승차		학용품비 전용		왕따 시키기		음란물 관람	
		경험 여부(%)	평균 횟수(회)	경험 여부(%)	평균 횟수(회)	경험 여부(%)	평균 횟수(회)	경험 여부(%)	평균 횟수(회)	경험 여부(%)	평균 횟수(회)
전체		7.0	2.00	0.7	1.48	2.6	1.48	3.9	1.45	0.4	1.00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6.4	1.94	0.8	1.47	3.8	1.47	4.6	1.48	0.6	1.00
	방과후아카데미	3.5	1.40	—	1.00	0.7	1.00	2.8	1.25	—	—
	아동양육시설	11.9	2.26	1.3	2.00	0.6	2.00	2.5	1.50	—	—
성별	남자	10.2	2.00	1.3	1.69	3.5	1.69	2.9	1.36	—	—
	여자	4.2	2.00	0.2	1.13	1.9	1.13	4.7	1.50	0.7	1.00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5.2	1.90	0.5	1.33	3.1	1.33	4.7	1.44	—	—
	차상위	7.1	1.88	0.4	1.44	4.0	1.44	4.9	1.55	0.9	1.00
	사각지대	5.7	1.75	—	1.50	2.9	1.50	4.3	1.00	—	—
	사각지대 이상	4.5	1.86	1.3	1.67	1.9	1.67	2.6	1.50	0.6	1.00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6.8	1.85	0.8	1.50	2.1	1.50	5.2	1.35	0.8	1.00
	한부모	4.9	1.91	0.4	1.42	5.4	1.42	3.1	1.71	—	—
	조손가정	—	—	—	—	—	—	—	—	—	—
	기타	—	—	—	—	—	—	—	—	—	—

취약아동 패널의 중 지난 1학기 동안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0.2%로 나타났으며, 평균 폭력경험횟수는 5.57회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경험과 비교해 볼 때 비행경험 응답(12.2%)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경험횟수에서는 비행경험 횟수 1.92에 비하면 폭력경험 횟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폭력피해경험의 빈도는 ‘2-3회’라는 응답이 39.0%, ‘1회’라는 응답이 28.0%, ‘6회 이상’이 23.1%로 나타나, 폭력피해도 비행처럼 되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피해경험 횟수는 ‘놀림/조롱’이 2.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행’, ‘왕따 당하기’가 1.8%, ‘갈취’, ‘협박당하기’가 1.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6】 지난 6개월 간 폭행피해 경험 여부 및 빈도



【그림 V-17】 지난 6개월 간 폭행피해 경험

표 V-29

지난 6개월 간 폭력피해경험 여부/지난 6개월 간 폭력피해경험 빈도

(%)

구분		지난 6개월 간 폭력경험 여부		F값	지난 6개월 간 폭력경험 빈도						F 값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회	2~3회	4~5회	6~10회	11~15회	[평균(회)]	
전체		10.2	89.8	3.876 †	28.0	39.0	9.8	12.2	10.9	5.57	8.05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1.0	89.0	0.721	34.5	34.5	10.9	9.1	10.9	4.75	2.616 †
	방과후아카데미	7.7	92.3		18.2	27.3	9.1	18.2	27.3	12.91	
	아동양육시설	10.0	90.0		12.5	62.5	6.3	18.8	—	3.38	
성별	남자	11.0	89.0	0.942	29.3	46.3	7.3	12.2	4.9	3.17	8.957*
	여자	9.6	90.4		26.8	31.7	12.2	12.2	17.1	7.98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13.5	86.5	1.083	30.8	19.2	19.2	19.2	11.5	6.73	1.017
	차상위	8.5	91.5		47.4	42.1	—	5.3	5.3	2.47	
	사각지대	8.6	91.4		33.3	50.0	—	—	16.7	4.67	
	사각지대 이상	9.7	90.3		13.3	40.0	13.3	6.7	26.7	10.20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7.8	92.2	2.424 †	23.3	26.7	13.3	10.0	26.7	10.07	1.730
	한부모	13.4	86.6		43.3	36.7	3.3	13.3	3.3	2.87	
	조손가정	19.2	80.8		20.0	40.0	40.0	—	—	2.60	
	기타	16.7	83.3		—	100.0	—	—	—	2.00	

표 V-30

지난 6개월 간 폭력피해 유형별 경험여부 및 횟수

(% , 회)

구분		놀림이나 조롱		협박당하기		왕따 당하기		폭행		갈취	
		피해 여부	평균 횟수	피해 여부	평균 횟수	피해 여부	평균 횟수	피해 여부	평균 횟수	피해 여부	평균 횟수
전체		6.1	2.43	2.0	1.63	3.5	1.75	1.9	1.80	1.4	1.64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6.6	2.24	1.8	1.78	3.6	1.72	2.0	1.70	1.8	1.67
	방과후아카데미	4.2	3.83	3.5	1.40	3.5	2.00	0.7	5.00	0.7	1.00
	아동양육시설	6.3	2.20	1.3	1.50	3.1	1.60	2.5	1.25	0.6	2.00
성별	남자	5.9	2.09	2.4	1.33	2.1	2.00	2.9	1.73	1.6	1.67
	여자	6.3	2.70	1.6	2.00	4.7	1.65	0.9	2.00	1.2	1.60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8.3	2.50	2.6	1.80	5.2	2.10	3.6	1.86	2.1	1.50
	차상위	3.6	1.50	1.3	2.00	4.5	1.30	0.4	1.00	1.8	2.00
	사각지대	4.3	3.00	2.9	1.00	1.4	1.00	—	—	1.4	1.00
	사각지대 이상	7.7	3.00	2.6	1.50	1.3	3.00	1.9	2.67	0.6	1.00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5.5	2.90	1.6	1.67	2.9	2.27	1.6	2.50	1.0	1.75
	한부모	7.1	2.00	2.7	1.50	4.9	1.27	1.8	1.25	2.2	1.40
	조손가정	3.8	2.00	7.7	2.00	3.8	2.00	3.8	2.00	3.8	2.00
	기타	16.7	2.00	—	—	—	—	—	—	—	—

(2) 1-2차년도 비교결과

비행경험과 폭력피해경험 모두 전체적으로 1차년도에 비해 경험여부가 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별로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과 폭력피해경험 항목별 평균횟수도 1차년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V-31 전년도비교: 지난 6개월 간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자 비율 (%)

구분		비행			폭력피해		
		2차년도	1차년도	F값	2차년도	1차년도	F값
전체		12.2	23.1	140.107***	10.2	20.5	140.133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3.2	26.1	9.851***	11.0	21.0	6.860***
	방과후아카데미	7.0	13.4		7.7	20.4	
	아동양육시설	13.8	22.5		10.0	18.8	

표 V-32 전년도비교: 지난 6개월 간 평균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횟수 (회)

구분		전체		구타		고의 무임승차		학용품비 전용		왕따 시키기		음란물 관람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전체		1.92	2.51	2.00	2.38	1.67	1.80	1.48	1.92	1.45	2.01	1.00	1.14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89	2.59	1.94	2.41	1.75	2.00	1.47	2.11	1.48	2.15	1.00	1.20
	방과후아카데미	1.30	2.53	1.40	3.29		1.67	1.00	1.20	1.25	1.45	-	1.00
	아동양육시설	2.27	2.22	2.26	2.11	1.50	1.33	2.00	1.50	1.50	1.86	-	1.00

구분		전체		놀림이나 조롱		협박당하기		왕따 당하기		폭행		갈취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전체		5.57	8.52	2.43	2.35	1.63	1.74	1.75	2.18	1.80	2.39	1.64	1.43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75	9.09	2.24	2.30	1.78	1.72	1.72	2.17	1.70	2.72	1.67	1.53
	방과후아카데미	12.91	9.17	3.83	2.82	1.40	1.80	2.00	2.43	5.00	2.14	1.00	1.25
	아동양육시설	3.38	5.93	2.20	2.05	1.50	1.67	1.60	2.08	1.25	1.67	2.00	1.33

4. 신체적 발달

1)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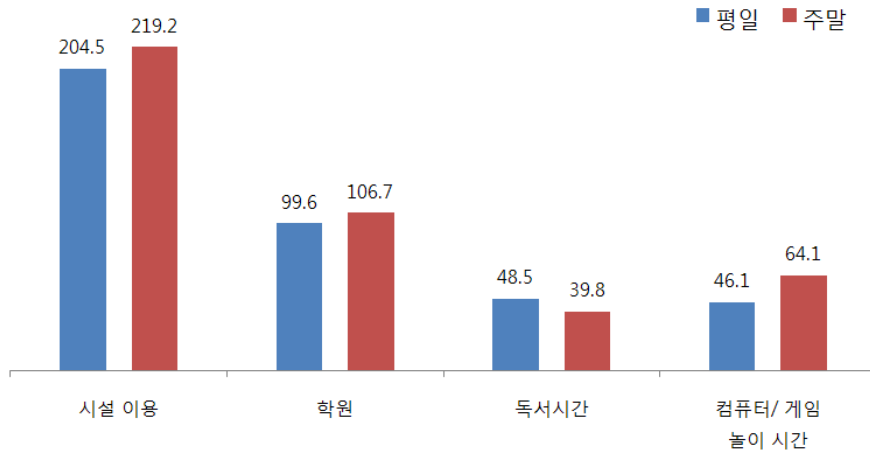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아동의 학교생활 외 일과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시설이용시간이 약 3시간 24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학원이용시간이 약 1시간 40분, 독서시간이 48분, 놀이시간이 46분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시설이용시간과 학원이용시간, 놀이시간이 평일대비 길었으며, 독서시간은 평일대비 다소 짧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시설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는 방과후아카데미, 주말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길었으며,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패널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사교육 이용은 사각지대이상, 양친이 모두 있는 패널들에서 길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패널들이 사교육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시설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지도가 시설기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숙식제공 등 대체가정의 기능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학습지도를 위한 사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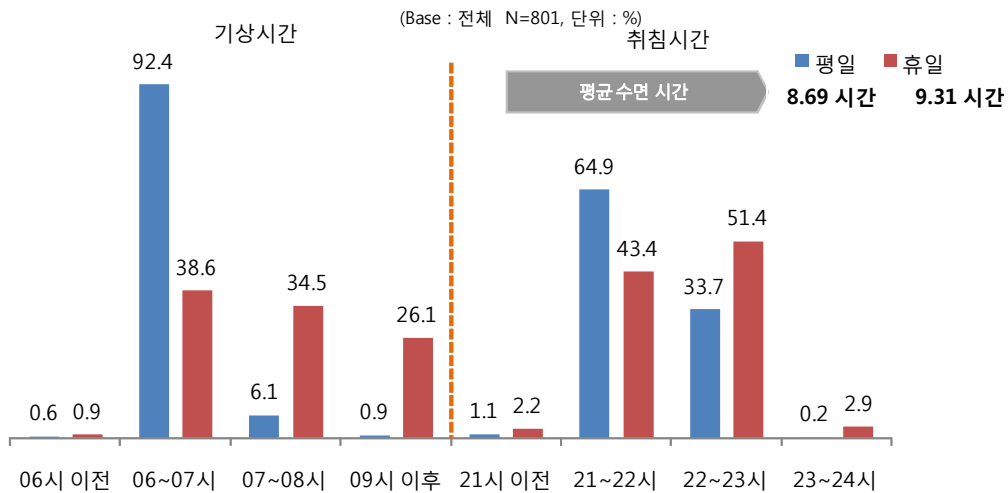
독서시간은 평일 전체평균 48.48분 대비 아동양육시설 아동과 가정경제수준이 사각지대 이상, 양친이 있는 아동에서, 놀이시간은 평일 전체 평균 46.06분 대비 지역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돌봐주는 인적자원이 부족할수록 독서시간보다는 놀이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분)



【그림 V-18】 일과 시간 사용

기상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6-7시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침시간은 저녁 9시-10시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말의 경우 평일에 비해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은 8.69시간, 휴일은 9.31시간으로 주말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9】 하루 일과 시간

표 V-33 하루일과시간(시설이용, 사교육이용, 독서, 놀이 단위: 분/ 수면 단위: 시간)

구분		시설이용				사교육 이용			
		평일	F 값	주말	F 값	평일	F 값	주말	F 값
전체		204.48	—	219.15	—	99.63	—	106.67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97.72	21.381***	223.12	1.342	96.96	1.903	115.00	0.183
	방과후아카데미	228.24		209.67		77.50		80.00	
	아동양육시설	—		—		109.00		105.56	
성별	남자	199.72	6.740*	212.75	0.05	94.87	0.694	92.00	0.697
	여자	208.31		223.97		104.90		113.04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202.76	0.348	218.41	2.614	85.71	1.019	75.00	0.326
	차상위	208.08		226.63		95.95		100.00	
	사각지대	206.14		249.75		85.26		120.00	
	사각지대 이상	200.65		197.84		103.85		116.25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195.79	5.045**	211.76	1.499	94.44	0.040	110.77	0.253
	한부모	219.51		235.38		92.42		90.00	
	조손가정	203.46		198.00		100.00		—	
	기타	205.00		190.00		—		—	

구분		독서				놀이				수면			
		평일	F 값	주말	F 값	평일	F 값	주말	F 값	평일	F 값	주말	F 값
전체		48.48	—	39.78	—	46.06	—	64.13	—	8.69	—	9.31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6.50	1.906	37.12	3.684*	52.12	14.391***	72.27	11.411***	8.58	25.486***	9.25	3.612*
	방과후아카데미	49.29		40.28		44.44		63.38		8.60		9.28	
	아동양육시설	53.90		47.52		28.10		40.13		9.14		9.54	
성별	남자	45.85	1.021	37.14	0.451	54.71	7.347	78.22	27.430***	8.72	0.868	9.22	0.010
	여자	50.78		42.09		38.47		51.88		8.67		9.39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45.59	0.717	37.70	0.170	58.03	4.635**	81.50	2.273	8.55	0.543	9.27	0.599
	차상위	46.61		36.47		46.50		64.25		8.62		9.31	
	사각지대	44.57		39.85		32.54		57.61		8.67		9.27	
	사각지대 이상	50.92		39.13		54.45		70.72		8.54		9.14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50.90	2.950*	41.68	2.759*	50.76	1.238	68.93	0.890	8.60	0.321	9.26	1.072
	한부모	41.45		32.03		51.95		73.85		8.58		9.23	
	조손가정	39.62		34.62		38.40		68.08		8.42		9.19	
	기타	50.00		18.00		20.00		22.00		8.50		10.17	

표 V-34

하루일과시간((평균 취침시간 및 기상시간)

(시간)

구분		기상				취침				수면			
		평일	F 값	주말	F 값	평일	F 값	주말	F 값	평일	F 값	주말	F 값
전체		6.82	-	7.87	-	22.13	-	22.56	-	8.69	-	9.31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6.92		8.06		22.34		22.81		8.58		9.25	
	방과후아카데미	6.99	141.001***	8.13	77.494***	22.39	122.019***	22.85	53.974***	8.60	25.486***	9.28	3.612*
	아동양육시설	6.36		7.06		21.23		21.51		9.14		9.54	
성별	남자	6.79		7.75		22.07		22.53		8.72		9.22	
	여자	6.85	2.069	7.97	0.126	22.18	0.426	22.58	0.388	8.67	0.868	9.39	0.01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6.84		7.91		22.12		22.63		8.55		9.27	
	차상위	6.70		7.63		22.25		22.45		8.62		9.31	
	사각지대	6.84	0.826	7.91	0.605	22.07	0.543	22.55	1.546	8.67	0.543	9.27	0.599
	사각지대 이상	6.87		7.96		22.06		22.53		8.54		9.14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6.89		8.04		22.11		22.60		8.60		9.26	
	한부모	6.90		8.17		22.35		22.90		8.58		9.23	
	조손가정	6.96	0.185	8.11	1.181	22.34	0.188	22.80	0.866	8.42	0.321	9.19	1.072
	기타	6.90		7.87		22.23		22.60		8.50		10.17	

응답자 특성별로는 수면시간의 경우, 평일 전체평균 8.69시간 대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기상과 취침시간도 기상시간 평균 6시 50분, 취침시간 평균 10시 33분 대비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이르고 빨랐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은 다른 시설 아동에 비해 단체생활이 주는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1-2차년도 비교결과

전년과 비교해 보면, 평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용시간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방과후아카데미는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주말의 경우 모든 이용시설에서 전년대비 이용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주말 이용시간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방과후아카데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교육이용시간은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주말 사교육 이용시간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아동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사교육이 불가피하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수면시간은 전체 이용시설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활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35 전년도비교: 하루 일과시간

구분		시설이용시간(평일)/ 분			사교육이용시간(평일)/ 분			수면시간(평일)/ 시간		
		2차년도	1차년도	F값	2차년도	1차년도	F값	2차년도	1차년도	F값
전체		204.48	202.50	60.192***	99.63	76.48	23.280***	8.69	8.87	7.687**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97.72	192.89		96.96	68.04		8.58	8.78	
	방과후아카데미	228.24	236.27	29.696***	77.50	54.44	39.058***	8.60	8.77	20.111***
	아동양육시설	-	-		109.00	93.03		9.14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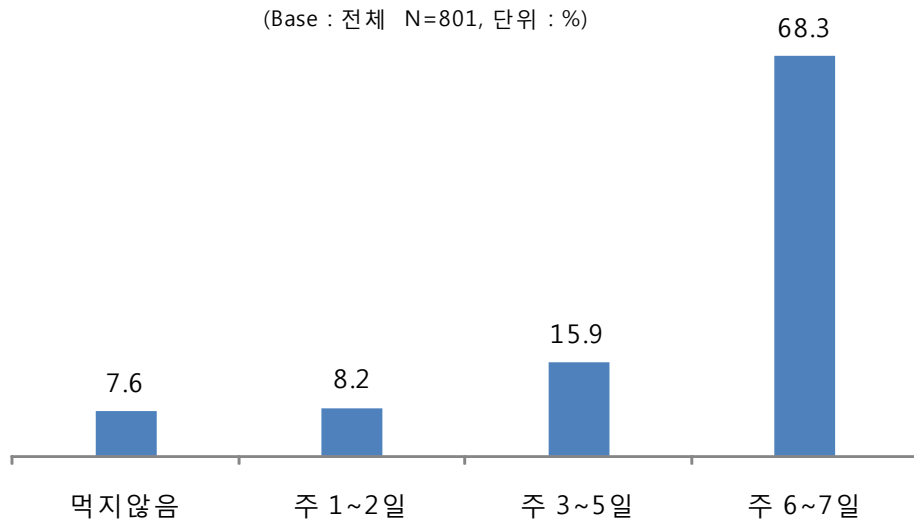
구분		시설이용시간(주말)/ 분			사교육이용시간(주말)/ 분			수면시간(주말)/ 시간		
		2차년도	1차년도	F값	2차년도	1차년도	F값	2차년도	1차년도	F값
전체		219.15	302.57	961.757***	106.67	76.92	31.096***	9.31	9.36	0.30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23.12	290.71		115.00	72.50		9.25	9.30	
	방과후아카데미	209.67	317.61	76.041***	80.00	30.00	24.013***	9.28	9.30	2.960*
	아동양육시설	-	-		105.56	85.00		9.54	9.59	

· † p<0.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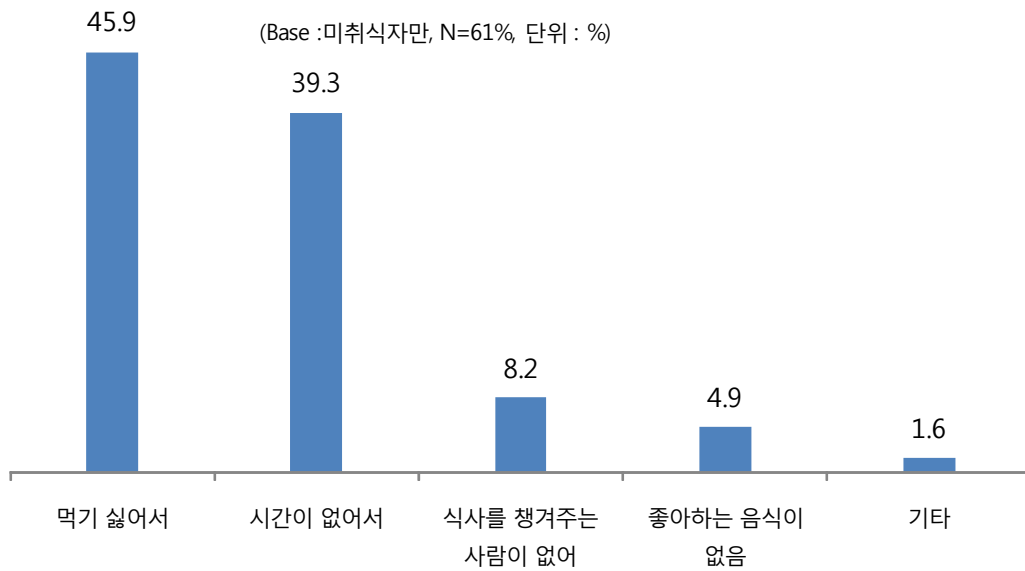
2) 식사

주당 아침식사 취식빈도를 살펴보면, 주6일 이상 거의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전체 패널의 68.3%이었으며, 먹지 않거나 주2일 이하 먹는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먹기 싫어서’가 45.9%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또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8.2%(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단체생활을 하는 ‘양육시설’의 경우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차상위계층과 사각지대계층, 한부모 가정 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0】 주당 아침식사 취식빈도



【그림 V-21】 아침식사 미 취식 이유

표 V-36

주당 아침식사 취식 빈도

(%)

구분		먹지 않음	주1-2일	주 3-5일	주 6-7일
전체		7.6	8.2	15.9	68.3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8.8	10.2	19.6	61.3
	방과후아카데미	9.9	7.7	17.6	64.8
	아동양육시설	1.9	2.5	2.5	93.1
성별	남자	8.0	7.8	10.7	73.5
	여자	7.2	8.6	20.3	63.8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9.4	10.4	17.7	62.5
	차상위	10.7	12.5	17.4	59.4
	사각지대	11.4	5.7	21.4	61.4
	사각지대 이상	5.2	6.5	22.6	65.8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9.1	7.5	19.0	64.4
	한부모	9.4	13.4	20.1	57.1
	조손가정	3.8	11.5	15.4	69.2
	기타	16.7	-	16.7	66.7

표 V-37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

구분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행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먹기 싫어서	기타
전체		39.3	8.2	4.9	45.9	1.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6.4	11.4	2.3	50.0	-
	방과후아카데미	57.1	-	-	35.7	7.1
	아동양육시설	-	-	66.7	33.3	-
성별	남자	36.7	10.0	10.0	43.3	-
	여자	41.9	6.5	-	48.4	3.2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8.9	-	5.6	55.6	-
	차상위	37.5	20.8	-	37.5	4.2
	사각지대	37.5	-	-	62.5	-
	사각지대 이상	62.5	-	-	37.5	-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7.1	2.9	2.9	54.3	2.9
	한부모	52.4	19.0	-	28.6	-
	조손가정	-	-	-	100.0	-
	기타	-	-	-	100.0	-

3) 질병경험 및 치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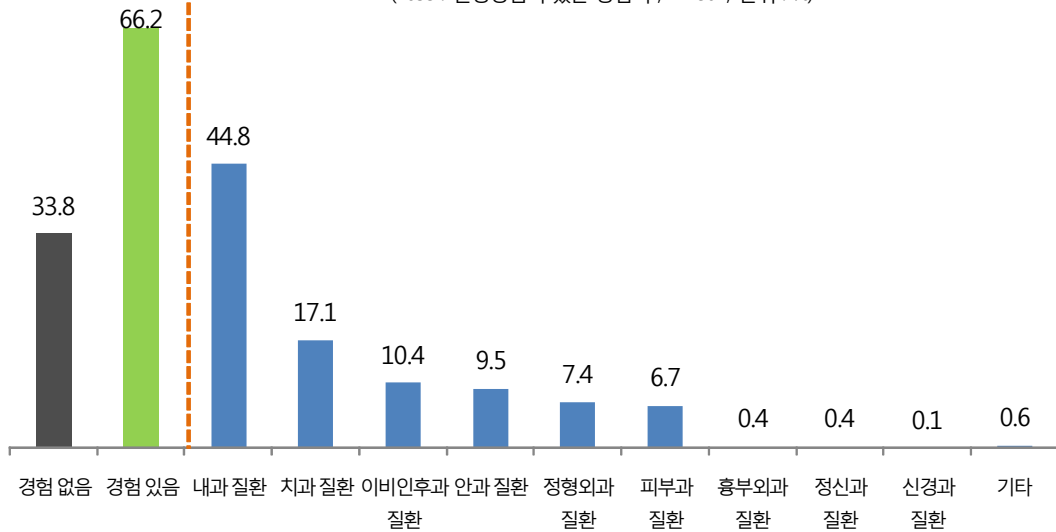
질병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질병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6.2%로 전체 패널의 3/5이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다. 앓은 경험이 있는 질병의 종류로는 내과질환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치과질환(17.1%), 이비인후과 질환(10.4%), 안과질환(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여부

(Base : 전체, N=80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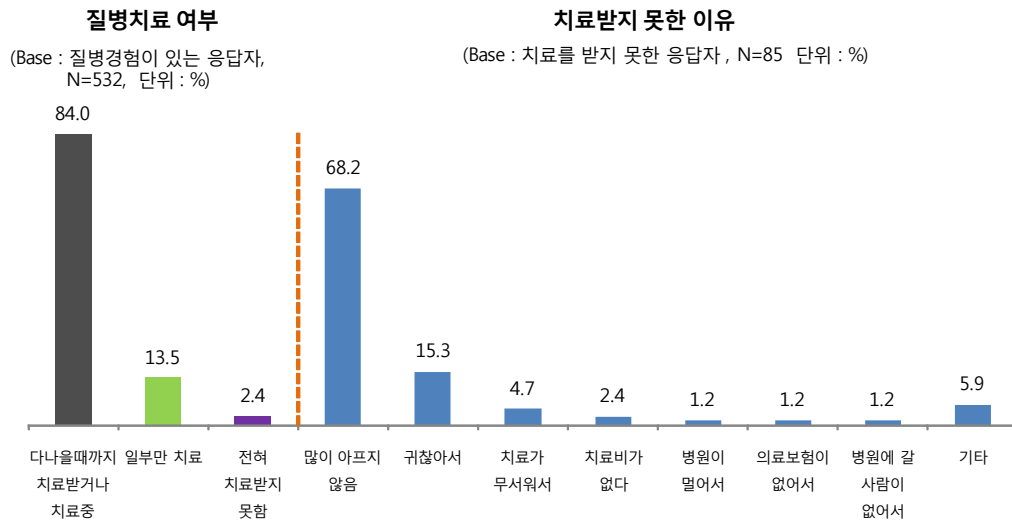
최근 1년 내 질병 경험

(Base : 질병경험이 있는 응답자, N=801, 단위 : %)



【그림 V-22】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여부 및 내용

질병치료여부를 살펴보면, ‘다 나을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 중’이라는 응답이 84.0%로 대다수인 가운데, 일부만 치료하거나 치료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15.9%로 나타났다. 치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많이 아프지 않음’이 68.2%로 다수였고, 이어서 ‘귀찮아서’(15.3%), ‘치료가 무서워서’(4.7%)로 나타나, 치료를 받지 않은 패널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치료비, 병원, 의료보험,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10.7%나 있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3】 질병치료 여부 및 치료받지 못한 이유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까지 치료받았다는 응답은 양육시설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표 V-38 최근 1년 내 질병경험여부 (%)

구분		정형외과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치과 질환	내과 질환	안과 질환	흉부외과 질환	피부과 질환	신경과 질환	정신과 질환	기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음
전체		7.4	10.4	17.1	44.8	9.5	0.4	6.7	0.1	0.4	0.6	33.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7.2	11.2	18.4	46.5	7.6	0.2	6.0	0.2	0.2	0.4	32.5
	방과후아카데미	8.5	11.3	18.3	43.7	9.2	0.7	9.2	-	-	0.7	35.9
	아동양육시설	6.9	6.9	11.9	40.6	15.6	0.6	6.9	-	1.3	1.3	35.0
	아동양육시설	6.9	6.9	11.9	40.6	15.6	0.6	6.9	-	1.3	1.3	35.0
성별	남자	9.1	11.3	13.9	45.0	9.7	0.5	4.8	-	0.5	0.8	32.4
	여자	5.8	9.6	19.9	44.6	9.3	0.2	8.4	0.2	0.2	0.5	34.6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7.3	9.4	18.2	54.2	6.8	0.5	8.3	0.5	0.5	-	29.7
	차상위	8.0	13.8	19.6	42.4	10.3	0.4	5.8	-	-	-	33.5
	사각지대	7.1	8.6	20.0	44.3	5.7	-	1.4	-	-	-	34.3
	사각지대 이상	7.1	11.0	16.1	41.3	7.1	-	8.4	-	-	1.9	36.8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6.8	11.9	17.9	44.9	7.8	0.3	6.0	-	-	0.5	34.3
	한부모	8.9	10.3	17.0	46.4	9.4	0.4	7.6	0.4	0.4	0.4	31.3
	조손가정	7.7	3.8	34.6	42.3	-	-	3.8	-	-	-	42.3
	기타	-	33.3	33.3	100.0	-	-	33.3	-	-	-	-

표 V-39 질병치료 여부 및 치료받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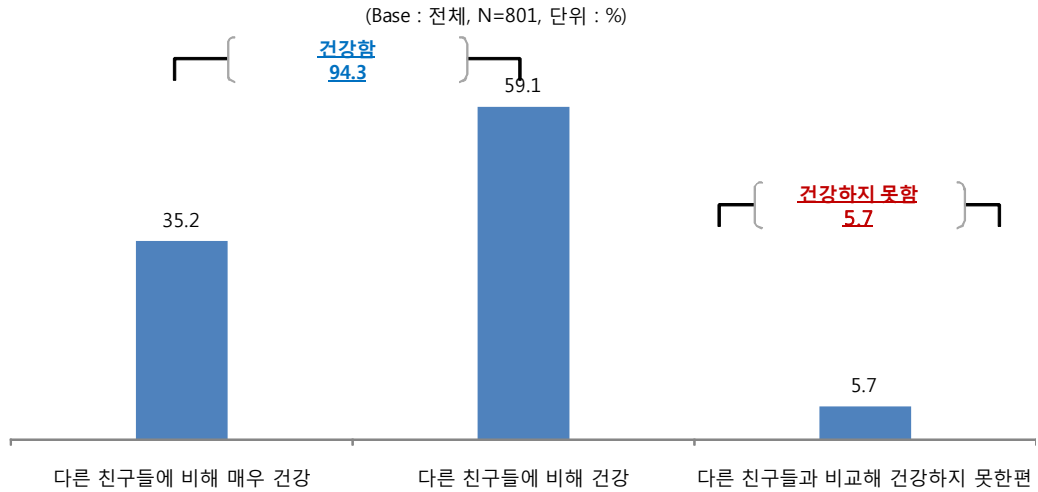
(%)

구분		일부만 치료받거나 전혀 치료받지 못함	치료받지 못한 이유							
			많이 아프지 않아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이 멀어서	의료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워서	귀찮아서	기타
전체		15.9	68.2	2.4	1.2	1.2	1.2	4.7	15.3	5.9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7.8	70.0	3.3	1.7	1.7	1.7	6.7	8.3	6.7
	방과후아카데미	17.6	75.0	—	—	—	—	—	18.8	6.3
	아동양육시설	8.7	44.4	—	—	—	—	—	55.6	—
성별	남자	12.7	68.8	—	—	—	3.1	6.3	15.6	6.3
	여자	19.0	67.9	3.8	1.9	1.9	—	3.8	15.1	5.7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12.6	76.5	—	—	5.9	—	5.9	5.9	5.9
	차상위	20.8	80.6	—	—	—	—	3.2	12.9	3.2
	사각지대	15.2	42.9	—	—	—	14.3	14.3	14.3	14.3
	사각지대 이상	21.4	61.9	9.5	4.8	—	—	4.8	9.5	9.5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21.0	66.0	3.8	1.9	1.9	1.9	5.7	11.3	7.5
	한부모	14.9	82.6	—	—	—	—	4.3	8.7	4.3
	조손가정	—	—	—	—	—	—	—	—	—
	기타	—	—	—	—	—	—	—	—	—

4) 자신의 건강평가

(1) 2차년도 조사결과

자신의 건강평가를 살펴보면, 전체 패널의 94.3%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3.39), 남자(3.39), 양친이 모두 있는 아동(3.32)이 평균 평가점수 3.29보다 높았으며,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V-24】 자신의 건강평가

표 V-40 자신의 건강평가 (%)

구분		건강		건강하지 못함		[평균] (4pt)	F 값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전체		35.2	59.1	94.3	5.7	5.7	3.29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4.7	59.1	93.8	6.2	6.2	3.701*
	방과후아카데미	28.2	66.2	94.4	5.6	5.6	
	아동양육시설	43.1	52.5	95.6	4.4	4.4	
성별	남자	43.2	52.8	96.0	4.0	4.0	16.524***
	여자	28.3	64.5	92.8	7.2	7.2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4.9	61.5	96.4	3.6	3.6	0.595
	차상위	31.7	61.6	93.3	6.7	6.7	
	사각지대	31.4	61.4	92.9	7.1	7.1	
	사각지대 이상	34.2	58.1	92.3	7.7	7.7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7.4	56.9	94.3	5.7	5.7	2.762*
	한부모	27.2	66.1	93.3	6.7	6.7	
	조손가정	30.8	65.4	96.2	3.8	3.8	
	기타	-	83.3	83.3	16.7	16.7	

(2) 1-2차년도 비교결과

전년과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평균점수는 전년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점수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표 V-41 전년도비교: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4점 평균, %)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F 값
		건강함	건강하지 못함	평균	건강함	건강하지 못함	평균	
전체		94.3	5.7	3.29	92.8	7.2	3.26	0.293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93.8	6.2	3.28	92.6	7.4	3.23	2.878*
	방과후아카데미	94.4	5.6	3.23	90.8	9.2	3.25	
	아동양육시설	95.6	4.4	3.39	95.0	5.0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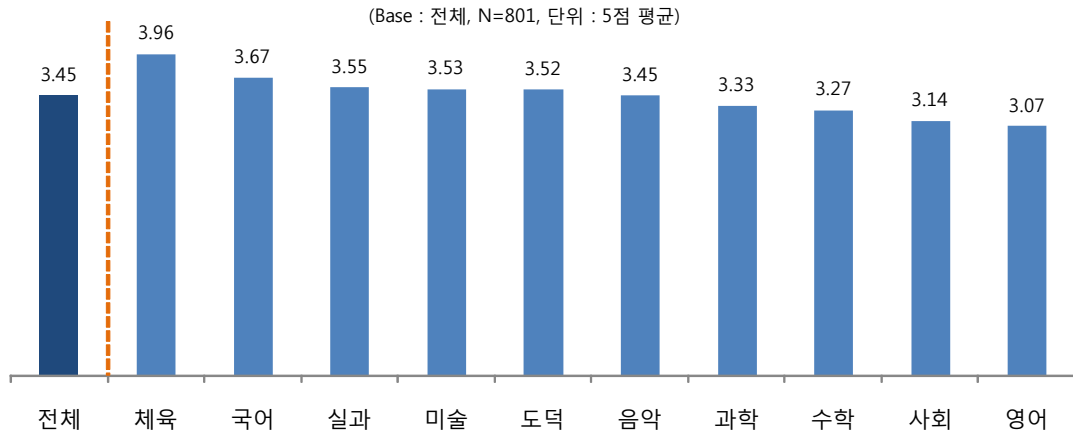
· †p<0.1 *p<0.05 **p<0.01 ***p<0.001

5. 인지적 발달

1) 과목별 성취도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 아동의 과목별 학습성취도를 살펴 보면 5점 평균을 기준으로 체육(3.96), 국어(3.67), 실과(3.55)의 성취도가 전체 과목평균(과목별 성취도의 산술평균:3.45점) 대비 높은 반면, 영어(3.07)와 수학(3.27) 등의 과목 성취도는 전체과목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영어와 수학은 단기간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장기간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습시간을 요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기초를 잡아나가야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목에 대한 꾸준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V-25】 과목별 성취도

표 V-42

과목별 성취도

(5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3.45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40	5.444**
	방과후아카데미	3.51	
	아동양육시설	3.54	
성별	남자	3.44	.169
	여자	3.46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40	.335
	차상위	3.43	
	사각지대	3.47	
	사각지대 이상	3.43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44	1.077
	한부모	3.43	
	조손가정	3.25	
	기타	3.40	

표 V-43

과목별 성취도

(5점 평균)

구분		종합	국어	F값	영어	F값	수학	F값	과학	F값	사회	F값
전체		3.45	3.67	-	3.07	-	3.27	-	3.33	-	3.14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40	3.62	3.426*	3.07	0.042	3.30	3.637*	3.28	1.926	3.09	3.656*
	방과후아카데미	3.51	3.72		3.05		3.35		3.43		3.35	
	아동양육시설	3.54	3.79		3.10		3.09		3.38		3.14	
성별	남자	3.44	3.63	1.252	3.00	0.184	3.37	16.838***	3.43	3.439†	3.26	4.258*
	여자	3.46	3.70		3.14		3.18		3.24		3.04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40	3.55	3.187*	2.99	0.877	3.25	0.838	3.30	0.226	3.07	1.215
	차상위	3.43	3.71		3.11		3.37		3.33		3.14	
	사각지대	3.47	3.83		2.99		3.39		3.36		3.31	
	사각지대 이상	3.43	3.57		3.14		3.26		3.28		3.16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44	3.63	0.128	3.13	1.667	3.31	4.211**	3.30	2.291†	3.24	4.637*
	한부모	3.43	3.65		3.01		3.37		3.38		3.05	
	조손가정	3.25	3.69		2.77		3.12		2.96		2.69	
	기타	3.40	3.50		2.83		2.00		3.50		2.50	

구분		도덕	F값	실과	F값	음악	F값	미술	F값	체육	F값
전체		3.52	-	3.55	-	3.45	-	3.53	-	3.96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44	6.147*	3.48	5.448*	3.38	3.175*	3.44	6.448*	3.91	14.580***
	방과후아카데미	3.68		3.64		3.49		3.63		3.77	
	아동양육시설	3.62		3.69		3.63		3.73		4.28	
성별	남자	3.44	1.183	3.43	1.319	3.26	0.257	3.40	3.099†	4.19	4.188*
	여자	3.59		3.65		3.61		3.65		3.76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54	0.709	3.52	0.021	3.36	0.804	3.49	0.555	3.95	0.455
	차상위	3.44		3.51		3.39		3.43		3.84	
	사각지대	3.49		3.53		3.56		3.44		3.86	
	사각지대 이상	3.54		3.51		3.41		3.57		3.86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50	2.446†	3.50	0.709	3.44	1.677	3.49	0.379	3.81	2.199†
	한부모	3.52		3.51		3.37		3.46		3.99	
	조손가정	3.15		3.65		3.08		3.50		3.85	
	기타	4.00		3.83		3.67		3.83		4.33	

† p<0.1 *p<0.05 **p<0.01 ***p<0.001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목평균을 기준으로 시설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과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과목별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2) 1-2차년도 비교결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가 3.39점에서 3.30점으로 하락하였고 과목별로는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전년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시설만이 학업성취도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4 전년도비교: 과목별 성취도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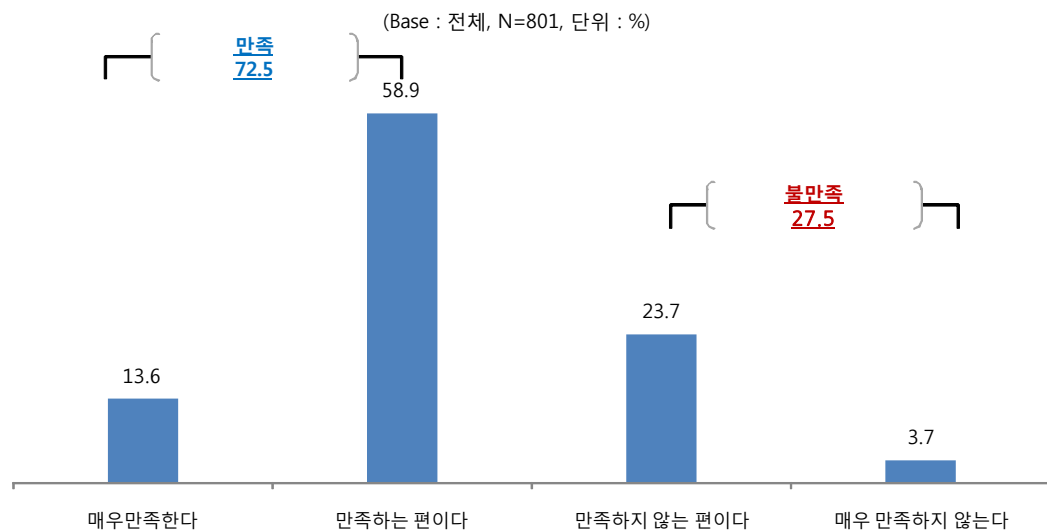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F값
		종합 점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종합 점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체		3.30	3.67	3.07	3.27	3.33	3.14	3.39	3.84	2.99	3.50	3.49	3.10	17.734**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27	3.62	3.07	3.30	3.28	3.09	3.40	3.83	2.99	3.60	3.46	3.10	3.997***
	방과후아카데미	3.38	3.72	3.05	3.35	3.43	3.35	3.49	3.96	3.10	3.51	3.63	3.26	
	아동양육시설	3.30	3.79	3.10	3.09	3.38	3.14	3.26	3.79	2.89	3.18	3.46	2.98	

· † p<0.1 *p<0.05 **p<0.01 ***p<0.001

2)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1) 2차년도 조사결과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72.5%(매우만족:13.6+만족하는 편:58.9), 불만족이 27.5%(매우 만족하지 않음:3.7+만족하지 않는 편:23.7)로 2/3 정도의 아동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6】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2) 1-2차년도 비교결과

학업성적 만족도에 대한 전체결과는 전년대비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별로는 차이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패널의 만족도가(2.82) 다른 시설아동에 비해 전년대비(2.90) 눈에 띄게 하락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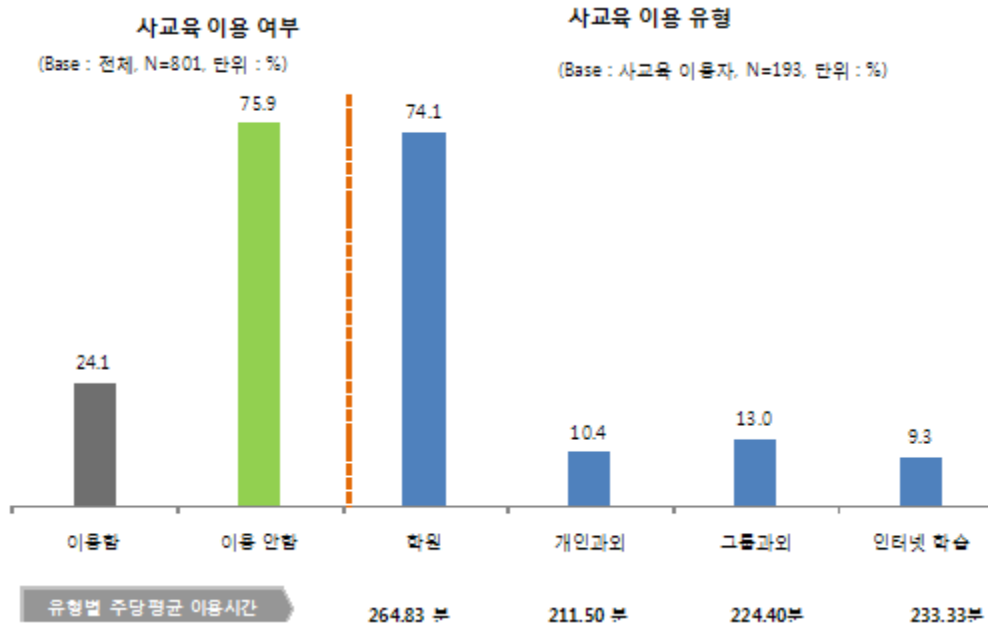
표 V-45 전년도비교: 학업 성적에 만족도

(4점 평균, %)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F 값
		만족	불만족	평균	만족	불만족	평균	
전체		72.5	27.5	2.82	75.5	24.5	2.90	0.007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71.9	28.1	2.80	77.0	23.0	2.92	2.057 †
	방과후아카데미	76.8	23.2	2.92	77.5	22.5	2.93	
	아동양육시설	70.6	29.4	2.82	69.4	30.6	2.80	

· † p<0.1 *p<0.05 **p<0.01 ***p<0.001

3) 사교육



【그림 V-27】 사교육 이용여부 및 유형

취약아동패널들의 사교육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이용한다’는 응답은 24.1%로 전체 패널의 1/4 정도만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유형으로는 학원이 7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그룹과외(13.0%), 개인과외(10.4%), 인터넷학습(9.3%)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 유형별 주당 평균이용시간은 학원이 약 4시간 25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인터넷 학습(약 3시간 54분), 그룹과외(약 3시간 45분), 개인과외(약 3시간 32분) 순으로 길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이용률은 전체평균 24.1% 대비, 아동양육시설(48.8%)과 남자(27.1%), 사각지대 이상(24.5%), 양친이 모두 있는 이용패널(23.4%)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원(84.8%)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학원(60.4%)과 그룹과외(24.4%),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학원(75%), 개인과외(18.8%), 인터넷학습(18.8%)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시설의 아동들이 모두 사교육을 주로 학원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6

사교육 이용여부 및 유형

(%)

구분		이용함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인터넷학습
전체		24.1	74.1	10.4	13.0	9.3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19.8	84.8	5.1	4.0	11.1
	방과후아카데미	11.3	75.0	18.8	12.5	18.8
	아동양육시설	48.8	60.3	15.4	24.4	5.1
성별	남자	27.1	74.3	6.9	14.9	10.9
	여자	21.5	73.9	14.1	10.9	7.6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16.1	74.2	9.7	9.7	9.7
	차상위	15.2	85.3	2.9	2.9	11.8
	사각지대	17.1	91.7	8.3	—	16.7
	사각지대 이상	24.5	86.8	7.9	5.3	13.2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23.4	84.4	5.6	5.6	10.0
	한부모	10.7	79.2	12.5	4.2	20.8
	조손가정	3.8	100.0	—	—	—
	기타	—	—	—	—	—

표 V-47

사교육 이용과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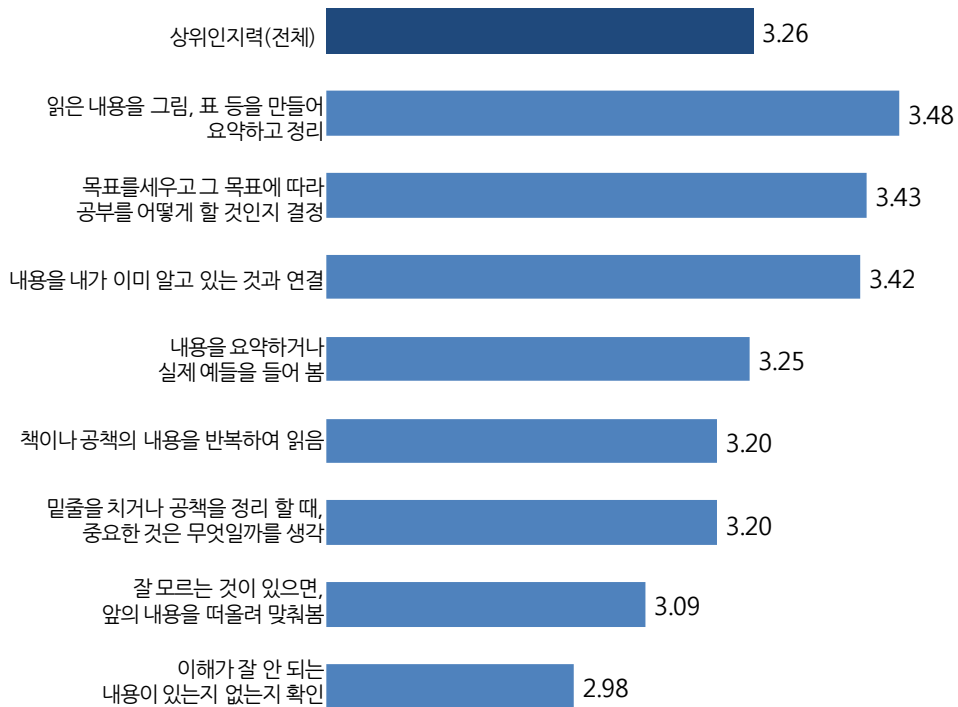
구분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전체		74.1	64.8	36.8	32.6	32.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69.7	64.6	31.3	28.3	28.3
	방과후아카데미	56.3	75.0	25.0	37.5	37.5
	아동양육시설	83.3	62.8	46.2	37.2	37.2
성별	남자	75.2	66.3	35.6	31.7	32.7
	여자	72.8	63.0	38.0	33.7	32.6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67.7	48.4	29.0	25.8	22.6
	차상위	61.8	64.7	35.3	29.4	32.4
	사각지대	91.7	75.0	41.7	25.0	50.0
	사각지대 이상	65.8	78.9	23.7	34.2	26.3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70.0	65.6	31.1	26.7	30.0
	한부모	58.3	70.8	25.0	37.5	25.0
	조손가정	100.0	—	100.0	100.0	100.0

이용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전체 사교육 이용자의 7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영어(64.8%), 국어(36.8%), 사회(32.6%), 과학(32.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시설아동들은 수학과 영어를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상위인지력

(1) 2차년도 조사결과

(Base : 전체, N=801, 단위 : 5점 평균)



【그림 V-28】 상위인지력

인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상위인지력은 인지적 요소와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인지는 자신의 인지를 다시 인지함을 의미하며, 특정 과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응답결과를 5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하였는데, 전체 상위인지력은 3.26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대비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3.48)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3.43),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3.42)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2.98),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봄'(3.09) 등으로 나타나 시설아동들을 지도할 때 이렇게 취약하게 나타난 항목들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상위인지력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양육시설(3.29), 지역아동센터(3.20) 순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상위인지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가 다른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V-48

상위인지력

(5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3.26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20	4.476*
	방과후아카데미	3.41	
	아동양육시설	3.29	
성별	남자	3.23	1.813**
	여자	3.28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25	.048
	차상위	3.25	
	사각지대	3.23	
	사각지대 이상	3.26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28	.824
	한부모	3.20	
	조손가정	3.28	
	기타	3.04	

· †p<0.1 *p<0.05 **p<0.01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49

전년도 비교: 상위인지력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 값
전체		3.26	3.48	-0.22	8.36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20	3.44	-0.24	10.402***
	방과후아카데미	3.41	3.67	-0.26	
	아동양육시설	3.29	3.46	-0.17	

· †p<0.1 *p<0.05 **p<0.01 ***p<0.001

전년도 상위인지력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위인지력 전체평균(3.27)은 전년도(3.48)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용시설에서 상위인지력이 하락한 가운데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고학년이 되고 교과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은 인지력이 요구되는데 취약계층아동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아동들 스스로도 자신의 인지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항목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가운데,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봄’,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 V-50

전년도 비교: 상위인지력(항목별)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상위 인지력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3.48	3.79	-0.31	12.815***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봄	3.43	3.71	-0.28	0.414
	책이나 공책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	3.25	3.46	-0.21	16.195***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	2.98	3.24	-0.26	27.790***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	3.20	3.41	-0.21	11.629**
	내용을 요약하거나 실제 예들을 들어 봄	3.20	3.39	-0.19	14.201***
	목표(계획)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3.09	3.31	-0.22	11.047**
	밑줄을 치거나 공책을 정리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	3.42	3.56	-0.14	9.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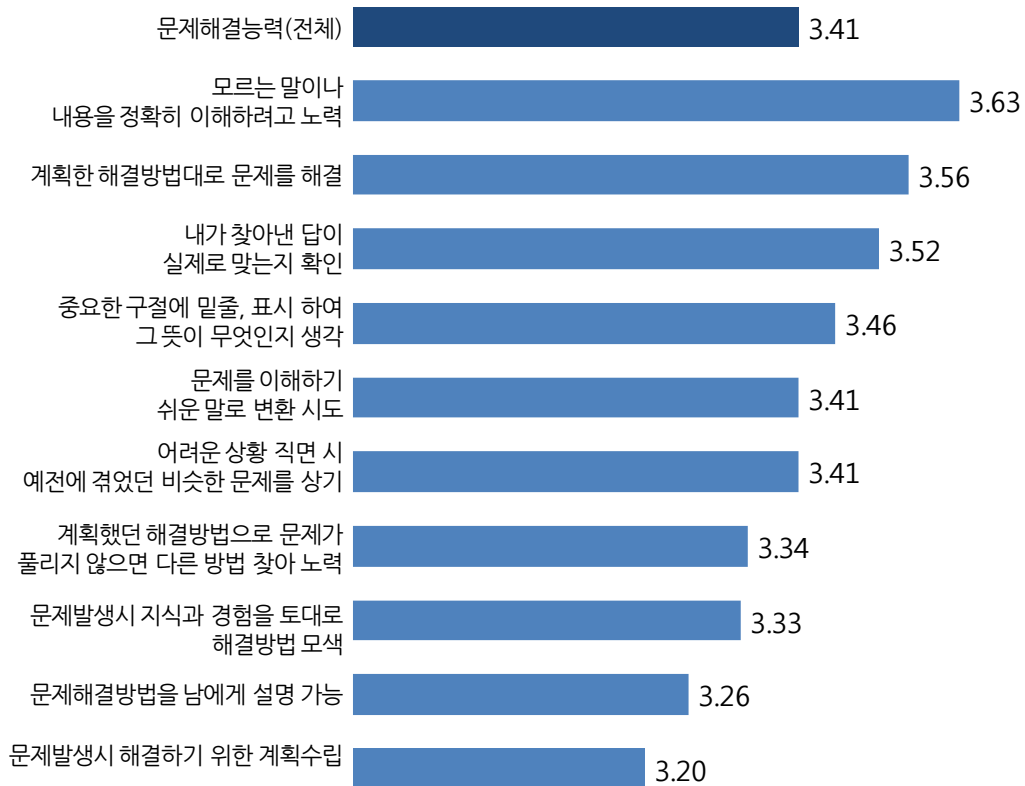
· †p<0.1 *p<0.05 **p<0.01 ***p<0.001

5) 문제해결능력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 상황을 당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분석하고 자신이 지닌 지식과 책략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10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5점 리커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3.41점이었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5점 평균)



【그림 V-29】 문제해결능력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모르는 말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3.63), ‘계획한 해결방법대로 문제를 해결’(3.56), ‘내가 찾아낸 답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3.52), ‘중요한 구절을 밑줄 표시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3.46)’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3.20), ‘문제해결방법을 남에게 설명 가능’(3.26), ‘문제발생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모색’(3.33)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문제해결능력 역시 시설아동들을 지도할 때 이렇게 취약하게 나타난 항목들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문제해결능력 역시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양육시설(3.43), 지역아동센터(3.35) 순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 역시 다른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V-51

문제해결능력

(5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3.41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35	6.762***
	방과후아카데미	3.60	
	아동양육시설	3.43	
성별	남자	3.42	6.929**
	여자	3.41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44	.164
	차상위	3.40	
	사각지대	3.38	
	사각지대 이상	3.39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45	1.243
	한부모	3.35	
	조손가정	3.31	
	기타	3.25	

· [†]p<0.1 *p<0.05 **p<0.01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52 전년도 비교: 문제해결능력 (점)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5점 평균]			
전체		3.41	3.58	-0.17	5.16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35	3.54	-0.19	8.459***
	방과후아카데미	3.60	3.75	-0.15	
	아동양육시설	3.43	3.57	-0.14	

† p<0.1 *p<0.05 **p<0.01 ***p<0.001

전년도 문제해결능력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문제해결능력 전체평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용시설에서 문제해결능력이 하락한 가운데 상위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패널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 직면 시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를 상기’(3.60)를 제외하고 전 항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표 V-53 전년도 비교: 문제해결능력(항목별) (점)

구분		5점평균		GAP	F값
		2차년도	1차년도		
문제 해결 능력	모르는 말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	3.63	3.86	-0.23	0.001
	어려운 상황 직면시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를 상기	3.60	3.41	0.19	7.007**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변환 시도	3.41	3.59	-0.18	5.700*
	중요한 구절에 밑줄, 표시 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	3.46	3.62	-0.16	6.177*
	문제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	3.20	3.39	-0.19	26.074***
	문제발생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 모색	3.33	3.45	-0.12	10.989**
	계획한 해결방법대로 문제를 해결	3.56	3.77	-0.21	2.423
	계획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 노력	3.34	3.53	-0.19	10.452**
	내가 찾아낸 답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	3.52	3.71	-0.19	.096
	문제해결방법을 남에게 설명 가능	3.26	3.33	-0.07	26.299***

†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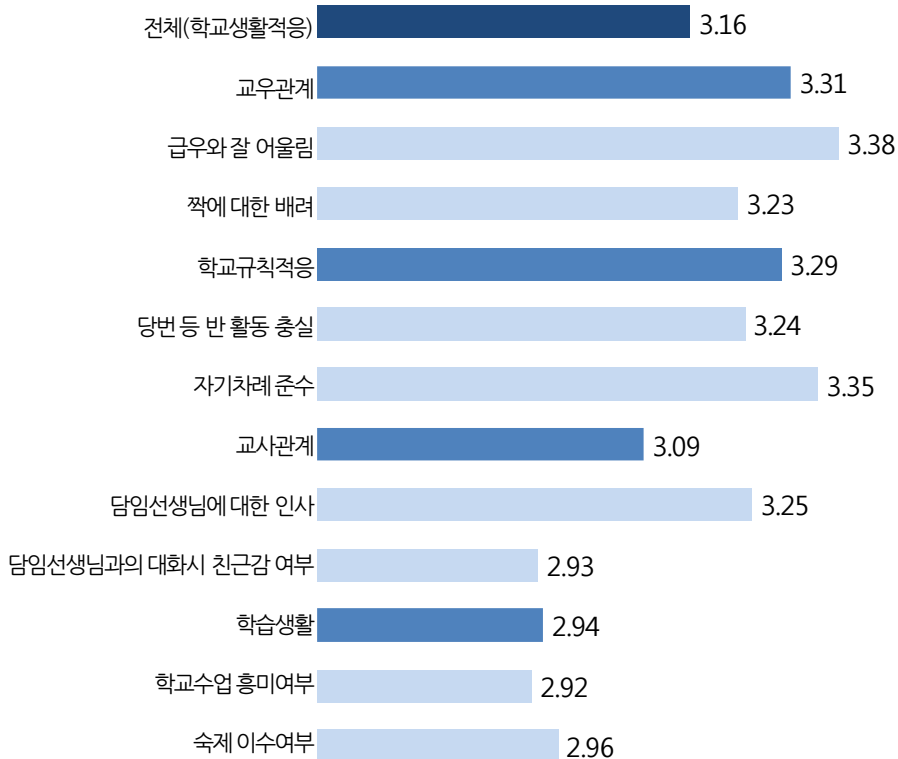
6. 사회 · 정서적 발달

1) 학교생활적응력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생활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 당 2개 항목씩, 총 8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3.16점이었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4점 평균)



【그림 V-30】 학교생활적응력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교우관계(3.31)와 학교규칙적응(3.29)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관계(3.09)와 학습생활(2.94)의 평균은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한데 비해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생활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3.23)과 방과후아카데미(3.22)에 비해 지역아동센터(3.12)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4

학교생활적응력

(4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3.16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12	4.820**
	방과후아카데미	3.22	
	아동양육시설	3.23	
성별	남자	3.12	.797
	여자	3.19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15	.590
	차상위	3.15	
	사각지대	3.18	
	사각지대 이상	3.10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14	.013
	한부모	3.14	
	조손가정	3.13	
	기타	3.13	

• †p<0.1 *p<0.05 **p<0.01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학교생활적응력은 전체평균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5

전년도 비교: 학교생활적응력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3.16	3.18	-0.02	.251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12	3.16	-0.04	2.755*
	방과후아카데미	3.22	3.23	-0.01	
	아동양육시설	3.23	3.21	0.02	

† p<0.1 *p<0.05 **p<0.01 ***p<0.001

표 V-56

전년도 비교: 학교생활적응력(항목별)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학교 생활 적응력	학습생활	2.94	2.97	0.03	.976
	학교수업 흥미여부	2.92	2.99	-0.07	0.201
	숙제 이수여부	2.96	2.95	0.01	1.256
	학교규칙 준수	3.29	3.31	-0.02	.021
	당번 등 반활동 충실	3.24	3.28	-0.04	4.948*
	자기차려 준수	3.35	3.35	-	9.936**
	교우관계	3.31	3.28	0.03	7.711**
	급우와 잘 어울림	3.38	3.41	-0.03	2.778
	짝에 대한 배려	3.23	3.21	0.02	17.853***
	교사관계	3.09	3.12	-0.03	5.757*
	담임선생님에 대한 인사	3.25	3.37	-0.12	8.763**
	담임선생님과의 대화시 친근감 여부	2.93	2.89	0.04	9.791**

†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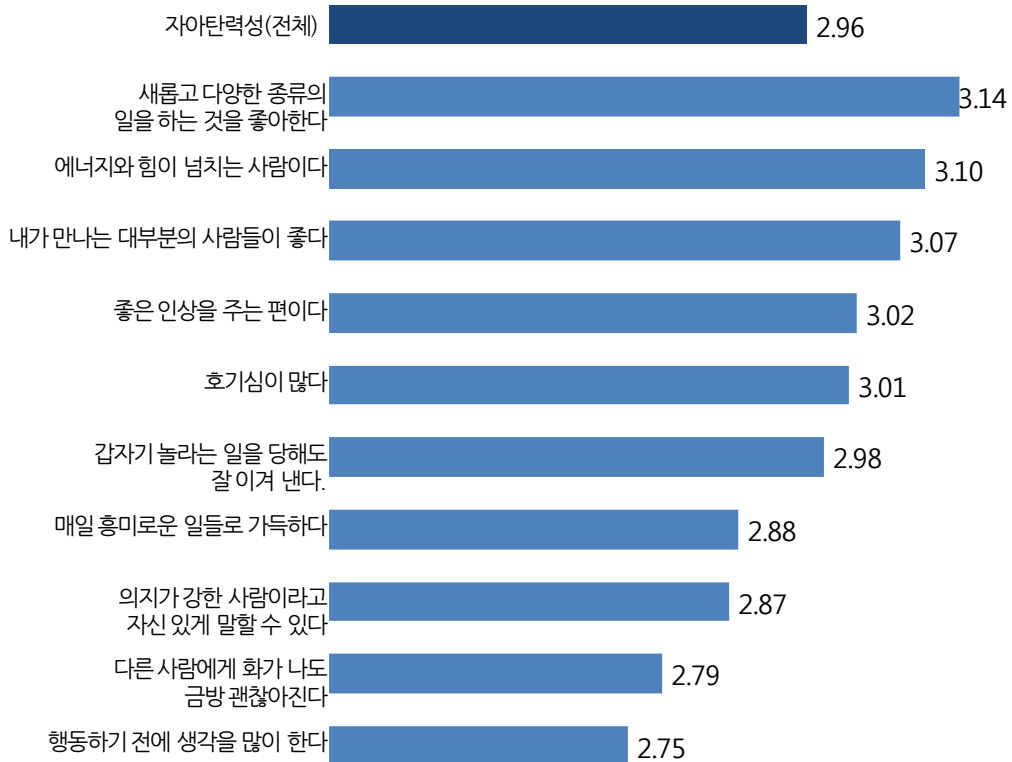
학교생활적응력 항목별로 보면, 교우관계 중 ‘짝에 대한 배려’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교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담임선생님에 대한 인사’항목은 다소 하락하고 ‘담임선생님과의 대화시 친근감 여부’는 높아졌다. 학습생활과 학교규칙 준수는 전년과 차이가 없었다.

2) 자아탄력성

(1) 2차년도 조사결과

시설아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면한 위험이나 위협을 극복해 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resilience)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10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로 구분하여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4점 만점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전체 점수는 2.96점으로 조사되었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4점 평균)



【그림 V-31】 자아탄력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3.14),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사람이다’(3.10),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좋다’(3.07),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3.02), ‘호기심이 많다’(3.01),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다행도 잘 이겨낸다’(2.98) 항목들이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타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7 자아탄력성 (4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2.96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93	2.522 †
	방과후아카데미	3.01	
	아동양육시설	3.01	
성별	남자	3.01	.235
	여자	2.92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2.98	.590
	차상위	2.93	
	사각지대	2.94	
	사각지대 이상	2.94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2.94	.286
	한부모	2.96	
	조손가정	3.01	
	기타	2.87	

· †p<0.1 *p<0.05 **p<0.01 ***p<0.001

(1)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58 전년도비교: 자아탄력성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2.96	2.90	0.06	5.90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93	2.89	0.04	3.408**
	방과후아카데미	3.01	3.00	0.01	
	아동양육시설	3.01	2.86	0.15	

† p<0.1 *p<0.05 **p<0.01 ***p<0.001

자아탄력성 전체평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전 시설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 2.86에 3.0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아카데미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아탄력성 평균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지난 해에 비해 의미있게 상승한 결과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이용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9

전년도비교: 자아탄력성(항목별)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자아 탄력성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잘 이겨 낸다	2.98	2.98	-	8.481**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3.02	2.94	0.08	17.201***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3.10	3.04	0.06	2.080
	호기심이 많다	2.89	3.01	-0.12	30.849***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2.75	2.79	-0.04	4.188*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14	3.05	0.09	20.804***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2.88	2.84	0.04	14.657***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87	2.73	0.14	35.603***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2.79	2.71	0.08	9.507**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3.07	3.08	-0.01	35.096***

†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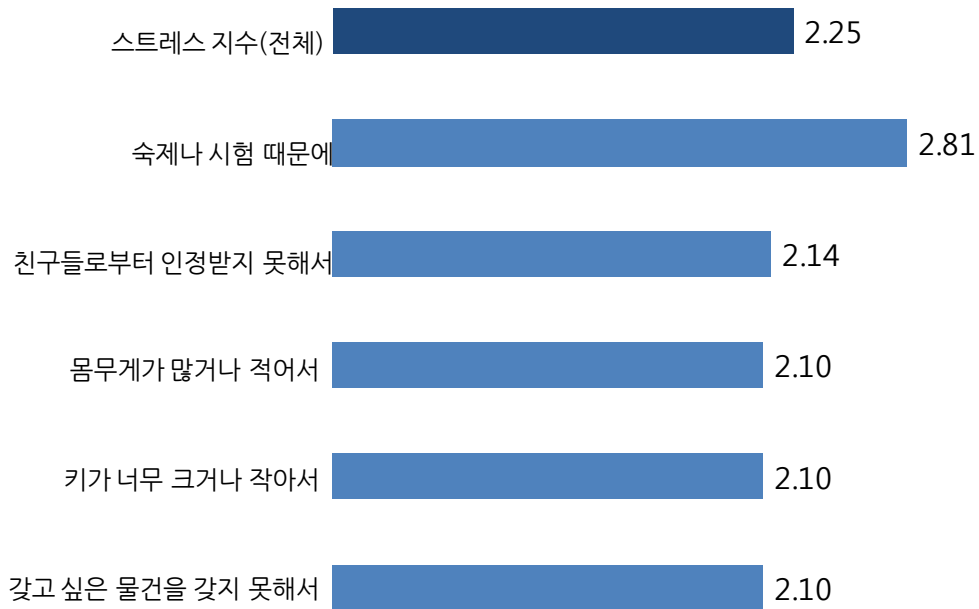
취약계층아동들의 자아탄력성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호기심이 많다’와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만이 낮아졌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항목이 전년대비 평균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낮아진 항목에 대해 좀더 주의를 기울여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스트레스 지수

(1) 2차년도 조사결과

취약계층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5가지로 측정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 요인 5개 항목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2.25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항목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반해 ‘숙제나 시험 때문에’(2.81)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모색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5점 평균)



【그림 V-32】 스트레스 지수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60 전년도비교: 스트레스 지수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2.25	2.27	-0.02	0.044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27	2.29	-0.02	0.907
	방과후아카데미	2.31	2.27	0.04	
	아동양육시설	2.15	2.20	-0.05	

† p<0.1 *p<0.05 **p<0.01 ***p<0.001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평균과 시설별평균에 있어 전년도 대비 소폭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숙제나 시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전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와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61 전년도비교: 스트레스 지수(항목별)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스트레스 지수	숙제나 시험 때문에	2.86	2.81	0.05	4.895*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2.14	2.25	-0.11	23.517***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2.10	2.08	0.02	0.257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2.10	1.99	0.11	.404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2.10	2.17	-0.07	21.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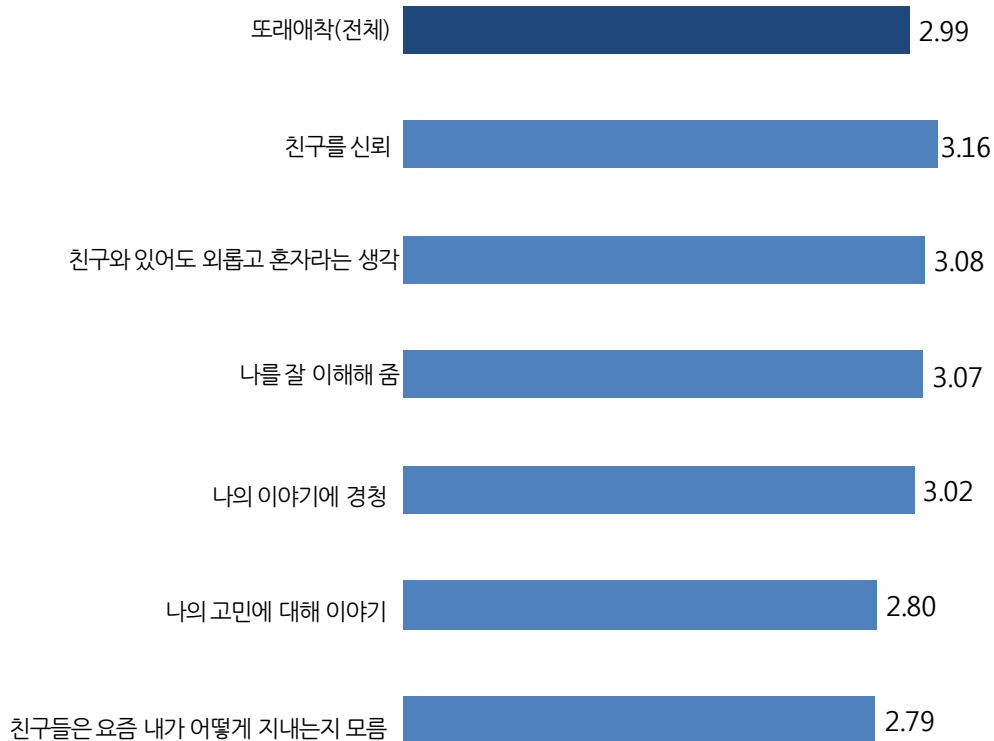
† p<0.1 *p<0.05 **p<0.01 ***p<0.001

4)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2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문항이다. 취약계층아동의 또래친구들과의 애착관계를 6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해석상 역코딩이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4점 만점으로 환산한 또래애착감 전체 평균 점수는 2.99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친구를 신뢰', '친구와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 '나를 잘 이해해 줌', '나의 이야기에 경청'은 상대적으로 높은 애착을 보인 반면 '나에 고민에 대해 이야기'와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름'의 항목들은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또래애착이 깊이 있게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4점 평균)



【그림 V-33】 또래애착

구분		평균	T/F값
전체		2.99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95	4.553**
	방과후아카데미	3.08	
	아동양육시설	3.01	
성별	남자	2.98	.587
	여자	2.99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2.97	.923
	차상위	2.94	
	사각지대	3.02	
	사각지대 이상	3.01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2.97	.355
	한부모	2.98	
	조손가정	3.03	
	기타	3.11	

· †p<0.1 *p<0.05 **p<0.01 ***p<0.001

이용시설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이 3.01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2.9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5)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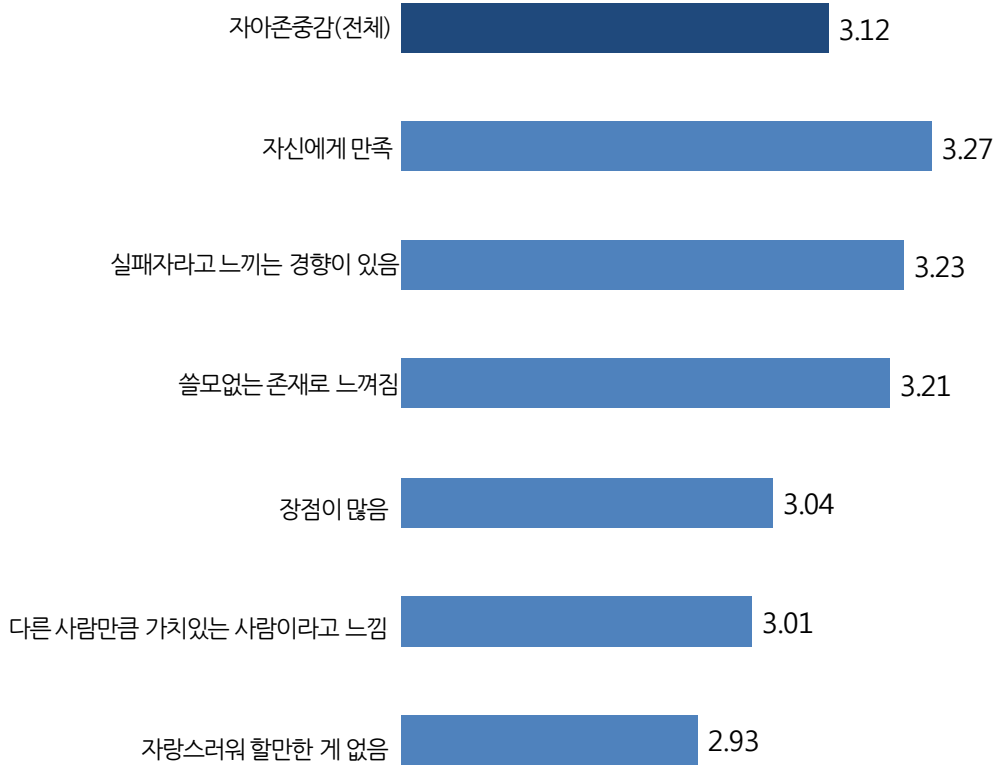
자아존중감은 2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문항이다. 취약계층 아동패널의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6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해석상 역코딩이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4점 만점으로 환산한 자아 존중감 전체 평균 점수는 3.12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만족’,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짐’ 등이 전체평균 대비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반면 ‘장점이 많음’,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낌’, ‘자랑스러워할만한 게 없음’ 등은 평균점수 보다 낮게 나타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이 3.12

로 평균과 같았고, 지역아동센터가 3.08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또래애착의 경우와 같이 자
아존중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4점 평균)



【그림 V-34】 자아존중감

표 V-63

자아존중감

(4점 평균)

구점평균		평균	T/F값
전체		3.12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08	4.734**
	방과후아카데미	3.23	
	아동양육시설	3.12	
성별	남자	3.15	.698
	여자	3.08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14	.216
	차상위	3.11	
	사각지대	3.12	
	사각지대 이상	3.09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10	.899
	한부모	3.15	
	조손가정	3.02	
	기타	3.06	

· †p<0.1 *p<0.05 **p<0.01 ***p<0.001

6)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1) 2차년도 조사결과

양육시설을 제외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패널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개 항목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해석상 역코딩이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전체 평균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3.14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나 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와 '잘못했을 때 정도이상으로 혼내심'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N=801, 단위: 4점 평균)



【그림 V-35】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64 전년도비교: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공통항목만)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2.81	2.54	0.27	28.786***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81	2.52	0.29	50.421***
	방과후아카데미	2.81	2.59	0.22	

† p<0.1 *p<0.05 **p<0.01 ***p<0.001

부모양육태도 관련 항목은 전년도 항목과 달라져, 공통항목으로만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취약아동패널의 인식은 전년도 대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모두 전년대비 인식이 개선되었다.

표 V-65

전년도비교: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공통항목만)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부모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	1.71	1.89	-0.18	28.631***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음	3.28	3.08	0.20	13.799***
	아프면 적절하게 치료받게 함	3.44	3.58	-0.14	.232

† p<0.1 *p<0.05 **p<0.01 ***p<0.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음’ 항목은 전년대비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인식 평균이 높아졌으나,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과 ‘아프면 적절하게 치료받게 함’ 항목의 긍정인식 평균은 전년대비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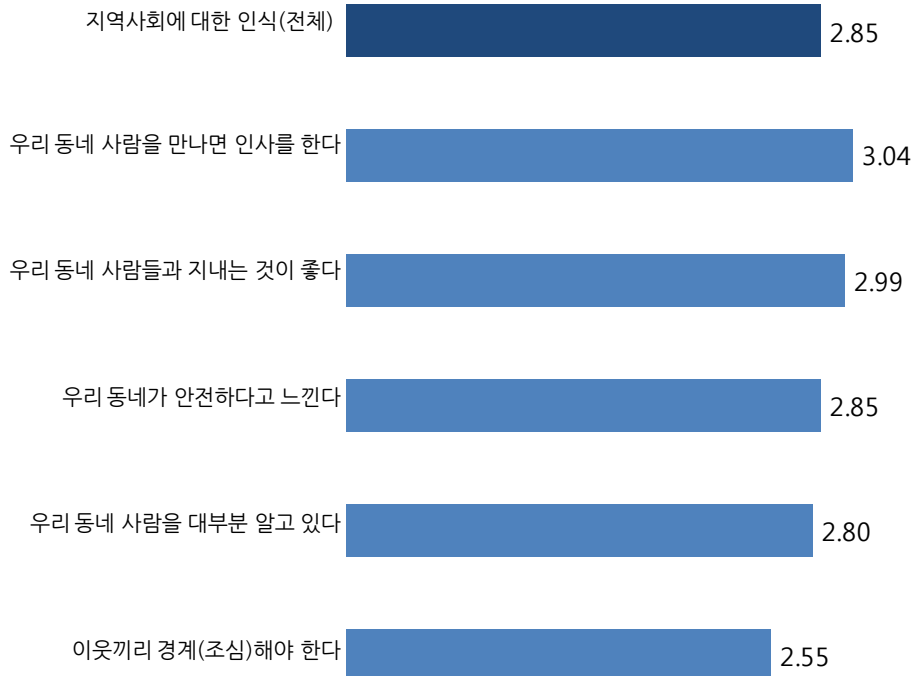
7)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1) 2차년도 조사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취약계층아동의 인식을 5개 항목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해석상 역코딩이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전체 평균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2.85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와 ‘우리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항목의 인식이 평균대비 높게 나타났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4점 평균)



【그림 V-36】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66 전년도비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공통항목만) (4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2.85	2.91	-0.06	1.57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2.85	2.95	-0.1	8.948***
	방과후아카데미	2.92	3.01	-0.09	
	아동양육시설	2.79	2.71	0.08	

† p<0.1 *p<0.05 **p<0.01 ***p<0.00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은 전년도 항목에서 1개 항목이 제외되어, 공통항목으로만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취약계층아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전년도 대비 다소 나빠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반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전년대비 좋아졌다.

표 V-67 전년도비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공통항목만) (4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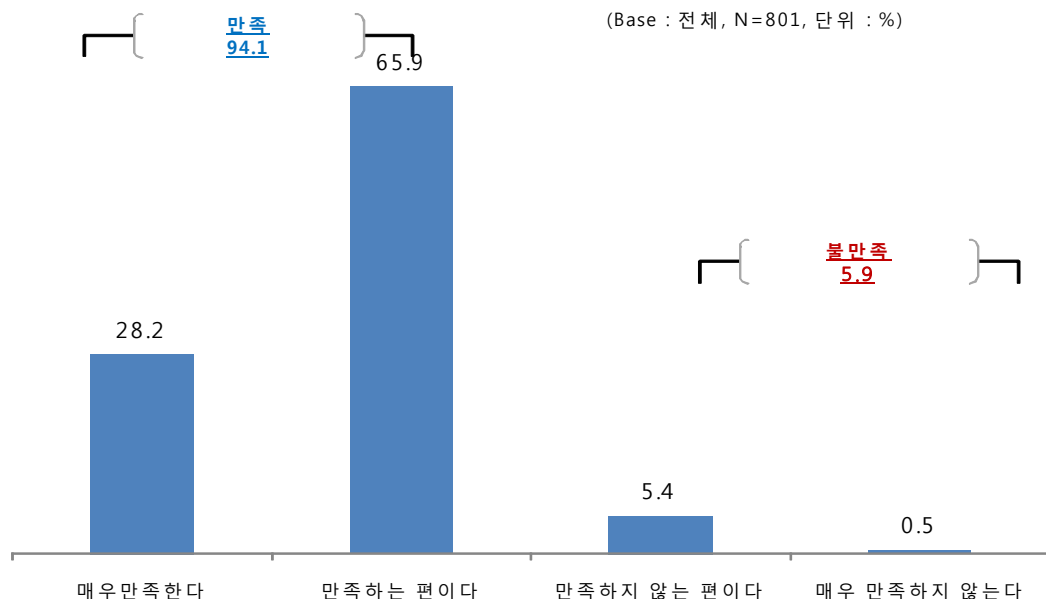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우리 동네 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다	2.80	2.78	0.02	25.762***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3.04	3.14	-0.10	13.671***
	이웃끼리 경계(조심)해야 한다	2.55	2.64	-0.09	16.207***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2.85	2.94	-0.09	0.013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2.99	3.07	-0.08	37.185***

† p<0.1 *p<0.05 **p<0.01 ***p<0.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 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다’ 항목이 전년 조사 대비 평균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전년 평균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일상생활 만족도

취약아동패널의 일상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응답받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94.1%(매우만족: 28.2+ 만족하는 편:65.9)로 나타나 패널의 대부분이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4점 평균으로 산출하면 3.2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V-37】 일상적 삶에 대한 만족도

7. 시설 및 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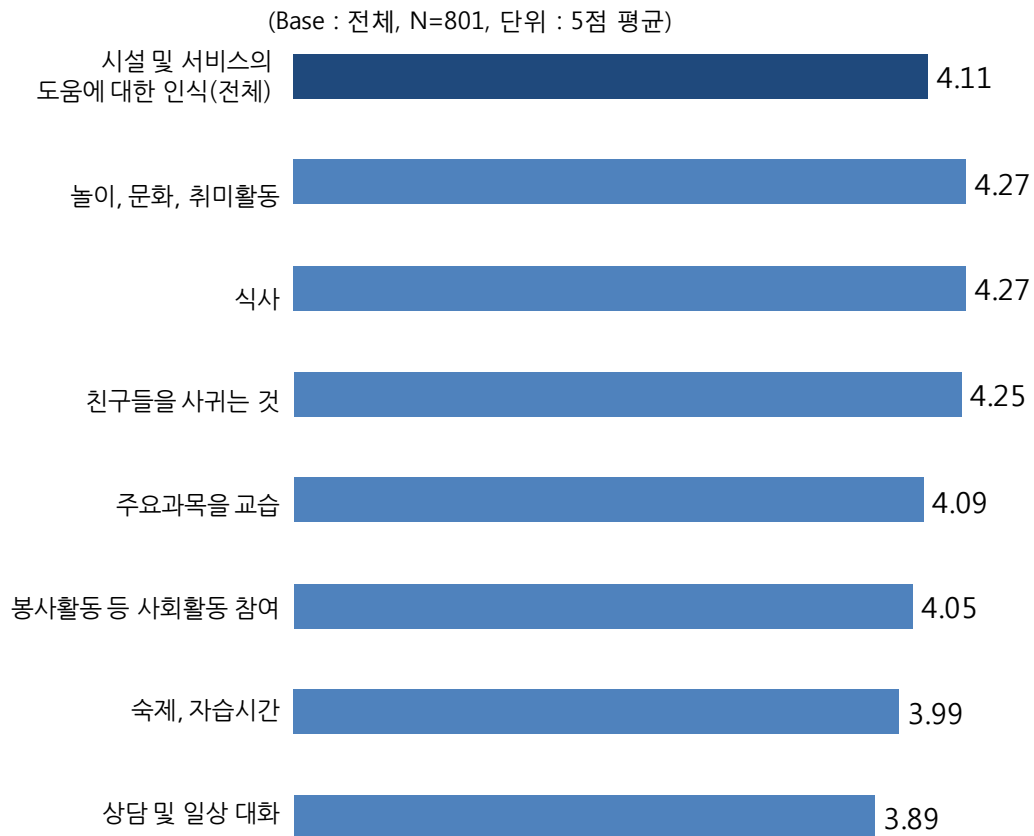
1) 시설활동 만족도

(1) 2차년도 조사결과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학습이나 일상생활에 얻는 도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매우 도움이 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 중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어 해당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인식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4.11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놀이, 문화, 취미활동’(4.27), ‘식사’(4.27), ‘친구들을 사귀는 것’(4.25) 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요과목 교습’(4.09), ‘숙제,

자습시간(3.99) 등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와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담 및 일상대화’(3.89)는 점수가 가장 낮아 상담활동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38】 시설활동 만족도

시설유형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4.27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이 4.21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4.03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세 시설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양친가정보다 시설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8

시설활동의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평균	T/F값
전체		4.11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03	11.128***
	방과후아카데미	4.27	
	아동양육시설	4.21	
성별	남자	4.08	.582
	여자	4.13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4.13	1.802
	차상위	4.09	
	사각지대	4.11	
	사각지대 이상	4.02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4.04	2.548*
	한부모	4.14	
	조손가정	4.19	
	기타	4.52	

· †p<0.1 *p<0.05 **p<0.01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69

전년도비교: 시설활동 만족도

(점)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5점 평균]			
전체		4.11	4.06	0.05	8.469*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03	4.00	0.03	6.782***
	방과후아카데미	4.27	4.19	0.08	
	아동양육시설	4.21	4.11	0.10	

† p<0.1 *p<0.05 **p<0.01 ***p<0.001

시설활동에 대한 취약계층아동의 만족도는 전년 평균대비 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모든 시설에서 전년 대비 활동만족도가 높아졌다. 아동양육시설과 방과후아카데미가 비교적 많이 상승한데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0.3점만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구분		5점 평균		GAP	F값
		2차년도	1차년도		
시설 및 서비스 도움에 대한 인식	숙제, 자습시간	3.99	4.00	-0.01	11.109**
	주요과목을 교습	4.09	4.09	0.00	24.890***
	놀이, 문화, 취미활동	4.27	4.20	0.07	12.655***
	상담 및 일상 대화	3.89	3.81	0.08	23.408***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	4.05	3.88	0.17	246.986***
	친구들을 사귀는 것	4.25	4.14	0.11	26.836***
	식사	4.27	4.25	0.02	16.280***

† p<0.1 * p<0.05 ** p<0.01 *** p<0.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거의 전 항목의 평균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 ‘친구들을 사귀는 것’등의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하였으며, 다음으로 ‘놀이, 문화, 취미활동’과 ‘상담 및 일상대화’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주요과목 교습’은 변동이 없었으며, ‘숙제, 자습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시설아동들이 학업능력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지도자 만족도

(1) 2차년도 조사결과

다음으로 각 시설을 이용하면서 패널들이 느끼는 시설종사자, 즉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음’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3.96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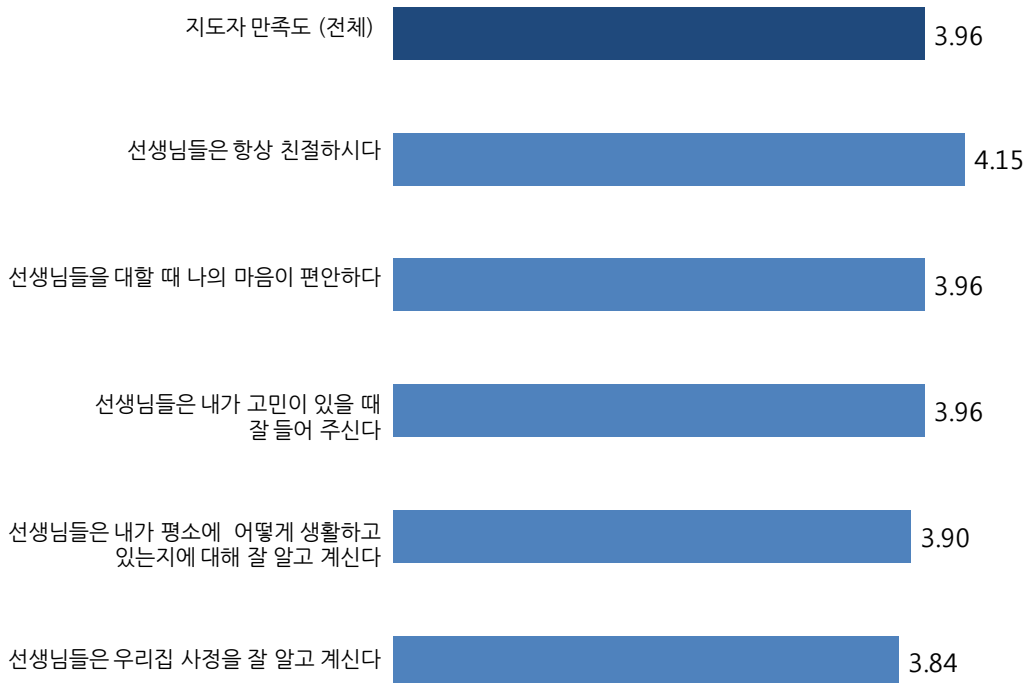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시다’(4.15),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하다’(3.96),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3.96)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3.90), ‘선생님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3.84)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취약계층아동과 시설종사자들과의 관계가 자신들과 생활과 사정을 잘 알 정도로 긴밀한 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아카데미가 4.09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는 3.8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동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종사자들의 시설별 근무여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시설종사자 대상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양친이 있는 아동들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아동보다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양친이 있는 가정의 아동보다 가정의 돌봄기능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종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5점 평균)



【그림 V-39】 지도자 만족도

표 V-71

지도자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3.96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87	11.446***
	방과후아카데미	4.09	
	아동양육시설	4.14	
성별	남자	3.95	.061
	여자	3.97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97	1.339
	차상위	3.93	
	사각지대	3.92	
	사각지대 이상	3.82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88	2.683*
	한부모	3.94	
	조손가정	4.25	
	기타	4.13	

· † p<0.1 *p<0.05 **p<0.01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72

전년도비교: 지도자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3.96	3.92	0.04	22.932***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87	3.82	0.05	11.673***
	방과후아카데미	4.09	3.93	0.16	
	아동양육시설	4.14	4.24	-0.10	

† p<0.1 *p<0.05 **p<0.01 ***p<0.001

취약아동패널의 지도자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다소 상승하였다. 시설별로는 양육시설의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표 V-73

전년도비교: 지도자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지도자 만족도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3.96	3.99	-0.03	22.449***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시다	4.15	4.15	0.00	10.212**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3.90	3.75	0.15	19.503***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3.84	3.65	0.19	39.251***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3.96	3.99	-0.03	58.291***

† p<0.1 *p<0.05 **p<0.01 ***p<0.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항목의 만족도가 전년 조사대비 높아졌다. 반면에 ‘선생님들을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와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3) 시설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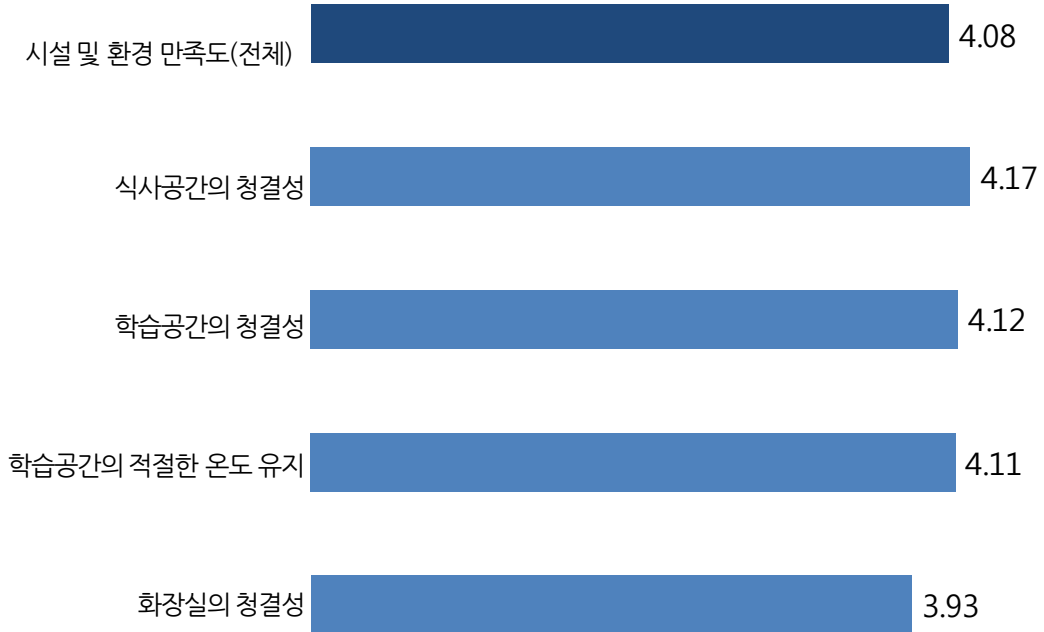
(1) 2차년도 조사결과

다음으로 각 시설을 이용하면서 패널들이 느끼는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매우그렇다’, ‘그런 편’,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음’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4.08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식사공간의 청결성’(4.17), ‘학습공간의 청결성’(4.12)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화장실의 청결성’(3.93)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시설환경 만족도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4.24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아카데미가 4.14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4.02로 평균보다도 낮고, 세 시설 중 가장 낮았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5점 평균)



【그림 V-40】 시설 및 환경 만족도

표 V-74 시설환경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평균	F값
전체		4.08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02	6.905***
	방과후아카데미	4.14	
	아동양육시설	4.24	

· † p<0.1 * p<0.05 ** p<0.01 ***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표 V-75 전년도비교: 시설환경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4.08	4.05	0.03	20.128***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4.02	4.00	0.02	4.211**
	방과후아카데미	4.14	3.98	0.16	
	아동양육시설	4.24	4.26	-0.02	

† p<0.1 *p<0.05 **p<0.01 ***p<0.001

시설환경에 대한 취약계층아동의 전체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높아졌다. 시설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의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였다.

표 V-76 전년도비교: 시설환경 만족도 (5점 평균)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시설 환경 만족도	학습공간의 청결성	4.12	4.14	-0.02	23.403***
	학습공간의 적절한 온도유지	4.11	4.04	0.07	13.570***
	화장실의 청결성	3.93	3.82	0.11	33.883***
	식사공간의 청결성	4.17	4.18	-0.01	15.176***

†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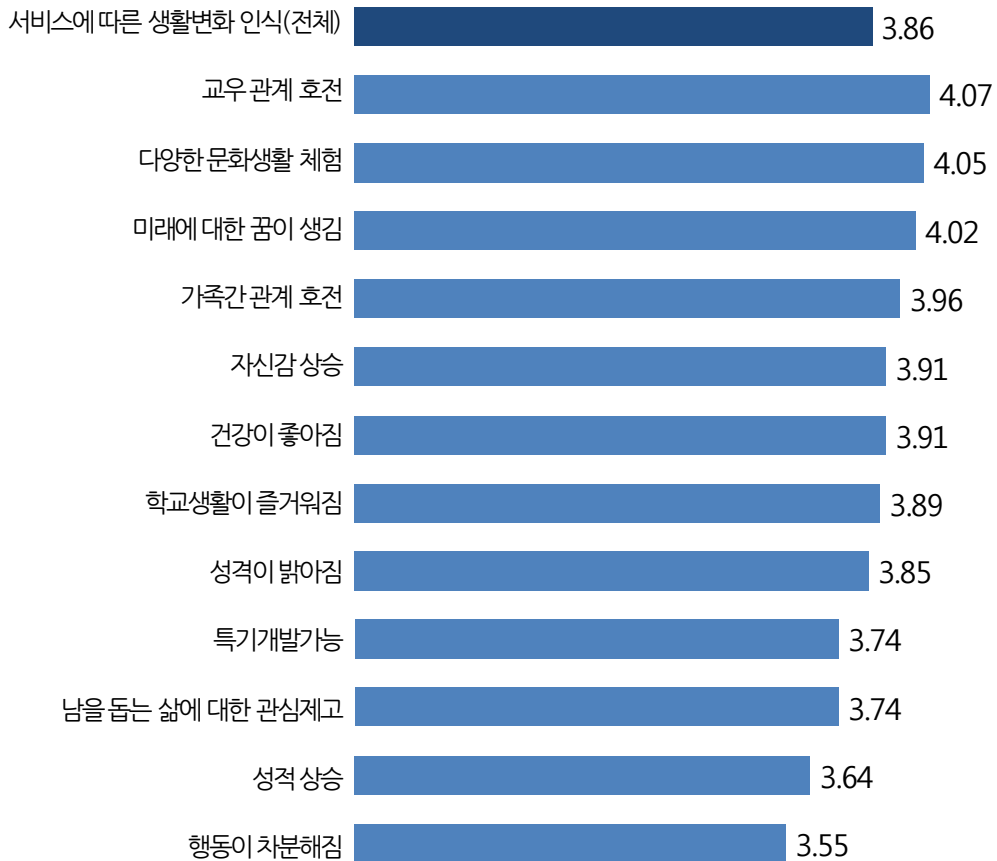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습공간의 적절한 온도유지’와 ‘화장실의 청결성’ 항목이 전년 조사 대비 평균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학습공간의 청결성’과 ‘식사공간의 청결성’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평균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1) 2차년도 조사결과

시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학습 및 학교생활, 일상적인 생활 등 12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파악하였다.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편’, ‘전혀 그렇지 않음’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 중 ‘가족관계 호전’ 등 양육시설 패널의 경우 해당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인식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3.86점이었다.

(Base : 전체, N=801, 단위 : 5점 평균)



【그림 V-41】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교우관계 호전’,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 미래에 대한 꿈이 생김’, ‘가족 간 관계 호전’ 항목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서비스로 인해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이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들이 4.04로 가장 높았고, 아동양육시설(3.98)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아동센터는 3.77로 평균보다 낮고 세 시설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77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5점 평균)

구분		평균	T/F값
전체		3.86	-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77	13.528***
	방과후아카데미	4.04	
	아동양육시설	3.98	
성별	남자	3.88	.001
	여자	3.85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	3.83	.475
	차상위	3.87	
	사각지대	3.83	
	사각지대 이상	3.79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있음	3.81	1.412
	한부모	3.86	
	조손가정	3.84	
	기타	4.29	

· †p<0.1 *p<0.05 **p<0.01 ***p<0.001

(2) 1-2차년도 비교결과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모든 시설에서 전년 대비 서비스로 인해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정도가 다소 줄어들었다.

표 V-78

전년도비교: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인식

(점)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전체		3.86	3.96	-0.10	18.027***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3.77	3.92	-0.15	7.861***
	방과후아카데미	4.04	4.07	-0.03	
	아동양육시설	3.98	4.00	-0.02	

† p<0.1 *p<0.05 **p<0.01 ***p<0.001

표 V-79

전년도비교: 서비스에 따른 생활변화 인식

(점)

구분		2차년도	1차년도	GAP	F값
서비스에 따른 생활변화 인식	성적 상승	3.64	3.81	-0.17	8.202**
	학교생활이 즐거워짐	3.89	4.03	-0.14	5.081*
	자신감 상승	3.91	4.01	-0.10	3.290†
	가족간 관계 호전	3.96	4.15	-0.19	2.570
	교우 관계 호전	4.07	4.19	-0.12	21.650***
	행동이 차분해짐	3.55	3.73	-0.18	11.631**
	성격이 밝아짐	3.85	3.94	-0.09	6.081*
	건강이 좋아짐	3.91	4.08	-0.17	9.817**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	4.05	4.00	0.05	20.745***
	특기개발가능	3.74	3.77	-0.03	29.135***
	남을 돕는 삶에 대한 관심제고	3.74	3.75	-0.01	6.852***
	미래에 대한 꿈이 생김	4.02	4.13	-0.11	20.812***

† p<0.1 *p<0.05 **p<0.01 ***p<0.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 항목이 전년 조사 대비 높아진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전년 평균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비교 분석

1. 비교분석 개요
2. 가족배경 요인
3. 일상생활 실태
4. 신체적 발달
5. 인지적 발달
6. 사회 · 정서적 발달

제 6 장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비교 분석⁴⁹⁾

1. 비교분석 개요

취약계층패널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고 있거나 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생활 실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을 앞서 언급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다. 따라서 취약계층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일상적인 생활 여건 및 실태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실태를 비교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저소득층 아동과의 비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서비스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12년에 수집된 취약계층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와 2010년도에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취약계층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거나 아동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2년에까지 2년에 걸쳐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1년에 2차년도 자료 수집이 완료되었다. 당초 취약계층패널조사의 설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의 비교는

49)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집필

비록 조사 시점 상 1년의 차이는 있으나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아동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이들과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거주 아동들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정보 등을 사용하여 저소득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는 초·중·고등학교 응답자 부모에게 연소득을 만원 단위로 묻는 질문과 더불어 가구 구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 구성에 관한 문항은 가구원이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선정에 필요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경계값을 사용하였다. 2011년 전국의 전체 가구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위 20%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월소득 201만 3천 9백원을 기준으로(통계청, 2011) 응답자의 가구 월소득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즉 응답자 가구의 월 소득이 전국의 가구 소득분포에서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참여한 2,378명의 학생들 가운데 14.3%에 해당하는 340명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는 양 조사의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집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집단, 아동양육시설 거주 학생집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학생 집단 및 일반 학생집단의 5개 집단을 대상으로 양 조사에 공통으로 포함된 설문 문항들을 중심으로 응답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 가운데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두 해에 걸쳐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변화 추이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범주 변인으로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는 5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차분석과 χ^2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연속 변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Scheffe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두 해에 걸친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범주 변인의 경우에는 %값을, 연속 변인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도표를 구성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2. 가족배경 요인

1) 가족구성 분포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가족구성의 분포는 두 패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50.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57.3%, 일반 가정 아동은 89.7%가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 사람과만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집단 별로 각각 31.9%, 35.2%로 나타났지만,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의 25.4%, 일반 가정의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표 VI-1 가족구성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일반
아버지+어머니	273	71	192	1689
	54.7%	50.0%	57.3%	89.7%
한 부모	159	50	85	32
	31.9%	35.2%	25.4%	1.7%
(한)조부모	14	2	14	2
	2.8%	1.4%	4.2%	.1%
(한)조부모+부모	28	9	11	124
	5.6%	6.3%	3.3%	6.6%
(한)조부모+한 부모	22	7	28	20
	4.4%	4.9%	8.4%	1.1%
기타	3	3	5	16
	.6%	2.1%	1.5%	.8%
계	499	142	335	1883

$\chi^2/df = 738.2/15, p < .001$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정의 경우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패널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절반 정도만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로서 가족구성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차년도와 가족구성 분포 비교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황진구 외, 2011).

2) 부모 교육수준

양 패널의 부모 교육수준에 대한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부모와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일반 가정 부모의 교육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아버지 가운데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3.4%, 6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비율이 75.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의 아버지들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비율은 36.0%에 그치고 있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아버지 교육수준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일반
중학교 졸업 이하	34	5	18	27
	8.9%	7.9%	7.5%	1.4%
고등학교 졸업	245	38	163	645
	64.5%	60.3%	67.6%	34.6%
2~3년제 대학 졸업	44	10	14	205
	11.6%	15.9%	5.8%	11.0%
4년제 대학 졸업	51	10	43	880
	13.4%	15.9%	17.8%	47.2%
대학원 졸업	6	0	3	107
	1.6%	.0%	1.2%	5.7%
계	380(100%)	63(100%)	241(100%)	1,864(100%)

$\chi^2/df = 345.8/12, p < .001$

이러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 분포의 차이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80.3%,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79.7%,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의 경우는 80.5%인 반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의 어머니 가운데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비율은 45.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분포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와 다른 점은 각 집단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VI-3 어머니 교육수준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일반
중학교 졸업 이하	33	7	16	24
	8.0%	8.1%	5.7%	1.3%
고등학교 졸업	298	53	211	823
	72.3%	61.6%	74.8%	44.3%
2~3년제 대학 졸업	43	16	21	258
	10.4%	18.6%	7.4%	13.9%
4년제 대학 졸업	36	9	34	700
	8.7%	10.5%	12.1%	37.7%
대학원 졸업	2	1	0	51
	.5%	1.2%	.0%	2.7%
계	412(100%)	86(100%)	282(100%)	1,856(100%)

$$\chi^2/df = 318.1/12, p < .001$$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취약계층패널의 가정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가정이 가족 구성에서는 물론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구 소득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가구 소득과 자녀의 교육 성취정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아동이 적어도 교육성취라는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3) 부모의 직업유무 분포

조사가 이루어진 당시 부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0.5%에 그친 반면, 나머지 집단에서는 10% 내외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의 학생 응답자들이 초등학교 5학년임을 감안하면, 이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의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기를 이 연령대로 볼 수 있다면, 10% 내외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VI-4 아버지 직업유무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일반
있다	432	134	217	1,859
	87.3%	92.4%	89.7%	99.5%
없다	63	11	25	10
	12.7%	7.6%	10.3%	.5%
계	495(100%)	145(100%)	242(100%)	1,869(100%)

$$\chi^2/df = 188.4/3, p < .001$$

표 VI-5 어머니 직업유무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일반
있다	367	118	171	1,185
	67.6%	67.4%	60.4%	63.6%
없다	176	57	112	677
	32.4%	32.6%	39.6%	36.4%
계	543(100%)	175(100%)	283(100%)	1,862(100%)

$$\chi^2/df = 5.5/3, p > .10$$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약계층패널의 경우에는 67% 정도, 아동·청소년 패널의 경우는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표 VI-5〉).

앞의 결과를 요약하면, 취약계층패널 가운데 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집단과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집단, 그리고 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집단이 가족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직업 유무 등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집단의 경우 나머지 집단에 비해 가족구성에서는 아동이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직업 유무 정도에서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일상생활 실태

1) 결석여부 및 결석일수

양 패널조사에는 아동의 일상생활 가운데 학교 결석 여부 및 결석 사유별 결석일수, 주요 활동별 생활시간, 컴퓨터 사용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 5학년이 된 후에 결석을 한 적이 있는가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I-6〉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6 결석 여부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 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있다	87	24	21	149	762
	17.4%	16.9%	13.1%	44.5%	39.5%
없다	412	118	139	186	1,167
	82.6%	83.1%	86.9%	55.5%	60.5%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152.9/4, p < .001$$

먼저 취약계층패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가운데 17.4%,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16.9%,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13.1%가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은 44.5%, 일반가정 아동은 39.5%가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두 패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두 패널의 아동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가정환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학교 결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동 자신보다는 부모나 보호자가 관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양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비율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등교 혹은 여부(가족행사나 여행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구성이나 부모 교육정도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결석률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가 이용 아동의 보호와 함께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일정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임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은 이러한 서비스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나 성인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VI-7〉은 5개 집단별로 결석 사유별 결석 일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우선 통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유의확률이 .05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족행사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 일반가정의 평균 결석일수가 취약계층패널의 평균 결석일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7 결석 사유별 결석 일수 평균 비교

결석 사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사고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5.25	10.05	8	.095 (p).10)
		방과후아카데미	11.50	6.36	2	
		양육시설	5.00	1.41	2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7.21	9.19	19	

결석 사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패널	일반	8.00	18.46	71	
질병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04	2.88	57	1.973 (p<.10)
		방과후아카데미	2.81	2.86	16	
		양육시설	2.00	2.24	13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70	5.58	113	
		일반	3.21	3.75	544	
가족행사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93	1.00	14	.247 (p>.10)
		방과후아카데미	4.00	4.08	4	
		양육시설	2.00	1.00	3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47	2.19	38	
		일반	3.03	6.17	290	
가기 싫어서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67	0.82	6	.182 (p>.10)
		방과후아카데미	2.00	1.41	2	
		양육시설	1.00	0.00	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29	5.19	7	
		일반	3.29	6.45	21	
기타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60	3.78	5	1.510 (p>.10)
		방과후아카데미	3.00	0.00	2	
		양육시설	10.00	0.00	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3	1.81	7	
		일반	3.69	3.93	36	
총결석일수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45	3.92	87	1.670 (p>.10)
		방과후아카데미	3.92	4.40	24	
		양육시설	3.05	3.15	21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4.67	6.43	149	
		일반	4.47	8.15	760	

2) 학원(과외) 시간

학원 또는 과외에서 지내는 시간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5개 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가는 날에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7.0%, 85.9%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니는 경우에도 수강 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경우가 각각 3%, 0.7%로 대부분 2시간 이하의 시간을 학원이나 과외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절반 가량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닌다고 응답하였으며, 2시간을 초과하여 다니는 경우는 9.4%에 불과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학원(과외) 수강 시간 분포 비교 - 주중 학원(과외) 수강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다니지 않음	384	122	80	86	182
	77.0%	85.9%	50.0%	25.7%	9.4%
1시간 이하	51	13	41	68	317
	10.2%	9.2%	25.6%	20.3%	16.4%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49	6	24	84	556
	9.8%	4.2%	15.0%	25.1%	28.8%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9	0	8	47	508
	1.8%	.0%	5.0%	14.0%	26.3%
3시간 초과	6	1	7	50	366
	1.2%	.7%	4.4%	14.9%	19.0%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1290.1/16, p < .001$$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모두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비율이 취약계층패널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 가운데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는 비율은 10% 이하에 불과하다. 학원이나 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45.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4개 집단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표 VI-9 학원(과외) 수강 시간 분포 비교 - 주말 학원(과외) 수강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다니지 않음	487	139	142	294	1,582
	97.6%	97.9%	88.8%	87.8%	82.0%
1시간 이하	4	2	8	14	128
	.8%	1.4%	5.0%	4.2%	6.6%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4	1	9	13	140
	.8%	.7%	5.6%	3.9%	7.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4	0	0	12	52
	.8%	.0%	.0%	3.6%	2.7%
3시간 초과	0	0	1	2	27
	.0%	.0%	.6%	.6%	1.4%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110.5/16, p < .001$$

학교 가지 않는 날에 학원이나 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의 경우는 학교 가는 날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주말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령 받더라도 2시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패널의 경우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들 가운데 주말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7.8%와 82.0%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의 학원(과외)참여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주중의 학원(과외) 참여 비율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훨씬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많은 경우 주중에, 즉 학교 가는 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중과 주말에 학원이나 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합산하여 총 학원(과외) 시간을 산출하여, 그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VI-10>에 나타난 결과는 주중 학원(과외)시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원(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말 보다는 주중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가정,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이나 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앞의 학원(과외) 참여 비율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0 학원(과외) 수강 시간 분포 비교 - 총 학원(과외) 수강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다니지 않음	383	122	78	85	180
	76.8%	85.9%	48.8%	25.4%	9.3%
1시간 이하	49	12	33	58	274
	9.8%	8.5%	20.6%	17.3%	14.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48	6	24	85	504
	9.6%	4.2%	15.0%	25.4%	26.1%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8	1	15	47	452
	1.6%	.7%	9.4%	14.0%	23.4%
3시간 초과	11	1	10	60	519
	2.2%	.7%	6.3%	17.9%	26.9%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1278.5/16, p < .001$$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청소년패널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가 사교육의 대체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해당 시설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 학습을 받고 있다. 또한 학원이나 과외도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설 이용시간과 겹치게 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시설에 다니는 것으로 학원에 다니는 것을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들 가운데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는 비율이 취약계층패널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일반가정의 경우보다는 높다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 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 일반 가정의 아동과 같은 수준의 사교육을 받게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 비율이나 시간에서 일반 가정 아동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I-11 학원(과외) 평균 수강시간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주중 수강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a	1.62	.86	115	19.9*** d)a e)a,b,c,d
		방과후아카데미b	1.29	.69	20	
		양육시설c	1.82	1.32	8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d	2.16	1.21	249	
		일반e	2.41	1.25	1,747	
주말 수강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92	.93	12	.169
		방과후아카데미	1.33	.58	3	
		양육시설	1.76	1.85	18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3	1.02	41	
		일반	1.82	1.13	347	
총수강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80	1.21	116	15.2*** d)a e)a,b,c
		방과후아카데미	1.49	1.12	20	
		양육시설	2.16	2.11	8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45	1.58	250	
		일반	2.77	1.67	1749	

*** $p < .001$

〈표 VI-11〉은 학원이나 과외 등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원 또는 과외 등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주중 수강시간과 총 수강시간의 2개 변수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중 수강시간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이 나머지 집단의 아동들보다 수강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총 수강시간에서는 일반 가정 아동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보다 수강시간이 길었다. 반면에 저소득층 아동과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원이나 과외 등을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교육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 독서시간

다음으로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에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양육시설 거주 학생들의 경우 주중에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3%, 10.7%로 다른 3개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독서 시간 분포 비교 - 주중 독서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78	16	17	63	271
	15.9%	11.3%	10.7%	18.8%	14.0%
1시간 이하	336	103	117	217	1,321
	68.4%	73.0%	73.6%	64.8%	68.5%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69	21	20	38	240
	14.1%	14.9%	12.6%	11.3%	12.4%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6	0	2	13	76
	1.2%	.0%	1.3%	3.9%	3.9%
3시간 초과	2	1	3	4	21
	.4%	.7%	1.9%	1.2%	1.1%
계	491(100%)	141(100%)	159(100%)	335(100%)	1,929(100%)

$$\chi^2/df = 30.9/16, p < .05$$

반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서 시간과 관련하여 5개 집단 모두 주중에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데 보낸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13 독서 시간 분포 비교 - 주말 독서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186	41	39	90	429
	38.6%	29.1%	24.8%	26.9%	22.2%
1시간 이하	234	78	96	192	1,083
	48.5%	55.3%	61.1%	57.3%	56.1%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50	19	13	35	282
	10.4%	13.5%	8.3%	10.4%	14.6%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8	3	5	11	96
	1.7%	2.1%	3.2%	3.3%	5.0%
3시간 초과	4	0	4	7	39
	.8%	.0%	2.5%	2.1%	2.0%
계	482(100%)	141(100%)	157(100%)	335(100%)	1,929(100%)

$$\chi^2/df = 76.3/16, p < .001$$

주말의 경우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중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별 차이는 주중 독서 시간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주말에 독서를 하더라도 1시간 미만인 경우가 주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시간 이하인 경우가 5개 집단 모두 가장 많았으며, 독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패널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중 독서 시간이 주말 독서시간보다 더 많을수도 있겠지만,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말보다 주중에 독서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 원인으로 학교 수업 혹은 숙제와 관련하여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독서하는 시간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VI-14 독서 시간 분포 비교 - 총 독서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66	15	13	53	208
	13.7%	10.6%	8.3%	15.8%	10.8%
1시간 이하	203	53	56	123	694
	42.1%	37.6%	35.7%	36.7%	36.0%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32	49	64	98	573
	27.4%	34.8%	40.8%	29.3%	29.7%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44	13	7	25	228
	9.1%	9.2%	4.5%	7.5%	11.8%
3시간 초과	37	11	17	36	226
	7.7%	7.8%	10.8%	10.7%	11.7%
계	482(100%)	141(100%)	157(100%)	335(100%)	1,929(100%)

 $\chi^2/df = 41.8/16, p < .001$

주중과 주말의 독서시간을 합산하여 총 독서시간을 산출하고 그 분포를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표 VI-14>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을 합하여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 독서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가 취약계층패널에서는 70%를 상회한 반면, 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65% 정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총 독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다른 4개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일반 가정 아동들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별 독서시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VI-15>에 따르면, 주중 독서시간의 평균값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주말 독서시간과 총 독서시간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특히 주말 독서시간과 총 독서시간에서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가정 아동의 독서시간이 나머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15 평균 독서시간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주중 독서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77	.64	491	1.05
		방과후아카데미 ^b	.82	.76	141	
		양육시설 ^c	.90	.73	15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78	.83	335	
		일반 ^e	.83	.79	1,929	
주말 독서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62	.73	482	9.2*** e)a
		방과후아카데미	.67	.68	141	
		양육시설	.79	.89	157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76	.92	335	
		일반	.87	.94	1,929	
총독서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39	1.22	482	4.8** e)a
		방과후아카데미	1.49	1.17	141	
		양육시설	1.69	1.45	157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54	1.61	335	
		일반	1.70	1.56	1,929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원이나 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중의 경우와 달리 주말에는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컴퓨터나 게임 등으로 노는 시간

취약계층패널조사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는 컴퓨터나 게임기를 갖고 노는 시간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의 정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교 5학년들의 컴퓨터나 게임기 등의 사용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이다.

우선 주중에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 가운데 양육시설 아동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이 각각 26.9%,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과 일반가정 아동들은 각각 16.1%, 18.8%로 나타나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 가운데 주중에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나 게임기로 놀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기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컴퓨터나 게임기를 갖고 노는 경우 1시간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개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6.6%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나 게임기에 접근이 가능한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I-16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 분포 비교(주중)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132	38	57	54	362
	26.9%	26.8%	37.3%	16.1%	18.8%
1시간 이하	253	86	89	155	1076
	51.5%	60.6%	58.2%	46.3%	55.8%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78	14	7	89	351
	15.9%	9.9%	4.6%	26.6%	18.2%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19	4	0	26	102
	3.9%	2.8%	.0%	7.8%	5.3%
3시간 초과	9	0	0	11	38
	1.8%	.0%	.0%	3.3%	2.0%
계	491(100%)	142(100%)	153(100%)	335(100%)	1,929(100%)

$$\chi^2/df = 105.5/16, p < .001$$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게임기 등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지만, 설령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따른 여가 시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컴퓨터나 게임기에 접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주말에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주말에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중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중에 비해 주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용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주말 사용시간이 주중 사용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이라는 특성상 부모들이 자녀의 컴퓨터나 게임기에 대한 접근을 더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I-17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 분포 비교(주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132	35	58	35	152
	27.2%	24.6%	36.3%	10.4%	7.9%
1시간 이하	182	64	84	104	793
	37.5%	45.1%	52.5%	31.0%	41.1%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06	28	11	95	571
	21.9%	19.7%	6.9%	28.4%	29.6%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8	12	4	62	246
	7.8%	8.5%	2.5%	18.5%	12.8%
3시간 초과	27	3	3	39	167
	5.6%	2.1%	1.9%	11.6%	8.7%
계	485(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299.3/16, p < .001$$

이에 비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주말에 컴퓨터나 게임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중의 경우와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수치는 컴퓨터나 게임기 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보다는 접근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8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시간 분포 비교(총 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85	17	41	23	102
	17.6%	12.0%	26.8%	6.9%	5.3%
1시간 이하	108	43	56	41	368
	22.4%	30.3%	36.6%	12.2%	19.1%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22	41	41	85	563
	25.3%	28.9%	26.8%	25.4%	29.2%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79	23	8	55	366
	16.4%	16.2%	5.2%	16.4%	19.0%
3시간 초과	89	18	7	131	530
	18.4%	12.7%	4.6%	39.1%	27.5%
계	483(100%)	142(100%)	153(100%)	335(100%)	1,929(100%)

$$\chi^2/df = 260.8/16, p < .001$$

주중과 주말에 컴퓨터나 게임기로 노는 시간을 합산하여 총 시간을 산출하고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한 주간 동안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과 일반가정이 각각 6.9%와 5.3%로 나타났다. 취약계층패널에서의 컴퓨터나 게임기 사용을 통해 놀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은 컴퓨터나 게임기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패널에서 그 비율이 7%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5학년들이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여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의 경우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여 노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일반 가정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수치이며, 취약계층패널 아동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가구 구성 및 부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9 컴퓨터나 게임기 등으로 노는 평균 시간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주중 노는 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a	.87	.89	491	23.6*** a,e>c d)a,b,c,e
		방과후아카데미b	.74	.68	142	
		양육시설c	.47	.50	153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d	1.24	1.10	335	
		일반e	.96	.87	1,929	
주말 노는 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20	1.32	485	40.0*** a>c e)a,b,c d)a,b,c,e
		방과후아카데미	1.06	1.00	142	
		양육시설	.67	.83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8	1.52	335	
		일반	1.63	1.27	1,929	
총노는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07	2.02	483	38.1*** a>c e)a,b,c d)a,b,c,e
		방과후아카데미	1.80	1.46	142	
		양육시설	1.14	1.21	153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12	2.44	335	
		일반	2.59	1.92	1,929	

*** p < .001

컴퓨터와 게임기를 사용하여 주중과 주말에 노는 시간과 이를 합산한 총 시간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도 앞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3개의 변수 모두 양육시설 아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아동·청소년패널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주말 및 총 평균 시간 취약계층패널보다 높았으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이 주말 및 전체 시간은 물론 주중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게임기를 갖고 노는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컴퓨터 사용 실태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은 평범한 일상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집단별 컴퓨터 사용 여부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패널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95.9%가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93.1%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취약계층패널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85.4%,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89.4%였고, 양육시설 아동은 80.6%로 나타남으로써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의 경우 컴퓨터에의 접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20 컴퓨터 사용 여부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사용한다	426	127	129	312	1,850
	85.4%	89.4%	80.6%	93.1%	95.9%
사용하지 않는다	73	15	31	23	79
	14.6%	10.6%	19.4%	6.9%	4.1%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106.9/4, p < .001$$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상당수가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수치는 아동·청소년패널에서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 보다 높았다.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VI-21〉).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육시설 아동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아동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아동들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21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주중)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51	19	26	27	228
	12.0%	15.0%	20.2%	8.7%	12.3%
1시간 이하	252	85	93	154	1,088
	59.2%	66.9%	72.1%	49.5%	58.9%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86	15	9	86	389
	20.2%	11.8%	7.0%	27.7%	21.0%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25	8	1	34	104
	5.9%	6.3%	.8%	10.9%	5.6%
3시간 초과	12	0	0	10	39
	2.8%	.0%	.0%	3.2%	2.1%
계	426(100%)	127(100%)	129(100%)	311(100%)	1,848(100%)

$\chi^2/df = 71.3/16, p < .001$

주말의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분포는 주중 사용시간 분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VI-22〉).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전반적으로 주말에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5개 집단 모두에 걸쳐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하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진 반면, 1~2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1~2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중에는 21%였으나 주말에는 33.2%로 증가하였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중 7.7%에서 주말에는 14.1%로 증가하였다. 이는 컴퓨터나 게임기로 노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주중에 비해 주말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더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주말에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주말에 2시간 이상을 컴퓨터 사용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22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주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하지 않음	48	13	26	6	47
	11.3%	10.2%	20.2%	1.9%	2.5%
1시간 이하	182	61	80	95	741
	42.7%	48.0%	62.0%	30.4%	40.1%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19	30	17	95	615
	27.9%	23.6%	13.2%	30.4%	33.2%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44	20	5	68	280
	10.3%	15.7%	3.9%	21.8%	15.1%
3시간 초과	33	3	1	48	167
	7.7%	2.4%	.8%	15.4%	9.0%
계	426(100%)	127(100%)	129(100%)	312(100%)	1,850(100%)

 $\chi^2/df = 232.7/16, p < .001$

표 VI-23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총 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1시간 이하	107	39	66	33	307
	25.1%	30.7%	51.2%	10.6%	16.6%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24	37	44	76	559
	29.1%	29.1%	34.1%	24.4%	30.2%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90	24	11	65	414
	21.1%	18.9%	8.5%	20.9%	22.4%
3시간 초과	105	27	8	137	568
	24.6%	21.3%	6.2%	44.1%	30.7%
계	426(100%)	127(100%)	129(100%)	311(100%)	1,848(100%)

 $\chi^2/df = 170.4/12, p < .001$

주중과 주말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시간을 산출하였고, 그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VI-23>에 따르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양육시설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4>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고 주중과 주말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이 두 변수를 합한 총 컴퓨터 이용시간의 평균값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 그리고 총 컴퓨터 사용시간에 있어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VI-24 컴퓨터 사용시간 분포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주중 컴퓨터 사용 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1.26	.91	375	14.1*** a)c d)a,b,c,e e)c
		방과후아카데미 ^b	1.08	.67	108	
		양육시설 ^c	.81	.47	103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1.46	.91	284	
		일반 ^e	1.19	.81	1,620	
주말 컴퓨터 사용 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71	1.31	378	17.6*** a)c d)a,b,c,e e)c
		방과후아카데미	1.53	.99	114	
		양육시설	1.07	.70	103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18	1.43	306	
		일반	1.84	1.26	1,803	
총 컴퓨터 사용 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63	2.06	426	28.0*** a,b)c e)b,c d)a,b,c,e
		방과후아카데미	2.29	1.62	127	
		양육시설	1.50	1.09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8	2.21	311	
		일반	2.83	1.88	1,848	

*** p < .001

우선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주중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다른 4개의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과 총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의 평균값이 나머지 4개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은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양육시설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에의 접근의 용이성과 부모의 감독 및 통제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컴퓨터 사용 시간이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보다 적은 것은 가정 내 컴퓨터 소유 여부 내지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은 가구 구성이나 부모의 특성 등과 관련하여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I-25 컴퓨터 사용장소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우리 집	378	115	109	284	1,731
	88.9%	90.6%	85.2%	91.0%	93.6%
친구 집	3	1	2	2	12
	.7%	.8%	1.6%	.6%	.6%
학교	12	5	12	3	19
	2.8%	3.9%	9.4%	1.0%	1.0%
학원	1	0	1	1	12
	.2%	.0%	.8%	.3%	.6%
PC방	13	2	3	21	68
	3.1%	1.6%	2.3%	6.7%	3.7%
시설	18	4	1	0	3
	4.2%	3.1%	.8%	.0%	.2%
기타	0	0	0	1	5
	.0%	.0%	.0%	.3%	.3%
계	425(100%)	127(100%)	128(100%)	312(100%)	1,850(100%)

$$\chi^2/df = 144.0/24, p < .001$$

〈표 VI-25〉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접근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 아동에 비해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록 85.2%에 이르지만, 시설에 따라 사용 가능한 컴퓨터의 수가 거주 아동의 수보다 적다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있더라도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수치가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인데 반해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9.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율과 시설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이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4=‘자주 사용한다’의 4점 척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표 VI-26〉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부 및 학습과 관련한 정보검색과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정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게임 및 오락, 채팅이나 메신저, 전자우편,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개인 홈페이지, 온라인 매매, 댓글 달기와 관련한 사용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및 오락과 온라인 매매를 위한 컴퓨터 사용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관련한 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컴퓨터 사용 목적도 학습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게임이나 오락, 또는 온라인 매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이 컴퓨터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성인들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이 학교 수업 후 성인의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도록 하기 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이 성인의 감독하에 일정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5개 집단의 사용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용 빈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6 컴퓨터 사용 목적의 비교

사용 목적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91	0.82	426	10.6*** e>a,d
		방과후아카데미 ^b	3.09	0.85	127	
		양육시설 ^c	2.87	0.88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2.84	0.88	312	
		일반 ^e	3.09	0.81	1,850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76	0.94	426	5.0** b,e>c
		방과후아카데미	2.98	0.83	127	
		양육시설	2.47	1.01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71	1.00	312	
		일반	2.78	0.97	1,850	
게임 및 오락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02	1.00	426	8.8*** d>a,b,c,e e>c
		방과후아카데미	2.87	1.02	127	
		양육시설	2.81	0.97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29	0.84	312	
		일반	3.10	0.91	1,850	
채팅이나 메신저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62	0.93	426	43.5*** d>a,b,c e>a,b,c
		방과후아카데미	1.73	0.93	127	
		양육시설	1.65	0.97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38	1.13	312	
		일반	2.24	1.11	1,849	
전자우편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31	0.62	426	37.2*** d>a,c e>a,b,c
		방과후아카데미	1.50	0.78	127	
		양육시설	1.39	0.76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75	0.93	312	
		일반	1.84	0.96	1,850	

사용 목적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45	0.83	426	42.7*** d)a,c e)a,b,c
		방과후아카데미	1.65	0.94	127	
		양육시설	1.44	0.81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94	1.06	312	
		일반	2.09	1.11	1,849	
개인 홈페이지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56	0.92	426	51.0*** d)a,b,c e)a,b,c
		방과후아카데미	1.69	0.95	127	
		양육시설	1.46	0.80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31	1.18	312	
		일반	2.25	1.17	1,850	
온라인 매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31	0.72	426	27.0*** d)a,b,c,d e)a,b,c
		방과후아카데미	1.39	0.74	127	
		양육시설	1.28	0.65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9	1.09	312	
		일반	1.70	0.99	1,850	
댓글 달기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73	1.02	426	68.9*** d)a,b,c e)a,b,c
		방과후아카데미	1.91	0.98	127	
		양육시설	1.79	1.01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50	1.09	312	
		일반	2.57	1.11	1,850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04	0.23	426	1.5
		방과후아카데미	1.09	0.28	127	
		양육시설	1.02	0.15	129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08	0.41	312	
		일반	1.06	0.31	1,850	

** p < .01, *** p < .001

휴대전화의 소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는 14.4%에 그치고 있어 두 집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시설의 아동에게 휴대폰 구입과 통신비는 정부의 지원에 포함되지 않고, 보호자의 지원이나 개인후원금에서 지불되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시설 아동을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3/4 정도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휴대전화의 SNS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I-27 휴대전화 소지 여부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가지고 있다	354	113	23	260	1,632
	70.9%	79.6%	14.4%	77.6%	84.6%
가지고 있지 않다	145	29	137	75	297
	29.1%	20.4%	85.6%	22.4%	15.4%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437.0/4, p < .001$$

〈표 VI-28〉은 양 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40%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약 30% 정도가,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7.5%만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아동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육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교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아동의 경우 기독교를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로 응답한 비율이 아동·청소년패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육시설의 아동의 경우 그 비율이 거의 85%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이 일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I-28 종교 여부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종교가 없다	145	45	12	137	895
	29.1%	31.7%	7.5%	40.9%	46.4%
불교	29	18	4	54	290
	5.8%	12.7%	2.5%	16.1%	15.0%
개신교(기독교)	307	72	135	126	571
	61.5%	50.7%	84.4%	37.6%	29.6%
천주교(가톨릭)	13	7	9	16	167
	2.6%	4.9%	5.6%	4.8%	8.7%
기타	5	0	0	2	6
	1.0%	.0%	.0%	.6%	.3%
계	499(100%)	142(100%)	160(100%)	335(100%)	1,929(100%)

$$\chi^2/df = 348.0/16, p < .001$$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종교활동에의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개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왔으나,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가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VI-29 종교 참여 빈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저소득층	일반
주1회 미만	52	25	3	75	440
	14.7%	25.8%	2.0%	38.1%	42.6%
주1회 정도	269	65	124	101	488
	76.0%	67.0%	83.8%	51.3%	47.3%
주2회 이상	33	7	21	21	104
	9.3%	7.2%	14.2%	10.7%	10.1%
계	354(100%)	97(100%)	148(100%)	197(100%)	1,032(100%)

$$\chi^2/df = 176.6/8, p < .001$$

4. 신체적 발달

1) 수면시간

신체적 발달과 관련하여 취약계층패널과 아동·청소년패널의 2차년도 조사에는 수면시간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면시간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주중 수면시간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우선 양육시설 아동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의 주중 수면시간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았고,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따른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30 수면시간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주중 수면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8.58	0.90	499	18.4*** c,d>a,b,e e>a
		방과후아카데미 ^b	8.60	1.00	142	
		양육시설 ^c	9.14	0.7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8.94	0.99	335	
		일반 ^e	8.75	0.82	1,929	
주말 수면시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9.25	1.29	499	4.7** d>a
		방과후아카데미	9.28	1.27	142	
		양육시설	9.54	0.98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9.61	1.56	335	
		일반	9.44	1.31	1,928	

** p < .01; *** p < .001

주말 수면시간의 경우에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소득층 아동의 주말 수면시간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31 주관적 건강 평가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건강평가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3.28	0.57	499	2.2a
		방과후아카데미 ^b	3.23	0.54	142	
		양육시설 ^c	3.39	0.57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29	0.65	334	
		일반 ^e	3.33	0.59	1,928	

a < .10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1=‘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에서 4=‘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의 4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5개 집단의 아동들 모두 자신이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관적 평가의 정도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5. 인지적 발달

1)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 비교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에 대해 주관적 평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개 과목에 대해 1=‘매우 못하는 편이다’에서 5=‘매우 잘하는 편이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각 과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VI-32>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유형이 나타나는데, 우선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 과목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이 다른 4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이러한 과목들이 사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과목들이라는 것이다.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학원이나 과외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영어나 수학과 같은 소위 주요 과목들이 사교육의 주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매우 자명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밖에 국어,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양육시설 아동들보다 자신의 학업 성취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체육 과목의 경우에는 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더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I-32 과목별 학업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

과목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국어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3.62	.80	499	16.2*** e)a,d
		방과후아카데미 ^b	3.72	.77	142	
		양육시설 ^c	3.79	.82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70	.91	335	
		일반 ^e	3.92	.83	1,929	
영어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07	1.05	499	69.7*** d)a e)a,b,c,d
		방과후아카데미	3.05	.95	142	
		양육시설	3.10	1.05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32	1.25	335	
		일반	3.82	1.11	1,929	
수학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30	1.00	499	34.6*** d)c e)a,b,c,d
		방과후아카데미	3.35	.92	142	
		양육시설	3.09	1.1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3	1.06	335	
		일반	3.74	1.00	1,929	

과목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과학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28	.81	499	38.1*** e)a,b,c,d
		방과후아카데미	3.43	.83	142	
		양육시설	3.38	.98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2	.96	335	
		일반	3.76	.91	1,929	
사회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09	.98	499	33.8*** e)a,c,d
		방과후아카데미	3.35	.95	142	
		양육시설	3.14	1.08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17	1.12	335	
		일반	3.59	1.04	1,929	
도덕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44	.78	499	8.6*** e)a,d
		방과후아카데미	3.68	.83	142	
		양육시설	3.62	.92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51	1.04	335	
		일반	3.68	.91	1,925	
실과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48	.75	499	11.1*** e)a,d
		방과후아카데미	3.64	.76	142	
		양육시설	3.69	.8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8	.99	334	
		일반	3.73	.92	1,925	
음악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38	.92	499	11.6*** e)a,d
		방과후아카데미	3.49	.84	142	
		양육시설	3.63	1.0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7	1.06	335	
		일반	3.69	1.04	1,926	

과목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미술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44	.91	499	8.2*** c)a,d e)a,d
		방과후아카데미	3.63	.84	142	
		양육시설	3.73	.95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41	1.04	335	
		일반	3.66	1.03	1,926	
체육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91	.94	499	8.0*** c)a,b,d,e
		방과후아카데미	3.77	.91	142	
		양육시설	4.28	.9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83	1.06	335	
		일반	3.99	.98	1,926	

*** p < .001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그리고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보다 자신의 성적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경우에도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보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33 주관적 성적 만족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성적 만족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80	.68	499	17.8*** e)a,c,d
		방과후아카데미 ^b	2.92	.68	142	
		양육시설 ^c	2.82	.79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2.87	.79	335	
		일반 ^e	3.06	.73	1,928	

*** p < .001

6. 사회 · 정서적 발달

1) 학교생활

두 패널조사에는 학교생활을 측정하는 문항들 가운데 모두 8개의 문항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각각 2개 문항씩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여부, 교실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4점 척도로 응답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값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VI-34 학교생활 - 학습활동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86	.71	499
		방과후아카데미 ^b	3.00	.65	142
		양육시설 ^c	3.04	.7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2.82	.77	335
		일반 ^e	2.97	.76	1,929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92	.80	499
		방과후아카데미	3.06	.73	142
		양육시설	2.99	.8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80	.84	335
		일반	3.05	.80	1,929
학습활동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89	.63	499
		방과후아카데미	3.03	.56	142
		양육시설	3.02	.7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81	.65	335
		일반	3.01	.65	1,929

*** $p < .001$

이 가운데 먼저 학교 수업시간을 재미있게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하는지의 여부로 구성된 학습활동의 평균값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및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아동의 평균값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앞의 2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및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열심히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들은 방과후아카데미나 양육시설 아동들보다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정도에 있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교생활에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일정 수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 차례를 잘 지키는가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규칙 준수 여부의 경우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의 평균값이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에 노출된 정도가 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 보다 더 높을 수 있으며, 또한 집단 생활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VI-35 학교생활 - 학교규칙 준수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3.20	.66	499	4.8*** b,c,e)d
		방과후아카데미 ^b	3.30	.60	142	
		양육시설 ^c	3.29	.83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06	.78	335	
		일반 ^e	3.21	.69	1,929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에 차례를 잘 지킨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32	.65	499	12.6*** a,b,c>d,e
		방과후아카데미	3.42	.60	142	
		양육시설	3.37	.7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9	.69	335	
		일반	3.17	.71	1,929	
학교규칙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26	.57	499	9.7*** a,b,c,e>d b>e
		방과후아카데미	3.36	.53	142	
		양육시설	3.33	.7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8	.63	335	
		일반	3.19	.59	1,929	

*** p < .001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에 관한 문항과 친구들과 학업에 필요한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지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5개 집단별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와 두 문항을 합산한 값의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우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과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VI-36 학교생활 - 교우관계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3.33	.64	499	7.2*** c>a,d e>a,d
		방과후아카데미 ^b	3.41	.62	142	
		양육시설 ^c	3.53	.59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29	.71	335	
		일반 ^e	3.44	.66	1,929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17	.67	499	7.9*** b>d c>a,d e>d
		방과후아카데미	3.31	.62	142	
		양육시설	3.37	.68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5	.74	335	
		일반	3.24	.72	1,929	
교우관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25	.54	499	10.5*** b>d c>a,d e>a,d
		방과후아카데미	3.36	.52	142	
		양육시설	3.45	.54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17	.59	335	
		일반	3.34	.57	1,929	

*** $p < .001$

또한 학업에 필요한 도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낮은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문항을 합산한 값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5개 집단을 비교하여 본 결과 담임선생님께 인사하는가의 여부와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한지의 여부를 묻는 2개의 문항을 합산한 평균값에서는 아동·청소년 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값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서는 물론 방과 후에도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 앞서 학교생활과 관련한 문항들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아동들의 학교생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I-37 학교생활 - 교사 관계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23	.68	499
		방과후아카데미	3.26	.59	142
		양육시설	3.30	.7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20	.75	335
		일반	3.34	.66	1,929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90	.80	499
		방과후아카데미	3.00	.67	142
		양육시설	2.93	.8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81	.85	335
		일반	2.95	.81	1,929
교사관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07	.66	499
		방과후아카데미	3.13	.55	142
		양육시설	3.12	.7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0	.72	335
		일반	3.15	.65	1,929

* p < .05; ** p < .01; *** p < .001

2) 또래 관계

취약계층패널조사와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또래와의 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친구와의 의사소통, 신뢰 및 소외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친구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5개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값이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보다 친구들과 더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8 친구 관계 - 의사소통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97	.54	499	7.4*** e)a,d
		방과후아카데미 ^b	3.05	.59	142	
		양육시설 ^c	3.16	.6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01	.78	335	
		일반 ^e	3.13	.70	1,929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75	.78	499	3.7** e)a
		방과후아카데미	2.92	.74	142	
		양육시설	2.84	.8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80	.88	335	
		일반	2.90	.86	1,929	
의사소통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86	.57	499	6.2*** e)a
		방과후아카데미	2.98	.59	142	
		양육시설	3.00	.6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90	.73	335	
		일반	3.02	.69	1,929	

** p < .01; *** p < .001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친구들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신뢰 정도에 있어서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의 평균값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자신을 잘 이해해 주고 있고 동시에 친구들을 믿고 있는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배경 등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의 응답자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보다 많은 신뢰를 얻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표 VI-39 친구 관계 - 신뢰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3.02	.63	499	8.5*** e)a,d
		방과후아카데미 ^b	3.15	.60	142	
		양육시설 ^c	3.16	.7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2.95	.77	335	
		일반 ^e	3.15	.72	1,929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12	.62	499	2.7* e)a
		방과후아카데미	3.23	.63	142	
		양육시설	3.21	.74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17	.80	335	
		일반	3.23	.73	1,929	
신뢰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07	.54	499	5.9*** e)a,d
		방과후아카데미	3.19	.58	142	
		양육시설	3.18	.65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6	.70	335	
		일반	3.19	.65	1,929	

* $p < .05$; *** $p < .001$

친구들과의 소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을 갖는지에 대한 문항과 친구들이 나의 근황을 잘 모르고 있는지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두 문항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이 작성되어 있어 해석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을 갖는지의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값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평균값보다 높았으며, 나의 근황을 잘 모르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양육시설 아동들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VI-40 친구 관계 - 소외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3.06	.87	499	3.4** e)a
		방과후아카데미 ^b	3.15	.86	142	
		양육시설 ^c	3.08	1.0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10	.97	335	
		일반 ^e	3.21	.92	1,929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78	.82	499	10.0*** d)c e)a,c
		방과후아카데미	2.96	.80	142	
		양육시설	2.64	.95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94	.99	335	
		일반	3.00	.93	1,929	
소외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92	.74	499	7.4*** e)a,c
		방과후아카데미	3.06	.76	142	
		양육시설	2.86	.8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2	.86	335	
		일반	3.10	.83	1,929	

*** p < .001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동들 사이에서는 가정 형편의 단면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의기소침하거나 실제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3) 자아존중감

두 패널조사에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개 문항 가운데 6개의 문항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코딩한 후에 각각의 문항과 6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을 5개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값의 비교에서는 집단간 차이의 유형이 조금씩 달리 나타나지만, 6개의 문항을 합산한 값의 평균치에 대한 비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패널의 3개 집단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평균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I-41 자아존중감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97	.54	499	58.5*** c)a d)a,b e)a,b,c
		방과후아카데미 ^b	3.05	.59	142	
		양육시설 ^c	3.16	.6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3.33	.69	335	
		일반 ^e	3.41	.63	1,929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75	.78	499	12.4*** e)a
		방과후아카데미	2.92	.74	142	
		양육시설	2.84	.8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90	.79	335	
		일반	3.01	.74	1,929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98	.63	499	235.2*** d,e)a,b,c
		방과후아카데미	1.85	.60	142	
		양육시설	1.84	.70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84	.93	335	
		일반	2.99	.88	1,929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88	.62	499	433.1*** d,e>a,b,c
		방과후아카데미	1.77	.63	142	
		양육시설	1.79	.74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12	.90	335	
		일반	3.22	.83	1,929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94	.87	499	341.0*** d,e>a,b,c
		방과후아카데미	1.85	.86	142	
		양육시설	1.92	1.01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2	.77	335	
		일반	3.12	.73	1,92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78	.82	499	31.2*** b>c d,e>a,c
		방과후아카데미	2.96	.80	142	
		양육시설	2.64	.95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5	.89	335	
		일반	3.16	.82	1,929	
자아존중감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38	.21	499	382.8*** d>a,b,c e>a,b,c,d
		방과후아카데미	2.40	.18	142	
		양육시설	2.37	.2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4	.55	335	
		일반	3.15	.53	1,929	

a $p < .10$; * $p < .05$; *** $p < .001$

즉, 취약계층패널의 3개 집단 아동들은 우선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은 취약계층패널 아동들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성적이나 외모,

혹은 신체적 능력 등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표 VII-41>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시설 이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열악한 가정의 경제 상황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시설 이용이라는 것이 아동들 사이에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동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부모의 양육방식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임 정도를 나타내는 3개의 문항과 학대 정도를 나타내는 4개의 문항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양육시설 거주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방임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코딩하였다. 3개 문항을 합산한 값의 평균치에 대한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부모가 더 방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평균값이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이나 일반가정 아동들의 평균값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평균값은 방과후아카데미나 일반가정 아동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평균값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아동들이 느끼는 부모 방임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경우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모 방임 정도를 낮게 느끼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이것이 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42 부모 양육 방식 - 방임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1.75	.78	499	3.5*
		방과후아카데미 ^b	1.56	.71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c	1.69	.81	335	
		일반 ^d	1.64	.83	1,929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88	.74	499	17.6*** a)b,d c)d
		방과후아카데미	1.66	.69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4	.84	335	
		일반	1.64	.74	1,929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58	.70	499	10.3*** a)d
		방과후아카데미	1.50	.58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50	.67	335	
		일반	1.41	.61	1,929	
방임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74	.57	499	14.0*** a)b,d
		방과후아카데미	1.57	.58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68	.64	335	
		일반	1.56	.56	1,929	

* p < .05; *** p < .001

부모의 학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도록 코딩하였다. 각 문항들과 4개의 문항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부모가 자신들을 더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을 심하게 혼내신다는 문항과 무조건 때리려고 한다는 문항, 그리고 심하게 대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과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값이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VI-43 부모 양육 방식 - 학대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00	.90	499	14.8*** c,d>a,b
		방과후아카데미 ^b	1.94	.84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c	2.33	.89	335	
		일반 ^d	2.20	.85	1,929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51	.67	499	13.3*** c,d>a,b
		방과후아카데미	1.50	.66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1	.84	335	
		일반	1.69	.78	1,929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42	.66	499	11.8*** c,d>a
		방과후아카데미	1.51	.68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72	.85	335	
		일반	1.61	.81	1,929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적이 많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52	.73	499	0.8
		방과후아카데미	1.51	.73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58	.82	335	
		일반	1.51	.78	1,929	
학대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1.61	.61	499	12.6*** c>a,b,d d>a
		방과후아카데미	1.62	.59	142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6	.69	335	
		일반	1.75	.64	1,929	

* p < .05; *** p < .001

이 결과를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의 부모가 취약계층아동들의 부모보다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견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보다는 아동·청소년패널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고 통제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체벌 등의 수단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체벌을 학대라는 맥락과 연결지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코딩하였다. 5개의 문항을 합산한 값의 평균치에 대한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 특히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지역사회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값보다 높았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의 평균값도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은 물론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의 특성뿐 아니라 시설 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의 경우 시설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들과의 접촉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시설들의 지역사회 연계 정도에 따라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4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 평균 비교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F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a	2.85	.72	499	3.9** a,d,e)c
		방과후아카데미 ^b	2.85	.83	142	
		양육시설 ^c	2.60	.93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d	2.90	.89	335	
		일반 ^e	2.86	.85	1,929	
나는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3.08	.72	499	1.9
		방과후아카데미	3.08	.78	142	
		양육시설	2.91	.93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6	.85	335	
		일반	3.09	.80	1,929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조심)한다고 생각한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54	.85	499	103.9*** a,b,c)d,e
		방과후아카데미	2.73	.84	142	
		양육시설	2.43	.98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1.81	.88	335	
		일반	1.73	.84	1,929	
나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81	.82	499	7.3*** e)a
		방과후아카데미	2.87	.80	142	
		양육시설	2.98	.88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91	.85	335	
		일반	3.02	.82	1,929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96	.68	499	3.9** e)a
		방과후아카데미	3.06	.70	142	
		양육시설	3.04	.86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3.00	.83	335	
		일반	3.10	.77	1,928	
지역사회 인식	취약 계층 패널	지역아동센터	2.85	.49	499	5.8*** a)e b)d,e
		방과후아카데미	2.92	.53	142	
		양육시설	2.79	.55	160	
	아동 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2.74	.57	335	
		일반	2.76	.53	1,928	

** p < .01; *** p < .001

제 7 장

심층면접조사

1. 질적연구의 목적
2. 문헌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제 7 장

심층면접조사⁵⁰⁾

1. 질적연구의 목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즉 아동은 시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해당된다.⁵¹⁾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세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하,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이다. 두 번째 집단은 2011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했다가 이사, 전학, 시설폐쇄, 기타 이유로 이용 시설이 바뀐 아동(이하,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이다. 마지막 집단은 2011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이용했다가 더 이상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하,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이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즉 아동에게 시설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의 장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많은 패널 연구들이 양적 조사 위주로 진행되어 연구 대상에 대한 의미 탐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 이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양적 연구에 덧붙여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적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찾아내어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ossman et al., 1985, 천희란 외, 2011 재인용).

두 번째 장점은 기존 패널 연구들은 패널 탈락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 연구는 패널 탈락자들, 즉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 시설 이용 중단 아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시설 계속 이용 아동’과 비교함으로써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50)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집필

51) 양적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도 취약아동으로 보았으나, 이번 질적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1사례 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이용시설과 다른 생활시설이라는 특성도 있어 질적 분석에 넣지 않았다.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서 “대조 및 비교하기” 방법은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연미, 2003). 또한 이것은 본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접근이라는 우산 속에는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사례연구 등 다양한 세부 방법론(또는 접근)들이 존재한다. 학문전통이나 주제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권지성·정선옥,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한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접근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귀납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서술하였다는 것이 장점이다.

2. 문헌검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목적으로, 즉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경험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다룬 연구는 김소영(2008), 최은희 등(2008), 김용희(2009) 등의 연구가 있고 방과후아카데미 경우에는 김은정(2008)의 연구가 있다.

김소영(2008)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후,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운영자(실무자 포함),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운영자(실무자 포함), 아동, 부모 등을 면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지원이 없던 시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이고 아동의 이야기도 주로 ‘아동에 대한 운영자(실무자)의 이야기’라서 아동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은희 등(2008)과 김용희(2009)의 경우, 전자는 현상학 방법, 후자는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는 경험의 의미를 후자는 “D”지역아동센터의 문화를 연구하였다. 최은희 등(2008)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아동 10명을 심층면접한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경험을 10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10가는 범주는 ‘데면데면’, ‘견문을 넓힘’, ‘부담함’, ‘폭력’, ‘좌절’, ‘성장’, ‘비행화’, ‘복지의존’, ‘지속적인 참여’ 및 ‘새로운 욕구’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처음엔 어색함을 느끼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간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사의 꾸중, 위협과 같은 폭력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그만 다니고 싶은 생각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짜로 제공되는 것에 익숙해 책임의식이 약하고 복지의존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발견되었다.

김용희(2009)는 10개월 간 “D”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교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과 그러한 상호작용에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기대, 실무자의 기대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부모는 ‘공부’에 대한 기대의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 보낸다. 반면, 아동은 학습지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친구와 선생님, 수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기대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한편, 실무자는 아동이 “D”센터에서 학교 성적 향상, 예의 있는 행동 갖추기 등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을 익혀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인 부모, 아동, 선생님(실무자) 모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대가 충돌할 때, 부모는 센터 이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아동은 센터 이용에 매우 소극적이고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며, 선생님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은정(2008)은 방과후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면접 결과, 청소년들은 ‘학원과 달리 공부도 하면서 놀 수도 있는 곳’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아카데미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원형(공부보다 특별활동을 더 많이 언급함)과 일반형(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에 따라 다른 언급이 나타났다. 일반형 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를 좀 더 학원에 가까운 형태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형, 일반형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큰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다가 이용을 중단한 아동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계속 다니고 있는 아동과 다니고 있지 않는 아동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가 아동들에게 때로는 부모들에게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비교와 차이를 통해 본질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갖는 특징이자 강점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첫 번째 패널조사 때 양적 연구에 참여했던 아동을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 ‘시설 이용 중단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참여자를 50명 선정하였다.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은 27명,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은 5명,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은 18명(그 중 1명은 양육시설에서 집으로 귀가한 아동)으로 총 50명이다.

이들 연구 참여 아동은 시설 이용 여부뿐만 아니라, 아동 가족의 경제적 수준(기초수급, 차상위,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아동 면접의 경우, 2011년 이용 시설의 협조를 구해 아동의 근황을 확인하였고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의사표현이 명확한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 동의한 부모와 아동에게는 약간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 아동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Ⅶ-1 연구 참여 아동의 일반적 정보

패널참여 가구ID	지역	성별	시설이용상황	경제적 형편	기타 특성
1	서울	남	3	기초생활수급	
2	서울	여	1	차상위 계층	
4	서울	여	1	차상위 계층	1
5	서울	여	1	사각지대	
6	평택	여	1	차상위 계층	
7	평택	여	1	기초생활수급	
8	부천	여	1	차상위 계층	1
11	부평	여	1	기초생활수급	
15	대전	남	1	차상위 계층	
18	부산	여	1	사각지대	
20	대구	남	1	차상위 계층	
21	대구	남	1	기초생활수급	
24	경북	남	1		2
25	광주	남	1	기초생활수급	1

패널참여 가구ID	지역	성별	시설이용상황	경제적 형편	기타 특성
26	성남	여	2	기초생활수급	1
27	성남	여	1	사각지대	
28	수원	남	1	차상위	1
29	수원	여	2	기초생활수급	
30	평택	여	2	기초생활수급	
31	충북	남	1	사각지대	2
32	서울	여	3	사각지대	2
33	서울	여	3	사각지대	
34	부천	여	3	사각지대	
35	서울	여	3	기초생활수급	1
36	안양	여	3	차상위 계층	
37	고양	여	3	차상위 계층	
38	부천	남	3	차상위 계층	
39	서울	여	3	차상위 계층	3
40	안산	남	3	차상위 계층	
41	서울	여	3	사각지대	
42	성남	남	3	사각지대	1
43	성남	여	3	기초생활수급	2
44	서울	여	3	기초생활수급	1
45	시흥	남	2	차상위 계층	
46	서울	남	3	차상위 계층	1
47	부천	남	3	차상위 계층	2
48	서울	남	3		
50	성남	여	3	사각지대	
51	서울	남	3	차상위 계층	1
52	전북	남	1	차상위 계층	
58	부산	남	1	사각지대	
124	인천	여	1	차상위 계층	2
300	수원	여	1	차상위 계층	1
433	충남	여	1	사각지대	
439	충남	여	2	기초생활수급	1
669	부산	남	1	기초생활수급	1
834	경남	남	1	사각지대	
836	경남	여	1	사각지대	1
추가1	전북	남	1	사각지대	
추가2	서울	여	1	기초생활수급	1

※ 시설여부 관련 : 1- 시설 이용 중단 아동 / 2 -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 /
 3 - 시설 계속 이용 아동 / 4 - 양육 시설에서 원가정 복귀 아동
 ※ 기타 특성 관련 : 1- 한부모·모자가정 / 2 - 한부모·부자가정 / 3 - 조손가정

2) 자료수집 방법

연구 참여자 50명에 대해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질적 면접 유경험자 5명과 신참 면접자 3명, 총 8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면접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특히 아동 면접의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신참 면접자 3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질적 면접과 관련된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1차 면접 이후 녹취록을 검토한 후 수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면접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접은 아동의 가정,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아동 1인당 면접 시간은 30분 - 1시간 정도였고 일부 아동의 경우 보호자 면접도 이루어졌다.

면접지는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 ‘시설 이용 중단 아동’, ‘원가정 복귀 아동’ 등 총 4종류이다. 면접지에 포함된 주요 질문은 1) 2011년 다니던 시설 이용의 의미/평가, 2) 현재의 생활 및 관계, 3) 앞으로의 계획, 4) 시설에 대한 정의 등이다(자세한 면접지는 [부록 참조]).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경우에는 2011년 다니던 시설과 비교하는 질문, 2011년 다니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질문 등을 추가하였다. 한편 양육시설에서 집으로 귀가한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 복귀 과정, 원가정 복귀의 의미 등을 질문하였다.

면접지의 질문은 매우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하였다. 면접원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질문이 모든 연구 참여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구조화된 형태의 면접지를 개발하였다.

3) 자료분석

5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가운데 양육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1사례만 제외하고 49명의 사례를 김영천(1996)이 제시한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아동 면접을 통해 녹음한 자료를 축어록의 형태로 필사하였다. 면접원이 면접 당시의 분위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내용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원이 축어록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축어록을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표시하고 개념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념화된 내용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범주화한 후 원래의 자료(축어록)로 돌아가 다시 읽으면서 분석에 관한 처음의 생각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범주가 새롭게 생겨나며 유사한 범주가 통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성된 범주들에 대해 해석을 덧붙이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개방 코딩(open coding)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딩은 질적 연구 분석의 주요 과정으로 개별화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덕 등 역, 2008). 또한 Strauss & Corbin(1990)에 의하면, 개방 코딩은 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현상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덕 등 역,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아동을 면접해서 얻은 자료를 개념화-범주화의 반복되는 과정, 범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 전체 맥락과 개별 개념을 연결 짓는 과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방 코딩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김미옥, 2007에서 재인용). 엄격성의 기준은 여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감사 자료를 남겼다. 감사 자료를 남기는 것은 어떤 연구자이건 연구 흔적을 따라 연구를 진행하면 본래의 연구자가 얻었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유태균 역, 2001에서 재인용).

4. 연구결과

연구 참여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으로,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통해 범주화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는 1)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 2) 시설에 대한 첫 인상, 3) 시설에서의 생활, 4) 시설 이용의 결과(outcome), 5) 시설에 대한 평가, 6)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 - 00 손에 이끌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시설에 가게 된 계기는 부모, 친구,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제안으로) 가게 되었다. 혼자 찾아간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아동 교육과 양육의 책임은 부모 등의 어른에게 있기에 부모, 선생님의 결정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용하게 된 아동들이 자신이 앞으로

다니게 될 시설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매우 수동적으로 시설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

부모의 설명은 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이 생략된 상태의 이용 유도는 부모의 무관심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시설 생활에 대한 관심, 시설 선생님과 교류, 시설 중단 결정 등에서 반영될 것이다. 시설 이용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시설 이용을 유도(권유)하기에 앞서, 시설 생활로의 진입을 돕는 부모의 역할, 예를 들어 시설은 어떤 곳인지, 시설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시설을 다니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비자발적인 참여는 김용희(2009)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후의 시설 생활에도 반영되어 계속해서 부모가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교사가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오거나, 또는 집에 할 일이 없을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연결된다.

한편, 이러한 소극적인 참여 동기 이외에, 부모가 다른 자녀의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의 결과로 더 어린 자녀의 시설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와 아동 모두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시설을 알고 있고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일정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나 생각 없이 시설에 다니게 되는 아동과 참여 동기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id 6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이후 성격이 변화한 언니로 인해 시설에 다니게 되었다. 이 아동은 아카데미 폐쇄로 못 다니게 될 때까지 매우 즐겁게 아카데미를 이용했던 경우이다.

면접원 : 거기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된거지? 소개로 간건가? 좋다고 하셔서 보낸건가?

아 동 : 엄마가 직접 보내셨어요. 그냥 보냈어요.

면접원 : 엄마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없이 간거야?

아 동 : **별거 아닐거라고 해서 갔는데요.**

면접원 : 엄마가 어떤 이유로 별거 아니라고 말씀 하셨어? 뭐 배우는 곳이라고 하셨어?

아 동 : **그런 것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보내셨어요.**(엄마가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보낸, id 47,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알게 돼서 간 거였는지 혹시 몰라?

아 동 : 아, 엄마가 가시다가 그걸 발견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랑 얘기를 끝내셨는지 “수빈아,

이렇게 엄마랑, 엄마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한 번 가봐.”해서 했어요.

면접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혹시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나? 처음에 그 때 엄마 때문에 갔을 때?

아 동: 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간 거기 때문에...**(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감, id 433,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어머니: 언니랑 같이 다녔거든요. 언니가 미리 거기를 혼자서 갔었어요. 성격이 참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약했던 아이였는데 거기 가고나서부터는 성격이 밝아지고, 자신감 있고, 발표력도 있도록 바뀌었어요. 되게 많이 바뀌더라구요. 애는 이제 언니가 있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하고...

조사원: 다르죠.

어머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큰 애는 거기 보내놓고 성격도 사고도... 많이 바뀌어서 참 좋았었어요.

조사원: 그렇군요.

어머니: 그래서...**큰애가 적응을 잘 했고, 성격이나 태도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를 거기 보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기다렸다는 뜻이....4학년부터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바로 보냈었죠.**(언니 이용 후 긍정적 변화로, 엄마가 동생도 주저 없이 보냄, id 6, 시설(청소년 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어머니)

2) 시설에 대한 첫 인상

부모, 친구,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제안으로) 가게 된 시설의 첫 인상은 어떠했을까? 아동들은 ‘시끄러워 공부할 분위기가 아님’, ‘때리고 놀리고 해서 불쾌했음’ 등의 부정적인 인상과 ‘여럿이 어울려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보였음’, ‘낯설었지만 아는 친구가 있어 괜찮았음’, ‘애들이 착해보였음’ 등의 긍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이라 당황하고 부담스러웠음’의 이야기도 있었다. 최은희 등(2008)은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갔을 때의 상황을 ‘데면데면’으로 범주화하였다.

시설에 대한 첫 인상과 이후의 시설 생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id 1의 경우, 첫 인상을 ‘시끄러워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음’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인상은 센터 소개(친구한테 소개: ‘다니고 싶으며 다녀라’), 센터 이용 후의 변화(‘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 등의 이야기에도 반영된다. 한편 id 43의 경우에는 첫 인상은 아이들끼리 ‘때리고 놀리고 해서 불쾌’했지만,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의 영향으로 첫 인상이 이후의 시설 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한편, 긍정적 인상을 표현했던 id 41은 센터 소개(친구한테 소개): 새로 온 아이들을 잘 반겨줌,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냄)에서도 ‘새로 온 아이들을 잘 반겨줌’,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첫 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에 첫 발을 딛는 아동의 경우 첫 인상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아동과 시설의 만남, 아동과 다른 아동의 만남, 아동과 선생님의 만남, 부모와 선생님의 만남의 첫 장면에 대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부정적인 인상〉

면접원: 어, 누구랑 갔었어?

아 동: 어, 기억나요

면접원: 났어

아 동: 어, 거기 처음 갔을 때요? 시끄러웠어요

면접원: 시끄러웠어, 그리고?

아 동: 어, 공부할 분위기가 좀 아니에요(시끄러워 공부할 분위기 아님, id 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1학년 때 어우 1학년 때 갔었구나 그럼 그때 기억나 혹시 어땠는지 맨 처음에 갔을 때 어땠어?

아동: 불쾌했어요 좀

조사원: 왜 어떤 점이

아동: 애들이 막 때리면서 놀고 그래서

조사원: 아 세라한테도

아동: 아니요 남자애들 막 때리면서 놀고 여자들은 좀 처음 왔을 때 막 껴박고(때리고 껴박고 해서 불쾌했음, id 43,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긍정적 인상〉

면접원: 처음에 갔었던 날이 혹시 기억나요?

아 동: 네

면접원: 7살 때 기억나요? 어땠어요 그날?

아 동: 처음에 갔을 때 애들이 많았구요, 되게 착해보였어요.

면접원: 누구랑 갔어요?

아 동: 엄마랑 00 언니랑 갔어요. 둘째 언니랑.

면접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날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던거예요?

아 동: 네

면접원: 왜 거기에 맨 처음에 가게 됐어요? 혹시 기억이 나요?

아 동: 그냥 갑자기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거기 책상에서 8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id 4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3) 시설에서의 생활

시설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시설에서의 생활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의 관계, 형·동생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하는 활동을 “공부-놀이-먹기”로 명명하였다. 문제집 풀기와 같은 “공부”, 체험활동 및 다양한 교과 외 활동, 그리고 자유시간의 놀이와 같은 “놀이”, 급식과 간식을 “먹기”로 표현하였다. “공부”에서 “놀이”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시 “문제집 풀기-검사-통과-놀이”로 세분화될 수 있다. 즉, 공부를 다 끝내야 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아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동들은 좋지 않았던 기억보다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좋은 기억으로 공부 아닌 것, 즉 “놀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였다. 놀이동산, 캠프, 게임에서부터 동네에서 술래잡기놀이, 자전거 타기, 탁구치기 등의 일상적인 놀이까지, 공부 안하고 논 것은 다 기억에 남았다. 그렇다고 공부 경험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성적이 올랐을 때의 기쁨을 표현한 아동도 있었다.

이밖에 학예회, 장기자랑 등의 발표회, 양초·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활동도 좋은 기억이다. 한편, 아동들에게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힘든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났다. ‘선생님이 무서워 힘들었던 수학공부’, ‘고학년들의 거친 말’, ‘센터 형과 싸운 것’ 등은 힘들었던 기억이다.

면접원 : 센터에 다니면서 센터에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아 동 : 아직 그런지, 여름 때마다 롯데월드 갔던거요. 에버랜드, 서울랜드, 유파라, 라는 곳을 많이 가소요. 유파라는 송내역에 가깝거든요. 투니버스라고 쓰여진 곳 안에 그 안에 유파라는 곳이 존재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가요. 유파라.

면접원 : 그곳이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동 : **공부 없이 재미있는 것만**, 오락실, 게임방, 낚시(공부 안하면 다 재미있음, id 38,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아 동 : 어 수학 수학.. **선생님이 좀 무서워가지고..수학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면접자 : 아.. 수학 선생님이 무서워서? 음.. 혹시 선생님이 때린다거나 뭐..

아 동 : ..(웃음) 때리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걸 다른 애들도 많으니깐, 잘 못 가르쳐 줘 가지고...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무서워 힘들었던 수학공부, id 5,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아 동 : 거기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요?

면접자 : 응

아 동 : 고학년들이 자꾸 이렇게 저희를 좀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깐 그렇다보니깐

면접자 : 주로 어떻게

아 동 : 뭐랄까 **가끔씩 말이 너무 조금 거칠 때가 있었어요 가끔씩**

면접자 : 아.. 형들이 욕을 한다 던지 뭐 이런 거

아 동 : 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고학년의 거친 말 때문에 힘이 듭, id 15,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2) 시설 내의 다양한 관계 경험

시설 이용 아동들이 기억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선생님, 친구, 형·동생 등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시설에서의 생활을 이들 관계를 중심으로 들여다보았다. 이들과의 관계는 시설을 계속 다니는 이유, 그리고 시설을 그만 다니고 싶은 이유(그만 다니게 된 이유) 등과 관련되기에 중요하다.

우선 선생님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들이 시설 밖에서 선생님을 떠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주로 생각이 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생님을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우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가 힘든 아동들에게

힘든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존재이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영향력은 커서 시설 중단 아동의 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공부를 대충 가르쳐줌’ 등으로 나타나 친절한 선생님,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시설을 계속 다니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선생님 요인은 시설을 계속해서 다니는 이유에서도 나타났다. 시설을 계속해서 다니는 이유로 ‘공부 설명을 잘 해줌’, ‘타 센터는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다고 함’ 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러한 아동들의 인식을 통해, 아동들은 선생님에 대해 “교육”과 “보육(보호)”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원: 언제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아 동: 그냥... 뭐.... 문제집 풀 때, 어려운 거 있으면.

면접원: 000 다닐 때는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아 동: 선생님들 다 채점해주시고... 그러니까요.(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생각남, id 11,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면접원 : 선생님이 생각 날 때가 있니?

아 동 : 있어요

면접원 : 어떨 때 생각나니?

아 동 :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다치면 병원에 직접 데려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면접원 : 아 그랬었어? 그 때 진후가 어디 아팠었니?

아 동 : 아니요. 거기서 애들이 놀다가 넘어졌는데, 선생님이 놀지 말라는 곳에서 놀다가 다쳐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잘 도와주었던 선생님이 생각날 때가 있음, id 52,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선생님과 관계 이상으로 아동들에게 중요한 관계는 친구 관계, 그리고 형·동생들과의 관계이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아동기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들 가운데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임춘희 등(2010)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감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친구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형·동생 관계의 중요성은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시설 중단 이유에서도 드러난다. 시설을 그만 둔 이유 가운데 ‘고학년의 괴롭힘’, ‘나쁜 친구의 괴롭힘’ 등이 등장한다. 2011년과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의 이야기 중에서도 ‘친구 사이가 안 좋을 때 시설 이용을 그만두고 싶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시설 계속 이용 아동들은 시설을 계속 다니는 이유로 ‘친구가 많고 재미있음’, ‘친구와 노는 것이 즐거움’, 친구들과 많이 놀기 위해’ 등을 이야기한 대목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못 놀게 할 때는 다니고 싶지 않음’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면접원 : 3학년, 4학년, 5학년.. 약 한 2년, 뭐 3년 다니고 있네.. 오래 다녔다. 계속 이 곳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

아 동 : 여기 그.. 공부가 잘 되요.

면접원 : 공부가 잘 돼서.. 또?

아 동 : **그리고 여기 오면 친구가 많아요.** (시설을 계속 다니는 이유-공부가 잘되고 친구가 많음, id 45,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그렇구나.. 아까 @@을 친구한테 소개했잖아. 이번에는 ***을 친구에게 소개해보는 거야 친구한테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볼까?

아 동: ***은.. 체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음.. **친구들도 많고.**

면접원: 그럼, 00는 지금 다니는 ***을 계속 다니고 싶어?

아 동: 끊고 싶을 때도 있어요.

면접원: 아~ 언제 끊고 싶어?

아 동: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친구문제로 센터 그만두고 싶을 때 있음, id 30, 새로운 시설(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아동)

다음으로 형·동생관계 대한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혼자 지낼 때에 비해 시설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 그리고 형·동생과도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재밌고 즐겁다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여러 학년들과 어울리면서 학년에 따라 상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학년의 괴롭힘’, ‘친구가 적고 오빠가 여러 명이어서 어울리기 어려움’ 등과 같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래가 적고 형(선배)들이 많은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형(선배)이 많은 시설의 경우 아동들 간의 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접원: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거나 선생님들이랑은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는 건가?

아 동: 그냥 나가서 왜, 나가서 왜, 활동할 때도 그, 그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오빠가 셋인데 거기 다 다녀요. 오빠 두 명이. 근데,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선생님이랑 계속 돌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 (중략)

면접원: 뭐가 좀 달라지면 좋을까?

아 동: 어... 그... 오빠들이 안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정해서 너무 윗 오빠들 있으면 밑에 아이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적고 오빠가 여러 명이어서 어울리기 어려움, id 433,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친구들과 아동들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아는 언니와 자전거 타기’, ‘형들과 탁구치기’, ‘센터 동생, 언니와 함께 한 캠프’, ‘워터파크에서 언니들과 어울려 놀기’, ‘형·누나가 공부 가르쳐주기’ 등과 같이 즐겁게 재밌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의할 부분이 있다. 아동들이 시설에 대해 바라는 점을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시설에서의 친구 관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설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아동들은 ‘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선생님이 싸움을 무섭게 말렸으면 좋겠음’, ‘처음 왔을 때 형·누나들이 장난치지 않기’, ‘고학년의 거친 말이 힘들었음’, ‘욕을 많이 하는 친구로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음’ 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주로 시설 계속 이용 아동들과의 대화에서 등장하였다.

면접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좀.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아 동: 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게

면접원: 아. 아이들끼리 욕해?

아 동: (끄덕임)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id 35,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성격이... 바뀌거나 그랬어요? 가기 전엔 어땠는데 간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다... 이런게...

아동누나: (방과후아카데미) 가기 전에는 제가 욕을 하나도 못했어요.

면접원: 아!

아동누나: 4학년때 가기 전에는 제가 욕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정말 가기 전에는 애가 정말 착했어요.

(웃음) 애들이 참 험악했어요. 애들이 욕을 맨날 쓰는거예요.

면접원: 아...00는 순수한 아이였는데?

아동누나: 네. 걔네들이 저기 멀리 ***동 사는 애들이었거든요.

아 동: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거칠어졌구나.

아동어머니: 애들이... 저그들끼리 버스타고 갔다오고... 그랬었거든요.

아동누나: 걔들은 말 거칠고... 저는 아는 오빠도 있고 누구누구있다 뻘이 100명이다... 이라고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성격이 좀... 이상해진거 같아요.

조사원: 음...그렇구나. 근데 그 애긴 참 많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애들이 욕을 그렇게 배운대요.

아동어머니: 너도 배웠어?

아 동: 배우진 않았는데... **애들이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하는 친구로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음.
id, 21,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그렇다면 ‘싸움과 욕, 지나친 장난’ 이 불편하지만 그냥 감수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욕 시대라 욕이 거슬리지 않아요”, “시설 친구들과도 싸워도 그냥 같이 놀아요.”, “센터 애들이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장난으로 생각해요.”

‘욕 시대’라는 한 아동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요즘 아이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욕설이 마치 감탄사나 연결사처럼 사용되어 욕이 일상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김혜숙 외, 2010). 실제로 청소년들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수의 욕설을 사용하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욕을 사용한다고 한다. 욕설이 타인을 겨냥했을 때, 그 대상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배타적 내집단(in-group)의 결속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10대들에게 더욱 만연된다(김혜숙 외, 2010). 이처럼 욕을 사용하지 않았던 아동들도 시설 내의 힘 있는 하위집단에 끼기 위해서는 욕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하위집단에서 배제되어 소위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욕설은 언어폭력이고 분노와 폭력을 낳을 수도 있기에 욕이 허용되는 문화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박선미(2007)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장난은 ‘장난으로 때리거나 장난으로 간질이기’, ‘살짝 때리고 살짝 꼬집는 것’, ‘장난은 조금 살짝 때리고 간질이거나 놀리는 것’ 등으로, 살짝 때리는 것을 장난으로 여긴다고 한다. ‘장난으로’, ‘살짝’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서, 서로가 장난을 수용해주는 범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은 싸움으로 이어진다(박선미, 2007). 놀림도 마찬가지로 ‘장난으로’, ‘재미삼아서’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친구, 형·동생 관계에서 벌어지는 욕설, 장난으로 싸우기, 장난으로 놀리기 등에 대한 암묵적 허용이 아니라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적극적 대처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이야기를 통해, 적극적 대처를 통해 욕설, 놀림, 심한 장난 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원: 너무 기분 나빠? 그 000 그럼 친구관계는 어때? 어떻게 됐어? 아무래도 더 여러 사람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게 되지 않았어?

아 동: 친구관계요? 예전에는 놀려가지고.. 그냥 그 혼나기만 했는데 요번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갖고 놀려도 그 말 폭력이라고 하지 말라니깐.. 계속하면.. 폭력이니깐..** 5학년 2반 선생님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그 5학년 그 대장이예요. 그 학생들.. 그..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애들 놀리거나 그러면 금방 그걸 듣자마자 그 사무실에 보면 그..그..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놀리거나 떠드는 사람, 뛰거나 규칙 어긴 사람들 전부다 혼나는 거예요. 반성문 쓰고**(놀림을 학교 폭력으로 정한 교육 후 놀림 감소, id 35,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4) 시설이용의 결과(outcome)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게 된 이후 달라진 점, 시설 이용이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시설 이용의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시설 이용이 아동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 다닐 때와 비교하여 시설 이용 중단 이후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또한 “꿈”과 관련된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 시설 이용 후 달라진 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게 된 이후 달라진 점을 시설 계속 이용 아동과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설에 다니기 전과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한 아동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친구, 가족, 일상생활, 성격, 학업, 기타 등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각 영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구 관계의 변화이다.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친구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시설에 다니다가 그만 둔 경우에는 시설 친구보다는 동네 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게 된 것, 시설에서는 형·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는데 반해 또래와만 주로 어울리게 된 것, 시설에 다닐 때는 친구와 놀고 싶어도 참아야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고민하지 않고 친구와 놀 수 있다는 것 등을 변화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친구관계의 변화는 황진구 등(2011)에서도 나타났다. 시설 이용 후의 생활변화를 학습 및 학교생활, 일상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의 12개 항목에 걸쳐 확인한 결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0점 환산 평균 점수가 78.8로 다른 항목의 변화에 비해 가장 높았다.

결국 시설에 다니지 않더라도 친구 대상이 ‘시설 친구 → 동네 친구’, ‘또래 및 형·동생 친구 → 또래 친구’ 등으로 변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에 다니면서 습득한 친구를 사귀고 친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면접원 : 친구관계?

아 동 : 네

면접원 : 친구관계는 달라졌어. 그러면 부모님 관계는?

아 동 : 아니오

면접원 : 친구관계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

아 동 : 친구랑 더 많이 어울려서

면접원 : 이전에는 어땠는데?

아 동 : **이전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많이 못 놀았어요.** (친구와 잘 어울리게 됨, id 34, 시설(지역아동 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 되게 잘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다른 거 얘기해볼까? 음.. 센터를 다니면서 00이가 “아.. 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어?”

아 동 : **예전에는요, 약간 애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여기 오고는 많이 안 싸웠어요.**

면접원 : 아.. 그래? 왜?

아 동 : 네? 옛날에, 밖에 나가서요, 아무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안 하니까 마음대로 싸돌아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는 안 해요.

면접원 : 뭘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 동 : 어.. 싸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면접원 : 어~ 00이가 싸움을 잘 하고 다녔어?

아 동 : 아니.. 그냥 많이 싸웠어요. 애들이랑...

면접원 : 근데, 선생님이 “싸우지마라.” 이런다고 쉽게 안싸워졌어?

아 동 : 아니.. 그제 아니라.. 말로 싸우다가요, 선생님이 말로 싸울 때 딱 끊으셔가지고 계속 그거 잔소리 들으면 싫으니까 그만했어요. (선생님의 지도로 친구와 안 싸우고 잘 지내게 됨, id 45, 시설(지역아동 센터) 계속 이용 아동)

두 번째로 살펴 볼 변화는 가족 관계의 모습이다. 황진구 등(2011)에 의하면, 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 변화 12개 항목 가운데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친구관계의 변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동들은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시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대화 주제로 삼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대화 주제로 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것은 부모가 시설에 아동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시설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대화 주제(내용)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대화 시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대화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입에서, 그리고 시설 이용 중단 상황을 가상으로 예상하고 이야기를 한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입에서 나왔다. 전자의 아동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를 후자의 아동은 ‘가족 간 대화 줄어들’이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맥락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대화 주제”, “대화 혹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 이 부분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관계의 “질”에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시설 이용 중단 상황을 가상으로 예상하고 이야기를 한 시설 계속 이용 아동들이 ‘(시설을 그만 다니게 되면) 공부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공부로 인한 잔소리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공부로 인한 잔소리가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와 관련됨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공부 잔소리가 줄어 공부 잔소리로 인한 갈등은 감소될 수 있다.

‘대화 시간 변화’라는 주제를 발견한 연구로 김소영(2008)의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과 같은 대화 시간이라는 주제가 등장한다. 김소영(2008)에 의하면 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믿고 맡기게 되면서 오히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급식까지 주기 때문에 아동은 집에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에서 저녁까지 먹고 가게 되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일찍 귀가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현상이 벌어져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가족과 시설 선생님 이외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동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면접원: (센터에 다니면서)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거 같아?

아 동: 부모님에서는 그냥 더 친숙하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면접원: 아..그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친숙해지고? 어떤 면에서 센터가 그렇게 도와준 거 같아?

아 동: 그냥 공부방에서도 **봉사자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근해 지는 것 같아요** (봉사자들 모델링으로 부모와 친근해짐, id 37,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세 번째 일상생활의 변화이다. 평상시의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바빠짐’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바빠졌고 그래서 심심하지 않다. ‘바빠짐’의 의미는 시설 이용 중단 상황을 가상으로 예상하고 이야기를 한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시설에 다니지 않게 되면’이라는 질문에 아동들은 ‘혼자서 지루함’, ‘할 것이 없음’, ‘TV 만 쬌 볼 것 같음’, ‘게임을 많이 하게 됨’, ‘쓸쓸할 것 같음’, ‘계속 놀기’, ‘빈둥거림’, ‘심심할 것 같음’, ‘집에서 뒹굴거림’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설에 다니지 않았을 때의 상황 혹은 시설에 가지 않는 자신의 주말 상황과 같다. 결국,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아동들에게도 ‘할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바빠짐’은 시설 중단 이후에도 등장한다. 이때의 ‘바빠짐’은 시설 중단 이후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생기는 변화이다. 즉,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바빠지게 된 경우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배고프고 더 피곤함’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중단 이후 학원과 같은 곳을 다니지 않는 경우, 밖에 잘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아동도 있다.

시설 이용 중단 이후의 변화 가운데 주목할 것은 ‘센터 가는 것보다 지금의 일상이 더 중요함’, ‘센터 결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됨’ 이 두 가지이다. 전자의 경우는 id 52 아동으로, 활동적인 것을 원하는 자신과 센터 활동이 맞지 않아서 한두 번 결석했고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설 이용을 스스로 선택하여 중단한 아동이다. 시설 중단 이후, 공부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낸다. 시설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착하고 친구들도 재미있지만 자신과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면접원 : 그럼 센터 다닐 때와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 동 : 좀 안다니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고, 다른 일 생겨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다지.

면접원 : 어떤 고민?

아 동 : 애들이랑 놀고 싶을 때 못 논다거나.

면접원 : 또 다른 점이 있을까?

아 동 : 없어요.

면접원 : 분명히 안 다니면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아 동 : 그다지. 저는 옛날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원 : 그게 더 중요하다는게 무슨 말이지?

아 동 : 거기에서 더 수업을 받거나, 거기에 있거나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일상생활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면접원 : 00의 어떤 일상생활을 말하는거지?

아 동 : 인터넷 강의랑 그리고 공부들. 인터넷 강의를 좀 더 들어서요. (센터 가는 것보다 지금의 일상이 더 중요함, id 52,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센터 결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됨’은 id 433 아동의 이야기이다. 이 아동은 결석이나 지각이 이루어지는 상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례이다. 덧붙여 자꾸 결석할 것 같으면 그만 두라는 선생님의 얘기가 중단하게 된 결정적 이유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하루에 3시간 상주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정원이 계산되고 정원의 규모가 운영비 지원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의 출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급식비의 경우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급식출석부를 따로 작성(아동이 급식출석부에 사인을 함)하고 이 급식출석부가 급식비 지원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출결상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id 433은 출결로 인해 여러 차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시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시설을 그만 두고 학원을 다니게 되니, 이런 출결 관련 상담을 받지 않아서 편해졌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담 중 어느 것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만, 출결 상담으로 인해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 이유를 찾아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출석을 강요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면접원: 그냥 중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혹시 힘들었던 기억은 좀 뭐가 있었을까?

아 동: 상담

면접원: 상담, 그거 말고 없어? 상담?

아 동: 네

면접원: 상담이 왜 이제 힘들었어?

아 동: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화내시거나 그러시니까

면접원: 아, 안 나가서 상담을 하면 좀 이렇게 화를 내서?

아 동: 네, 왜 안 왔냐고 계속 계속 물으시니까. 그것도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중략)

면접원: 그러면 혹시 엄마랑 선생님이랑 통화나 연락을 하기도 하셨어?

아 동: ... 제가 빠질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빠진다고 미리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상담 받을 때, 이제 끝날, 이제 짜를 때, 마지막 상담이 있었는데, 혼나면서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전화는 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예 전화도 안하고(센터 결석으로 스트레스 받음, id 433, 시설(지역 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네 번째 변화는 성격의 변화이다. 이 경우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이야기에서는 성격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비해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경우 ‘까칠한 성격에서 차분하고 참을성 생김’, ‘성격이 차분해짐’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황진구 등(2011)에서, 시설 이용에 따른 변화를 아동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격이 밝아짐’, ‘행동이 차분해짐’에 대해 각각 73.1점, 67.8점의 수치가 나타났다. ‘행동이 차분해짐’에 비해 ‘성격이 밝아짐’다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선생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아동들의 변화 모습은 사뭇 다르다. 김소영(2008)의 연구에서는 선생님의 시선에서 아동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변화는 ‘밝아짐’이다. 교사들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상처받고 닫혀있던 아동의 마음을 열어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아동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된 이후 아동들 사이에 ‘당연시 의식 생김’, ‘공짜 개념이 있음’, ‘마음대로 하려 함’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김소영, 2008). 이것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활동과 지원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공짜라는 생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에 대해 ‘대충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등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때 가지 않고 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 아동도 할 이야기가 있다. 앞서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등장했던 ‘센터 결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됨’이라는 이야기(id 433)이다. 아동 입장에서는 늦을만한

이유도 있고 엄마가 전화로 설명까지 했는데 매번 불러서 야단치고 눈치를 주고 하니 다니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어찌되었든, 아동이 얘기하는 자신의 변화와 선생님이 보고하는 아동의 변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면접원: 그러면 00가 봤을 때 **를 다니면서 나한테 달라진게 있다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동: 성적

면접원: 성적? 어떤부분?

아 동: 처음에는 디게 까칠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차분해졌구.... 모르겠어요

면접원: 00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아 동: 네

면접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걸 많이 느껴요?

아 동: 참을성. 기다려 주거나 ... 여러 번 참아서 여러 번 말하거나.. 그럴 때(까칠한 성격에서 차분하고 참을성 생김, id 33,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다섯 번째는 학업의 변화이다. 시설을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많았던 만큼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로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진술이 많았다. 성적 및 공부 습관과 관련된 아동들의 이야기에서 대체로 성적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좀 더 많았다.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아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부량이 많고 공부를 끝내야만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이야기하는 아동이 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경우, 시설에 다녀서 성적이 오르고 공부 습관이 변화했다는 응답이 있는 반면, 시설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도 부족하여 성적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있다. 그러나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경우에 성적이 올랐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좀 더 많았다. 한편,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하니 성적이 올랐다는 응답(학원에 다니지 않음)도 있었지만, 방과후아카데미 폐쇄로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그만 둔 경우에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응답, 성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공부를 안하고 그냥 논다는 이야기에서 성적 하향을 짐작할 수 있는 응답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 최은희 등(2008)에서는 공부량이 많다고 아동들이 불평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매일 일정량 꾸준히 공부하고 교사의 지도 덕분에 성적이 저하되는 아동도 소수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현상 유지 및 성적 향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시설에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다는 응답이 많지만, 김용희(2009)의 지적에서 보듯이 획일적인 문제집 풀이, 강제적인 공부 방식이 성적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학생마다 특성이 다르고 시설의 상황이 달라 시설 이용으로 인한 학업의 변화를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다. 또한 시설에서의 아동 학습지도에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도 시사한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학습 프로그램은 학원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에 많은 시간이 할애됨으로써 다양한 경험에 대한 제공도 제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김용희, 2009).

면접원: 그럼 여기 공부방을 다니면서 00가 혹시 달라진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 공부하는 습관, 친구관계, 엄마와의 관계 등...

아 동: **공부하는 정확도가 좀 늘었어요.**

면접원: 정확도가 늘었어요?

아 동: 네

면접원: 정확도가 늘었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아 동: **성적도 오르고, 많이 맞고.** (성적이 오름, id 5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아, 그럼 성적은 작년에 ** 다닐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어때요?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아니면 더 나빠졌어요?

아 동: **지도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예전보다는 좀, 좀 안 좋아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없어 성적이 떨어짐, id 20,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아동들은 시설 이용으로 성적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동의 그것과 다르다. 즉,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나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의 학습지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먼저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어머니와의 대화를 들어보았다. 시설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부를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한다. 시설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꼴이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생님 바꾸고 그러는거... 보다는 차라리 맞춤형 인강(인터넷 강의)같은 거를 와서 딱 하고 애들이 일단 공부를 딱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다 하고 왔는데 또 와서 미술놀이, 뭘놀이 조금 하다가... 테두리 안에서 앉아서 시간 보내고 그러는게... 참...그럴바에야 차라리 그 문제집 풀 때 선생님 바뀌고 그러느니 인강으로 맞춤형로 해주고 그랬으면 하는거죠. 독서는 워낙 기본이니까 독서같은 베이스를 깔면서 정서적인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런 몸풀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정서가 그러하니까... 몸으로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푸는걸 하고 와서... 무조건 오면 운동을 시키고 스트레스 풀게 하고 와가지고 딱 그 인강을 듣게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길 바람, id 4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

다음은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이야기이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4학년 때부터 방과후아카데미에 보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 성적이 떨어진 누나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5학년 올라갈 무렵부터 아들을 학원에 보낸 경우이다.

어머니: 네! 차마 좋았었어요. 진짜 좋아했었는데...아이....애들이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원: 그러니까 **에서 배우는 영어만으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어머니: 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서 하는건 제가 봤을때는 공부는 봐주지만....지가 안하면 안되는 거고...거기 선생님들은 인자...조금 가르쳐주고 하게 하는 학습이지...끌고가는 학습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원: 그렇죠.

어머니: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거 같았는데....그래도 성적 떨어지고 뭐 그런거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큰 딸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는 안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애가 **확 내려가는거예요**. 애가 초등학교때까지만해도...

면접원: 아..누나같은 경우에...

어머니: 네...참...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애(동생)는 일찌감치 보내야되겠다 싶어서 (학원을) 보낸거죠. 웬만하면 안 끊고 다니면 좋죠. 좋았을거 같은데(중략)

면접원: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해도 학원만큼 해주지는 않으니깐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를 텅텅 보내놓으니까는...애가 진짜 못따라가는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중학교 진학 이후의 학업 걱정으로 학원을 선택함, id 21,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표 VII-2

시설 이용 후 변화(시설 계속 이용 아동)와 시설 중단 후 변화(시설 이용 중단 아동)

영역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시설 이용 후 변화)	시설 이용 중단 아동 (시설 중단 후 변화)
친구관계의 변화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됨, 친구관계가 더 좋아짐, 친구에게 먼저 다가감, 친구와 안 싸우고 잘 지냄, 친구가 많아짐	공부방 친한 친구와 멀어짐,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음, 또래와만 어울려서 다른 학년과의 어울림 없음, 동네 친구들과 많이 놀 수 있게 됨, 센터 갈까 친구랑 놀까 고민하지 않아도 됨
가족관계의 변화	공부방 얘기로 가족 간의 대화를 채움, 엄마와 센터 활동에 대한 대화 나눔, 봉사자들 모델링으로 부모와 친근해짐	동생,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
일상생활의 변화	바빠짐, 심심하지 않음, 평소에는 할 일이 없었음, 그러나 센터에서는 할 것이 많음	바빠짐, 다닐 때는 귀가가 늦어 힘이 들었음, 집에서 쉼, 거의 집에만 있음, 지루하고 귀찮음, 배고프고 더 피곤함, 걸어다니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짐, 센터 가는 것보다 지금의 일상이 더 중요함, 청결 상태가 좋아짐, 편해짐, 센터 결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됨. 더 쉴 수 있게 됨, 집에서 혼자 놀면서 시간을 보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짐. 그래서 좀 외로움, 놀 시간이 많아짐
성격의 변화	까칠한 성격에서 차분하고 참을성 생김, 성격이 차분해짐	
학업에서의 변화	성적 평균이 올라감, 공부 안해서 성적이 내려감,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짐, 공부 습관은 차이가 없음, 공부 습관 변화-혼자서 하는 공부	성적이 떨어짐, 학원에 다님, 학원에 다니지 않음, 성적 별 차이 없음, 공부를 안하고 그냥 놔, 스스로 공부하니 성적이 오름,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기초학습을 위해 사설공부방에 다님
기타 변화	꿈이 달라짐, 탁구를 잘하게 됨	
별로 변한 것이 없음	별로 변한 것이 없음	별로 변한 것이 없음

표 Ⅶ-3 시설 이용 후 변화와 가상 중단 상황에서 예상되는 변화

영역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시설 이용 후 변화)	시설 계속 이용 아동 (가상 중단 시 예상되는 변화)
친구관계의 변화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됨, 친구관계가 더 좋아짐, 친구에게 먼저 다가감, 친구와 안 싸우고 잘 지냄, 친구가 많아짐	친구가 없어 심심할 것 같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함, 친구 집에서 놀기,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놀 것 같음
가족관계의 변화	공부방 애기로 가족 간의 대화를 채움, 엄마와 센터 활동에 대한 대화 나눔, 봉사자들 모델링으로 부모와 친근해짐	공부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음, 아파서 집에 누워계신 아빠와 어색하게 지낼 것 같음, 가족 간 대화도 줄어들
일상생활의 변화	바빠짐, 심심하지 않음, 평소에는 할 일이 없었음, 그러나 센터에서는 할 것이 많음	혼자서 지루함, 할 것이 없음, TV 만 쬔 볼 것 같음, 쉬 수 있음, 게임을 많이 하게 됨, 쓸쓸할 것 같음, 계속 놀기, 빈둥거림, 심심할 것 같음, 집에서 뒹굴거림
성격의 변화	까칠한 성격에서 차분하고 참을성 생김, 성격이 차분해짐	
학업에서의 변화	성적 평균이 올라감, 공부 안해서 성적이 내려감,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짐, 공부 습관은 차이가 없음, 공부 습관 변화-혼자서 하는 공부	공부를 안할 것 같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음, 계속 공부만 해서 지겨울 것 같음, 성적이 바닥
기타 변화	꿈이 달라짐, 탁구를 잘하게 됨	맛있는 밥을 먹지 못함
별로 변한 것이 없음	별로 변한 것이 없음	달라질 것이 없음

(2) 내 꿈과 시설 생활

시설 이용의 결과(outcome)를 아동이 꾸고 있는 “꿈”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시설 이용이 “꿈”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자. 황진구 등(2011)의 연구를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다’라는 항목에 대해 100점 환산 평균점수로 77.3점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등의 항목 다음으로 아동이 동의한 항목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시설은 꿈을 꾸게 하는 곳이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을 보면 유난히 “꿈”, “드림”, “희망”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시설 스스로도 “꿈의 실현”을 시설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이제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설 생활이 꿈과 관련이 있다’, ‘없다’ 등의 이야기가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꿈과 시설 활동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시설이 꿈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걸그룹의 00처럼 되고 싶은데, 시설에서 춤을 배워 도움이 됐다는 식, 가수가 꿈인데 동요를 부르고 악기를 배우는 시설 활동은 도움이 안된다는 식, 동화작가로 활동하는데 시설의 책읽기가 도움이 된다는 식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어떤 아동은 시설에 여러 직업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때, 공부는 아동이 갖는 특정한 꿈과 관련이 되는 경우(의사, 검사, 판사, 외교관 등)를 제외하고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부는 어렵고 재미도 없다. 이처럼 직업과 시설 활동의 관계를 매우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은 아동(초5 아동)들이 추상적·형식적 사고 단계가 아닌 구체적 사고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아동들의 반응을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으로 표현되는 “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단계별로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원: 알았어. 그럼 혹시 거기 센터가 어... 나, 나의, 내가, 내가 가진 꿈이랑 좀 관련이 있나?

아 동: 아니요

면접원: 관련이 없어?

아 동: (고개를 끄덕임)

면접원: 응, 어떤 이유에서?

아 동: 제가 가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꿈을. 근데 노래를 하긴 하는데 한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니까 저는 악기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해도 동요를 부르기 때문에 동요나 가, 이렇게 가요나 팝송이나 그런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도움 되는 거 같진 않아요

면접원: 음, 그럼 연관이 없는 거 같애? 관련이?

아 동: 네

면접원: 음, 그럼 좀 어떻게 달라지면은 내 꿈에 도움이 될까?

아 동: 그냥 팝송 연습

면접원: 팝송 연습

아 동: 팝송이나 뭐 가요

면접원: 팝송이나 가요같은 거 연습하는 시간있었으면 좋을까?

아 동: (고개를 끄덕임)(가수의 꿈은 동요, 악기 연주와 관련 없음, id 300,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5) 시설에 대한 평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평가는 사물 혹은 그 속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뜻한다. 평가는 상이한 가치 기준을 가진 평가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가치내재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설 이용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1) 아동의 평가

시설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시설에 계속 다니는 이유, 시설을 그만 둔 이유 속에 반영된다. 그러나 시설의 이용과 중단이 부모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이외에 시설의 좋은 점, 시설 이용이 도움이 된 점, 시설에 바라는 점 등을 추가하여 시설에 대한 아동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시설에 계속 다니는 이유와 시설을 그만 둔 이유를 중심으로 시설에 대한 아동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영역별로 시설과 관련된 아동들 나름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동들 나름의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평가됨을 서술하였다.

첫 번째로 친구 영역에 대한 평가이다. 시설 계속 이용 아동과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으로 시설을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친구와 즐겁게 어울리는데 저해요인이 많을 경우 아동들은 시설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이것이 심해질 경우 시설 중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저해요인에는 ‘괴롭힘’, ‘잡은 결석’, ‘시설 친구(형·동생)의 구성’ 등이 해당된다. 괴롭히는 친구(또래 및 형·동생 포함)가 많고 프로그램에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친구가 적거나(혹은 형·동생이 또래보다 많은 경우, 여기에는 성별, 동네도 고려됨) 하는 경우 시설은 친구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4 친구 영역에 대한 평가

평가 영역	친구
평가 기준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
평가 영향 요인	괴롭힘, 잡은 결석, 시설 친구(형·동생)의 구성

〈평가 기준 - 친구 영역〉

면접원 : 혹시 너무 겸손 한 거 아냐? 몇 정도 나오나? 말하기가 어렵나? 센터를 계속 다니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아 동 : 거기에 안다니면 집에서 공부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지 못하고.**

면접원 : 아... 혹시 다른 이유도 있니?

아 동 :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시설에 계속 다니는 이유- 친구와 많이 놀기 위해, id 34,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영향요인 - 친구 영역〉

① 괴롭힘

면접원: 그러면 그 00가 센터 그만뒀잖아. 센터.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신거야 아니면 너가 안다닌다고 한거야?

아 동: 제가 안다닌다고 했어요

면접원: 너가 안다닌다고 했어? 왜?

아 동: .. 그땐 다니기가 좀 싫었어요.

면접원: 아 진짜? 뭐 때문에 다니기가 싫어졌을까?

아 동: 음... 아 그때요. 어떤 애랑 어떤 형이 있었거든요 **형이 계속 배신이라고 그러면서 짜증나게 해서요.**

면접원: 아 진짜? 어떻게 했길래?

아 동: 아니요 뭐 한 개 같이 안한다고 배신이라 그러고요. 지 하고 싶은 야구 안해주면 배신자고,

면접원: 그래서 그 형이랑 좀 싸웠구나?

아 동: 좀....

면접원: 그형은 아직 센터 다녀?

아 동: 네

면접원: 그 형때문에라도 00가 다니기 싫었구나?

아 동: 네(고학년의 괴롭힘, id 58,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② 잦은 결석

면접원: 아. 선생님들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럼 센터를 마지막으로 갔던 날을 기억하지?

아 동: 네

면접원: 어땠어?

아 동: 그때는 막 애들이 다 제 포래나 형들은 밖에 나갔고요. 어린애들만 남아있고, 저랑 그때 딱 끝났을 때는 다 나갔었어요. 저는 그냥 있었죠. 그냥 애들이랑 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집에 갔었어요.

면접원: 선생님한테도 “저 다음부터 안 나올거예요”라고 이야기는 안 했었고?

아 동: 네. 애들한테는 ‘내일 쉬어야지’ 하고 말했는데, 그 때 쯤 다음부터 못 만났어요. (‘내일 쉬어야지’가 중단으로 이어짐, id 52,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③ 시설 친구(형·동생)의 구성

면접원: 지금이 더 좋아? 어.. 왜? 그러니까 다시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지?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야?

아 동: 거기서 가면요, 이 동네 친구들을 (침묵) 애들이랑 잘 못 만나고요. 학원 다니면요 이 동네 친구를 같은 학년이라 친해지면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센터에는 동네 친구가 없음, id 2,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면접원: 아, 친구랑 놀거나 이런 건 없었고?

아 동: 학교 생활 때 많이 놀아요.

면접원: 아니 거기 센터에서

아 동: 전 친구가 거기서 나이에 안 맞아서 그냥 제가 안 해요.

면접원: 아, 제가...

아 동: 애들이랑 노는 것도 유치하고 그래요. (중략)

아 동: 어, 제 포래도 없어서 재미 음... 어, 내용은 좋긴 좋았는데요 어, 한 어, 어... 제 친구가 거기 없어서요 그냥, 가만히 체험했어요(포래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냄, id, 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두 번째로 공부 영역에 대한 평가이다. 시설 계속 이용 아동과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충 가르치거나, 공부량이 너무 많거나, 학년에 따라 지도가 달라지는 등의 저해요인이 클 경우 공부하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시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에는 ‘낮은 교육의 질’, ‘과도한 공부량’, ‘교육 부재’, ‘시끄러운 분위기’ 등이 해당된다.

표 VII-5 공부 영역에 대한 평가

평가 영역	공부
평가 기준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
평가 영향 요인	낮은 교육의 질, 과도한 공부량, 교육 부재, 시끄러운 분위기

〈평가 기준 - 공부 영역〉

면접원: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 거기서 했던 거

아 동: 공부 같은 거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뭐랄까 이렇게 성적 같은 걸 유지해준 것 같은 느낌

면접원: 아 거기 다니면서 내 성적이 좀 유지..

아 동: **내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요**(공부 부담을 덜어주는 곳, id 15,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영향요인 - 공부 영역〉

① 낮은 교육의 질

면접원: 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동: 똑같아요

면접원: 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뭐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 거기 다니고 만약 거기 계속..

아 동: **선생님이 너무 대충 가르쳐 주세요**

면접원: 아 너무 대충 가르쳐 주셔?(웃음)

아 동: 수학선생님이

면접원: 수학선생님이 대충 가르쳐 주시고

아 동: 그 무작정 풀게 하고 모르는 것만 물어보라고 해요

면접원: 아.. 물어보는 것만?

아 동: 네

면접원: 그럼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

아 동: 네(공부를 대충 가르쳐줌, id 31,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② 과도한 공부량

아 동: 그리고 그, 그, 딱 몇 장, 몇 장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는 최소한 한 장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 과학, 수학, 사회, 국어를 딱 두, 세, 네 장씩 풀고, 또 기초수학이라는 기초수학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숙제도 있는데, 그거 다하기 전까지, 그거를 다했어요. 근데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는데, 그, 차라리 그 책 볼 거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웃음)(센터 공부량 많음, id 433,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③ 교육 부재

면접원: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나?

아 동: 그냥 공부를 저 혼자하고 싶고

면접원: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시긴 하셨니?

아 동: 아니요.

면접원: 잘 안가르쳐 주셨어? 아...

아 동: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게 낫죠 너무 시끄러워요.**

면접원: 너무 시끄럽고.. 공부방이?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아 동: **안가르쳐 주시는데**

면접원: 아.. 안가르쳐 주신다고? 어? 그럼 네가 질문했는데 답을 안 알려주시는건가?

아 동 :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데요, **고학년반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면접원: 아.. 고학년 반에는 선생님이 안계시는구나. 저학년 반에만 선생님이 계시고?

아 동: 네(고학년은 가르쳐주지 않음, id 124,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④ 시끄러운 분위기

면접원: 0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

아 동: 어, 공부. 아, 애들 조용히요.

면접원: 애들 조용히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아 동: 네(조용한 분위기 원함, id 1,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세 번째는 일상생활(도움) 영역이다.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또한 다양한 자유가 보장되는 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식사 및 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동들이 불만이 거의 없었다. 특히 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황진구 등(2011)의 연구에서도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80.9점, 놀이나 문화, 취미활동을 하는 것(예, 악기 배우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7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할 경우 만족도와 관련된 편차는 적은 편이다.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은 ‘자유를 보장하는 곳’이다. 여기서 ‘자유’에는 학원 등과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유, 중학교까지 이용하는 자유, 출석(결석)의 자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해당된다. 아동들은 이런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시설을 선호한다. 이러한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주로 시설 운영 체계(제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시설 입장에서 학원 등과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동들이 짧은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남아 있는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의 문제 등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다.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에 아동과의 대화에서 이런 요인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음 <표 VII-6>에서 영향 요인은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표 VII-6 일상생활(도움) 영역에 대한 평가

평가 영역	일상생활(도움)
평가 기준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 아동들이 해 준 이야기가 없음

〈평가 기준 - 일상생활(도움)〉

면접원 : 그러면.. 지금 5년 째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아 동 : 네. 탁구장 때문에..

면접원 : 탁구장 때문에..

아 동 : 근데 거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못 다녀요.

면접원 : 아~ 왜?

아 동 : 6학년까지만 다닐 수 있어요.

면접원 : 아~ 센터를.. 그럼 탁구장 이외에 센터가 00이에게 즐거운 곳인 이유는 뭘까?

아 동 : 친구들이랑 노니까요..

면접원 : 그리고?

아 동 : 그리고.. 그냥.. 뭐.. 음.. 가끔씩 수영장도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 가는 뭐 그런 것들
것 느낄 수 있으니까..**(집에서 못하는 체험을 함, id 40,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음.. 틀린걸 또 틀리지 않아야겠다. 그럼 앞으로 학원을 끊고 예전처럼 그런 공부방이나 비슷한데
있잖아.

아 동: 네

면접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다녀 볼 생각은 있어?

아 동: 어.. **학원은 끊기 싫고, 거기서(센터에서) 미술 같은 거나 뭐.. 펠트 그런 거 배우는 거는 하고
싶어요.**(공부는 학원에서, 다른 것은 시설에서, id 5,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네 번째는 선생님과 관련된 영역이다. 아동들은 선생님과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한다. 선생님에 대해서 학원 선생님과 같은 전문성, 그러면서 엄마와 같은 따뜻함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시설 선생님이 무섭고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아동들은 ‘적은 선생님의 수’, ‘선생님의 품성’을 꼽았다.

표 Ⅶ-7 선생님 영역에 대한 평가

평가 영역	선생님
평가 기준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
평가 영향 요인	적은 선생님의 수, 선생님의 품성

〈평가 기준 - 선생님〉

면접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선생님들만 조금 더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만 바뀌면 다시 이용할 의사는 있고?

아 동: 더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더 안 좋아요.

면접원: 왜?

아 동: 재미가 없어요

면접원 : 아 그렇구나

아 동: 일단 학원 센터 다닐 때요 맨날 목요일이랑 화요일 기다려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오는 날이에요 원래 오던 쌤인데요 이제 그거 끝나가지고 근데 그거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가끔씩 와요 근데 요새는 안와서 다행이에요 안 오면요 만약에 오면요 저는 못 보잖아요

면접원: 남자분이서?

아 동: 여자예요

면접원: 아 그렇구나.

아 동: 그래서 쌤 별명이에요 **학원 맘**이에요

면접원: 학원 맘? 왜?

아 동: **엄마처럼 대해줘서..** 그래서요 쌤이랑요 어울려 다니면 뭐 저보다 동생 두 명하고요 친한 언니한명하고요 선생님한테 맛있는거 사 달라하고 사다주고요 그다음 또 그거 같이 또(엄마처럼 대해주는 선생님 좋음, id 59,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영향요인 - 선생님 영역〉

① 적은 선생님의 수

면접원: 응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다면가 아니면 이제는 ******(새로 다니게 된 시설)에서는 저녁을 먹고 오니까 집에서는 저녁 안 먹겠네

아 동: @@(작년에 다니던 시설) 다녔을 때 그 수학문제집 풀고 그럴 때 다른 애들도 봐 선생님 1명인데 다른 애들도 봐줘야하니까 잘 못 가르쳤는데 ******다녔을 때는 좀 돌아갔어요 머리가

면접원: 그랬어 그럼 ******에는 선생님이 더 많아 @@보다

아 동: **똑같은데 한 프로그램당 2명 들어가 있고 그래**

면접원: 아 그래서 더 이제 너희들을 더 많이 봐주실수 있겠구나. 선생님들이 근데 @@다닐 때는 한

프로그램당 1명 선생님이 있으셨고

아 동: 네(선생님이 더 많아 좋음, id 26, 새로운 시설(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② 선생님의 품성

조사원: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러면 00아 혹시 선생님한테나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모르는 친구들한테 **에 대해서 설명해주려면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

아 동: 다니지 말라고 할 거 같은데

조사원: 왜?

아 동: 5학년 된 사람들은 차별만 한다고(선생님이 차별하지 않았으면 바람, id 46,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이상에서 살펴본, 친구, 공부, 일상생활(도움), 선생님 영역에서의 평가 이외에, 기타 영역에서 발견되는 시설 계속 이용 아동과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집과 시설 사이의 거리” 문제이다.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 이용의 접근성도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2012년 현재 200개소가 있는데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3,985개(2011년 12월 기준)이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을 돌고 도는 버스 노선은 아동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 Ⅶ-8 시설에 대한 아동의 평가

영역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시설에 계속 다니는 이유/시설에 바라는 것)	시설 이용 중단 아동 (시설을 그만 둔 이유/시설에 바라는 것)
친구	- 친구들과 많이 놀기 위해, 친구 많고 재미있음, 친한 친구가 있음, 친구와 탁구하고 노는 것이 좋음, 친한 언니 많음, -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 고학년의 괴롭힘, 나쁜 친구의 괴롭힘, 잦은 결석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움, 센터에는 동네 친구가 없음 - 처음 왔을 때 형누나들이 장난치지 않기

영역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시설에 계속 다니는 이유/시설에 바라는 것)	시설 이용 중단 아동 (시설을 그만 둔 이유/시설에 바라는 것)
공부	-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움, 전과목 공부를 가르쳐줌, 공부 설명을 잘 해주심, 공부가 잘됨, 학원가지 싫어서, 학원보다 놀 수 있어서, -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면 좋겠음,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수업 원함, 공부 조금 하기, 공부할 수 있는 환경 - 꿈을 정해주면 좋겠음	-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학원이 더 잘 가르쳐줌, 영어성적이 떨어져 그만 다니게 됨, 공부를 대충 가르쳐줌, 고학년은 가르쳐주지 않아 결국 혼자 공부함, 원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국수 중심으로 공부하여 다른 과목의 성적이 떨어짐, 센터 공부량이 많음 - 공부를 심하게 시키지 않는 것, 특히 수학 공부, 전 과목을 두루 가르쳐주는 것, 특기도 좋지만 공부를 강화해주었으면 좋겠음
일상생활 (도움)	- 밥을 먹을 수 없음, 여러 가지 도움이 됨, 집에서 못하는 체험을 함, -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생일잔치, 과일을 매일 먹고 싶음, 더 많이 놀게 해주었으면, 매일 1회 야외활동하기, 자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음, 영화관가기, 수영장 가기	- 바빠져서 시간이 없음, 학원시간 때문에 센터에 있을 시간이 없음, 방과 후와 센터 시간이 겹침, 영어학원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교 돌봄 교실 이용으로 중단, 자유가 없음, 센터 프로그램에 빠질 것 같으면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들음 - 자유 시간을 더 많이 주었으면 바람, 이용시간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음
선생님	- 타 센터는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다고 함, 선생님이 자상하심 - 화내지 않는 선생님, 차별하지 않는 것,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음	- 선생님이 안 무서우면 다시 다닐 의사 있음, 선생님이 무서움, 엄마처럼 대해주는 선생님 좋음 - 선생님이 화를 덜 내는 것, 전문 선생님의 지도
기타	- 재미있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됨, 정이 들었음, 부모님의 결정, 나쁘지 않음, 집에서 가까움, 선생님이 자상하심	- 다니던 센터가 문을 닫음, 집이 이사를 해서, 한두 번 잇고 안가면 계속 안 가게 됨, 나와 맞지 않음, 청결하지 않은 센터,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가 그만 두라고 함, 멀어서 그만둠 - 아이들 청결지도, 가까운 곳에 위치
이유 없음	이유 없음	특별한 이유 없음

(2) 어머니의 평가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부분 어머니이다. 어머니들은 시설 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 그러니까 2011년에 이어 계속해서

아동을 같은 시설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았다.

①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가 내린 시설에 대한 평가는 “고맙지만 아쉬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보호 공백을 메워줘서 고맙고 여러 가지 형편상 해주지 못하는 것을 시설에서 대신 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아쉬움은 현재의 시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인정으로 때론 변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가. 고마움

고마움
- 보호 공백을 메워줘서 만족함 - 형편상 해줄 수 없는 것을 센터에서 제공해줘서 고마움

어머니: 네. 100% 센터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저희들 처지에서 해줄 수 없는거... 외식 비싼거... 이런거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차원에서 생각도 못하는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형편상 해줄 수 없는 것을 센터에서 제공해줘서 고마움, id 5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나. 아쉬움

〈보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함〉

시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리 생산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이다. 뭐하나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다. 공부와 정서 돌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쳐버린 형국이라고 할까. 이런 와중에 선생님도 계속 바뀌니,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없다. 보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함이라는 아이러니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어머니 스스로 시설에 대한 100% 확신이 들지 않고 어렵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곳이라는 생각에 시설에 가야하는 자세한 내막을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보내지 않아야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아쉽기 때문이다.

어머니: 네. 근데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케어도 하면서 공부도 들어가야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힘이 드는 부분이죠. 많이 힘이 드는데...**(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움, id 4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변화 요구〉

그럼에도 달라지길 기대한다. 공부 실력을 좀 더 끌어올려주길 기대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방법도 알고 싶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참, 여기 공부방의 시설장님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어찌보면 시설장님을 탓할 순 없는데... 엄마들도... 아이들이랑 힘을 합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노력해야 함, id 4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

표 Ⅶ-9 어머니의 시설 평가(by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어머니)

개념	범주
- 열심이지만 썩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 -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 -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움 - 센터가면 애들 버림 - 공부방 가야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리지 않음	보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함
-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길 바람 - 아동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고 싶음 - 함께 노력해야 함	변화 요구

②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는 “아쉽지만 고마운 마음”, “아쉽지만, 별 다른 수가 없음” 등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계속 시설에 보낸다. 이에 비해 다니던 시설을 그만 둔 어머니의 행보는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적극적이다. 만족해서 다니던 방과후아카데미가 문을 닫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제외하고 다른 어머니들은 자의건 타의건 선택에 의해 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들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설을 그만 둔 이유, 그리고 시설 이용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시설을 그만 둔 이유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재진술해 보았다.

〈재진술 사례1〉

공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시설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이다. 정확히 말하면 시설을 그만 두게 한 이유이다. 공부를 못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성적 걱정도 커진다. 특히 큰 자녀를 시설에 보낸 경험, 그리고 큰 자녀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진 것을 경험한 어머니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 일찌감치 시설을 그만 두고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키는 학원을 보내는 게 최선이다. 그래도 시설에 대한 미련은 남아서 월수금은 학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좋아서 시설에 보내고 싶지만 이걸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 예를 들면 애가...원래는 공부를 잘 했는데 **학원을 다녔을 땐 공부를 잘했죠**. 그러다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학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 (지역아동센터)에 갔는데...교과랑 뭐가 이어진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니까..**

조사원: 음...

어머니: 친구들은 애가 공부를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애는 정작 모르는거야. 수학을.... 친구들이 ‘재는 공부잘해, 00는 공부잘해...’하고 알고 있는데 저는 수학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학원 보내달라고....**(공부 때문에, 학원에 다녀야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그만 둬, id 4,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해도 학원만큼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를 텅텅 보내놓으니까는...애가 진짜 못 따라가는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학원만 못한 방과후아카데미, id 21,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재진술 사례1〉과 달리, 시설에 보낼 때부터 공부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도 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도 맥락을 고려하면서 재진술하였다.

〈재진술 사례2〉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시설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좋지만 공부는 별로 아니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부에 대한 불만은 적다.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 공부 보다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줘서 내성적이고 자존감도 낮은 우리 아이에게 활동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설이 너무 좋았다. 덕분에 아이도 많이 강해졌다. 게다가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원에 비해 경제적 부담도 적다. 그런데 이 방과후아카데미가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버렸다. 예산이 적에 투입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방과후아카데미처럼 운영할 수 없을까. 어디로 보내야할지 고민이 깊다.

어머니: 네. 잘 해주셨죠. 학습에 대한걸 보면 거의 똑같이 문제집 푸는 형태 뭐 이런 거긴 했는데...

일반학원을 보내지 않고 **을 보낼 때는 학습의 비중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다 공부는 잘하기 때문에...우리 애들은 못하지만(웃음) 공부만 잘 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걸로 학교교과에 대한 평가로 아이들 전체를 평가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다녔던 아이들은 성격도 그렇고...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애 위에 아이들 2년, 3년정도 다녔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위에 아이들은 잘 모르고 큰애 또래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을 보면 내가 뭘 해야하는지 알고, 중학교 1학년인데 ‘나 이겨 할래.’라고 스스로 그것을 줄라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거길 다녀서 그렇게 된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함, id 6,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 시설 폐쇄로 중단)

어머니: 우리 00이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그랬죠. 왜냐면...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좀 그랬고...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데...**다양한 체험학습,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이 애가 여물어지고 자기 표현도 하고** 집 나가면 죽는 줄 아는데...이제 갔다가 올 줄도 알고....(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후 아이가 달라짐, id 7,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 시설 폐쇄로 중단)

어머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도 알아보면 그냥 밥, 식사제공과 학습지 제공을 하긴 하는데 학습지가 그냥 문제집만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왕 지원이 될 거 같으면..여기 방과 후같은 경우는 ◇◇시에서 반, 여성가족부에서 반을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손대지 않아도 정말 안전한 보호 아래 학습 등의 여러 가지 체험이나 경험... 공부라게 지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인거니까.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게 되면...! 정말 학교교육... 일반학원 안보내고 학교교육외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역아동센터도 방과후아카데미처럼 운영되길 기대함, id 6 아동의 어머니,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 시설 폐쇄로 중단)

위에서 살펴본 <재진술 사례1>과 <재진술 사례 2>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시설 이용 중단 결정에서 “자발성” 정도가 다르다. <재진술 사례1>은 어머니의 선택으로 시설 이용을 중단했다면 <재진술 사례2>는 시설이 문을 닫아서 중단된 경우이다. 또한 “공부”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재진술 사례1>의 경우 공부를 학과 공부, 학교 공부 위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진술 사례2>의 경우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학과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애초의 기대 혹은 기대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다. <재진술 사례1>의 경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체험도 의미 있다고 여겼지만, 중학교 입학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시설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게 되었다. 부모의 기대는 변했는데,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 부모가 시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진술 사례2>의 경우, 애초부터 공부 외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설에 보냈고 그런 기대가 다른 아동의 변화를 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다음에는 시설 이용의 장단점에 관한 어머니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시설 이용 중단과 관련해서는 <재진술 사례1>, <재진술 사례2>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머니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시설 이용의 최고의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아동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했던 것 이상으로 부모들도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매우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정작 엄마 아빠는 맞벌이에, 경제적 부담에 여러 이유로 체험은 엄두도 못내는 데, 시설이 엄마 아빠를 대신해주니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면접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많이 하셨었던거군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아까 00이가가 대답을 못했던 부분...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방과후아카데미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곳이었던 것 같으신지...?

어머니: 진짜... **엄마아빠의 대리... 대리엄마아빠?** 모든 면에서? 진짜 맞벌이 부부들도 그렇지만 특히 **없는... 집에서는 체험이라는거 자체를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뭘 하려해도 어디까지 가야하는데 그런 교통수단이라던지... 뭐 어떻게 해야한다는... 그런거 자체가 참 힘든데... 그거를 우리 부모를 대신해서 해줬다는게 저는 대리 부모다. 체험하는것만으로도 애들한테는... 참.... 00가 그걸 좋아했

던 거는 거기 체험이 많아서였던거 같아요. (방과후아카데미는 대리부모 역할을 해주는 곳, id 21,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어머니: ****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체험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모두 생업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어, 저기 음, 갯벌체험. 이런 것들. 그래서 엄마가 실제로. 엄마는 그날토록 한번 해보지 못한 것들을 너는 벌써 해보는구나. 나중에 나를 데리고 한번 같이 가자. 얘기할 정도로 체험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 게 가장 좋았고, 그게 방과후아카데미 보내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만족스러움, id 20,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체험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급식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부모 교육에 대한 만족이다.

성북구 위기가정 및 아동 욕구조사(2012)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양육자들은 자신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자녀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정 내 학습지도의 어려움’,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 질문으로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상할 수 있는가? 앞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질문에서 ‘자녀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크게 얘기하였으니,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달랐다.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아동 학습지도’, ‘문화체험’, ‘음악, 미술, 컴퓨터 등의 취미·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갈등 해결과 관련된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은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고민이지만, 당장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과 체험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울 성북구의 상황만이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만난 어머니 대부분도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보다 ‘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높은 선호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어머니 가운데 ‘학습’, ‘체험활동’에 덧붙여,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부모-자녀 관계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모 교육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신 분이 몇 분 있다. 부모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한 분은 id 20 아동의 어머니이다. 이분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결혼하면서 광역시로 이사를 왔다. 큰 아이(남)가 4학년 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졌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id 20 아동이 방과후아카데미를 그만둔 이유는 ‘너무 멀어서’이다. 형과 같이 다닐 때는 멀어도 버스 타고 보냈지만, 형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다닐 수 없게 되면서 초등 자녀 혼자서 버스 타고 이용하는 것이 걱정스러워 이용을 중단하게 된 사례이다.

이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다. 이 경우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인식하면서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모 교육이 샘플과도 같았다고 한다.

*어머니: 또 다른 거는 부모교육. 어, 그 이런 가정의 부모에게는 더 더욱이나 필요하고 어, 한마디라도 더 조심스럽게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아주머니들과 어울려서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교육이 너무 좋았다**. 정보가 없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이런 교육이 샘플 같은 교육이다**. (샘플과도 같은 부모 교육, id 20,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의 어머니)*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부모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중요하다는 인식, 이른 퇴근(오후 4~5시 퇴근), 대화와 교제를 즐길 등이 두드러진다.

이번 연구는 아동을 중심으로 시설의 의미, 시설에서 제공하는 아동 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야기, 부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시설에서의 공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 체험 학습에 대한 일관적이고 높은 만족 이외에, 시설에 대한 불만도 발견된다. 그것은 이용하는 아동들이 욕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 냄새나는 열악한 시설 환경, 시설 이용 아동이 많아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예를 들어, 피아노를 조금씩밖에 치지 못하는 문제), 시설에 지각한 아동을 심하게 야단치고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 일반아동과 어려운 아동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아동에 대한 개별적 지도가 부족한 것 등의 문제이다.

*어머니: 아... 애는 성격은 참 좋아요. 제 딸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 왜 그만뒀냐면요... 원장선생님이 약간의 독재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자기 말 안 듣고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안하고 늦게 오고 그러면 탈퇴를 시켜요. 그리고 돈을 한 달에 5만원씩 내래요**.*
면접원: 원래는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피아노도 10분? 이정도 가르쳐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다보니 애가 자꾸 스트레스 받죠. 늦게 오면 뭐라 하고 그러니까. (시설장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 id 11,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또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설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중학교에 가면 교육 지원이 더 절실해진다. 그런데 학원은 너무 비싸니 보낼 곳이 없다. 시설에 계속 다니면 좋을 텐데 중학교에 가면 이용할 수 없다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연구자가 만난 어머니 한 분은 큰 아이(중1)가 졸업하기 전까지 중학생도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셨다.

6)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마지막으로,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시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알아보았다. 아동과의 면접을 마치면서 “시설은 나에게 000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하였고 000에 들어갈 말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시설이 아동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다. 아동들이 사용한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답아 <표 VII-10>에 정리하였다.

아동들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시설 계속 이용 아동과 시설 이용 중단 아동, 새로운 시설 이용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에(배움터에 대한 진술이 시설 계속 이용 아동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을 친구한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공부하는 곳’, ‘학교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센터’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1) 놀이터: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노는 곳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시설은 친구, 형·동생들을 사귀고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놀이터와 같은 곳이다. 집에 혼자 심심하게 있을 때와 달리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도 배웠고 여러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면접원: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많이 나눴잖아. 선생님이랑. 얘기 많이 나눴는데 어, 00에게
 **(지역아동센터)는 뭐인 거 같애?

아 동: 음... 음... 그냥... 생각 안나요

면접원: 그럼 좀 더 쉽게, **는 나에게 땡땡이다.

아 동: **는 나에게 어... **친, 형, 누나들하고 친해지니까 좋은 곳**

면접원: 아, 형, 누나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어, 그렇구나.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 동: 저요? 어... 형, 누나들이,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형, 누나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형누나와 친해지는 곳, id 46,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아 동: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

면접원: 행복하게 해주는 곳... 아... 특별히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데요?

아 동: 그냥... 가면은... **뭐 친구들이랑 있는게 그냥 좋았어요.**(친구들이랑 있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 id, 7,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2) 배움터

시설은 공부하는 학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배우는 공간이다. 혼자 공부할 때 몰라서 답답했던 것을 풀어주는 답안지이자 해결책이 바로 배움터, 시설이다. 공부를 왜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충분한데 도대체 시설에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성적이 올라 칭찬받을 때는 기분이 우쭐해지도 하는 것을 보면 시설은 공부 도우미다.

면접원 : 음, 좀 어렵죠. ○○○이다, 나에게 있어서 **(방과후아카데미)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오아시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오아시스 알죠? 사막에 있는 갈증을 풀어주는 물 같은 그런 존재래요. 그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 동 : 어..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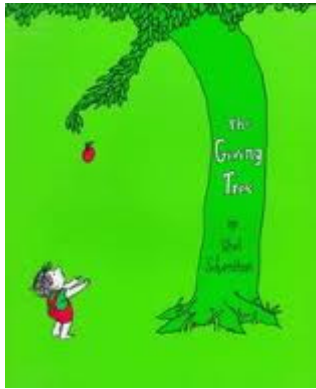
면접원 : 아, 해결책이다?

아 동 : **답안지.**

면접원 : 답안지다? 아, 그건 무슨 의미예요? 어떤 뜻이에요?

아 동 : 어.. **궁금한 거 있을 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고요.** 어.. 뭐 잘 풀이해줘요.(시설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답안지, id 20,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3) 시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소년이 사과나무 밑에서 놀고 있다. 그러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따먹고, 소년이 자라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한다. 청년은 사과 나무 가지를 잘라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청년은 장년이 되어 이번에는 아예 사과나무 동치를 베어 배를 만들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세월이 또 흘러 소년은 늙은이가 된다. 이제 기력이 다해버린 소년은 여태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 사과나무의 그루터기에 와서 조용히 앉아 쉰다.

이 이야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의 줄거리이다. 여기서 나무는 어린 소년이 자라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존재이다. 시설도 우리 아동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편안함을 주고 뭐든 도와주는 존재 그리고 힘들 때는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면접원: 마지막으로 ** 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역아동센터)은 OOO이다.** 라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거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지역아동센터는 나의 휴식처다.. 라는 친구... 나의 놀이터다... 라는 친구도 있었구요. OO이에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

아 동: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면접원: 나에게 뭘 해주는 곳이다?

아 동: (고민하다가) **는... **하나의 나무** 같아요.

면접원: 나무? 왜 나무 같아요?

아 동: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에서 저희가 쉴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공부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땀이 났을 때 그 쪽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나무** 같아요. **나무에서 열매도 열리니까 그것도 따먹을 수 있는거 같아요.** (id 41,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요리 같은 거 교육시켜 주는 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 OO가 **를. **는 나에게 네모다. 라고 하면 뭐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아 동: 음..

면접원: **는 나에게..

아 동: **활력소**.

면접원: 활력소다. 그 이유는?

아 동: **여기에서 다니고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기운을 많이 차렸어요.**

면접원: 왜 우울했었어? 이전에?

아 동: 그 때 맨날 집에서 있었으니까..

면접원: 혼자 집에서 있었으니까?

아 동 : 그래가지고 **기운이 없었는데 여기(지역아동센터) 오고 나서 기운이 났어요.** (우울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 id 45,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마지막 질문이다. 크게 숨을 쉬어보자. 자.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 동: 음...

면접원: 지역아동센터는 000이다. 글자 수는 제한이 없어.

아 동: **책받침? 받침이요. 그냥 책을 쓰면 빠돌 할 수 있는데, 책받침은 좀 더 평평하게 해 주잖아요.**

면접원: 아, 지역센터가 그런 것 같아?

아 동: 네.

면접원: 만약 지역센터를 안 다니게 되면 뭔가 평평하지 않는데?

아 동: 하지만 **좀 더 자기가 나갈 수 있게 하겠죠.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고**(책받침과 같은 존재, id 52,
시설(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 아동)

(4) 나의 베스트 파트너

시설은 나의 동반자이다. 동반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유사한 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나의
꿈, 미래와 관련하여 멘토와 같은 느낌이 강하다. 나의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꿈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준 나의 든든한 멘토 같은 공간이 시설인 셈이다.

면접원: 어 그렇구나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

아 동: 네

면접원: 내가 다니는 센터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는 나한테 땡땡땡이다
뭐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 동: 여기 센터는 **나의 최고의 센터에 센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는 센터다.

면접원: 아..도움이 되는..아..그러니까 최고의 센터고 나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센터다.

아 동: 네

면접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동: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너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id
35, 시설(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 아동)

면접원: 그러면 00아, 00이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 그러면 문제 하나 별개 청소년아카데미는 나에게 000이다 했을 때 000은?

아 동: 숨겨진 소질을 발견해주는...

면접원: 어떤 소질?

아 동: 그냥 내 스스로 음악적 그런 건 저도 여러가지 시도도 안해봤던 여러 가지 특기들을 많이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게 좋은점..

면접원: 물랴를 법한 것들을..

아 동: 네 많이.. 좋았죠.(숨겨진 소질을 발견해주는 곳, id 836, 시설(청소년 아카데미) 이용 중단 아동)

표 Ⅷ-10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의미	시설 계속 이용 아동	시설 이용 중단 아동
놀이터: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노는 곳	-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는 곳이다 - 친구와 어울려 배우고 공부하고 즐거운 곳 - 친구가 생기는 곳 - 형·누나와 친해지는 곳 - 노는 곳이다	- 친구 사귀는 곳 - 친구들이랑 있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 - 놀이터 - 재미있는 활동 때문에 즐거운 곳 - 노는 곳이다
배움터		- 성적이 오르게 해주는 사람 -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제공 -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시간 - 나만의 공부방 -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답안지, 해결책 - 센터는 공부하는 학교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 밥 먹을 수 있는 곳 - 편안한 공간이다 -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 최고의 센터이고 언제든지 도와주는 센터 - 나무: 실 수 있고 도움을 주는 나무 - 도움책 - 유익함 - 좋다. 나에게 필요한 곳 - 활력소: 우울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	- 편안한 휴식처 - 책받침: 도와주는 곳 - 즐겁고 행복해 부담과 고민을 잊을 수 있는 곳
나의 베스트 파트너	- 나를 믿어주는 곳이기에 최고로 좋은 곳 - 나에게 꿈이 되는 길 - 꿈에 뭔가 도움이 됨	- 나에게 편한 친구 같은 곳 - 꿈을 갖게 한 곳, 희망 - 특기를 올려주는 곳 - 숨겨진 소질을 발견해주는 곳
기타	- 평범한 곳이다 - 물음표(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음) - 문제가 있는 애들 모아 놓은 곳	- 별 의미 없음 - 그리 필요하지 않은 곳 - 재미있는 곳 - 후회막심

제 8 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8 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⁵²⁾

1. 연구결과 요약

이 조사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2차 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1년 1차 본조사와 종단비교분석 하였다. 셋째,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횡단비교분석을 통해 전체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넷째, 시설 이탈 아동·청소년 30명과 시설지속이용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국내외 관련정책 분석과 조사결과를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시설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1)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52) 이혜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 모든 참여집필진 공동집필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에 어떠한 방향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나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방과후서비스는 소득수준별 계층 간에 교육기회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학교 정규수업시간만으로는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함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정책이다. 이러한 방과후서비스는 전체 초등학교 중 98%가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지원 또는 숙제클럽 등 학교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역할수행자로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교육서비스 및 조언·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돌봄서비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정부는 10억 파운드 이상을 방과후서비스 발전 도모를 위해 지원하였고, 2011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에게 자유와 융통성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과후서비스 예산을 보다 많이 책정하려는 의사가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개별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여지를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방과후서비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연계점에 방과후서비스가 위치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기관 연계협력 모형을 지향한다. 또, 영국에서 학교의 2/3정도가 방과후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연계를 피하고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질의 통제를 위해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아동보호 및 복지, 그리고 활동정책은 현행 우리나라의 유사한 정책보다 상당히 세밀하고 발전적이며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뉴욕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뉴욕 주 아동복지서비스 법안인 사회서비스법(Section 390)은 모든 아동을 위한 보호·복지지원 관련법으로써 그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더불어 아동보육 요구자격 및 등록에 대하여 매우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의 기준과 훈련, 아동의 생활공간 내에서의 살충 소독제의 사용금지, 뉴욕 주 아동보육조례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 Los Angeles시 방과후 프로그램인 LA's BEST(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도덕적 의무를 시에 부여하는 것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안전하고 잘 구비된 방과후 교육, 풍부한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을 로스앤젤레스의 5~12세 연령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삼는다. LA's BEST 대상 아동은 Los Angeles의 폭력, 약물, 범죄 등에 취약한 28개 학교구역의 취약연령 아동을 원조의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학교구역은 주로 로스앤젤레스 동남부와 산 페르난도 계곡(San Fernando Valley)에 위치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교육평화조성을 위한 모험 (Adventure in Peacemaking)'은 인내와 갈등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써 독서활동과 그룹토론을 통한 협력, 감정표현, 의사소통, 다양성과 갈등해결에 대한 강조에 역점을 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도 건강을 중시하고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과 영양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베스트 핏(BEST Fit)이란 프로그램이 있으며, 아동에게 비즈니스와 경제의 기본개념, 취업의 준비를 가르치는 'Junior Achievement' 등이 있다. 그동안 이 단체는 교육위원회와 Los Angeles 통합학군(LAUSD) 등이 운영을 맡아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학업성적 향상, 학생의 행동개선, 학교 내 범죄율 감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영향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업과 태도 측면 이외에도 환경과 안전에 대한 태도, 성인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및 학교활동에 대한 태도 등에서도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예방과 치료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문제나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보편적인 동시에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개별화 정책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이중망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은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문제의 단초는 가정의 위기이며, 이를 다시 사회전체의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또한,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재정적 지원이며 주택지원도 이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적 계층 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마련하여 개별 환경에 적합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아동·청소년보호 정책은 아동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재가보호가 가능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가정환경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시설로 격리 보호를 한다. 즉 개별적인 문제요인에 따라 보호 장소나 방법이 정해진다. 아동·청소년 시설의 보호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문제나 위기의 아동·청소년들을 정상화시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단지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이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어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전 지역에 일관성 있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소수규모의 시설지원, 교육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거의 일관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일본의 방과후서비스는 크게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과 방과후아동플랜으로 대표된다.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은 1980년경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원 속에서 주민들의 협력형태로 시작되어, 1989년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지역에 활용하여 영유아 양육을 지원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역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보육시설에서 육아불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과 자녀양육부모와 자녀가 가볍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광장사업에 의해 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을 추진하였고, 더 나아가 2007년부터 아동관의 활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으로서 재편하였다.

방과후아동플랜은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의 자녀양육기능·교육력의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방과후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방과후대책으로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실요강’을 정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 ‘방과후대책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시정촌이 실시하는 방과후아동클럽 및 방과후아동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활동으로 강력한 연계가 필요할지라도 그것을 일체화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방과후아동교실과 방과후아동클럽을 하나의 체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물며, 현재의 여건에서는 하나의 체제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많다. 즉 방과후아동교실로써 방과후아동클럽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아동교실의 활동을 방과후 매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또는 장기휴일 중에도 개설을 강행하는 것으로 방과후아동클럽을 포괄하려는 독자적으로 「전아동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클럽이용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가 중요할 것이다.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1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기타 환경상 양호(養護)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 아동을 양호하고 아울러 퇴소한 자에 대한 상담 기타 자립을 위한 원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1년 3월 현재 585개소로 정원은 34,522명이며, 현재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29,114명이다. 최근에는 시설의 소규모와 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보장기능과 더불어 심리적 치료를 포함한 특화한 기능, 개개 가정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 기능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다. 즉 아동과 가족의 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아동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아동양호시설의 최저기준이 개정되고 사회적 양호에 바탕을 둔 이념과 원리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시설의 소규모화’, ‘시설 기능의 다양화’, ‘가정적 양호’ 등을 기본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양호시설은 소규모화와 케어단위의 소규모화, 생활보장에서 나아가 치료적 생활의 장으로서 역할, 아동에서 나아가 부모를 포함한 지원을 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관점의 확대, 지역사회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의 아동양육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학교 등 교육관계기관과의 관계강화, 가정과 같은 환경의 정비 등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실태분석

(1) 일상생활 실태

첫째, 취약아동 패널 중 1학기 동안 결석경험이 있는 학생은 16.5%로 나타났다. 결석이유는 ‘질병’이 전체 응답자의 65.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족행사 혹은 여행’(15.9%), ‘사고’(9.1%) 순으로 많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가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정 경제수준 사각지대 아동에서 결석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24시간 아동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어서 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 낮은 결석율을 보이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유의해야 할 결과로, 결석이유 중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였고,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설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85.1%로 나타나, 시설아동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컴퓨터 사용 장소는 ‘우리집’(양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해당시설을 포함)이 88.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학교(4.3%), 이용시설(3.4%)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은 68.75분, 주말은 93.97분으로 나타나 주말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1-2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전체 평균 68.75분 대비, 지역아동센터, 남자, 기초생활 수급, 한부모가정 패널의 컴퓨터 이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항목별 컴퓨터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게임/오락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부 및 학습사이트, 학습 외 정보검색, 댓글달기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컴퓨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고 자칫 인터넷 몰입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귀가 후 혼자 있는 경우는 61.8%로 나타났다. 빈도를 살펴보면, ‘1-2일’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이라는 응답도 21.2%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1-2시간’미만이라는 응답이 47.5%,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7.0%로 대부분이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짧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8.6%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시설 또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근로시간이 긴 취약계층아동들의 방과후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조손가정과 사각지대 아동의 경우 귀가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넷째, 취약아동 패널 중 지난 1학기 동안 비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2%로 나타났으며, 평균 비행횟수는 1.92회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의 빈도는 ‘2-3회’라는 응답이 44.9%, ‘1회’라는 응답이 35.7%로 나타나 비행경험자 대부분이 3회 미만이었으나 ‘6회 이상’ 비행을 했다는 패널도 7.1%로 나타나 비행을 하는 아동의 경우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한 비행의 유형으로는 비행경험 횟수를 기준으로 ‘구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의 무임승차’, ‘학용품비전용’, ‘왕따시키기’, ‘음란물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패널과 아동양육시설 생활 아동의 경험여부와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시설유형별, 성별에 따라 아동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유형과 횟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아동 중 지난 1학기 동안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0.2%로 나타났으며, 평균 폭력경험횟수는 5.57회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경험과 비교해 볼 때 비행경험 응답(12.2%)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경험횟수에서는 비행경험횟수 1.92에 비하면 폭력경험횟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정책개발 시 아동들이 저지르는 비행보다는 아동들을 둘러싼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겠다. 폭력피해경험의 빈도는 ‘2-3회’라는 응답이 39.0%, ‘1회’라는 응답이 28.0%, ‘6회 이상’이 23.1%로 나타나, 폭력피해도 비행처럼 되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피해경험 횟수는 ‘놀림/조롱’이 2.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행’, ‘왕따 당하기’가 1.8%, ‘갈취’, ‘협박당하기’가 1.6% 순으로 나타났다.

(2) 신체적 발달

첫째, 기상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6시~7시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침시간은 저녁 9시~10시 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말의 경우 평일에 비해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은 8.69시간, 휴일은 9.31시간으로 주말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수면시간의 경우, 평일 전체 평균 8.69시간 대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기상과 취침시간도 기상시간 평균 6시 50분, 취침시간 평균 10시 33분 대비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이르고 빨랐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은 다른 시설 아동에 비해 단체생활이 주는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면시간은 전체 이용시설에서 전년도 대비 평일과 주말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활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당 아침식사 취식빈도를 살펴보면, 주6일 이상 거의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전체 패널의 68.3%이었으며, 먹지 않거나 주2일 이하 먹는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먹기 싫어서’가 45.9%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또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8.2%로 나타났다. 특히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못한 사람은 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단체생활을 하는 ‘양육시설’의 경우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차상위계층과 사각지대계층, 한부모 가정 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질병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질병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6.2%로 전체 패널의 3/5이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다. 앓은 경험이 있는 질병의 종류로는 내과질환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치과질환(17.1%), 이비인후과 질환(10.4%), 안과질환(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치료여부를 살펴보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 중’이라는 응답이 84.0%로 대다수인 가운데, 일부만 치료하거나 치료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15.9%로 나타났다. 치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많이 아프지 않음’이 68.2%로 다수였고, 이어서 ‘귀찮아서’(15.3%), ‘치료가 무서워서’(4.7%)로 나타나, 치료를 받지 않은 패널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치료비, 병원, 건강보험,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10.7%나 있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까지 치료받았다는 응답은 양육시설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넷째, 자신의 건강평가를 살펴보면, 전체 패널의 94.3%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3.39), 남자(3.39), 양친이 모두 있는 아동(3.32)이 평균 평가점수 3.29보다 높았으며,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3) 인지적 발달

첫째, 취약계층아동의 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체육(3.96), 국어(3.67), 실과(3.55)의 성취도가 전체 과목평균(과목별 성취도의 산술평균:3.45점) 대비 높은 반면, 영어(3.07)와 수학(3.27) 등의 과목 성취도는 전체과목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영어와 수학은 단기간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장기간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습시간을 요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기초를 단단히 잡아나가는 과목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목에 대한 꾸준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목평균을 기준으로 시설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과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과목별로도 같은 양상을 보여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학습지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가 3.39점에서 3.30점으로 하락하였고 과목별로는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전년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시설만이 학업성취도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수에 비교하여 생활복지사가 너무 적어서 개별화된 지도가 어렵게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72.5%(매우만족: 13.6+만족하는 편: 58.9), 불만족이 27.5%(매우 만족하지 않음: 3.7+만족하지 않는 편: 23.7)로 2/3 정도의 아동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만족도에 대한 전체결과는 전년대비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별로는 차이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패널의 만족도가(2.82) 다른 시설아동에 비해 전년대비(2.90) 눈에 띄게 하락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위해서 아동수 대비 생활복지사의 수를 늘리고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학습지도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약계층아동들의 사교육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이용한다’는 응답은 24.1%로 전체 패널의 1/4 정도만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아동에 대한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의 이용유형으로는 학원이 7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그룹과외(13.0%), 개인과외(10.4%), 인터넷학습(9.3%)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 유형별 주당 평균이용시간은 학원이 약 4시간 25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인터넷 학습(약 3시간 54분), 그룹과외(약 3시간 45분), 개인과외(약 3시간 32분) 순으로 길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이용률은 전체평균 24.1% 대비, 아동양육시설(48.8%)과 남자(27.1%), 사각지대 이상(24.5%), 양친이 모두 있는 이용패널(23.4%)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만을 기준으로 사교육의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원(84.8%)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학원(60.4%)과 그룹과외(24.4%),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학원(75%), 개인과외(18.8%), 인터넷학습(18.8%)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시설의 아동들이 모두 사교육을 주로 학원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전체 사교육 이용자의 7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영어(64.8%), 국어(36.8%), 사회(32.6%), 과학(32.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시설아동들은 수학과 영어를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인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상위인지력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26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대비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3.48)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3.43),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3.42)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2.98),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봄’(3.09) 등으로 나타나 시설아동들을 지도할 때 이렇게 취약하게 나타난 항목들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상위인지력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양육시설(3.29), 지역아동센터(3.20) 순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상위인지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가 다른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년도 상위인지력과 비교해 보면, 상위인지력 전체평균(3.27)은 전년도(3.48)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용시설에서 상위인지력이 하락한 가운데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고학년이 되고 교과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은 인지력이 요구되는데 취약계층아동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아동들 스스로도 자신의 인지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문제해결능력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41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모르는 말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3.63), ‘계획한 해결방법대로 문제를 해결’(3.56), ‘내가 찾아낸 답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3.52), ‘중요한 구절을 밑줄 표시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3.46)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3.20), ‘문제해결방법을 남에게 설명 가능’(3.26), ‘문제발생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모색’(3.33)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문제해결능력 역시 시설아동들을 지도할 때 이렇게 취약하게 나타난 항목들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문제해결능력 역시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양육시설(3.43), 지역아동센터(3.35) 순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 역시 다른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년도 문제해결능력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문제해결능력 전체평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용시설에서 문제해결능력이 하락한 가운데 상위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패널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4) 사회·정서적 발달

첫째, 취약계층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16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교우관계(3.31)와 학교규칙적응(3.29)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관계(3.09)와 학습생활(2.94)의 평균은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한데 비해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생활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3.23)과 방과후아카데미(3.22)에 비해 지역아동센터(3.12)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력은 전체평균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조사되었다. 자아탄력성 전체평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타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전 시설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 2.86에 3.0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아카데미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아탄력성 평균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지난해에 비해 의미 있게 상승한 결과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이용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2.25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항목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반해 ‘숙제나 시험 때문에’(2.81)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모색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숙제나 시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전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와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또래애착감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2.99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친구를 신뢰’, ‘친구와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 ‘나를 잘 이해해 줌’, ‘나의 이야기에 경청’은 상대적으로 높은 애착을 보인 반면 ‘나에 고민에 대해 이야기’와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름’의 항목들은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또래애착이 깊이 있게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이 3.01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2.9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 존중감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12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만족’,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짐’ 등이 전체평균 대비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반면 ‘장점이 많음’,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낌’, ‘자랑스러워할만한 게 없음’등은 평균점수 보다 낮게 나타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이 3.12로 평균과 같았고, 지역아동센터가 3.08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또래애착의 경우와 같이 자아존중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취약아동패널의 일상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응답받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94.1%(매우만족: 28.2+ 만족하는 편: 65.9)로 나타나 패널의 대부분이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4점 평균으로 산출하면 3.22점으로 나타났다.

(5)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첫째, 아동들의 시설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4.11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놀이, 문화, 취미활동’(4.27), ‘식사’(4.27), ‘친구들을 사귀는 것’(4.25) 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요과목 교습’(4.09), ‘숙제, 자습시간’(3.99) 등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와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일상대화’(3.89)는 점수가 가장 낮아 상담활동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방과후아카데미가 4.27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이 4.21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4.03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세 시설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설활동에 대한 취약계층아동의 만족도는 전년 평균대비 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모든 시설에서 전년 대비 활동만족도가 높아졌다. 아동양육시설과 방과후아카데미가 비교적 많이 상승한데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0.3점만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5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96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평균 대비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시다’(4.15),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하다’(3.96),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3.96)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3.90), ‘선생님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3.84)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취약계층아동과 시설종사자들과의 관계가 자신들과 생활과 사정을 잘 알 정도로 긴밀한 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아카데미가 4.09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는 3.8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동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종사자들의 시설별 근무여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시설종사자 대상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아동패널의 지도자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다소 상승하였다. 시설별로는 양육시설의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셋째, 시설환경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4.08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식사공간의 청결성’(4.17), ‘학습공간의 청결성’(4.12)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화장실의 청결성’(3.93)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시설환경 만족도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4.24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아카데미가 4.14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4.02로 평균보다도 낮고, 세 시설 중 가장 낮았다. 시설환경에 대한 취약계층아동의 전체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높아졌다. 시설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의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였다.

넷째, 시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설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86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교우관계 호전’,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 ‘미래에 대한 꿈이 생김’, ‘가족관계 호전’ 항목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서비스로 인해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이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들이 4.04로 가장 높았고, 아동양육시설(3.98)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아동센터는 3.77로 평균보다 낮고 세 시설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모든 시설에서 전년대비 서비스로 인해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정도가 다소 줄어들었다.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및 저소득층 비교

본 패널조사는 취약계층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동들이라는 준거를 안에서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거주 학생들로 구분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으로 구분하여 총 5개 집단을 대상으로 두 패널조사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1) 가족 배경 비교

먼저 집단별 가족 구성 형태는 각 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양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54.7%,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이 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은 57.3%로 나타나서 서로 유사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 가운데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7%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의 아동들은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패널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10명 가운데 5~6명 정도

만이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족구성에 있어 취약계층이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73.4%,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68.2%,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은 75.1%인데 비해 아동·청소년패널 일반가정 아동은 3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분포도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비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80.3%,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79.7%,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은 80.5%인데 비해 일반 가정 아동은 45.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숙제 등을 할 때 부모로부터 체계적인 학습지도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경우 아버지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아동·청소년패널 일반가정에서 99.5%인데 비해 나머지 3개 집단에서는 90% 내외의 수준을 보여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정도가 직업이나 소득 수준은 물론 향후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부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패널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가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상생활실태

먼저 결석 여부와 관련하여 취약계층패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가운데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4%,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은 16.9%, 양육시설 아동이 13.1%인데 비해,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아동이 44.5%, 일반가정 아동은 39.5%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결석 경험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가 방과후에 아동의 보호와 생활지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결석을 방지하여 학교생활의 충실도에도 크게 공헌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각각 77.0%, 85.9%인 반면, 양육시설 아동은 50.0%,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아동은 25.7%, 일반 가정 아동은 9.4%로 나타나, 두 패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는 아동이 모두 학교를 마친 이후에 이용하기에 학원수강과 같은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매우 큼을 알려준다. 주말 학원 시간의 경우에는 다니지 않는 비율이 주중에 비해 매우 높지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은 주중 학원시간과 유사하였으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산출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주중 학원 시간과 총 학원시간에서 일반가정 아동들이 나머지 4개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교육 참여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이용에 따른 시간의 부족, 해당 시설에서 학업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시설 이용을 사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서시간의 경우 5개 집단 간에 주목할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독서시간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의 독서시간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독서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사교육 참여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독서시간에서도 일부 집단의 경우에 차이가 있었고,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과 차이가 없다는 점은 취약계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학업과 독서 등에서 일반 가정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나 게임기 등을 사용하여 노는 시간에 대한 비교 결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여 노는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이러한 기기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보다 컴퓨터나 게임기로 노는 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주말과 주중 모두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여 노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총 사용시간에 있어서도 3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0%에 육박함으로써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이나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나 게임기 등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있지만, 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이용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을 감독할 수 있는 성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아동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시설 아동들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사용 장소와 관련하여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나머지 4개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에의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초등학교 수업에서 컴퓨터 활용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아동들도 숙제 등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컴퓨터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비교 결과는 앞서 언급한 컴퓨터나 게임기를 사용하여 노는 시간에 대한 비교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5개 집단별로 주중과 주말, 그리고 총 컴퓨터 사용시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3개 변수 모두에서 나머지 4개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컴퓨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성인들의 통제하에 일정 시간을 보냄으로써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컴퓨터 사용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소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의 휴대전화 소지 비율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70%대로 나타났고,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는 14.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물론 전화 이용과 관련한 각종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또 다른 형태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종교와 관련하여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개신교(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8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양육시설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법인이 운영한 경우가 많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신체적 발달

신체적 발달과 관련하여 두 패널조사에는 아동들의 수면시간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한 문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양육시설 아동과 아동·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주중 수면시간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따른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나 일반 아동들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지적 발달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이 되는 10개 과목 가운데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 있어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 아동 및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가정 아동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 정도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 과목의 경우에는 양육시설 아동들이 나머지 4개 집단의 아동들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집단 아동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에 비해서도 높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나머지 4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근본 목적이 이용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학습 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적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정서적 발달

먼저 학교생활에 있어서 5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활동, 학교교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4개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학습활동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아카데미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습활동 평균점수는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점수는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교생활에 더 열심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특히 방과후아카데미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습활동 수준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결과는 이들 시설에서의 경험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 규칙의 준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의 평균점수가 아동·청소년패널 일반 가정 아동들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학습활동은 물론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취약계층 패널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은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사관계가 일반 가정 아동들의 교사관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서는 물론 방과 후에도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세 요인 모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수준도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시설 아동들이 아동·청소년패널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소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거나 의기소침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한 비교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청소년패널에서도 일반 가정 아동들이 취약계층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동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 이용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우선 부모의 방임정도에 있어서는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방임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학대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일반 가정 아동들의 부모 학대에 대한 평균점수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체벌 등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고 자녀들이 이를 학대와 연결지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 가정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들과의 접촉이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러한 시설들의 지역사회 연계 정도에 따라 그 가능성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시설 이용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는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 즉 아동은 시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2011년부터

계속 이용하고 있는 아동(시설 계속 이용아동), 2011년과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새로운 시설 이용아동), 2011년에는 시설을 이용했으나 2012년 5월 현재에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시설 이용중단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은 1) 2011년 다니던 시설 이용의 의미/평가, 2) 현재의 생활 및 관계, 3) 앞으로의 계획, 4) 시설에 대한 정의 등이었다. 면접지의 질문은 매우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하였다. 이는 면접원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면접은 질적면접 경험을 갖춘 면접원과 교육과 진행과정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면접원 등에 의해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50명의 아동을 중심으로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몇 사례에서는 어머니 혹은 아동의 형제에 대한 추가면접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아동 5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가운데 양육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1사례를 제외하고 49명의 자료를 일반적인 귀납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감사자료를 남겼다.

연구결과는 1)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 2) 시설에 대한 첫인상, 3) 시설에서의 생활, 4) 시설 이용의 결과(outcome), 5) 시설에 대한 평가, 6)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아동이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는 주로 엄마의 제안으로 시설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엄마가 시설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아동은 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친구의 경험에서 걸러진 시설에 대한 매우 제한된 정보를 습득함)로 수동적으로 시설을 찾는다. 이처럼 특별한 설명 없이 “00의 손에 이끌려(제안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은 향후 시설생활에도 반영되어, 부모가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교사가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오거나 하는 등의 소극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니게 된 시설의 첫 인상은 긍정적·부정적 응답이 혼재되어 있었다. 우선 ‘시끄러워 공부할 분위기가 아님’, ‘때리고 놀리고 해서 불쾌했음’, 등의 부정적 인상도 있었지만 ‘여럿이 어울려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보였음’, ‘낯설었지만 아는 친구가 있어 괜찮았음’, ‘애들이 착해보였음’ 등의 긍정적 인상도 보였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의 경우 첫 인상이 향후 시설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설을 처음 찾은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노력, 그리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시설에서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시설생활의 모습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관계, 형·동생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친구들과, 같은 시설을 다니는 형·동생들과의 즐거운 “놀이”였다. 놀이동산에 놀러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하는 등의 외부활동 뿐 아니라 그냥 시설 주위에서 술래잡기놀이, 자전거 타기 등의 일상적인 놀이도 매우 즐거웠던 기억이다. 이러한 즐거운 기억 외에 ‘무서운 수학 선생님과 함께 한 공부’, ‘같은 시설에 다니는 고학년의 거친 말’, ‘같은 시설에 다니는 형과 싸운 것’ 등을 힘들었던 기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시설 내에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 형·동생과는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이들은 아동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선생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들이 시설 밖에서 선생님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생각이 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동은 선생님을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는가? 시설 이용중단아동의 중단 이유를 보면, ‘선생님이 무서워서’라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즉 아동은 선생님에 대해 “교육”과 “보육(보호)”의 두가지 기능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 및 같은 시설에 다니는 형·동생과는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친구관계, 형·동생 관계의 중요성은 시설 이용중단아동의 시설 중단 이유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시설을 그만 둔 이유로 ‘고학년의 괴롭힘’, ‘나쁜 친구의 괴롭힘’ 등을 이야기했다. 한편, 시설 계속 이용 아동들은 시설에 계속 다니는 이유로 ‘친구가 많고 재미있음’, ‘친구와 노는 것이 즐거움’, ‘친구들과 많이 놀기 위해’ 등을 이야기한 대목에서 그리고 ‘친구와 못 놀게 할 때는 다니고 싶지 않음’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은 이렇게 중요한 친구, 형·동생과 어떻게 지내고 싶은 것일까? 시설에 대해 바라는 내용과 관련된 대화에서 아동은 ‘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선생님이 싸움을 무섭게 말렸으면 좋겠음’, ‘처음 왔을 때 형·누나들이 장난치지 않기’, ‘고학년의 거친 말이 힘들었음’, ‘욕을 많이 하는 친구로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음’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들은 친구, 형·동생 관계에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거친 말(욕설 등)하지 않고 지내는 것, 장난치지 않는 것 등을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기대함을 알 수 있다.

시설에 다니면서 아동들에게 나타난 변화(결과, outcome)를 친구관계, 가족관계, 일상생활, 성격, 학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꿈”과 시설생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아동은 시설에 다니게 되면서 친구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가족관계에서는 시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대화 주제로 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화 시간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다. 즉, 시설에 그만 다니게 되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는 아동(시설 이용 중단 아동), 지금은 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가상으로 시설에 다니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가족 간 대화 줄어들 것임’ 이라고 이야기 하는 아동도 있었다.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가족, 시설 선생님 이외의 사람과의 만남이 아동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일상생활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은 시설에 다니면서 바빠져 심심하지 않게 되었다. 시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게임이나 TV를 보는 것, 집에서 뒹굴거릴 때가 많았는데 시설에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일상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 중단 아동이 애기한 아동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출결 체크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설 운영의 입장에서 아동 출결관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출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성격과 학업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시설 계속이용아동의 경우에서 ‘까칠한 성격에서 차분하고 참을성 생김’, ‘성격이 차분해짐’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학업의 변화에서는 공부량이 많고 공부를 끝내야만 놀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동 스스로는 자신의 성적이 올랐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의 학습지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꿈과 시설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아동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해주는 경우, 시설 이용이 “꿈”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가수가 꿈인 어떤 아동은 시설에서 팝송이나 성인 가요를 가르쳐주거나 춤 동작 하나하나를 알려줄 때, 가수의 꿈에 시설 이용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동들이 “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단계별로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설에 대한 아동의 평가를 통해 아동이 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을 알아보았다.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을 기준으로, 공부 영역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을 기준으로,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을 기준으로, 선생님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평가를 보면, 시설 계속 이용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고맙지만 아쉬움”으로 시설에 대해 이야기했고 시설 이용 중단 어머니의 경우, 공부에 대한 생각의 차이, 공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시설에 대한 호불호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높은 만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동은 시설에 대해 “놀이터: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노는 곳”, “배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정책제언

먼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우선 1차-2차 본조사 중단분석결과, 시설종사 대상 설문조사분석결과(1차년도 부가조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심층면접분석결과(2차년도 부가조사)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외국의 관련정책 사례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유형별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방향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과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의 빈부격차 심화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있고, 가족기능의 약화 등의 사회구조가 변화로 인해 시설아동의 수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들도 예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후대책이 대부분이며,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상대적으로 환경이 취약한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차-2차년도 중단조사를 실시하여 중복되는 동일문항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여러 시사점을 찾아낸 결과, 1차년도 조사에 비해 2차년도 조사에서 상위인지도,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은 더 높게 변화되었다. 이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변화양상을

세부적으로 관찰하여 변화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나은 서비스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조사분석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나 환경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위인지도와 문제해결능력 같은 인지발달과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성장과정과 발달과업에 비추어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관련 정책의 목표를 기준삼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설서비스와 지도자 만족도와 같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조사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들은 추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가 항목을 구성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점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종단조사도 3차년조사인 이번 조사로 종결되므로 기존에 어렵게 구축한 취약계층패널을 더 이상 연구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후 이러한 종단조사를 위한 안정적인고 장기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패널연구는 중장기간 안정적인 연구가 핵심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취약계층패널’이 종료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반영수준이 그 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패널연구는 다른 연구비를 통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조사결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교생활에 더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아카데미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습활동 수준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결과는 이들 시설에서의 경험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규칙의 준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귀가 후 혼자 있는 경우가 61.8%이고, 심지어 일주일 중 ‘5일 이상’이나 혼자 지내는 아동도 21.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가정의 방임'을 넘어 '사회적 방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같이 경제적,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 때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영유아만을 위한 시설이었던 새마을유아원이 전체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로 발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 중에서도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이용 기회를 주면서 점차 돌봄이 필요한 일반 아동에게도 이용 기회를 개방해야 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처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가정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을 것이다.

(3) 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

1차-2차년도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학원이나 과외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제수준에 따라 방과후 학원이나 과외 등의 교육혜택을 누리는 데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일지라도 시설에서 방과후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방과후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에 비해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받는 서비스가 학력향상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사교육 대체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의 거주환경과 이용아동의 경제수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지역사회 인식, 여가 시간 활용 등의 측면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분명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등의 노력 필요하다.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사교육과 성적 등에 있어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시설 운영의 최우선 목적이 이용 아동들의 성적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학업성취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이들 기관이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에 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지어 자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냈던 부모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 기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아동에 비해 취약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하다.

(4) 시설서비스 효과성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아동시설의 서비스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고 그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의 양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설서비스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직무관련 전문성이 강화되고, 시설종사자의 수가 증원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이직률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업무량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차년도 종단조사의 시설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급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였다. 특히, 종사자의 낮은 보수, 잦은 이직 등 처우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속적 근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패널에서 조사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종사자의 평균 월수입이 100만원 남짓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직무관련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직무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시설유형별 업무메뉴얼을 개발하고,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결과 파악한 다음과 같은 결과는 시설종사자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선생님이 대해서 “교사”와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모두 기대했다. 아동들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처럼 선생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다. 지금은 “돌봄”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 “안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학습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선생님의 수를 증원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충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아동들은 선생님의 역할에서 “싸움을 말리고”, “장난을 말리고”, “욕설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하였다. 실제로 놀림이 학교폭력임을 알리고 선생님이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동이 있었다. 지금처럼 선생님 인력이 부족해서 사무 공간과 프로그램 공간을 왔다갔다 아동을 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 개입은 기대할 수 없다. 선생님의 인력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5) 아동시설 서비스에 부모참여 유도

심층면접 분석결과 중 ‘시설에 다니게 된 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들은 주로 엄마의 제안으로 시설에 다니게 된다. 엄마가 시설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시설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수동적으로 시설을 찾게 되어, 부모가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교사가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다니는 등의 소극적인 참여태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시설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동에 대한 부모, 선생님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시설이용의 이유, 앞으로 다니게 될 시설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생활변화에 대해서 아동이 바르게 알고 기대할수록 아동의 시설생활 적응이 빨라질 것이다. 특히 초기부터 부모가 아동의 시설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부모와 함께 아동이 이용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아동의 시설 생활에서 부모의 책임과 역할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시설에 다니도록 이끌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 부모, 시설 선생님 상호 간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정서적인 돌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을 시설에서 알아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기대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진 아동들을 잘 품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심리상담, 부모 교육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체계의 전문화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확장되면서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대상 아동이 늘어나면서 그 대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점차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으로 확산되며, 서비스의 내용도 보호, 교육, 생활지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의 증설 등을 통해서 공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선진 외국에서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학부모를 포함하여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자유업 종사자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일손을 돕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 기존 인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예,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활동 지도, 야외활동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보다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성이 있는 봉사자를 발굴하고, 재능 나눔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7)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국내의 관련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매번 강조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왔다. 4장에서 소개된 영국과 미국의 정책사례에서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영국의 방과후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기관 연계협력 모형을 지향한다. 일단 주체는 학교가 되고 정규수업시간이 끝나면 방과후서비스 담당자가 학교 담임과 인수인계 학생들의 수와 정규수업 시간에 벌어진 사건들(예를 들어 넘어져서 머리를 벽에 가볍게 부딪혔다거나, 친구와의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등)에 대해서도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가급적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멤버들이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학교의 인프라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에 개방함으로써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이 상호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담임과의

유기적 연대가 상대적으로 깊지 않다는 점에서 방과후서비스의 총괄적 측면에서 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파트너십 구축 수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여 일선현장에 시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제도 중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적용해 본다.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s)는 19세기 말 미국 뉴욕 주 서부를 휩쓸었던 질병 및 기근으로 인하여 뉴욕시에 거주하다 서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도시 이주민을 위해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담당했던 최초의 인보관운동이 그 시초이다. 이후 1900년대 초 당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개혁가 존 듀이(John Dewey)를 포함한 교육자와 사회개혁가들은 사회 자원을 학교 속으로 도입해 옴으로써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지역사회학교(communitiy school)와 같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가 지식 위주의 학과 수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 위주 교육은 아동의 다양한 능력(competence), 창의성(creativity), 그리고 인성계발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행 학교교육정책으로는 어린 시절 아동의 폭넓은 능력과 창의성, 인성, 그리고 신체발달 등과 같이 중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학교와 같은 형태로 현행 우리나라 학교교육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보육 및 방과후 활동 통합지원시설의 설립·운영

미국의 LA's BEST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립학교 아동보육 및 방과후 활동 지원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 소관부처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육과 방과후 활동 통합지원시설 설립·운영은 정부조직 개편이나 소관부처 기능조정을 통해 우선 실시가 가능하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는 소관부처 통합을 통한 정책추진체계의 일원화일 것이다. 즉 학교에서 아동보육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이 보육과 방과후 활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아동보육과 방과후 활동 정책을 하나의 중앙정부 부처 내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내는 것이 용이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과후 활동을 보다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 아동/청소년담당자, 교육지원청의 방과후담당자가 해당 지역에 맞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시/군/구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없는 지역도 많기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은 지역은 넓고 인구가 적어서 아동복지 인프라가 적기에 해당 지역에 맞는 협력방안을 찾지 않으면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이 커질 수 있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유형별 발전방안

(1) 지역아동센터

첫째, 개인신고시설 위주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점형센터나 국공립센터 등 다양한 센터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에 수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만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점형센터나 국공립센터의 핵심 기능은 지역아동센터 간 1차적인 연계, 공동자원개발, 시설센터의 컨설팅, 조사자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의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형, 청소년형 등으로 특화된 센터를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센터의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의 전문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복지사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복지사 명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특성을 반영한 가칭 지역아동복지사로 변경하고, 지역아동복지사(가칭)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아동·청소년분야의 현장경력과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조치로는 지역아동복지사(가칭)의 경우 신규 채용 시 1년 이내에 100시간의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아동복지의 질은 아동복지 실무자의 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셋째,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비 조건을 ‘최소수준’ 개념에서 ‘적정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시설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시설기준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는 ‘거실’대신 ‘학습실’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 외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남녀화장실), 집단활동실(오락실, 도서실, 놀이실 겸용) 등과 복도, 계단 등 공유 활동공간을 고려할 198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김희진, 이해연 외, 2011).

표 VIII-1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안)

	학습실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강당·오락실	도서실	놀이터
10인 미만	33㎡	1		1		1	권장		
10-20인 미만	66㎡	1		1		2	권장		
20-30인 미만	99㎡	1		1		2	33㎡		
30-40인 미만	132㎡	1	1	1	1	2	66㎡	1	권장
40-50인 미만	165㎡	1	1	1	1	2	66㎡	1	권장
50인 이상	1인당3.3㎡이상	1	1	1	1	2	99㎡	1	165㎡

출처 : 김희진, 이해연 외,(2011, p iv)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필수

넷째,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영역의 서비스라도 아동의 성별이나 발달 단계, 가족구조나 이용기간에 따라 직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영역에 따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 및 조정하는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소규모 센터 간 연계망 구축, 공동 프로그램의 실행, 사례관리실천의 정착이라는 거점형 센터의 3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은 교육 및 공동 프로그램모형 개발, 사례관리 지원 및 사례관리 모형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오승환 외, 2011).

다섯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예산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수, 근로조건, 복지수준에 따르며, 민간위탁 시에는 사회복지관의 직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설장을 사회복지관의 과장급으로 볼 때, 과장 11호봉의 연봉은 34,446,300원, 선임 사회복지사 6호봉의 연봉은 27,924,200원이며,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21,975,700원으로 산출하면, 20~30인 미만 시설의 연간 인건비는 약 98백만 원이다. 운영비 기준 :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인건비, 시설운영비의 합계는 기본운영비의 80% 초과불가,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20% 이상 지출 등)에 따라 마련하였다.

표 Ⅷ-2

지역아동센터(위탁) 연간 운영비 기준안(종사자 3인/ 이용아동수 20~29인 이용 기준)

(단위: 원)

예산과목	산출항목	예산액
인건비	3인 상근종사자 급여 및 제수당(사회복지관 종사자 수준), 법정복리비(4대보험), 퇴직적립금	98,389,84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480,000
운영비	출장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통신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보험료 등), 차량운영비	7,690,000
사업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학습, 놀이, 지역연계, 부모교육/상담 등) 진행비, 교재교구 구입비, 절기별 특별행사(여름캠프, 발표회 등), 기타사업비	50,640,000
시설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3,500,000
예비비	예비비	500,000
계		161,199,842

※ 자세한 산출내역은 p. 1738 참조/ 급식비 별도계산 시 132,399,842원을 연간 운영비로 볼 수 있음.

출처 : 김희진, 이해연 외,(2011, p xi)

여섯째,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줄이기 위하여 보육정보시스템과 유사한 방과후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적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로 설립되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와의 교류 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군/구청은 보육정보시스템과 같은 방과후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유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지 않으면서도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방과후에 ‘나홀로 아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인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처럼 공공화하고 아동에 대한 방과후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첫째, 정책 비전과 목표의 확인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공교육이나 보육사업 차원의

방과후 지원사업과 다르게, 청소년정책에서는 어떠한 정책기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기초한 전제가 확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정책의 지향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과의 역할 분담내지는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화된 정책의 방향이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과제에서 확인된 청소년정책 전반의 지향점에 기초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에 부합되고 기여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영역을 확인하도록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역할, 지역내 연계협력체제 구성원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 등 정책전달체제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정책지원 사업으로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육성 기반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확인되고 수용되며 각 지역별 역량에 맞는 역할 분담에 기초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 기반 확보와 지역 자원의 연계 방안도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양질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판단의 기준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의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의 정리를 통해 확인될 것이지만, 일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나름대로 청소년정책에 의한 고유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영역의 설정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수행 여건, 운영 능력, 그리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질적 판단의 준거 및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과 고유한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과는 실수요자인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도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실수요자의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와 그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 스스로 제기하는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시/군/구에 1개소씩 건립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인색하였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복지시설에는 시설 건립비와 함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수련시설의 일부 공간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즉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약하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한 문화의집을 지원하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여 사실상 수련관의 시설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늘 비판받아 왔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한다. 동시에 청소년수련관에 병설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과 같은 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양육시설

첫째, 보호대상자의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이 기아/미아보다는 미혼모(부)가 출산한 아동으로 바뀌고, 부모의 사망보다는 부모의 빈곤/실직과 이혼이 증가되며, 학대받는 아동이 증가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여전히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에 두고, 가정위탁보호와 가정복지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부모의 빈곤/실업과 이혼에 의한 보호대상아동도 가급적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고, 부득이 아동양육을 정부에 의뢰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예, 3년)을 정해서 대리 양육을 하도록 하고, 부모 혹은 보호자의 양육능력을 재평가하여 조기에 가정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혁신해야 한다. 이미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가 무엇이고 가장 우선해야 할 자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이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아동상담소에 입소하면 입양이 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되면 가정위탁이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의뢰되는 방식을 벗어나서 모든 시/도가 1개소 이상씩 ‘아동복지센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와 같은 유형)를 직접 운영하여 그곳에서 아동을 일시보호하면서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가장 적절하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기관 중심의 복지가 아닌 아동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가정보호에 집중하고 가정형 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은 약 반수가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로 전환되길 희망하지만,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아동 중 아동양육시설로 이송되길 희망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가급적 원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가정보호에 집중하고 부득이 대안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면 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보호는 아동의 비행, 약물오남용 등으로 가정형 시설에서 보호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대개 아동주거시설은 한 시설에 30명 미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 시설도 몇 개의 생활공간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향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정원이 400~500명인 시설이 3곳이나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규모를 소규모화하고 점차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센터의 지원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셋째,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복합시설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도 아동복지시설은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물적 시설을 갖춘 기존 아동양육시설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복합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모든 시/군/구는 1개소 이상씩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하는 곳을 지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조치하도록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안에 30명 이상의 모든 아동양육시설을 30명 미만의 아동양육시설로 전환시키고, 유희시설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개편하며, 재가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합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시설을 기숙사형 숙사에서 소숙사로 전환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아동만을 위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적 재가급여(아동상담, 위기상담, 행동치료,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하면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선별적 시설급여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 인력을 임용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직원을 변화시켜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된 직원은 아동이 50명 이상인지 그 미만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50명 미만인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장, 총무, 보육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촉탁)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조리원, 위생원 등이 배치되고, 50명 이상인 아동양육시설에는 위의 직원에 사무원,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이 추가로 배치된다.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는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3인 초과시 1인 추가),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7인 초과시 1인 추가), 7세 이상 아동 10인당 1인(10인 초과시 1인 추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인력배치기준에 의하면 7세 이상 아동이 28명인 아동양육시설에는 보육사가 2명만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7세 이상 아동 10인당 보육사를 1명씩 배치하고, 10명을 넘은 경우에는 추가로 1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배치 기준을 바꾸어서 아동 28명인 아동양육시설에는 보육사가 3명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처럼 보육사의 수만큼 아동복지지도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2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육사(추가로 아동복지지도원)라는 점에서 볼 때, 보육사(와 아동복지지도원)가 하루 8시간 근무제와 주당 40시간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2교대제를 3교대로 할 경우에 일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에 아동들의 다수가 학교에 가는 주간에 일정 시간을 휴무 혹은 휴계시간으로 정하고, 아동이 취침을 하는 시간대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까지의 근무자의 수를 제한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아동복지시설에서는 3개조로 근무하는데, 첫째 날은 1조 주야간근무+2조 주간근무+3조 휴무이고, 둘째 날은 1조 휴무+2조 주야간근무+3조 주간근무를 하며, 셋째 날은 1조는 주간근무+2조휴무+3조 주야간근무를 한다. 3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고 한 번씩 쉬는데, 아동이 있는 생활시간대에는 근무자 수를 늘리고 아동이 취침하는 시간에는 근무자 수를 줄여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아동양육시설의 근로기준을 획기적으로 신장하여 양질의 인력이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보호기준을 표준화 하고 보호내용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비교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낮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합리성이 낮은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최저생계비의 계측 기준에 맞추어서 아동양육시설의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기준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아동복지학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원가족이 돌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가정(입양, 가정위탁 등), 그리고 가정형 보호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은 아동양육시설 근무자에게는 호봉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직원에게는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직원에 대해서도 아동양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호봉인정, 다양한 수당의 지급 등)을 표준화시키고,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근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혁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1인당 아동양육비를 측정하여 가정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가정보호와 시설보호 등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국민으로서 최저생활 이상의 수준을 보장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설장과 직원도 유사한 기관이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신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고아와 기아를 돌보는 시스템이 중심이었지만,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이 법제화되면서 재가서비스의 확충과 가정형 보호가 강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보호대상아동은 더 이상 고아와 기아가 아니라, 미혼부모가 출산한 아동, 부모의 빈곤, 부모의 학대, 이혼/별거/부양기피 등으로 발생한 아동이다. 따라서 고아와 기아 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빈곤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아동양육수당 등), 학대를 받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격리보호와 회복후 가정복귀, 보호자와 함께 살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대안가정 보호와 자립지원,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등으로 재구조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소폭 수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미혼부모의 발생 예방과 양육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의 체계화, 해외입양 중단과 국내 입양의 촉진, 대규모 시설보호의 폐지와 가정형 보호의 장려,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지원서비스(아동상담, 위기상담, 행동치료,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아동을 방치한다면 이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도 살맛나는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명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2010).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 권세운 · 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호.
- 권지성 · 정선옥(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pp. 229-253.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덕 · 김용석 · 유태균 · 이기영 · 이선우 · 정슬기 공역(200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미숙 · 이향란 · 황진구 · 이주연 · 신어진 · 최진희(2009). **방과후 통합운영모델 및 전달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pp. 163-189.
- 김소영(2008). **정부지원제도로 인한 지역아동센터의 변화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미(2003).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과정: 근거이론 연구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채(1990). **학습과 사고의 전략**.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천(1996). **네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 문음사.
- 김용희(2009).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200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만족도 조사**. 사회과학연구. 14권, pp. 25-46.

- 김은정 · 황진구(2007). 200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 백혜정 · 임희진 · 이계오(2010).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20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 김혜숙 · 서유민(2010). 청소년 욕하기(cursing)을 줄이기 위한 방법적 연구: 감정표현 글쓰기를 통한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 pp. 41-61.
- 김희진 · 이해연 · 이용교 · 황옥경(2011).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보건 복지부.
- 박선미(2007). 학교생활적응기에 나타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싸움 양상.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 박현선 · 정해린 · 이은지(2012).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보건복지부(2011). 아동복지시설현황.
- _____ (2012a).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 _____ (2012b).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 _____ (2012c).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05-2011).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2010).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보고 2007-2010.
- 아동복지법 개정 연구팀(2008).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양계민(2008). 20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200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 김승경(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 김승경 · 조영희(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 오승근 · 권두승 · 전명기 · 조대연(2006).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본운영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상 · 백혜정 · 이종원 · 김지영 · 서우석(201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안영 · 김진이(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vol.17 No.2 p.160.
- 오승환 · 노충래 · 이선우 · 김형모 · 유명희 · 윤정수(201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발전방향, **한국아동복지학회**.
- 오승환 · 김광혁 · 좌현숙(2011). 2011년 특수목적형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성과분석 및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유성경 · 홍세희 · 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pp.393-408.
- 이강이 외(2002). **21세기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이एस더 · 홍정은(2012). 방과 후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 이옥 · 정선옥 · 김혜영(2012). **성북구 위기가정 및 아동 욕구조사**. 성북구청, 성북구드림스타트센터.
- 이용교(2012).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 이용교(2012). **한국청소년복지론**. 정민사.
- 이안영 · 김진이(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 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vol.17 No.2.
- 이태수 · 김민 · 이혜숙(2010). **방과후서비스 역할분담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지연 · 곽금주(2008). 영아기 어휘 종류와 아동초기 지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pp.1-14.
- 이현주 · 정익중(201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지혼합과 공공의 역할 재구축. **한국사회정책학회**, Vol.19, No.1, pp. 65-94.
- 이혜연 · 황진구 · 유성렬 · 이상균 · 정윤경(2010). **취약가정 · 시설의 아동 · 청소년 지원**

- 을 위한 중단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춘희 · 이선형 · 이경림(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pp. 71-98.
- 장영옥(2001). **시설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 박현선 · 오승환 · 임정기(2008).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 정익중 · 박현선 · 오승환 · 임정기(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공동체.
- 정익중 · 이경림 · 이상균 · 이정은(2011). **빈곤방임아동의 야간보호: 성과와 전망**. 박영사.
- 정익중 · 이태수 · 박현선 · 임정기 · 이정은 · 이은지(2011).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연구**.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화실(1991). **초등학교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외(1994).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천희란 · 강민아(2011). **여성 노인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측정: 통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통권51호, pp. 247-276.
- 최은희 · 손영빈 · 김현주(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2(2), pp. 135-159.
-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한국행정연구원(2008). **방과후사업 성과분석**.
- 한국행정연구원(2008). **방과후 사업 성과분석**.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황진구 · 이해연 · 유성렬 · 박은미(2011).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중단조사 II: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도희 · 김청송(20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환경에 관한 관계자들의 의견조사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14권 제4호.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Children(2012). *Sure Start – Children's Centres Census 2012*.

Bransford, J. D., & Stein, B. S.(1983). The IDEAL problem solver: A guide for improving thinking, learning, and creativity. New York: W. H. Freeman.

Brooks-Gunn, J., Kleanov, Liaw & Duncan(199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Poverty upon Children. In Fitzgerald H. E., Lester, B. M., & Zukerman B.(Eds.), *Children of Poverty—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Inc.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http://www.caf.fr/>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2009). *Comprendre les Allocations familiales*.

Carpenter, H., Peter, H., Oseman, D. TNS-BMRB(2010). *Extended Services Evaluation: End of Year One Report*.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CAS(2011). *Building Community Schools: A Guide for Action*.

CAS. <http://www.childrensaidsociety.org>.

City of Westminster.(2009). *Our New Council Organisation*.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Community School(2011). <http://www.communityschool.org/>

DREES(2010). *Les établissements accueillant des adultes et des familles en difficulté sociale : Etudes et Résultats; DREES, no 738, septembr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7). *The Children's Plan: Building brighter futures—Summary*.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a). *21st Century Schools: A World-Class Education for Every Child*.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b). *Extended Services: Extra support for you and your children*.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c). *Funding Extended Schools: DCSF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and schools.*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1). *Schools – Achieving Success, White Paper.*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a). *Statistical Release: Children,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b). *Extended Services: Q&A.*
- Department for Education(2012).
<http://www.education.gov.uk/popularquestions/schools/typesofschools/extendedservices/a005585/what-are-extended-services> visited at 8 Aug. 2012.
- Furstenberg, F. F., & Hughes, M. E.(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3), pp.580–592.
- LA's BEST(2011). *2010–2011 Annual Report.*
- LA's BEST. <http://www.lasbest.org/>
- Lincoln, Y. S and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National Remodelling Team(2006). *Extended Schools: a Guide for Governors I*.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 NCCS. <http://www.nationalcenterforcommunityschools.org/>
- Maison d'Enfants Clair Logis <http://www.clair-logis.org/>
- McCormick, M. C., & Brooks-Gunn, J.(1989). *Health care for child relationship and antecedents*. In H. Freeman & S. Levine(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ngel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Ofsted(2006). *Extended Services in Schools and Children's Centres.*
- Ofsted(2008). *How Well Are They Doing? The Impact of Children's Centres and Extended Schools.*
- Oken E., & Lightdale Jr.(2000). *Updates in pediatric nutrition*. *Curr Opin Pediatr*.
- Padgett, D(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 rewards*. Sage publications.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사.
- Rossman, G. B., & B. L. Wilson(1985). *Numbers and words: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a single-large-scale evaluation study*. *Evaluation Review*. 9(5), pp. 627-643.
- Runyan et al.(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22(4), pp.249-270.
- Strauss, A., & J. Corbin(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The Children's Aid Society(2011). *Building Community Schools: A Guide for Action*. 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Schools.
- The Children's Aid Society(2011). <http://www.childrensaidsociety.org/>
- World Hunger Year(2011). 2010-2011 LA's BEST Replication Manual.
- 牧理毎治・山野則子(2009). 『児童福祉の地域ネットワーク』, 相川書房.
- 栢女靈峰(2011). 『子ども家庭福祉保育の幕開け』, 相川書房.
- 齊蘇進外(2009). 「子育て支援における母親クラブと児童館の役割に関する研究(3)」『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紀要』제45集.
- 飯野貢(2007). 「児童館と地域社会」, 児童健全育成推進財団編輯 『児童館 理論と実践-ENCYCLOPEDIA』.
- 文部科学省生涯学習政策局長・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長, 18文科生第531号雇
児發0314003 2007年 3月 14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の推進について」.
- 児童家政局長, 18文科生第587号雇児發0330039 2007年 3月 30日, 「放課後子どもプラン
推進事業について」.
-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長, 雇児發第1019001号, 2007年 10月 19日, 「放課後ク
ラブ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政局育環境課調べ(2011年 5月 11日).
- 厚生労働省, 児童館ガイドライン検討委員会(2011), 「児童館ガイドライン検討委員会報

- 告書」(2011. 3. 28).
- 厚生労働省(2008). 『社会福祉施設等調査報告』.
- 鈴木一光外 『これからの児童館のあり方についての調査研究』 2008년도 児童關聯サービス調査研究等事業報告書, 子ども未来財團.
- 妻木進吾・長瀬正子・内田龍史(2011). 児童養護施設と社会的排除, 解放出版社.
- 厚生労働省(2011). 児童福祉施設最低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概要 2011. 6.
- 厚生労働省 雇用均等・児童家庭局長通知(2012).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2012. 3. 29.
-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育成環境課(2009). 『放課後児童クラブ実薦事例集』, 2009.3.
- 長谷川真人 編著(2007). 子どもたちのもう一つの家 児童養護施設における自立生活の検証-未来を担う子どもたちの支援をめざして, 三學出版, p203.
- 厚生労働省社(2011). 社会的養護の課題と将来象 2011.7.
- <http://www.action-sociale.org>.
- http://www.continyou.org.uk/about_us/history visited on 9th Aug 2012.
- http://www.continyou.org.uk/what_we_do/our_projects visited on 9th Aug 2012.
- <http://www.drees.sante.gouv.fr>.
- <http://www.henburyview.dorset.sch.uk/our-school/clubs-2/> visited on 28th July 2012.
- <http://www.insee.fr>.
- <http://www.justice.gouv.fr/> 2012.
- http://www.kousya.jp/tokimeki/kids_classroom/index.html.
-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kosodate/index.html.
-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1s7il.html>.
- <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kan.html>.
- <http://www.mhlw.go.jp/houdou/2008/06/h0623-1..html>.
-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20.pdf.
- http://www.oned.gouv.fr/l'observatoire_national_de_l'enfance_en_danger.

http://www.towerhamlets.gov.uk/lgs/800001-800100/800035_-_council_structure.aspx visited on 10th Aug 2012.
<http://www.unicef.fr>.

.....

부록

부 록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⁵³⁾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두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담당연구원 Public Affairs팀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서울/제주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부산 장은성 실장 (T) 051-462-0409, 대구 남소영 실장 (T) 053-476-8841,
대전 신성애 실장 (T) 042-483-1555, 광주 나성희 실장 (T) 062-267-1983,
강원 주분남 실장 (T) 033-257-4042

	☞ 사는 곳을 쓰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SQ1) 사는 곳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SQ2) 이용시설명	() 지역아동센터		
SQ3) 성 명	()		
SQ4) 학교명	() 초등학교 5학년		

5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설문지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청소년 설문지가 동일하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설문지만 수록

1. 일상생활 실태

문 1) 여러분은 5학년이 된 이후 학교를 결석(체협학습으로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있다  문 1-1)로 가세요. ② 없다  문 2)로 가세요.

 문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며칠이나 결석했습니까?
아래 각 이유에 대해 결석 일수를 모두 써 주세요.

결 석 이 유	결 석 일 수
① 사고로 몸을 다쳐서	_____ 일
②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_____ 일
③ 가족 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_____ 일
④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 없이	_____ 일
⑤ 기타 _____	_____ 일

문 2) 여러분이 평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써 주세요.

항 목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토, 일, 공휴일)	
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다니지 않음	____시간 ____분
②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다니지 않음	____시간 ____분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에 책을 읽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____시간 ____분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____시간 ____분	

문 3)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① 사용한다.  문 3-1)로 가세요.

② 사용하지 않는다.  문 4)로 가세요.

 문 3-1)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세요.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문 3-2)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래 중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시 해 주세요.

① 우리 집

② 친구 집

③ 학교

④ 학원

⑤ PC방

⑥ 지역아동센터

⑦ 기타()

문 3-3) 여러분은 다음의 이유로 1주일에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1	2	3	4
②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만화 등) 이용	1	2	3	4
③ 게임 및 오락	1	2	3	4
④ 채팅이나 메신저(싸이월드, 버디버디 등)	1	2	3	4
⑤ 전자우편(e-mail)	1	2	3	4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1	2	3	4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활동	1	2	3	4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1	2	3	4
⑨ 댓글 달기	1	2	3	4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	2	3	4

문 4) 여러분은 휴대전화(핸드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가지고 있다. ② 가지고 있지 않다.

문 5) 여러분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종교가 없다. **문 6)으로 가세요.** ② 불교
③ 개신교(기독교) ④ 천주교(가톨릭)
⑤ 기타()

문 5-1) 여러분은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기입 예>와 같이 아래 오른쪽 표에서 주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 하고 횟수를 써 주십시오.

<기입 예>

<응답 기입>

주기	횟수
①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u>1</u> 회
③ 한 달에	
④ 일 년에	

주기	횟수
①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_____회
③ 한 달에	
④ 일 년에	

문 6)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항 목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①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1	2	3	4	5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1	2	3	4	5
③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1	2	3	4	5
④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	1	2	3	4	5
⑤ 함께 하는 여가활동(운동, 취미활동 등)	1	2	3	4	5
⑥ 함께 저녁식사	1	2	3	4	5

문 7) 여러분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집에 계시지 않는 날이 1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전혀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5일 이상
1	2	3	4



문 7-1) 돌봐주시는 어른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

☞ 문 8)로 가세요.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2시간 정도	하루 3-4시간 정도	하루 4시간 이상
1	2	3	4

문 8)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① 다른 사람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1	2	회
②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1	2	회
③ 학교의 학용품비, 준비물비를 다른 데 사용하기	1	2	회
④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회
⑤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1	2	회

문 9)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 회?
①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한 경험	1	2	회
② 학교에서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음)을 당한 경험	1	2	회
③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	1	2	회
④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맞은(폭행) 경험	1	2	회
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긴 경험	1	2	회

2. 신체적 발달

문 1)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토, 일, 공휴일)
밤 _____시에 자고 아침 _____시에 일어난다.	밤 _____시에 자고 아침 _____시에 일어난다.

문 2)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우유나 주스 등 음료수만 마신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해당됩니다.

※ 빵, 선식,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식사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① 주 0일

② 주 1~2일 ③ 주 3~5일 ④ 주 6~7일

➡ 문 2-1)로 가세요.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일주일 동안 한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O표시 해 주세요.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③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④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

⑤ 먹기 싫어서

⑥ 기타 _____

문 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O표시 해 주세요.

①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짐, 관절부상 등)

②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③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천식 등)

⑤ 안과 질환(눈병 등)

⑥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⑦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⑧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⑨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등)

⑩ 기타(성형외과 질환 등 _____)

※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으면 아래의 문 4)로 가세요.

문 3-1) 치료를 받았나요?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받고 있음 ② 일부 치료 받음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문 4)로 가세요.



문 3-2)로 가세요.

문 3-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에만 O표시 해 주세요.

- ① 많이 아프지 않아서 ② 치료비가 없어서
③ 병원이 멀어서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⑤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가 무서워서
⑦ 귀찮아서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⑨ 기타_____

문 4)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②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③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④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3. 인지적 발달

문 1) 여러분은 다음의 과목을 2012년 1학기 동안 얼마나 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과 목	매우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① 국어	1	2	3	4	5
② 영어	1	2	3	4	5
③ 수학	1	2	3	4	5
④ 과학	1	2	3	4	5
⑤ 사회	1	2	3	4	5
⑥ 도덕	1	2	3	4	5
⑦ 실과	1	2	3	4	5
⑧ 음악	1	2	3	4	5
⑨ 미술	1	2	3	4	5
⑩ 체육	1	2	3	4	5

문 2) 여러분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2	4	5

문 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과후 교육을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받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① 학원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② 개인과외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③ 그룹과외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__시간 __분

문 4)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②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본다.	1	2	3	4	5
③ 공부를 할 때 책이나 공책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	1	2	3	4	5
④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해 본다.	1	2	3	4	5
⑤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	1	2	3	4	5
⑥ 공부할 때 내용을 요약하거나 실제 예들을 들어본다.	1	2	3	4	5
⑦ 공부할 때, 먼저 목표(계획)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1	2	3	4	5
⑧ 밑줄을 치거나 공책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1	2	3	4	5

문 5)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모르는 말이나 내용이 생기면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②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③ 문제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	1	2	3	4	5
④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⑥ 문제가 생기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⑦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푼다.	1	2	3	4	5
⑧ 내가 생각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풀어 나간다.	1	2	3	4	5
⑨ 내가 찾아낸 답이 정확한지 확인해 본다.	1	2	3	4	5
⑩ 내가 문제를 푼 방법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1	2	3	4	5

4. 사회 · 정서적 발달

문 1)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②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③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1	2	3	4
④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에 차례를 잘 지킨다.	1	2	3	4
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⑥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⑦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⑧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문 2)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1	2	3	4
②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③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	2	3	4
④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⑥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⑦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⑧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⑨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1	2	3	4
⑩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문 3) 다음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②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③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④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문 4) 학생이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②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③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④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⑥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1	2	3	4

문 5)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②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③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④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⑥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문 6) 여러분이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	2	3	4
②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1	2	3	4
③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④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1	2	3	4
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1	2	3	4
⑥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1	2	3	4
⑦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1	2	3	4
⑧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1	2	3	4

문 7)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1	2	3	4
② 나는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1	2	3	4
③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조심)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④ 나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문 8)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2	4	5

5. 기관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문 1)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활동이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숙제와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1	2	3	4	5
② 국·영·수·과학 등 주요과목을 배우는 것	1	2	3	4	5
③ 놀이나 문화, 취미활동을 하는 것	1	2	3	4	5
④ 센터 선생님과 일상적인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1	2	3	4	5
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	1	2	3	4	5
⑥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지내는 것	1	2	3	4	5
⑦ 식사를 하는 것	1	2	3	4	5

문 2)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1	2	3	4	5
② 선생님들은 친절하시다.	1	2	3	4	5
③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④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⑤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문 3)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휴식하는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하는 곳이 깨끗하다.	1	2	3	4	5
② 공부하는 곳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1	2	3	4	5
③ 화장실이 깨끗하다.	1	2	3	4	5
④ 식사하는 공간이 깨끗하다.	1	2	3	4	5

문 4)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이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성적이 올랐다.	1	2	3	4	5
②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1	2	3	4	5
③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1	2	3	4	5
④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⑥ 행동이 차분해졌다.	1	2	3	4	5
⑦ 성격이 밝아졌다.	1	2	3	4	5
⑧ 건강이 좋아졌다.	1	2	3	4	5
⑨ 다양한 문화생활(영화, 연극 관람 등)을 하게 되었다.	1	2	3	4	5
⑩ 나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1	2	3	4	5
⑪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⑫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다.	1	2	3	4	5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여러분 ID									여러분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3. 대구 5. 대전 2. 부산 4. 광주												
조사 일시	2012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2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2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2. 지역아동센터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조사대상 아동 · 청소년 인적사항 (종사자 응답)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두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이 조사지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조사 대상자(패널)로 선정된 아동의 개인 신상**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조사의 결과가 패널 청소년 및 아동의 복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의 개인 신상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담당연구원 Public Affairs팀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서울/제주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부산 장은성 실장 (T) 051-462-0409, 대구 남소영 실장 (T) 053-476-8841,

대전 신성애 실장 (T) 042-483-1555, 광주 나성희 실장 (T) 062-267-1983,

강원 구분남 실장 (T) 033-257-4042

SQ2) 시설명	() 지역아동센터
SQ3) 패널 아동 성명	()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학생 ID									학생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조사 일시	2012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2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2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3.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두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담당연구원 Public Affairs팀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서울/제주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부산 장은성 실장 (T) 051-462-0409, 대구 남소영 실장 (T) 053-476-8841,

대전 신성애 실장 (T) 042-483-1555, 광주 나성희 실장 (T) 062-267-1983,

강원 주분남 실장 (T) 033-257-4042

	☞ 사는 곳을 쓰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SQ1) 사는 곳	시 도	구 시 군	농 어 촌
SQ2) 이용시설명	() 지역아동센터		
SQ3) 성 명	()		
SQ4) 학교명	() 초등학교 5학년		

1. 일상생활 실태

문 1) 여러분은 5학년이 된 이후 학교를 결석(체협학습으로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있다 문 1-1)로 가세요. ② 없다 문 2)로 가세요.

문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며칠이나 결석했습니까?
아래 각 이유에 대해 결석 일수를 모두 써 주세요.

결 석 이 유	결 석 일 수
① 사고로 몸을 다쳐서	_____ 일
②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_____ 일
③ 가족 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_____ 일
④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 없이	_____ 일
⑤ 기타 _____	_____ 일

문 2) 여러분이 평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써 주세요.

항 목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토, 일, 공휴일)	
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다니지 않음	____시간 ____분
②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다니지 않음	____시간 ____분
③ 해당없음 (바로 아래 ④번으로 가세요)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④ 노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시간 ____분		____시간 ____분

문 3)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사용한다. 문 3-1)로 가세요. ② 사용하지 않는다. 문 4)로 가세요.



문 3-1)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세요.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문 3-2)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래 중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시 해 주세요.

- | | |
|---------|----------|
| ① 우리 집 | ② 친구 집 |
| ③ 학교 | ④ 학원 |
| ⑤ PC방 | ⑥ 지역아동센터 |
| ⑦ 기타() | |

문 3-3) 여러분은 다음의 이유로 1주일에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1	2	3	4
②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만화 등) 이용	1	2	3	4
③ 게임 및 오락	1	2	3	4
④ 채팅이나 메신저(싸이월드, 버디버디 등)	1	2	3	4
⑤ 전자우편(e-mail)	1	2	3	4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1	2	3	4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활동	1	2	3	4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1	2	3	4
⑨ 댓글 달기	1	2	3	4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	2	3	4

문 4) 여러분은 휴대전화(핸드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 | |
|-----------|--------------|
| ① 가지고 있다. | ② 가지고 있지 않다. |
|-----------|--------------|

문 8)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① 다른 사람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1	2	회
②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1	2	회
③ 학교의 학용품비, 준비물비를 다른 데 사용하기	1	2	회
④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회
⑤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1	2	회

문 9)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 회?
①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한 경험	1	2	회
② 학교에서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음)을 당한 경험	1	2	회
③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	1	2	회
④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맞은(폭행) 경험	1	2	회
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긴 경험	1	2	회

2. 신체적 발달

문 1)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토, 일, 공휴일)
밤 _____시에 자고 아침 _____시에 일어난다.	밤 _____시에 자고 아침 _____시에 일어난다.

문 2)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우유나 주스 등 음료수만 마신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해당됩니다.

※ 빵, 선식,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식사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① 주 0일

② 주 1~2일 ③ 주 3~5일 ④ 주 6~7일

➡ 문 2-1)로 가세요.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일주일 동안 한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O표시 해 주세요.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③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④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

⑤ 먹기 싫어서

⑥ 기타 _____

문 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O표시 해 주세요.

①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짐, 관절부상 등)

②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③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천식 등)

⑤ 안과 질환(눈병 등)

⑥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⑦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⑧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⑨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등)

⑩ 기타(성형외과 질환 등 _____)

※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으면 아래의 문 4)로 가세요.

문 3-1) 치료를 받았나요?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받고 있음 ② 일부 치료 받음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문 4)로 가세요.



문 3-2)로 가세요.

문 3-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에만 O표시 해 주세요.

- ① 많이 아프지 않아서 ② 치료비가 없어서 ③ 병원이 멀어서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⑤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가 무서워서
⑦ 귀찮아서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⑨ 기타_____

문 4)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②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③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④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3. 인지적 발달

문 1) 여러분은 다음의 과목을 2012년 1학기 동안 얼마나 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과 목	매우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① 국어	1	2	3	4	5
② 영어	1	2	3	4	5
③ 수학	1	2	3	4	5
④ 과학	1	2	3	4	5
⑤ 사회	1	2	3	4	5
⑥ 도덕	1	2	3	4	5
⑦ 실과	1	2	3	4	5
⑧ 음악	1	2	3	4	5
⑨ 미술	1	2	3	4	5
⑩ 체육	1	2	3	4	5

문 2) 여러분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2	4	5

문 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과후 교육을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받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① 학원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② 개인과외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③ 그룹과외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___시간 ___분

문 4)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②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본다.	1	2	3	4	5
③ 공부를 할 때 책이나 공책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	1	2	3	4	5
④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해 본다.	1	2	3	4	5
⑤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	1	2	3	4	5
⑥ 공부할 때 내용을 요약하거나 실제 예들을 들어본다.	1	2	3	4	5
⑦ 공부할 때, 먼저 목표(계획)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1	2	3	4	5
⑧ 밑줄을 치거나 공책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1	2	3	4	5

문 5)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모르는 말이나 내용이 생기면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②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③ 문제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	1	2	3	4	5
④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⑥ 문제가 생기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⑦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푼다.	1	2	3	4	5
⑧ 내가 생각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풀어 나간다.	1	2	3	4	5
⑨ 내가 찾아낸 답이 정확한지 확인해 본다.	1	2	3	4	5
⑩ 내가 문제를 푼 방법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1	2	3	4	5

4. 사회 · 정서적 발달

문 1)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②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③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1	2	3	4
④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에 차례를 잘 지킨다.	1	2	3	4
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⑥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⑦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⑧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문 2)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1	2	3	4
②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③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	2	3	4
④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⑥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⑦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⑧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⑨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1	2	3	4
⑩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문 3) 다음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②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③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④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문 4) 학생이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②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③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④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⑥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1	2	3	4

문 5)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②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③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④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⑥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문 6) 이번 문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마시고 다음 문 7)로 가세요.

[illegible]

문 7)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1	2	3	4
② 나는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1	2	3	4
③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조심)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④ 나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문 8)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래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2	4	5

5. 기관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문 1) 여러분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하는 활동이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생활시설에서 하는..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숙제와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1	2	3	4	5
② 국·영·수·과학 등 주요과목을 배우는 것	1	2	3	4	5
③ 놀이나 문화, 취미활동을 하는 것	1	2	3	4	5
④ 센터 선생님과 일상적인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1	2	3	4	5
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	1	2	3	4	5
⑥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지내는 것	1	2	3	4	5
⑦ 식사를 하는 것	1	2	3	4	5

문 2) 여러분이 생활하는 시설(집)의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1	2	3	4	5
② 선생님들은 친절하시다.	1	2	3	4	5
③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④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⑤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문 3)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휴식하는 생활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하는 곳이 깨끗하다.	1	2	3	4	5
② 공부하는 곳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1	2	3	4	5
③ 화장실이 깨끗하다.	1	2	3	4	5
④ 식사하는 공간이 깨끗하다.	1	2	3	4	5

문 4) 생활시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성적이 올랐다.	1	2	3	4	5
②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1	2	3	4	5
③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1	2	3	4	5
④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⑥ 행동이 차분해졌다.	1	2	3	4	5
⑦ 성격이 밝아졌다.	1	2	3	4	5
⑧ 건강이 좋아졌다.	1	2	3	4	5
⑨ 다양한 문화생활(영화, 연극 관람 등)을 하게 되었다.	1	2	3	4	5
⑩ 나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1	2	3	4	5
⑪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⑫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다.	1	2	3	4	5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여러분 ID									여러분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3. 대구 5. 대전 2. 부산 4. 광주											
조사 일시	2012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2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2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4. 아동양육시설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조사대상 아동 · 청소년 인적사항 (종사자 응답)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두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이 조사지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조사 대상자(패널)로 선정된 아동의 개인 신상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조사의 결과가 패널 청소년 및 아동의 복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의 개인 신상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담당연구원 Public Affairs팀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서울/제주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부산 장은성 실장 (T) 051-462-0409, 대구 남소영 실장 (T) 053-476-8841,
대전 신성애 실장 (T) 042-483-1555, 광주 나성희 실장 (T) 062-267-1983,
강원 주분남 실장 (T) 033-257-4042

SQ2) 시설명	() 지역아동센터
SQ3) 패널 아동 성명	()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학생 ID									학생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조사 일시	2012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2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2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2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5.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2 단계 정성조사 : 심층면접

유형	지역번호	ID
1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2011년에 응답해주신 설문조사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답변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말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자료운영본부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Public Affairs team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시설 이용 변화 아동 · 청소년 대상 질문지: 2011년과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면접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오후 오전 ____시 ____분
면접장소	
면접원 성명	
총 면접시간	____시간 ____분

도입질문

* 도입질문은 라포 형성을 위한 것으로 편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1. 방학 기간인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의 일과를 질문합니다.

* 평일과 주말의 일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기 중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2. 방학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3. 5학년이죠? 5학년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 4학년 때와 비교할 때 5학년 생활은 어떤가요?

시설 이용의 의미/평가

* 작년에는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미리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름을 확인해가세요.). 지금은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지요? 맞나요?

1. 작년에는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지금은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로, 이용하는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가 바뀌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용하는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가 바뀐으로써, 나에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의 성적, 나의 공부습관, 나의 친구관계, 부모님과 관계, 나의 꿈 등)

[2011년 다니던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의 의미(평가)]

1.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그 때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 언제쯤, 누구와 함께 갔는지
 *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2.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아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때, 숙제 등 공부, 놀이, 상담, 친구와 놀기, 식사 등의 예를 들어주세요.)
 *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즐거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지겨웠는지 등)를 확인합니다.
3.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됩니까?
 * 다니던 때가 생각날 때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 때 기분이 어떤지 등을 질문
4.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예를 들어, 선생님, 체험활동, 친구와 놀았던 것 등)
 *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가장 즐거웠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함께 확인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면 00 센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했을까요?
 * 00 센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00센터 선생님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선생님과 어떻게 지냈나요?
 * 00센터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나요?
5. 작년에 다녔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색
6.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은 작년에 다녔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이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예를 들어,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을 묻거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선생님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7.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시 다니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 있다면 그 이유?
 * 없다면 그 이유?

[2011년과는 다른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의 의미(평가)]

1. 올 해 다니고 있는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그 때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 언제쯤, 누구와 함께 갔는지
 *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2.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아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때, 숙제 등 공부, 놀이, 상담, 친구와 놀기, 식사 등의 예를 들어주세요.)
 *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즐거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지겨웠는지 등)를 확인합니다.
 *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3.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예를 들어, 선생님, 체험활동, 친구와 놀았던 것 등)
 *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가장 즐거웠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4.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색
 *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5. 올 해 다니고 있는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계속해서 다닐 의향이 있는지?
 * 있다면, 그 이유?
 * 없다면, 그 이유?
6.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은 올 해 다니고 있는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이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예를 들어,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을 묻거나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선생님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 작년과 비교할 때, 부모님의 관심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2011년 다니던 시설 이용 변화 이유와 영향

1. 작년에 다니던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지금은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마지막으로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 *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를 확인합니다.
- * 새로운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작년에 다니던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 * 새로운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게 되었을 때의 기분은?

3. 작년에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와 지금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를 비교하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 일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변화의 의미도 확인합니다.
- *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4. 맨 처음에 하루 일과를 물었었는데, 작년에 OO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와 지금 ◇◇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는 상황을 비교하면, 하루 일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3번 질문과 관련됨)

- *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변화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현재의 생활 및 관계

1. 우리 집 사는 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난한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지 등). 그 이유는?

- * 사는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 우리 집 살림살이 형편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나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지?

- *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기분)이 듭니까?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1.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 *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
 - *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 어떻게 달라지면 이용할까요?
2.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은?
 - *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나요?)
 - *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이 있나요?(닮고 싶은 인물)
 - * 꿈이 무엇인가요? 그 꿈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결정한 것인가요?
 - *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나요?
 - * 앞으로 10년 뒤(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3.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내 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이야기하기 어려워하면, 작년에 다녔거나 올 해 다니고 있는 센터(혹은 아카데미)를 생각하면서 답하도록 한다.)
 - *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데 센터(혹은 아카데미)가 도움이 될까요?

중결 질문

1.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나에게 □□□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나의 휴식처이다. 나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나에게 놀이터다.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곳이다 등등)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2 연계 정성조사 : 심층면접

유형	지역번호	ID
2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2011년에 응답해주신 설문조사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답변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말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자료운영본부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Public Affairs team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시설 이용 변화 아동 · 청소년 대상 질문지: 2011년과 달리 2012년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면접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오후 오전 ____시 ____분
면접장소	
면접원 성명	
총 면접시간	____시간 ____분

도입질문

* 도입질문은 라포 형성을 위한 것으로 편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1. 방학 기간인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의 일과를 질문합니다.

* 평일과 주말의 일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기 중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2. 방학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3. 5학년이죠? 5학년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 4학년 때와 비교할 때 5학년 생활은 어떤가요?

2011년 다니던 시설 이용의 의미/평가

* 작년에는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미리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름을 확인해주세요.)

1.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그 때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 언제쯤, 누구와 함께 갔는지

*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2.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아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때, 숙제 등 공부, 놀이, 상담, 친구와 놀기, 식사 등의 예를 들어주세요.)

*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즐거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지겨웠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 다니던 때가 생각날 때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 때 기분이 어떤지 등을 질문

4.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예를 들어, 선생님, 체험활동, 친구와 놀았던 것 등)

- *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가장 즐거웠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함께 확인합니다.)
- * 00센터 선생님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선생님과 어떻게 지냈나요?
- * 00센터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나요?

5. 작년에 다녔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색

6. 00 센터를 다니지 않으면서, 나에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의 성적, 나의 공부습관, 나의 친구관계, 부모님과 관계, 나의 꿈 등)

7.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은 작년에 다녔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 *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이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예를 들어,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을 묻거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선생님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8.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시 다니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 * 있다면 그 이유?
- * 없다면 그 이유?

2011년 다니던 시설 이용 중단 이유와 영향

1.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지금은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마지막으로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 *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를 확인합니다.
- * 무엇이 달라지면 센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했을까요?
- * 센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작년에 다니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3.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와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일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변화의 의미도 확인합니다.
 *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4. 맨 처음에 하루 일과를 물었었는데, 작년에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닐 때와 비교하면 일과의 변화는 어떠한지?(3번 질문과 관련됨)
 *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변화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현재의 생활 및 관계

1. 우리 집 사는 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난한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지 등). 그 이유는?
 * 사는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 집 살림살이 형편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나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지?
 *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기분)이 듭니까?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1. 앞으로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
 *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 어떻게 달라지면 이용할까요?
2.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은?
 *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나요?)
 *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이 있나요?(닮고 싶은 인물)
 * 꿈이 무엇인가요? 그 꿈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결정한 것인가요?
 *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나요?
 * 앞으로 10년 뒤(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3.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내 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이야기하기 어려워하면, 작년에 다녔던 센터(혹은 아카데미)를 생각하면서 답하도록 한다.)
 *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데 센터(혹은 아카데미)가 도움이 될까요?

종결 질문

1.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나에게 □□□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나의 휴식처이다. 나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나에게 놀이터다.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곳이다 등등)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2 연계 정성조사 : 심층면접

유형	지역번호	ID
3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2011년에 응답해주신 설문조사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답변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말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자료운영본부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Public Affairs team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시설 이용 변화 아동 · 청소년 대상 질문지: 2011년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면접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오후 오전 ____시 ____분
면접장소	
면접원 성명	
총 면접시간	____시간 ____분

도입질문

* 도입질문은 라포 형성을 위한 것으로 편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1. 방학 기간인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의 일과를 질문합니다.

* 평일과 주말의 일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기 중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2. 방학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3. 5학년이죠? 5학년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 4학년 때와 비교할 때 5학년 생활은 어떤가요?

시설 이용의 의미/평가

* 작년부터 계속해서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미리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름을 확인해가세요.).

1.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그 때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 언제쯤, 누구와 함께 갔는지

*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2.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아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때, 숙제 등 공부, 놀이, 상담, 친구와 놀기, 식사 등의 예를 들어주세요.)

*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즐거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지겨웠는지 등)를 확인합니다.

3.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됩니까?

4.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예를 들어, 선생님, 체험활동, 친구와 놀았던 것 등)

*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가장 즐거웠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함께 확인합니다.)

- * 평소에(센터 혹은 방과후아카데미 밖에서) 00센터 선생님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나요?
 - * 평소에(센터 혹은 방과후아카데미 밖에서) 00센터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5.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색
6. 00 센터를 다니면서 나에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의 성적, 나의 공부습관, 나의 친구관계, 부모님과과의 관계, 나의 꿈 등)
7.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은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 * 부모님(혹은 함께 사는 어른)이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예를 들어,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을 묻거나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선생님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8. 00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 이외에 다른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 * 있다면 그 이유?
 - * 없다면 그 이유?

2017년 다니던 시설 계속 이용 이유와 영향

1. 계속해서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다니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그 때는 어떻게 했는지?
 - * (그냥 다녀요) 라고 응답하는 경우
 - 다니지 않다고 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어떻게 할까요?
 - * 00 센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만약,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 * 일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변화의

의미도 확인합니다.

*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3. 맨 처음에 하루 일과를 물었었는데, 만약 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지 않는다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3번 질문과 관련됨)

*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변화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현재의 생활 및 관계

1. 우리 집 사는 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난한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지 등). 그 이유는?

* 사는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 집 살림살이 형편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나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지?

*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기분)이 듭니까?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1.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
 *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 어떻게 달라지면 이용할까요?
2.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은?
 *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나요?)
 *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이 있나요?(답고 싶은 인물)
 * 꿈이 무엇인가요? 그 꿈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결정한 것인가요?
 *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나요?
 * 앞으로 10년 뒤(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3.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내 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데 센터(혹은 아카데미)가 도움이 될까요?

종결 질문

1.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혹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나에게 □□□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나의 휴식처이다. 나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나에게 놀이터다.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곳이다 등등)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2 연계 정성조사 : 심층면접

유형	지역번호	ID
4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2011년에 응답해주신 설문조사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답변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말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조사관련 문의처].

(주) Ipsos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F
자료운영본부 윤주희 차장 (T) 02-6464-5436
Public Affairs team 이영민 대리 (T) 02-6464-5133

<시설 이용 변화 아동 · 청소년 대상 질문지: 양육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면접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오후 오전 ____시 ____분
면접장소	
면접원 성명	
총 면접시간	____시간 ____분

도입질문

* 도입질문은 라포 형성을 위한 것으로 편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1. 방학 기간인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의 일과를 질문합니다.

* 평일과 주말의 일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기 중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2. 방학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3. 5학년이죠? 5학년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 4학년 때와 비교할 때 5학년 생활은 어떤가요?

시설 이용의 의미/평가

* 작년에는 00 시설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미리 양육시설의 이름을 확인해가세요.)

1. 시설에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나요? 그 때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 언제쯤, 누구와 함께 갔는지

*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 이유를 언제 알게 되었나요?

* 생애사적 정보 수집

2.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아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때, 숙제 등 공부, 놀이, 상담, 친구와 놀기, 식사 등의 예를 들어주세요.)

*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즐거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지겨웠는지 등)를 확인합니다.

3. 시설에서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됩니까?

* 시설에서의 생활이 생각날 때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 때 기분이 어떤지 등을 질문

4. 시설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예를 들어, 선생님, 체험활동, 친구와 놀았던 것 등)
 - *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가장 즐거웠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함께 확인합니다.)
 - *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시설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
 - * 00 시설 선생님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선생님과 어떻게 지냈나요?
 - * 00 시설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나요?(언제, 어떤 내용)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나요?
5. 시설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색
6. 시설에서 생활할 때, 부모님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 * 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시설 생활 중의 원가족 교류의 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7. 시설에서 생활하던 시기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3번 질문과 관련됨)(집으로 돌아온 후 시설을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까?)
 - *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
 - * 없다면 이유?

원가정 복귀 과정 및 영향

1. 어떻게 해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까?
 - * 재결합 과정(시설의 노력, 본인의 노력, 부모의 노력 등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 * 재결합 당시의 생각(기대, 흥분, 걱정, 두려움 등)
 - *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과 대처방법
2. 최근에 가족과 함께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후 가장 기억나는 일은 무엇입니까?(가장 즐거웠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함께 확인한다.)
3. 시설에서 생활할 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 *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일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변화의 의미도 확인합니다.
 - *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4. 맨 처음에 하루 일과를 물었었는데, 시설에서 생활할 때와 지금 집에서 지낼 때를 비교하면, 하루 일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3번 질문과 관련됨)

*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변화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5.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3번, 4번과 관련됨)

* 물리적으로 같이 살 때와 따로 살 때의 차이가 있나요?

현재의 생활 및 관계

1. 우리 집 사는 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난한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지 등). 그 이유는?

* 사는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 집 살림살이 형편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 시설에서 살 때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나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지?

*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기분)이 듭니까?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1.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내용과 의미를 확인합니다.
2.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은?
*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나요?)
*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모습이 있나요?(닮고 싶은 인물)
* 꿈이 무엇인가요? 그 꿈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결정한 것인가요?
*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나요?
* 앞으로 10년 뒤(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3.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 시설에서의 생활은 내 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내 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데 센터(혹은 아카데미)가 도움이 될까요?

중결 질문

1.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육시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시설은 나에게 □□□다.” (예를 들어, 양육시설은 놀이터이다. 양육시설은 제2의 고향이다. 등등)

2. 마지막으로, 가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은 나에게 □□□다.”

Abstract

A Panel Survey on Children &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Ⅲ

– Focusing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longitudinal surve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an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life changes in their growth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m.

To that end, a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1,000 children and youths at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 academies and child care facilities nationwide in 2012 so as to analyze their everyday lives and attitudes for a comparison with the survey result from 2011.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 was compared also with tha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amples, including a specific comparison with their peers in low income famili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the 1st and 2nd rounds of surveys) and the cross comparison with KCYPS including their peers in low income families; First, 10.2%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responded they had experienced violence during the first semester at the frequency of 5.57 times on average. This ratio was similar to that (12.2%) of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had committed delinquency, but the frequency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delinquency (1.92 times).

Second, the school achieve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as measured by their average score

across subjects declined from 3.39 to 3.30 points compared with 2011. Except for social studies, their performances declined across all the other subjects. Third, both the meta cognition (3.26) and the problem solving skill (3.41)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deteriorated compared to the year before. Fourth, the ratio of the children and youths who attended neither cram schools nor private tutoring was 77% of those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and 85.9% of those at after-school academies. By contrast, the ratio fell to 50% for the children and youths at child care facilities, 25.7% in low income families and 9.4% in ordinary families.

Fifth, the self elasticity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improved to 2.96 on average compared to 2011,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their peers in ordinary families but higher than those in low income families. Sixth, satisfaction rate with the activities at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by 0.5 to 3.96 compared to 2011.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elfare facilities had positive impact on their lives, the average score declined to 3.86 compared with 2011.

Seventh, in terms of subjective evaluation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ren and youths in ordinary families showed relatively higher academic performance than their peers in the other four groups. Eighth,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regarding the use of the welfare facilities and it was found that the children and youths evaluated the welfare facilities by the following standards; a “place to hang out with friends (including siblings)” in the friend category, a “place to get assistance for study” in the study category, a “place which provides help and assures freedom” in the ordinary life (help) category and a “place where I can get kind guidance from teachers with expertise” in the teacher category.

key words : longitudinal survey,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people who stay at welfare facilities, children, youths, community children center, after-school academy and child care facilities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황진구·김정주·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김지경·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이광호·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성윤숙·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박병식·김진호·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진로준비 / 안선영·김희진·강영배·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김승경·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박영균·유성렬·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손경원·신태수·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박균열·홍승훈·윤영돈·유숙희·전종희
- 12-R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강지명·조윤오·윤옥경
- 12-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서정아·배상률·성은모·김지영·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범죄유발적 자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자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토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와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집필진(연구진 외)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전명기 (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이은주 (파리 9대학 사회학 박사)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일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

윤문 및 감수

김진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자문진

김도균 (보건복지부 사무관)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노옥균 (보건복지부 사무관)
박연서 (보건복지부 사무관)
박영숙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단장)
박지혜 (과천시립 부림지역아동센터 소장)
유명옥 (명진들꽃사랑마을 소장)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이혜경 (한국아동복지협회 팀장)
한도희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이외에도 조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 12-R0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 문 사 02) 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348-4 93330